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학위논문

삼한시대 진한(辰韓)지역 취락연구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Jinhan Region during
the Three Hans Period

2023년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김나영

삼한시대 진한(辰韓)지역 취락연구

지도교수 전 호 태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김나영

김나영의 문학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이정서	
심사위원	미창규	
심사위원	안재호	
심사위원	양상환	
심사위원	전호래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3년 8월

삼한시대 진한(辰韓)지역 취락연구

김나영

이 연구는 신라 취락의 중요한 모체가 되는 삼한시대 진한지역 취락에 주목하여, 사로국과 주변 소국들의 취락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고고자료와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취락의 협의적 측면과 광의적 측면에서 진한지역 취락에 접근하였다. 취락의 협의적 측면에서는 진한지역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기원과 출현 의미 등을 검토하였다. 광의적 측면에서는 취락의 다양한 구성 시설을 검토하여 진한지역 취락의 성격과 전개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한지역의 읍락(邑落)과 국(國)의 양상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진한지역 취락의 시기는 I~IV기로 구분된다. I기는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4세기 후엽~기원전 3세기이다. II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2세기이다. III기는 전기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전엽~기원 2세기 중엽이다. IV기는 후기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2세기 후엽~기원 4세기 초·전엽이다.

진한지역 주거지는 생활면의 위치에 따라 수혈주거지와 지상식 건물지로 구분된다. 삼한시대 진한지역은 청동기시대 이후 다양한 사회 변동 속에서 외래문화가 유입되면서 수혈 주거문화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즉, 진한 형성기에는 기존 재지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외래 이주민들의 주거지가 공존 및 혼재하거나 두 주거문화가 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 원형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주거 형태는 평면 원형계 또는 방형계에 무시설식 노시설을 갖춘 단순한 구조를 보이거나 부정형한 수혈의 형태가 많다. 이후 기원전 2세기의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에 들어서면, 평면 방형계 주거지에 무시설식 노시설을 갖춘 형태가 재지의 주거문화로 정착하게 된다.

기원전 1세기 전엽에는 새로운 문화 파동과 함께 남해안과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여 영남 내륙까지 연결되는 광역의 교역망을 통해 평면 원형계에 돌로 만든 구들 주거지가 울산 교동리유적과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에 유입된다. 원형계 주거지내 돌로 만든 구들시설은 점차 지역의 환경과 여건 등에 맞게 점토를 이용해 만들어지면서 재지의 주거문화로 성행한다. 기원 2세기 후엽에는 경주 황성동유적을 중심으로 새롭게 평면 방형계 주거지가 출현하여 영남 중부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다. 기원 3세기 중·후엽에는 진한과 변한의 주거지가 뚜렷하게 분화되고, 영남 중부와 동부, 영남 서부와 남해안 지역권으로 구분되는 주거문화의 지역성이 나타난다.

진한지역에 새롭게 확인되는 방형계 4주식 주거지는 벽주혈의 유무에 따라 4주식과 4주+벽주식 주거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두 주거유형의 각 지역권별 주거양상과 분포 양상 등을 검토한 결과, 4주식의 방형계 주거유형은 주로 영남 서부와 남해안 지역에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한·백제계 주거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4주+벽주식 방형계 주거유형은 영남 중부 및 동부지역에서 주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3세기대 자료로 미루어 호남지역보다는 호서지역과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특히,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4주+벽주식 방형계 주거유형과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는 시기는 기원 3세기대로 이 시기에 신라 사로국이 호서의 마한지역과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한 결과, 교역과 교류 등의 양상이 여러 물질자료에서 확인된다. 기원 3세기 중·후엽부터 진한과 변한 지역의 주거 형태가 분화되는데, 그 원인과 배경은 진한이 마한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 교류 등의 관련 속에서 방형계 4주식 주거 문화를 수용한 부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상식 건물지는 바닥의 위치에 따라 지면식과 고상식으로 구분된다. 고상식 건물지는 I~III기까지는 1×1칸 고상식 구조가 주류를 이루며, 취락내 축조 빈도율은 높지 않다. IV기에는 1×1칸, 2×1칸, 2×2칸 등 고상식의 구조가 다양해진다. 지면식 건물지는 주로 IV기에 유행하며, 벽주식, 4주+벽주식 등 수혈주거지의 기둥배치와 유사한 형태, 열쇠 모양을 한 대규모의 특수한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상식 건물지는 취락내 일반 가옥, 수장층 가옥, 창고, 공동 의례나 집회를 위한 특수 건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한지역 취락의 유형은 크게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된다. 중심취락은 상위 취락과 하위취락으로 세분되며, 주변취락은 기능과 성격 등에 따라 일반취락과 특수기능취락으로 세분된다. 진한지역 취락의 전개는 시기에 따라 형성, 정착, 변동과 성장, 분화와 발전으로 나타난다. I기 취락은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진한 취락의 형성기라 할 수 있다. 진한지역에 유이민들이 유입되면서 주거지, 분묘 등 기존 재지민의 문화와 공존 및 융합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분묘는 석관묘, 옹관묘 등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된 묘제 문화가 지속된다. II기 취락은 삼각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I기에 이어 계속해서 유이민들이 유입되어 소규모 단위의 취락들이 형성되고 정착이 이루어진다. 대체로 I·II기 취락은 의례 공간을 중심으로 취락 간 통합의 구심점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II기 취락은 전기와질토기를 표지로하며, 취락이 이전 시기보다 성장하고 재편되는 양상이 간취된다. 이 시기에는 주거지, 분묘 등의 시설에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출현한다. 주거지는 앞 시기 재지의 평면 방형계 주거지가 지속되면서 새롭게 평면 원형계에 부뚜막식 및 구들식 노시설을 갖춘 주거지가 출현하여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분묘의 축조에서는 수장묘의 단독 조성과 그 하위 분묘군의 군집 축조의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울산 교동리유적, 울산 달천유적, 경주 황성동유적 등에서 중심취락과 특수기능취락이 조성된다.

IV기 취락은 후기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진한 취락이 분화와 발전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주거지는 부뚜막식 및 구들식 노시설을 갖춘 평면 원형계 주거지가 지속되면서 새롭게 평면 방형계 주거지가 출현한다. 특히, IV기에 이르면 울산 하대유적과 포항 옥성리유적 등에서 대규모 중심고분군의 조성, 울산 교동리와 경산 임당 유적에서 대규모 중심취락의 조성, 경주 황성동유적과 울산 중산동유적 일대에서 대규모 특수기능취락지의 조성 등을 통해 당시 읍락(邑落)과 국(國)의 다양한 변동과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 · II기 진한지역에는 개인 유력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대규모 중심취락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당시 취락들은 소규모 읍락 단위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범위는 대략 5km로 추정된다. III기에는 기원전 1세기 전엽을 기점으로 진한지역에 수장층의 존재가 확인되는 분묘가 조성되고, 중심취락과 그 주변에 특수기능취락 등이 출현하는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소국(小國)이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國)의 규모와 범위는 대국(大國)과 소국(小國)의 차이가 있고, 시기에 따라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위는 대략 10~15km로 추정된다. 이 시기 울산지역의 창평동 810번지유적과 달천유적 등의 취락 자료와 경주 도심지구에 분포하는 탑동 목관묘군, 황성동 제철유적, 나정유적 등의 취락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당시 읍락이 하나의 단위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생산활동과 종교적 의식행사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 3세기 중 · 후엽에는 국읍(國邑)과 단위 읍락 안의 상위와 하위 취락, 그리고 중심과 주변 취락과의 분포 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읍으로 추정되는 경주 월성지구와 경산 임당유적, 읍락의 중심취락으로 추정되는 울산 교동리유적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상위 취락은 넓은 범위의 조망과 방어에 유리한 고지(高地)의 구릉지에 입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호와 목책 등과 같은 방어 · 경계시설을 설치하고, 읍락 구성원들의 결속과 통합을 도모하는 종교시설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위취락은 상위취락에 종속되어 유기적으로 주거역을 형성하며 인구집주(人口集住)를 이루고, 상위취락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는 다양한 생업활동을 영위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심취락의 주변에 분포하는 취락은 보통 3~5km의 범위 내에 분포하며, 이들 취락 간에는 정치 · 경제 등의 중요한 사회 관계망(네트워크)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어 : 삼한시대, 진한지역, 수혈주거지, 지상식 건물지, 주거문화, 취락, 중심 취락, 주변취락, 읍락(邑落), 국읍(國邑)

《목 차》

I. 서론	1
1. 선행연구 검토	2
2. 연구목적과 방법	10
II. 주거지의 구조와 지역별 양상	13
1. 유적의 편년과 기준	13
2. 유적의 분포 현황	17
3. 수혈주거지 검토	29
1) 주거지 구조 속성과 주거유형 검토	29
2) 지역별 주거 양상	36
3) 주거유형의 변화양상	65
4. 지상식 건물지 검토	70
III. 진한지역 주거지의 전개와 문화	76
1. 진한 형성기 주거 양상	76
2. 원형계 구들 주거지의 출현과 전개	78
3. 변·진한 주거지의 분화와 지역성	86
4. 진한지역 방형계 4주식 주거지의 전개와 출현 의미	95
1) 자료 검토	95
2) 4주식 주거지의 구조 속성과 유형 설정	101
3) 분포양상 및 지역성	105
4) 진한지역 방형계 4주식 주거지의 기원과 출현 의미	110
5. 취락 자료로 본 고대 진한의 주거문화	115
1) 수혈 가옥의 양상	116
2) 지상 가옥의 양상	123

IV. 취락의 시설 검토	127
1. 생산시설	127
1) 제철시설	127
2) 농경 관련 시설	130
3) 수공업 관련 시설	132
2. 의례시설	133
1) 주구형유구 및 제단시설	133
2) 환호	134
3) 입주수혈	135
4) 기타	139
3. 방어 · 경계시설	140
4. 매장시설	141
V. 진한지역 취락의 성격과 전개양상	151
1. 취락의 성격	151
1) 취락의 입지	151
2) 취락의 유형	152
2. 취락의 구조와 전개양상	156
1) 취락의 형성(I기)	156
2) 취락의 정착(II기)	159
3) 취락의 변동과 성장(III기)	161
4) 취락의 분화와 발전(IV기)	165
3. 취락 자료로 본 읍락(邑落)과 국(國)의 양상	172
VI. 결론	184
《참고문헌》	188
ABSTRACT	196

《표 목차》

[표 2-1]	진한지역 취락유적의 편년과 기준	13
[표 2-2]	경주지역의 시기별 유적 현황	18
[표 2-3]	울산지역의 시기별 유적 현황	20
[표 2-4]	포항-영천 지역 시기별 유적 현황	22
[표 2-5]	경산지역의 시기별 유적 현황	24
[표 2-6]	대구지역의 시기별 유적 현황	25
[표 2-7]	청도, 김천 지역의 유적 현황	26
[표 2-8]	삼한시대 경주지역 주거유적 현황	38
[표 2-9]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 구조 속성표	39
[표 2-10]	경주 황성동유적 시기별 주거지 양상	42
[표 2-11]	삼한시대 울산지역 주거유적 현황	48
[표 2-12]	삼한시대 포항지역 주거유적 현황	53
[표 2-13]	포항 호동유적 부뚜막 아궁이부의 위치	56
[표 2-14]	삼한시대 영천지역 주거유적 현황	57
[표 2-15]	삼한시대 경산지역 주거유적 현황	58
[표 2-16]	경산 임당유적 시기별 주거지 양상	60
[표 2-17]	삼한시대 대구지역 주거유적 현황	62
[표 2-18]	대구 봉무동유적 시기별 주거지 양상	63
[표 2-19]	김천, 청도지역 주거유적 현황	65
[표 2-20]	경주지역 시기별 주거유형의 변화양상.....	66
[표 2-21]	울산지역 시기별 주거유형의 변화양상	66
[표 2-22]	대구-경산 지역 시기별 주거유형의 변화양상	67
[표 2-23]	울산 교동리유적 고상식 건물지의 구조별 점유율	73
[표 3-1]	진한지역 I · II기 주거지의 평면형태	76
[표 3-2]	변한지역 III~IV기 주거유적 현황	87
[표 3-3]	삼한시대 영남지방 지역권별 주거지의 특징	89
[표 3-4]	영남지방 삼한 · 삼국시대 4주식 주거유적 현황	97

[표 3-5]	영남지방 삼한 · 삼국시대 4주식 주거유적 시기별 분포표	100
[표 3-6]	4주식 · 4주+ 벽주식 주거유형 노시설 수량(비율%)	102
[표 3-7]	각 유형별 평면 면적과 입지 비교	103
[표 3-8]	4주식 · 4주+ 벽주식 주거유형 벽구와 배수구 수량(비율%)	103
[표 3-9]	4주식 · 4주+ 벽주식 주거유형의 구조 및 특징	104
[표 3-10]	각 지역권별 4주식 · 4주+ 벽주식 주거유형 분포양상	105
[표 3-11]	삼한 · 삼국시대 동부지역권 고상식 건물지의 구조별 수량	123
[표 4-1]	경주 황성동유적 제철로의 공간 분포	127
[표 4-2]	목관묘 부장유물과 상징적 표상	147
[표 5-1]	진한지역 시기별 취락의 입지 양상	151
[표 5-2]	삼한시대 진한지역 유적의 취락내 구성 시설	154
[표 5-3]	삼한시대 진한지역 3세기대 읍락의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분포 양상	181

《도면 목차》

[도면 2-1]	영남지방 와질토기 편년	15
[도면 2-2]	삼한시대 진한지역 유적 분포도	27
[도면 2-3]	평면형태에 따른 기둥배치의 유형분류	32
[도면 2-4]	무시설식 노시설의 분류	33
[도면 2-5]	부뚜막 · 구들식 노시설의 세부 명칭 모식도	33
[도면 2-6]	위치에 따른 부뚜막 · 구들식 노시설의 분류 모식도	34
[도면 2-7]	울산 입암리유적 부석식 노시설	34
[도면 2-8]	원형계(Ⅰ)와 방형계(Ⅱ) 주거지의 유형분류	36
[도면 2-9]	경주지역 Ⅰ기, Ⅱ기, Ⅲ-1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37
[도면 2-10]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 면적 도수 분포도	40
[도면 2-11]	경주 황성동유적 시기별 주거지의 분포양상	41

[도면 2-12]	경주 황성동유적 III-1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43
[도면 2-13]	경주 황성동유적 IV-1기 주거지	45
[도면 2-14]	경주 황성동유적 IV-1기 주거지 출토유물	46
[도면 2-15]	경주 황성동유적 IV-2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47
[도면 2-16]	울산지역 I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49
[도면 2-17]	울산지역 II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50
[도면 2-18]	울산지역 III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51
[도면 2-19]	울산지역 IV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52
[도면 2-20]	포항지역 II기 · IV-1기 · IV-2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55
[도면 2-21]	경산 임당유적 IV-1기 · IV-2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59
[도면 2-22]	대구지역 I기, II기, III기, IV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64
[도면 2-23]	삼한시대 진한지역 주거유형의 변화양상	68
[도면 2-24]	삼한시대 진한지역 시기별 지상식 건물지	71
[도면 2-25]	경산 임당유적 F지구 주구부 건물지와 I지구 주거지	72
[도면 2-26]	김천 모암동유적 25호 주거지	74
[도면 3-1]	변한지역 I기 주거지	76
[도면 3-2]	김해 구산동유적의 주거지 내부 벽부식 노	77
[도면 3-3]	구들의 발생과 확산 과정	80
[도면 3-4]	구들의 발생과 발달과정 모식도	82
[도면 3-5]	변 · 진한지역 초기 구들 주거지	83
[도면 3-6]	중국 동북, 서북한 지역의 구들주거지	84
[도면 3-7]	영남 서부지역권의 IV기 주거지	90
[도면 3-8]	영남 서부지역권의 IV기 주거지 출토유물	91
[도면 3-9]	영남 남해안지역권의 IV기 주거지 출토유물	92
[도면 3-10]	영남 남해안지역권의 IV기 주거지	93
[도면 3-11]	영남지방 삼한 · 삼국시대 4주식 주거유적 분포도	96
[도면 3-12]	4주식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기둥배치 분류	102
[도면 3-13]	4주식(左) · 4주+벽주식(右) 주거유형 면적 비율	103
[도면 3-14]	4주식 · 4주+벽주식 주거유형 분포양상	106
[도면 3-15]	영남 동부(上) · 중부(下)지역권 4주식 주거지와 출토유물	107
[도면 3-16]	영남 서부(上) · 남해안(下)지역권 4주식 주거지와 출토유물	109

[도면 3-17]	호서지역 4주+ 벽주식 주거지	111
[도면 3-18]	김해 봉황동유적 출토 가형토기	117
[도면 3-19]	가형토기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2	118
[도면 3-20]	가형토기 출입시설의 형태와 복원 모형	118
[도면 3-21]	영남 동부지역 삼한(左) · 삼국시대(右) 주거지 규모 비교	119
[도면 3-22]	주변 지역의 특수 대형 건물지	120
[도면 3-23]	부산 가동 고분군(I-2호 석곽묘 하부 목곽묘) 출토 가형토기 ...	122
[도면 3-24]	신라 · 가야의 고상 창고형 토기	124
[도면 3-25]	마선구 1호묘(左)와 덕흥리 고분군(右)의 부경 벽화	124
[도면 4-1]	경주 황성동유적 제철유구의 공간구분과 노의 유형	128
[도면 4-2]	경산 중산동 200번지유적 경작유구	130
[도면 4-3]	농경문청동기와 진주 대평리 어은 I 지구유적	132
[도면 4-4]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주구형유구 및 제단시설	133
[도면 4-5]	울산 교동리 192-37유적 환호	134
[도면 4-6]	경주 나정유적 입주 의례 관련 수혈 및 환호	134
[도면 4-7]	경주 나정유적 수혈 내 기둥 초석(楚石)시설	135
[도면 4-8]	울산 교동리유적과 광주 동림동유적의 입주수혈	136
[도면 4-9]	경산 임당 저습지유적 주혈군	137
[도면 4-10]	마한지역 입주 의례 사례(해남 안호리 고분 2 · 3지점)	138
[도면 4-11]	울산 달천유적 환호	140
[도면 4-12]	목관묘유적 위신재의 분류	142
[도면 4-13]	Ⅲ기(한경 및 방제경) 분묘유적 부장 유물 출토율	143
[도면 4-14]	Ⅲ기(한경 및 방제경) 청동제 의기 출토 분묘유적 분포도	143
[도면 4-15]	경주 탑동 21-3·4번지 1호묘(1)와 사라리 130호묘(2)	145
[도면 4-16]	경산 하양 양지리 1호 목관묘	146
[도면 4-17]	포항 옥성리 78호 목곽묘(1)와 울산 하대 44호 목곽묘(2)	149
[도면 5-1]	삼한시대 진한지역 취락유형 구분 모식도	153
[도면 5-2]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 취락의 양상	157
[도면 5-3]	대구 각산동 914-1번지 취락의 양상	158

[도면 5-4]	울산 중산동 약수Ⅱ 취락의 양상	159
[도면 5-5]	대구 칠곡 3택지 취락 양상	160
[도면 5-6]	울산지역 Ⅲ기 중심취락(교동리와 신화리 일대) 경관	163
[도면 5-7]	울주 입암리유적과 중부지방의 주거지 및 출토유물	165
[도면 5-8]	Ⅳ-2기 울산 교동리유적 중심취락의 내부 구조	167
[도면 5-9]	경산 임당 F지구 취락 및 I지구 취락의 양상	170
[도면 5-10]	삼한시대 경주지역의 시기별 관련유적의 분포양상	172
[도면 5-11]	진한지역 Ⅲ~Ⅳ기 중심 고분군 분포도	175
[도면 5-12]	문헌 기록에 나오는 신라 건국 관련 유적도	177

I. 서론

고대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 진한, 변한 등 삼한(三韓) 연맹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진한(辰韓)은 12개의 제국(諸國)으로 구성된 정치체로 지금의 경상도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기록을 토대로 진·변한을 구분한 성과에 따르면,¹⁾ 진한 12국의 영역은 낙동강 동쪽 지역의 대부분과 서쪽 지역의 일부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한과 관련된 연구는 문헌사학과 고고학 분야에서 주된 관심사였다. 연구들은 문헌기록과 분묘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 정치체의 발전과 성격, 그리고 사회적 계층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진한(辰韓)의 사회와 문화를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주거지, 분묘, 의례유구 등 다양한 구성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라는 진한의 구성 세력 중 하나인 사로국을 모체로 탄생하였다. 때문에 신라지역의 취락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진한지역의 취락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라지역의 취락은 돌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을 것이다.

진한지역 취락연구는 현재까지 주거지 자료를 중심으로 구조, 변천, 지역성 등의 연구에 집중되었다. 경주 황성동과 경산 임당 취락 등 유적 단위의 연구가 있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진한지역의 취락연구는 영남지방의 주거지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진한지역의 취락이 언제 형성되었으며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없었다. 본 연구는 영남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로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한지역의 취락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진한 내 맹주국인 사로국과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었던 소국들의 취락 형성과정, 내부 구조, 전개양상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취락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이루는 것은 주거지라 할 수 있다. 협의적 측면에서 보면, 취락은 가옥의 모임만을 총칭하는 개념이 된다. 반면 광의적 측면의 취락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경작지, 도로망, 패총과 같은 쓰레기터, 분묘, 가마터(요지), 사회 공동 건물지, 의례(제사)유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²⁾ 이처럼 취락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여러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반시설의 특징에 따라 취락의 구조, 기능, 성격, 위계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광의적 측면의 취락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취락의 개별 구성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주거지가 취락

1) 이형우, 2002, 「진·변한 제국의 위치와 존재양태」,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 홍경희, 1985, 『촌락지리학』, 법문사, 서울.
추연식, 1994, 「취락고고학의 세계적 연구경향-한국 취락고고학의 전망에 대신하여」, 『마을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45쪽

내에서 생활 전반의 중심적 토대가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취락의 협의적 측면에서 진한지역 주거지의 형성과 전개양상을 검토하였다. 또한, 광의적 측면에서는 취락의 구성 시설들을 검토하여 진한지역 취락의 성격, 구조와 전개, 읍락과 국(國)의 양상 등을 살펴 진한지역 고대문화의 일면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삼한시대 진한지역 취락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선행연구 검토

취락고고학(마을 고고학, 주거지 고고학)이 제창된 이래, 그 중요성의 지적과 함께 다양한 방법론과 가설이 제시되었다. 선사시대, 특히 청동기시대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의 취락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취락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의 취락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진주 남강유적, 경주 황성동유적, 경산 임당유적, 대구 시지지구유적 등의 취락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취락유적의 발굴조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락연구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진한지역 취락연구는 영남지방 특히 변·진한 주거지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한지역뿐만 아니라 영남지방 전체를 대상으로 취락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영남지방의 삼한시대 취락연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부진한 편이다. 연구분야는 이 시기 문헌자료가 빈약하여, 역사학계보다는 주로 발굴자료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 고고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먼저, 고고학 분야의 취락연구는 광의적 측면보다는 주로 협의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은 주거지 자료를 중심으로 노시설의 기원과 전개, 주거지의 구조, 변천, 지역성 등을 밝히는데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삼한시대 영남지방의 주거지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임영옥에 의해 이루어졌다. 임영옥³⁾은 주거지의 구조 속성을 검토한 후 평면형태와 기둥배치 방식을 중심으로 주거유형을 분류하고 그 변화과정을 3단계로 설정하였다. 1단계는 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가 공존하는 시기(기원전후~기원후 1세기 말)이고, 2단계는 방형주거지가 사라지고 원형주거지로 대체되며 주거지 내부구조 중 기둥설치법과 벽체 설치가 활발해지는 시기(2세기 초~2세기 말)이며, 3단계는 원형주거지가 장타원형화 되고 내부공간의 활용이 극대화되는 시기(2세기 말~3세기 중엽)로 보았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영남지방의 삼한시대 주거지를 대상으로 연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거지의 연대를 설정할 때 출토유물을 통한 검증보다는 주거지 간 중복관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자료를 보면 3세기대 주거지 자료가 중심이며, 주로 영남서부지역인 변한의 주거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수홍⁴⁾은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지 자료를 검

3) 임영옥, 2000, 『영남지방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이수홍, 2007, 「동남부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편년 및 지역성」, 『영남고고학보』 40, 영남고고학회.

토하여 주거지의 변화와 출토유물을 통해 기존에 청동기시대 중기로 알려진 유구 중 일부는 후기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검토 대상 자료의 시기를 3시기로 나누었다. 1기는 울산식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거나 울산식주거지에서 변모한 주거지에서 중기말의 특징요소인 무문양의 심발형토기가 출토되는 시기, 2기는 울산식주거지에서 이탈한 주거지에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시기, 3기는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으로 일변하여 아궁이가 벽쪽에 설치되며 삼각구연점토대토기와 와질토기 유물이 공반되는 시기로 보았다. 이 연구는 동남부지역의 청동기시대 중·후기부터 삼한시대로 이어지는 주거문화의 연결고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주원⁵⁾은 낙동강 하류지역 주거지의 전개양상을 연구하였다. 분석 자료는 기원전 2세기 중엽에서 기원 2세기에 해당하는 김해, 창원, 부산 지역의 5km 내외에 위치하는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 노시설, 주혈 배치를 조합하여 7가지 형식을 도출하고, 3단계로 시기를 설정하였다. 각 단계별 주거지를 자연환경, 주변 유적,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전개과정을 검토하였다. 낙동강 하류역의 주거지는 해안 및 하천 주변 구릉에 입지하여 안전을 도모하였고 외부와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성장한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변·진한 지역 중 김해, 부산, 창원을 포함하는 낙동강 하류역의 주거지와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과의 비교를 통해 전개양상을 검토한 부분이 주목된다. 그러나 연구 대상 지역 외에 낙동강 하류역과 인접한 지역의 주거문화와 비교사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외에도 주거지의 내부 구조 중 하나인 부뚜막과 구들시설에 대한 연구⁶⁾가 큰 비중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삼한시대에 새로운 변화 중 하나인 노시설의 분석을 통해 주거지의 기원과 계통, 변천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구들의 기원과 계통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구들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고구려설, 북옥저설(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고조선설, 중원지방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송기호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와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구들이 '자바이칼-몽골 북부(북흥노)와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북옥저)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였다는 '다원설'을 제기하였고, 이후 많은 연구자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최근 오승환은 그동안 구들의 기원지로 추정되어온 지역에 대한 검증연구를 통해 이 지역이 기원지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최초의 온돌은 신석기~전국시대에까지 부뚜막이 확인되는 중국 내몽고자치구 흥륭구유적에서 전형적 'ㄱ'자형 온돌이 발생한

5) 하주원, 2018, 「월삼국시대 낙동강 하류 지역의 주거지 전개」, 『영남고고학』 80, 영남고고학회.
 6) 이민석, 2003, 『한국 상고시대의 노시설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훈, 2004, 『한국 터널식 노시설에 관한 시론-철기시대와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강민, 2004, 『삼한시대 주거지 내 부뚜막과 구들시설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기호, 2006, 『한국 고대의 온돌-북옥저, 고구려, 발해』, 서울대학교출판부.
 김 현, 2006, 「남해안 쪽구들 주거지 등장에 대한 소고-늑도주거지를 중심으로」, 『석헌 정정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총』, 부산고고학연구회 논문간행위원회.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승환, 2021, 「온돌 기원지 연구」, 『중앙고고』 34, 중앙문화재연구원.

뒤 하북성 연(燕)의 동환타유적에서 전형적인 ‘ㄱ’ 자형 구조로 발전하였고, 이후 전국(戰國) 연의 세력 확장과 맞물려 구들이 발달된 철기와 함께 동북 방향으로 확산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중국, 몽골, 한반도 등 방대한 구들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 성과를 종합·검토하여 온돌의 기원지와 확산과정을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경환⁷⁾은 원삼국~삼국시대 경산 임당 I 지구 주거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조사된 70동의 주거지 자료를 대상으로 출토유물 및 분석을 통해 해당 시기를 5단계로 설정하였다. 1단계는 2세기 후반~3세기 전엽, II단계는 3세기 중엽, III단계는 3세기 후엽, IV단계는 4세기 전반, V단계는 4세기 중반 이후로 구분하였다. 주거지는 출토유물, 구조분석, 중복관계 등을 통해 단계별 유구를 분류한 결과, 3세기 초까지는 원형과 방형이 공존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원형에서 방형으로 이행한다고 보았다. 3세기 후반에는 초대형 주거지가 축조되는데, 이를 중심 읍락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았다. 대개 삼한시대 영남지방의 주거지 연구는 통시적 변화의 흐름을 살피는 연구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역을 좁혀 압독국의 중심 읍락으로 추정되는 경산 임당 I 지구 유적의 주거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의 변화양상과 성격을 검토한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수혈주거지, 환호, 지상식 건물지 등 자료를 중심으로 취락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이수홍⁸⁾은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취락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취락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원삼국시대 영남지역 취락의 유형 중에 중심취락과 특수기능취락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경산 임당유적과 울산 신화리유적은 국읍에 해당하는 중심취락으로 보았으며, 울산 달천, 경주 황성동, 사천 늑도 유적은 각각 철 채광, 철기제작, 상공업과 관련된 특수기능취락으로 보았다. 양산 평산리유적과 창원 남산유적에서 확인된 환호는 방어적 기능이 아닌 주거구역을 구획하는 울타리(경계)의 기능을 한 목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들 유적은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 방어취락이 아닌 중심취락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2013년에는 한국고고학회 주관으로 ‘주거의 고고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공봉석⁹⁾은 ‘영남지방의 원삼국·삼국시대의 주거’라는 주제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이 논문을 확장하여 ‘신라·가야 취락의 분화와 전개’라는 주제로 후행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⁰⁾ 이 연구에서 원삼국·삼국시대 주거는 3세기 후반경을 전후한 시점에 구조적인 분화가 시작되어 영남 동부와 서부지역, 서부

7) 김경환, 2015, 「원삼국~삼국시대 경산 임당 I 지구 주거지 연구」, 『영남문화재연구』 28, 영남문화연구원.

8) 이수홍, 2010,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취락」, 『마한·백제 사람들의 주거와 삶』, 중앙문화재연구원 창립 10주년·국립공주박물관 개관 70주년 기념도록.

9) 공봉석, 2013, 「영남지방 원삼국·삼국시대 주거」,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문, 한국고고학회.

10) 공봉석, 2015a, 「신라·가야 취락의 분화와 전개」, 『영남고고학』 73, 영남고고학회.

지역은 낙동강 하류역과 서부내륙·남해안 일대의 광역 단위별로 다른 형식의 주거지가 전개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의 분화를 신라와 가야의 주거 분화로 보았다. 이 주거의 분화와 궤를 같이하여 취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 특히 정치권력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규모 창고군이 취락에 집중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대규모 창고군이 갖춰진 취락을 기능에 따라 중심취락(1유형)·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취락(2유형)·생산취락(3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3유형의 취락 분포를 통해 볼 때, 신라권역은 다양한 루트를 이용하여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교환망을 일찍부터 구축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반면 금관가야권역은 1~3유형의 취락이 김해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공간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통합이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심지의 기능이 강화되었던 것으로 추론하였다. 영남 서부내륙 및 남해안 일대에서 1·2유형 취락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은 취락의 체계가 타 권역과 달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주거지 검토와 더불어 3세기 후반 무렵부터 취락 내 빈도가 높아지는 지상식 건물지에 주목하여 신라와 가야 취락의 유형, 창고운영의 주제, 취락 체계 등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낸 연구로 주목된다.

김창역¹¹⁾은 신라 형성기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을 중심으로 주거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주거지의 평면형태, 면적, 노시설, 기둥배치 등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취락의 입지적 경관과 특징 및 성격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 생활상을 검토하였다. 주거지 구조에 있어서 대형 및 초대형 주거지의 등장, 부뚜막 및 온돌시설의 등장, 주거지의 지상화 등은 단순한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취락의 구조나 규모는 대략 주거지 16~20동이 하나의 단위 취락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았다. 삼한의 ‘국(國)’ 중 사로국은 자연 지리적으로 유리한 환경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한 후 이를 기반으로 고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성과를 토대로 처음으로 진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와 취락의 구조와 특징 등을 검토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경주 황성동유적, 경산 임당동유적, 울산 교동리유적 등 단위 취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김세기¹²⁾는 황성동 다지구의 원형 주거지군에서 확인된 철기 제작과 관련된 모룻돌, 구슬형 철괴, 철재, 강력한 불을 피운 노지(爐址) 등의 양상을 통해 주거지 내에서 소규모 단야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 다지구 원형 주거지군의 성격을 동질성이 강한 철기 제작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철기 제작 마을로 파악하였다.

최경규¹³⁾는 황성동 주거지를 크게 A·B의 2단계, 분묘를 I·II·III·IV의 4단계, 제철 유구를 가·나·다·라의 4단계로 각각 설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황성동

11) 김창역, 2011, 「신라 형성기의 주거와 취락」,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12) 김세기, 1994, 「황성동 원삼국 취락지의 성격」, 『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13) 최경규, 2004, 「1~3세기 경주 황성동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경규, 2006, 「삼한시대 경주 황성동집단의 공간구성과 성격」, 『영남고고학』 39, 영남고고학회.

유적의 시기를 크게 1기와 2기로 구분하였다. A단계의 주거지는 내부에서 소규모 단야 공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B단계의 주거지는 철 생산 공간이 외부로 확장됨에 따라 제철 공인들의 전용 주거로 파악하였다. B단계 주거지의 특징을 방형 주거지의 출현, 면적의 확대, 온돌시설(쪽구들)의 설치, 수혈주거의 지상화 등으로 이해하였다.

임동재¹⁴⁾는 경주 황성동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유적에서 조사된 삼한시대 주거지, 분묘, 제철유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지를 3단계, 분묘를 4단계, 제철유구를 3단계로 나눈 뒤, 이를 종합하여 황성동유적의 시기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중 황성동 주거지의 성격은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1단계의 주거지는 내부에서 철기 제작과 관련한 단야 작업이 이루어진 공방 주거지로, 2단계와 3단계의 주거지는 제철 공인들이 거주했던 일반 전용 주거지로 파악하였다.

경산 임당동 취락과 관련해서는 장용석, 권태용, 하진호의 연구가 있다. 먼저, 장용석은 경산 임당 취락의 공간구성을 살피기 위해 분묘, 방어시설,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등을 검토하였다. 그는 임당 유적의 F·I 지구에서 확인된 삼한·삼국시대 주거지의 구조 및 출토유물을 검토한 후 취락의 사용 시기, 취락지의 공간 구성과 이동 등에 대해 규명하였다.¹⁵⁾ 이후의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분묘, 생활유구, 토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고고학적 조사자료들을 이용하여 임당 중심 읍락의 내부 구조와 지역 정치체의 제 양상을 검토하였다.¹⁶⁾

권태용¹⁷⁾은 경산 임당유적의 F지구 취락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는 경산 임당 F지구 취락을 3C 무렵부터 7C 중엽 시기까지 대상으로 하여 전체 시기를 I기~III기로 구분하였다. I기는 영남지방의 후기와질토기 단계에 해당하며 주구부건물지라는 지상식 건물지군의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의 F지구 취락은 개별가옥에 딸린 창고와 취락 공동관리의 창고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기 I지구 취락과는 성격이 다른 집단으로 추정하였다. II기는 고식도질토기단계로 식료저장용 저장혈과 임당 토성이 축조된 시기이며, 구릉 사면부는 저장역, 구릉 정상부는 창고군을 관리하는 수장층의 거주역으로 보았다. III기는 토성 내부의 F지구가 실질적으로 공백지를 나타내지만, 토성 바깥 평탄지에는 고상 창고군이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F지구에서 관찰되는 I기~III기까지의 과정은 임당 사회가 경산지역의 거점취락으로서 고도로 조직화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하진호¹⁸⁾는 원삼국·삼국시대의 경산 임당유적을 환호, 토성, 주거지, 저습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당 취락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 취락고고학의 관점

14) 임동재, 2005, 『삼한시대 경주 황성동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장용석, 2002, 『경산 임당유적의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장용석, 2012, 「고고자료를 이용한 2~4세기 임당 중심읍락의 내부구조 검토」, 『인류학 고고학 논총』, 영남대학교문화인류학과 개설 40주년 기념논총, 학연문화사.

장용석, 2012, 「고고자료로 본 임당 중심읍락의 제 양상」, 『영남문화재연구』 25, 영남문화재연구원.

17) 권태용, 2011, 「경산 임당유적 취락연구」, 『영남고고학』 56, 영남고고학회.

18) 하진호, 2012, 「임당유적 취락의 형성과 전개」, 『영남문화재연구』 25, 영남문화재연구원.

에서 통시적으로 접근하였다. 기원전 2세기 무렵 임당 구릉과 그 주변으로 다수의 취락(촌락)이 임당유적의 다중 환호를 구심점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임당 구릉의 초기목관묘 집단이 제의의 공간으로서 환호를 유지 관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초기 목관묘 집단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임당 구릉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역내 중심정치체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았다. 기원 3세기가 되면 임당유적의 서부 구릉지대(F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마을이 조성되고, 마주하는 I지구의 저습지 북사면에도 마을이 조성되는데, 이 두 마을은 그 기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았다. 즉 습지 주변에 조성된 I지구 취락은 F지구의 하위취락으로 일부 수변제사나 공방을 담당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취락의 주된 공간인 서부구릉지(F지구)에는 토성의 축조와 함께 임당취락이 큰 변화를 맞이한다고 보았다.

이창희¹⁹⁾는 삼한 · 삼국시대 울산지역의 신화리와 교동리 일대에서 확인된 취락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는 삼남구릉 일대에 존재했던 삼한 · 삼국시대의 취락은 한 소국의 중심취락으로 보았다. 삼한시대에는 주거지의 밀집도가 현저히 낮고 환호로 구획한 공간을 의례시설로 이용한 반면, 삼국 초기에는 주거의 밀집도가 매우 높아지고, 대형건축물을 의례시설로 이용한다고 보았다. 삼한에서 삼국으로 가면서 삼남구릉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취락도 원시적 성(城)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영남지방 전체의 통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지역단위 연구가 시작된 것은 지역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연구의 깊이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지와 분묘자료를 통한 청동기시대 후기 및 점토대토기 단계의 문화접변과 지역상, 읍락의 형성과 변화, 삼한 소국의 취락 분포정형 등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

이수홍²⁰⁾은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지역상을 검토하였다.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마지막 단계 유적과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주거지와 무덤 등을 검토하여 울산지역 종말기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검단리유형은 새롭게 유입된 점토대토기문화와 함께 와질토기 등장 시점까지 존속하며, 점토대토기인의 생활터전이 이미 무문토기인들의 점유지였던 것으로 볼 때 양 집단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보았다. 기존 청동기시대의 유구는 실제 초기 철기시대에 존속하였고, 이 초기철기시대의 청동기시대적 요소는 목관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통해서 이때야말로 청동기시대를 종언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청동기시대 이후 재지 문화와 외래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지역상 등을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영애²¹⁾는 영남지방의 재지 무문토기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가 공존하면서 나타나

19) 이창희, 2016, 「삼한 · 삼국시대 신화리 유적의 취락」, 『울산의 시작, 신화리-땅속에서 만난 새로운 역사』, 울산대국박물관 2016년 제2차 특별전 도록, 울산대국박물관.

20) 이수홍, 2019,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지역상」, 『한국청동기학보』 24, 한국청동기학회.

21) 신영애, 2011, 『영남지방 점토대토기 단계 문화접변』,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는 문화 접변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남지방 점토대토기 단계의 유구와 유물을 분석하여 당시 주거지, 무덤, 취락의 구조, 생업 등에 나타나는 문화 접변 양상을 검토하였다. 접변 유형을 타 문화요소의 존재 여부, 문화요소의 변화, 전통의 유지 여부 등의 조합에 따라 접촉형, 수용형, 융합형, 대체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접변의 시기는 재지 무문토기 문화와 원형점토대토기 문화가 공존하는 1기와 두 문화에 삼각형점토대토기 문화가 더해지는 2기로 설정하고, 이 시기의 문화접변의 양상은 영남의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어난 연속된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재지 무문토기문화와 외래 점토대토기 문화의 접변을 토대로 다음 단계의 와질토기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재지의 무문토기 문화와 외래의 점토대토기 문화간의 일어난 문화 접변 양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당시 사회와 문화상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권구²²⁾는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걸친 시기의 영남지역 읍락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시기를 3기로 구분하고, 경주, 경산, 김해 지역의 취락 자료를 중심으로 제 양상을 분석하였다. 검토 결과, ‘국(國)’의 범위는 경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넓었다고 보았다. 경주와 경산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 ‘국’이 출현하는데, 김해지역에서는 50여 년 정도 늦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국’의 출현과 성장과정에서 인구 집중 현상과 읍락의 해체도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분묘자료에만 치중하지 않고 주거지, 수혈, 환호 등 다양한 취락 자료를 활용하여 삼한 읍락 사회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희준²³⁾은 삼한 소국 정치체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취락 분포 정형’이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삼국지』 위서 동이전이라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삼한 읍락에 접근하였다. 그래서 삼한 사회의 취락 간 관계 혹은 취락 분포정형은 기본 취락 몇 개가 큰 취락 하나를 중심으로 모인 단위 촌락이 있고 그것 몇 개가 한 읍락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삼한 읍락의 취락 분포 정형은 수 개의 소촌(hamlet)이 하나의 촌(village)을 중심으로 결집한 단위들이 몇 개 모인 군집적 양태였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모식화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사와 고고학의 접목이라는 관점에서 삼한 소국 취락 분포 정형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밖에도 가형토기 분석을 통해 삼한 · 삼국시대 주거를 복원한 연구²⁴⁾와 문헌기록을 통해 진 · 변한의 생활과 문화를 검토한 연구²⁵⁾가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주거와 취락에 대한 연구²⁶⁾는 삼한시대 보다는 취락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

22) 김권구, 2016, 「영남지역 읍락의 형성과 변화-경주 · 경산 ·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2, 한국고대사학회.

23) 이희준, 2000, 「삼한 소국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43, 한국고고학회.

24) 함순섭, 2008, 「영남지방 삼한 · 삼국시대 살림집의 복원연구」, 『동단학술논문집』, 국립중앙박물관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5) 권주현, 2002, 「진·변한의 생활과 문화」,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6) 김진철, 2008, 『삼국시대 타원형 수혈주거지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역, 2000, 「삼국시대 시지취락의 전개과정과 성격」, 『영남고고학』 27, 영남고고학회.

루어지고 있다.

이상으로 영남지방의 삼한시대 주거지와 취락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의 성과를 살펴 보았다. 아래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문제를 언급한다.

먼저, 진한지역 취락연구는 영남지방의 주거와 취락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통시적 관점에서 주거지의 구조와 변천 등을 밝히는 데 집중됐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영남지역의 전반적인 변화상은 큰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지역별로 세부적인 변이를 포함하는 변화상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으므로 연구의 단위를 축소시켜서 지역 내 각 단계별 주거지의 변화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²⁷⁾ 현재까지 소 지역 단위의 주거지 연구로는 경주 황성동유적, 경산 임당유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극히 일부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소 지역 단위의 유적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거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신중한 관찰과 분석 없이 발굴된 현상만으로 속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석상의 오류가 확인된다. 삼한시대 주거지는 생활면이 지상에 가까워지는 지상식 주거 형태가 많아 평면형태와 내부 구조가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주거지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이유로 폐기되거나 복잡한 층위 양상 등으로 생활 당시의 구조물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거지 구조 중 노시설은 하부 구조만 잔존하는 경우가 많고, 기둥 형태는 복잡한 중복 양상으로 명확한 배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주거지 자료 분석 시에는 주변 유구와 유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의 범위가 영남지방에만 머물러 있고, 주변 지역과의 비교사적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변 지역과의 비교사적 연구는 주로 주거지 내부 구조물인 부뚜막 및 구들시설의 기원과 계통을 추적할 때에만 중국, 연해주, 고구려 등 지역과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삼한시대 영남지방의 주거문화는 주변 지역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받아 변화와 발전 등을 거듭해 왔다. 특히 진한과 변한은 마한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 들 지역과의 비교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
- 김창익, 2009, 「영남내륙지역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영남지방 원삼국 ·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공봉석, 2009, 「경남 서부지역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영남지방 원삼국 ·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공봉석, 2014, 「신라의 주거와 취락」, 『신라고고학개론 상(上)』, 중앙문화재연구원·진인진.
- 공봉석, 2015b, 「영남지역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부산 가동-부산 청강 · 대라리, 부산 고촌유적을 중심으로」, 『정관박물관(개관 기념도록)』, 정관박물관.
- 공봉석, 2021, 「가야의 주거 규모 변화와 가구 양상」, 『가야의 주거문화』, 2020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 학술총서, 국립김해박물관.
- 강정미, 2011, 『기장 가동 취락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귀향, 2012, 「낙동강 이서지역 삼국시대 주거지의 전개양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현, 2013, 「경남지역 삼국시대 방형계 수혈주거지 연구」, 『문물연구』 23,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 신준섭·이아진, 2013, 「기장지역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검토」, 『기장 장안인의 옛 흔적-기장 명례 일반산업단지 발굴조사 기념도록』, 울산문화재연구원 외.
- 위양근, 2016, 『경남지역 가야시대 주거지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김경환, 2015, 「원삼국~삼국시대 경산 임당 I 지구 주거지 연구」, 『영남문화재연구』 28, 영남문화연구원, 173~174쪽

한 삼한시대 주거지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두 시기의 문화와도 비교가 필요하다.

특히, 삼한 읍락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취락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삼한 읍락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읍락 관계 기사를 토대로 기본 취락 몇 개가 큰 취락 하나를 중심으로 모인 단위 촌락이 있고 그것 몇 개가 한 읍락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²⁸⁾ 현재의 삼한 읍락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분묘자료를 대상으로 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묘뿐만 아니라 취락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삼한 읍락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고고자료와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삼한시대 진한지역과 주변 지역의 취락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한지역 주거지의 형성과정, 취락의 특징과 전개양상, 읍락(邑落)과 국(國)의 양상 등의 검토를 통해 고대 진한 취락을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신라 취락의 중요한 모체가 되는 진한 취락에 주목하여, 사로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소국들의 취락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진한지역 취락 연구의 방법은 먼저 취락의 협의적 측면에 접근하여 주거지의 구조와 각 지역별 양상 등을 검토하겠다. 또한 광의적 측면에서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생산시설, 의례시설, 매장시설 등 취락의 다양한 구성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한지역 취락의 성격, 구조와 전개, 읍락과 국(國)의 양상 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문헌기록과 고고자료 등 각종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한다. 이 시기 연구 대상자료는 문헌자료가 빈약하기에 고고자료가 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고자료는 인간 집단이나 사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는 하나 그 증거는 대체로 간접적인 데다가 흔적의 형태를 띠며 실제 야외조사로 확보한 자료는 그 흔적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고고자료가 본래 확률적 성격을 띤 이상 자료의 의미를 대세론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같은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문헌사 연구에서 유력시되는 역사상을 주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²⁹⁾ 자료가 부족한 진한지역 취락연구를 위해서는 성격이 다른 자료들을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서로 간의 접점을 찾아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³⁰⁾ 따라서 본 연구는 진한 취락과 관련하여 고고자료와 문헌자료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진한지역 취락의 특성을 조명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문헌사료는 삼한의 3세기대 상황을 담고 있는 『삼국지』 동이전의 문헌자료를 중심 축으로 삼고, 『삼국사기』 등 관련 자료도

28) 이희준, 2011, 「고고학의 신라 형성기 사회 연구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논의」,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614쪽

29) 이희준, 2011, 「고고학의 신라 형성기 사회 연구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논의」,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612쪽

30) 이현혜, 2022, 『마한·진한의 정치와 사회』, 일조각, 380쪽

참고하여 진한지역의 취락연구에 활용하겠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진한의 형성기로 추정되는 기원전 4세기 후엽부터 유구, 유물 등 물질자료의 획기가 확인되는 기원 4세기 전엽까지로 설정하였다. 본고는 기원전 1세기대의 물질문화는 기원전 3세기대의 한국식동검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연속선상에 있다³¹⁾는 입장이므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부터 진한 취락의 형성기로 보고 검토하였다. 주로 기원전 4세기 후엽에서~기원 4세기 전엽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진한 지역 취락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자료도 활용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진한의 범위가 대체로 낙동강 이동지역 대부분과 이서지역의 일부분이라는 선행연구³²⁾의 견해를 수용하여, 경주, 울산, 포항, 영천, 경산, 대구, 청도, 김천까지로 하였다. 이 가운데 취락 자료가 양호하게 남아 있는 경주, 울산, 경산, 대구,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선행연구 검토, 연구목적과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진한지역 주거지의 구조와 지역별 양상을 검토하였다. 먼저 유적 편년과 기준을 설정하여, 토기를 중심으로 I~IV기로 구분하였다. I기는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4세기 후엽~기원전 3세기이다. II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2세기이다. III기는 전기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전엽~기원 2세기 중엽이다. IV기는 후기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 2세기 후엽~기원 4세기 초 전엽이다. 이를 기준으로 경주, 울산, 포항-영천, 경산, 대구 등 지역의 유적 분포 현황을 정리하였다. 취락의 협의적 측면에 접근하여 주거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거지는 생활면의 위치에 따라 크게 수혈주거지와 지상식 건물지로 구분하였다. 수혈주거지에 대해서는 먼저 시간성, 지역성, 계층적 속성을 나타내는 평면형태, 기둥 배치, 노시설, 면적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주거지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거지 양상은 먼저 사로국의 취락인 경주 황성동유적 자료를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울산, 경산 등 지역 주거지 자료와 비교·검토하였다. 각 시기별 주거유형의 변화양상을 통해 재지와 외래 주거문화의 요소가 무엇인지, 두 문화간 공존과 융합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지상식 건물지는 바닥의 위치에 따라 지면식과 고상식으로 구분하여 지역과 시기별 구조와 특징 등을 검토하였다.

III 장에서는 진한지역 주거지의 전개와 문화를 검토하였다. 먼저 진한 형성기 주거지를 변한지역 주거지 자료와 함께 분석하였다. 기원전 1세기 전엽에 진한지역에 새롭게 출현하는 원형계 구들 주거지의 기원과 계통, 출현 의미 등을 검토하였다. 그래서 이 주거유형이 변한지역과 함께 어떻게 전개되고 분화되어 지역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진한지역에 원형계 구들 주거지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방형계 4

31) 안재호·홍보식, 1998, 「삼한시대 영남지방과 북구주지방의 교섭사 연구-병행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1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김영민, 2006, 「삼한시대 재고」, 『석헌 정정원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부산고고학연구회 논총간행위원회.

32) 이형우, 2002, 「진·변한 諸國의 位置와 存在樣態」,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 학교 한국학연구원.

주식 주거지의 기원과 전개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변한, 마한, 신라, 가야 지역 자료까지 시기와 지역을 확대하여 방형계 4주식 주거지의 분포와 그 의미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진한지역에 방형계 4주식 주거지의 출현은 마한지역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상의 고고 자료에서 보이는 주거 양상과 문헌, 가형토기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고대 진한의 주거문화의 일면을 조명하였다.

IV장에서는 취락의 광의적 측면에 접근하여 진한지역 취락의 구성 시설들을 검토하였다. 대상 자료는 비교적 기능과 용도를 유추할 수 있는 유구를 선별하여 크게 생산 시설, 의례시설, 방어·경계 시설, 매장시설로 구분하여 선행연구 성과와 함께 살펴 보았다. 생산시설은 제철시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그 외 자료는 고고학 자료가 많지 않아 문헌자료와 함께 농경과 수공업 관련 시설이 있었음을 유추하였다. 의례시설은 주구형유구 및 제단시설, 환호, 입주수혈 등의 특징을 살펴 취락 내 의례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호와 목책 등의 방어·경계 시설과 매장시설 등을 검토하였다. 매장시설에 대해서는 중심 읍락과 국(國)의 지표를 나타내는 위계가 높은 분묘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V장에서는 진한지역 취락의 성격과 전개양상을 검토하였다. 먼저 입지와 취락유형을 통해 진한지역 취락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했다. 취락의 유형에 대해서는 크게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하여 시기별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진한지역의 취락의 구조와 전개양상에 대해 형성, 정착, 변동과 성장, 분화 및 발전의 4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읍락과 국(國)의 형성과 변화양상에 접근해 보고자 했다.

VI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연구의 미흡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II. 진한지역 주거지의 구조와 지역별 양상

1. 유적의 편년과 기준

이 장에서는 진한 취락유적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적의 편년과 기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분묘, 수혈, 경작유구 등 취락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하기에 각 유구마다 세부적인 유물 분석을 통한 편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거지, 수혈 등에서 출토된 생활용 토기는 출토 수량이 많고, 대체로 파편으로 폐기된 사례가 많아 공반된 유물의 동 시기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주거지 내 생활용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질토기는 변화양상이 점진적이고,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양해 일정한 양식성을 찾기 힘들다. 때문에 생활유구의 시기는 대체로 공반관계가 명확한 분묘자료를 통해 논의된 편년안을 토대로 설정되고 있다. 분묘와 주거지는 동일 생활권 내에서 조성된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분묘에서 밝혀낸 시간성을 주거지에 적용하는 것은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³³⁾

[표 2-1] 진한 취락유적의 편년과 기준

시기 구분	I기	II기	III기		IV기	
	BC 4C 후엽 ~ BC 3C	BC 2C	III-1 BC 1C 전엽 ~ AD 1C 중엽	III-2 AD 1C 후엽 ~ AD 2C 중엽	IV-1 AD 2C 후엽 ~ AD 3C 중엽	IV-2 AD 3C 후엽 ~ AD 4C 초·전엽
토기	원형점토대토기군	(전반)원형점토대 토기군+삼각형점토대 토기군 (후반)삼각형점토대 토기군	(전반)삼각 형점토대토 기군+전기 와질토기	(후반)전기와 질토기+적갈 색연질토기	(전반)후기 와질토기+ 적갈색연질 토기	(후반)후기 와질토기+ 적갈색연질 토기+고식 도질토기 발생
의기	한국석동검문화(세형동검 등)				철제의기(유자이기 등)	
주요제	적석목관묘, 옹관묘	적석목관묘, 옹관묘, 토광묘	목관묘		목곽묘	
역사적 사건	연(燕)나라 장수 진개의 침입	위만조선의 성립, 고조선 유민의 호서· 호남지역으로의 유입, 한사군의 설치로 인한 위만조선 유민발생과 영남지방으로의 이동	위만조선 유민의 영남지역으 로의 유입	신(新)나라의 성립, 후한 (後漢)의 시작	환경지말(桓靈之末) 한(漢)의 강성, 한의 멸망과 위(魏)·촉(蜀) ·오(吳) 나라의 성립, 낙랑의 쇠퇴	
대표 취락 유적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유적, 경주 광명동 산81-1유적, 대구 각산동 912-6번지유적	경주 나정유적,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 II, 울산 매곡동유적(II), 대구 철곡 3택지유적, 경산 임당 환호유적	경주 황성동유적, 울산 교동리유적, 울산 달천유적,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 대구 봉무동유적		경주 황성동유적, 경주 월성 북서편유적, 울산 교동리유적, 경산 임당유적, 포항 호동유적	

따라서 본고의 진한 취락유적의 편년과 기준은 분묘자료를 중심으로 삼한시대 단계별 문화양상을 제시한 신경철³⁴⁾과 안재호 · 홍보식³⁵⁾의 안에 따라 [표 2-1]과 같이 4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³⁶⁾ I기는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4세기 후엽~기원전 3세기이다. 적석목관묘가 채용되지만 석관묘, 석곽묘, 옹관묘 등 청동기시대의 묘제 문화도 지속된다. 대표적인 취락유적으로는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유적, 경주 광명동 산81-1유적, 대구 각산동 912-6번지유적 등이 있다.

II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2세기이다. 앞 시기일수록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유물과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유물이 공반된다. II기의 분묘는 적석목관묘를 특징으로 하며, II기의 늦은 시기로 갈수록 순수 목관묘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또한 주로 호서와 호남지역에서 성행하던 한국식동검문화가 I · II기에 경주, 대구 등지로 유입되기 시작하며, 기원전 2세기대에는 전국계(戰國系) 주조철부가 영남지방에 출현하여 확산된다. 대표적인 취락유적으로는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Ⅱ, 대구 칠곡 3택지유적, 경산 임당 환호유적 등이 있다.

III기는 전기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전엽~기원 2세기 중엽이다.³⁷⁾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앞 시기일수록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성행하고, 와질토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Ⅲ-1기). 그리고 뒤 시기로 갈수록 전형적인 와질의 주머니호, 단경호, 완 등의 전기와질토기와 적갈색 연질토기의 사용 비중이 높아진다. 금속류는 앞 시기일수록 청동제 의기류와 철기류가 유력 개인묘를 중심으로 부장되다가 점차 철기류로 대체되어 간다(Ⅲ-2기). 분묘의 조성은 취락내 목관묘군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취락유적으로는 경주 황성동유적(다지구), 울산 교동리유적, 울산 달천유적, 대구 봉무동유적 등이 있다.

IV기는 후기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 2세기 후엽에서 기원 4세기 초 · 전엽이다. 분묘에 있어서는 기원 2세기 후엽에 목곽묘가 출현하여 발전되어 나간다. 기원 2세기 후엽에서 기원 3세기 중엽(IV-1기)에는 와질 노형토기, 대부광구호 등의 후기와질토기와 적갈색연질토기가 생활 및 분묘 자료에서 출토되며, 그리고 기원 3세기 후엽에서 기원 4세기 초 · 전엽(IV-2기)에는 후기 와질토기와 함께 고식도질토기가 공반된다. 금속류는 주거지 자료보다는 분묘 자료에서 출토되는데, 이전 시기보다 의장(儀仗)성과 장식성을 강조한 철기가 증가하며 특히 무덤의 위계에 따라 질과 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취락유적으로는 경주 황성동유적, 울산 교동리유

33) 권귀향, 2012, 「낙동강 이서지역 삼국시대 주거지의 전개양상」,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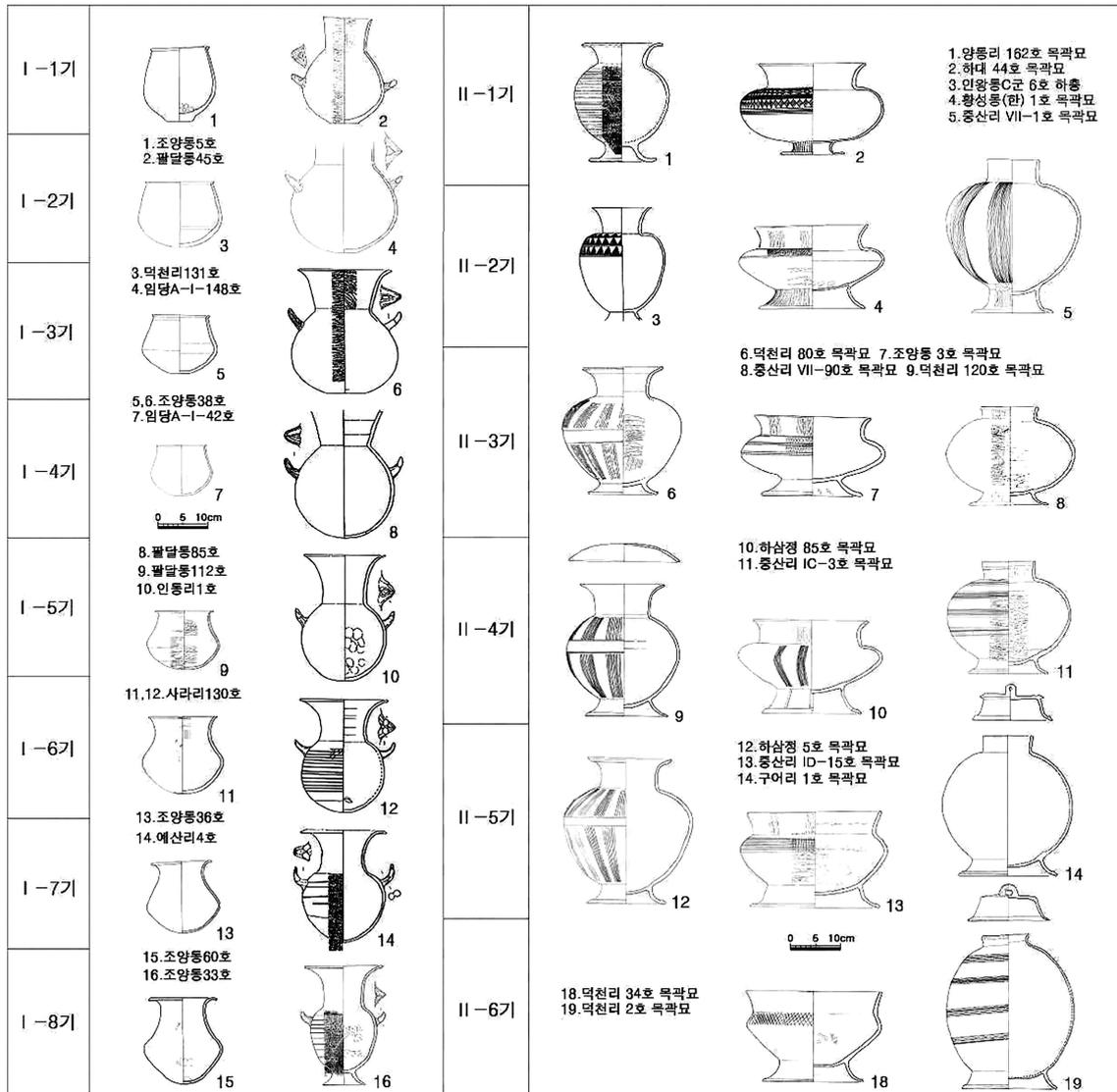
34) 신경철, 1995, 「삼한 · 삼국시대의 동래」, 『동래구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신경철, 2013, 「삼한시대문화와 울산」, 『삼한시대 문화와 울산』, 2013년 울산문화재연구원 학술대회, 울산문화재연구원.

35) 안재호 · 홍보식, 1998, 「삼한시대 영남지방과 북구주지방의 교섭사 연구-병행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1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6) 영남지방에서는 목관묘, 와질토기, 철기의 등장 시점이 다르다. 때문에 각 시기별 연대 설정에 있어서 연구자들 간 견해차가 크다. 본고의 각 시기별 연대는 큰 틀에서 제시하였으며, 향후 학계 연구 동향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37) III기 취락의 형성 시기는 각 유적들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부 유구들은 II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II기 취락 유구들 가운데 새 문화요소가 보이나 II기의 표지적 유물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유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시기를 설정하였다.



[도면 2-1] 영남지방 와질토기 편년(이원태 2022)

적, 경산 임당유적, 포항 호동유적 등이 있다.

한편, 진한지역의 생활유적에서는 연질토기 못지않게, 분묘 자료에서 확인되는 와질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편년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와질토기 편년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³⁸⁾ 최근에는 분묘와 생활유구 출토 와질

38) 신경철, 1982, 「부산·경남출토 와질계토기」, 『한국고고학보』 12, 한국고고학회.
 안재호, 1994, 「삼한시대 후기와질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 14, 영남고고학회.
 안재호, 2000, 「창원 다호리유적의 편년」, 『한국고대사와 고고학-학산 김정학 박사 송수 기념 논총』, 학연문화사.
 전옥연, 1998, 『영남지역에 있어서 후기와질토기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주, 1999, 「진·변한지역 분묘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 24, 영남고고학회.
 윤운식, 2001, 『3세기대 동해 남부 지역 토기 양식의 형성과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현, 2003, 『진·변한사회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원태, 2013, 「경북지역 전기 와질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한국고고학보』 86, 영남고고학회.
 우가은, 2013, 『영남지역 후기와질토기의 지역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토기 자료를 토대로 영남지방 전기와 후기 와질토기의 지역별 종합편년을 제시한 이원태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원태는 와질토기의 편년을 [도면 2-1]과 같이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는데, 먼저 전기 와질토기 단계(I기)는 1기가 기원전 1세기 전엽, 2기가 기원전 1세기 중엽, 3기가 기원전 1세기 후엽, 4기가 기원 1세기 전엽, 5기가 기원 1세기 중엽, 6기가 기원 1세기 후엽, 7기가 2세기 전엽, 8기가 기원 2세기 중엽으로 설정하였다. 후기 와질토기 단계(II기)는 1기가 기원 2세기 중엽, 2기가 기원 2세기 후엽, 3기가 기원 3세기 전엽, 4기는 기원 3세기 중엽, 5기가 기원 3세기 후엽, 6기가 기원 3세기 말~4세기 초로 설정하였다.³⁹⁾ 이를 본고의 시기 구분에 대입해 보면, III-1기는 이원태의 I-1기~5기, III-2기는 이원태의 I-6기~8기, IV-1기는 이원태의 II-1~4기, IV-2는 이원태의 II-5~6기와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전기와 후기 와질토기의 세부 기종도 영남의 각 지역별 종합편년을 구축하여 본고의 생활유구 편년에 많은 참고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 선행연구의 와질토기 편년안을 생활유구의 시기를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하고자 한다.

동경, 방제경 등의 절대연대 자료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이견이 있는데, 본고는 조양동 5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다뉴소문경(多鈕素文鏡)의 연대를 1세기 전엽, 조양동 38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전한경(前漢鏡)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후엽, 사라리 130호 목관묘 출토된 방제경(倣製鏡)의 연대를 기원 1세기 후엽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⁴⁰⁾

또한, 각 시기별 사회·문화적 변화양상은 여러 외부적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삼국지』 동이전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당시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⁴¹⁾과 함께 살펴본다면 삼한시대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39) 이원태, 2022,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토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32쪽

40) 이희준, 2002, 「초기 진·변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진·변한사 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이원태, 2022,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토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31쪽

41) 역사적 사건은 김권구의 편년과 기준 안을 참고하였다.

김권구, 2016b,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위계형성」,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영남문화재연구원, 145~146쪽

2. 유적의 분포 현황

1) 경주지역

경상북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경주지역은 포항으로 흘러드는 형산강의 하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차지하면서 산지로 둘러싸인 하나의 분지 단위를 이루고 있다. 그 한 가운데 북천, 남천, 서천으로 둘러싸인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현 시내 도심 지구가 자리한다. 경주지역의 삼한시대 유적은 분묘 자료에 비해 생활유구가 빈약한 편이다. 각 시기별 빈도에 있어서 I기와 II기 유적은 다소 빈약한 편이며, 주로 III기와 IV기에 집중되어 있다. I기 유적은 5개소로 빈약하지만 광명동 산81-1 유적과 화천리 산251-1 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 분묘, 의례관련 유구 등이 확인되어 당시 취락의 구조를 일부 엿볼 수 있다.

II기에는 천군동 큰마을유적에서 주거지와 수혈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주거지 내부에서는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 II에서도 확인된 수구 I 식(須玖 I 式)의 야요이계(彌生系)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나정유적은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의 탄생설화가 깃든 곳으로, 4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1차 유구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의례유구가 확인되었다. 의례유구는 중앙에 신목(神木)과 같은 큰 나무기둥을 세우는 기초시설로 추정되는 수혈이 있고, 그 주변에는 구(溝)가 둥글게 돌아가면서 울타리 흔적으로 추정되는 기둥구멍 열과 주변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주변 수혈유구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하구리유적에서는 15기의 목관묘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앞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분묘 축조양상으로 II기에서 III기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III기에는 외동 방면의 조양동, 문산리, 구어리, 소토리 유적 등에서 당시 사로국 형성 시기를 알려주는 기원전 1세기대의 분묘유적들이 대거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 확인된 목관묘 가운데 상위층 분묘로는 조양동 38호묘, 탑동 1호묘, 사리리 130호묘가 대표적이다. 생활유적은 화천리 산251-1 유적, 황성동유적(다·고가수조지구), 하구리유적, 인동리 670-1번지유적 뿐으로 빈약하다. 다만, 이 시기에 확인된 많은 분묘유적을 통해 각각의 인근에 취락지가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황성동유적의 다지구 원형계 주거지에서는 모룻돌과 철괴 등이 확인되어 주거지 내부에서 소규모 단야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IV기에는 III기의 목관묘 유적에서 새롭게 목곽묘가 출현하여 조성되기 시작한다. 특히 내남 지구의 덕천리유적은 평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122기의 목곽묘가 확인되어 사로국 당시 읍락의 중심 분묘군으로 추정된다. 생활유구는 경주 분지지구의 월성 북서편유적과 황성동유적이 대표적이다. 황성동유적에서는 가·나·라지구에서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 26동이 확인되었다. 이 주거지 주변으로는 철생산 공방지와 분묘역의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으로 경주지역의 시기별 주요 유적의 현황은 [표 2-2]와 같다.

[표 2-2] 경주지역의 시기별 유적 현황

시기	입지	주요 유적	관련 유구	출처
I	구릉지	광명동 산81-1유적	주거지14, 수혈유구7, 석곽묘1	울산문화재연구원(2015)
	"	화천리 산251-1유적	주거지16, 수혈유구31, 구6, 구상유구19, 주구형유구4, 폐기장3, 제단시설1	영남문화재연구원(2012)
	충적지	금장리유적	구상유구	서울대학교박물관(1999)
	"	문산리유적	수혈3	신라문화유산연구원(2009)
	"	월정교 남측부지유적	원형점토대토기편 수습	경주문화재연구소(1992)
II	구릉지	나정유적	구상유구1, 수혈1	중앙문화재연구원(2008)
	"	하구리유적	목관묘15, 옹관묘3	신라문화유산연구원(2013)
	"	망성리 612-1번지유적	구상유구2	한국문화재단(2022)
	"	천군동 큰마을유적	주거지2, 수혈10	대동문화재연구원(2023)
III	구릉지	탑동 목관묘군(20-1·6번지, 21-3·4번지 유적)	목관묘3, 옹관묘1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0·2015·2017)
	충적지	황성동유적(다·고가수조지구)	원형계주거지18, 폐기장1, 제철관련유구1, 용범폐기장, 화덕유구1, 방형유구1, 옹해로1	계명대학교박물관(2000)
	"	황성동 강변로·고분군 유적	목관묘, 토광묘, 옹관묘 다수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3, 2005)
	구릉지	하구리유적	주거지1	신라문화유산연구원(2013)
	충적지	조양동유적	목관묘29, 옹관묘15	국립경주박물관(2003)
	구릉지	북토리 55-1번지유적(33-1번지 포함)	목관묘16, 옹관묘3	신라문화유산연구원(2009)
	"	죽동리 639번지유적	목관묘9	한국문화재단(2020)
	"	문산리유적	목관묘7, 옹관묘2	신라문화유산연구원(2009)
	"	구어리 산461-1번지유적	목관묘3	대동문화재연구원(2018)
	"	인동리유적	목관묘1, 옹관묘1	중앙문화재연구원(2004)
	"	사라리유적	목관묘7	영남문화재연구원(2001)
	"	화천리 산251-1번지유적	주거지4, 목관묘5, 토광묘2, 옹관묘1	영남문화재연구원(2012)
	"	소현리유적	목관묘1	한울문화재연구원(2015)
	"	소현리 115번지유적	목관묘2	한국문화재단(2015)
	충적지	덕천리유적	목관묘16, 토광묘2	영남문화재연구원(2008, 2009)
	구릉지	인동리 670-1번지유적	습지1(추정 재배벼의 경작), 구2	신라문화유산연구원(2010)
	"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	목관묘25	대동문화재연구원(2023)
IV	충적지	월성 북서편유적	주거지2, 수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4)
	"	월성 해자유적	주거지2, 수혈유구8, 집석유구1(단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4)

시기	입지	주요 유적	관련 유구	출처
IV	충적지	인왕동 814-3, 4번지유적	목곽묘2, 토광묘4, 옹관묘3	한국문화재재단(2019)
	"	황성동유적(가·나·라지구)	가지구: 주거지17, 수혈유구5, 옹해로8, 단야로6, 폐기장2, 적석유구1/나·라지구: 주거지9, 수혈유구17, 단야로3, 요지2, 소토유구2, 탄치장1, 석렬유구 등	국립경주박물관(2000), 경북대학교박물관(2000)
	"	황성동 고분군유적 (545·513-3·545·897-1번지)	목곽묘53, 옹관묘7, 토광묘1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박물관(2002), 국립경주박물관(2002), 경주대학교박물관(2003), 신라문화유산연구원(2014)
	"	황성동 강변로유적Ⅱ~Ⅳ	수혈유구20, 단야로12, 옹해로1, 폐기장2 등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5)
	"	황성동 524-9번지 외 제철유적(535-5·8, 537-2·4, 886-1, 887-8)	옹해로, 추정작업장, 소성유구, 구상유구, 부석유구, 폐기장 등	국립경주박물관(1999) 외
	"	황남동 95-6번지유적	목곽묘10, 옹관묘1	신라문화유산연구원(2017)
	구릉지	남산 청룡사지 I	토기매납유구1	화랑문화재연구원(2018)
	"	용강동유적	옹범폐기장1, 폐기장4	성림문화재연구원(2010)
	"	사라리유적	목곽묘26	성림문화재연구원(2010)
	"	조양동유적	목곽묘12	국립경주박물관(2003)
	"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	목곽묘3, 수혈7, 제철유구8, 토기묘1, 매납유구2	대동문화재연구원(2023)
	"	구정동 고분군유적	목곽묘3	국립경주박물관(2006)
	"	죽동리 560·561유적	목곽묘2, 옹관묘3	신라문화유산조사단(2010)
	"	죽동리 639번지유적	목곽묘3, 옹관묘1	신라문화유산조사단(2010)
	"	구어리 고분군유적	목곽묘25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1998),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충적지	덕천리유적	목곽묘122, 옹관묘	영남문화재연구원(2008, 2009)

2) 울산지역

울산지역에는 삼한시대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현재 확인된 유적 수만 75기에 이른다. I기에는 덕신리 오산유적, 입암리유적, 호계동 28-1유적, 두왕동·동백골 본동유적 등에서 주거지, 수혈유구, 옹관묘, 석곽묘 등 일부 소수 유구만 확인되어 취락 자료가 빈약한 편이다. II기 역시 취락자료가 빈약한 편이다. 중산동 약수유적Ⅱ와 매곡동유적(Ⅱ)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연암동·효문동유적과 대대리 중대유적 등에서 옹관묘와 목관묘가 확인되었다.

III기에는 교동리와 신화리 일대 구릉에서 주거지, 수혈, 목관묘, 구, 환호 등이 조성된 대규모 중심 취락이 등장한다. 그리고 장현동과 대안리유적 등에서는 대규모 목관묘군이 조성된다. IV기에는 지상식 건물지, 수혈유구, 목책 등 대규모 취락지인 교동리 유적이 대표적이며, 중산동 808-8번지유적과 중산동 이화유적 등은 제철 생산과 관련된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하대유적, 하삼정고분군, 다운동고분군에서는 위계가 높은 유

물들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것을 통해서 정치체의 출현을 짐작케 한다. 울산지역의 시기별 주요 유적의 현황은 [표 2-3]과 같다.

[표 2-3] 울산지역의 시기별 유적 현황

[*: 추정]

시기	입지	주요 유적	관련 유구	출처
I 기	구릉지	덕신리 오산유적	수혈유구9, 주혈군1	울산문화재연구원(2009)
	"	매곡동유적(III-2지구)	수혈유구1	울산문화재연구원(2007)
	"	매곡동 330-2번지유적	옹관묘2	한국문화재연구원(2010)
	"	호계동 28-1유적	주거지1, 수혈유구1	울산문화재연구원(2016)
	"	천곡동유적(나지구)	수혈유구2	울산발전연구원(2005)
	"	상안동고분군III	주거지1	울산발전연구원(2015)
	"	상안동유적	수혈유구2	울산문화재연구원(2010)
	"	효문동 산68-1유적	주거지1	대동문화재연구원(2011)
	"	옥동 · 농소간 도로부지유적	옹관묘1	울산발전연구원(2017)
	"	교동리유적	옹관묘1, 수혈1	울산문화재연구원(2013)
	"	두왕동 · 동백골 본동유적	석곽묘1	겨레문화유산연구원(2020)
	"	총적지	입암리유적	수혈유구6, 옹관묘3
II	구릉지	중산동 약수유적 II	주거지4, 수혈유구5, 옹관묘1	울산문화재연구원(2009)
	"	매곡동유적(II 지구)	주거지2, 수혈유구1	울산문화재연구원(2005)
	"	상안동 고분군III*	목관묘1	울산발전연구원(2015)
	"	산화동 화암고분군(3구역)	구상유구1	울산발전연구원(2011)
	"	신천동 585-6유적*	목관묘1	울산발전연구원 (2009)
	"	산전리 비시미유적	수혈유구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약보고)
	"	상북유적	수혈유구1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4)
	"	대대리 중대유적*	목관묘1*	울산문화재연구원(2006)
	"	연암동 · 효문동유적	옹관묘1	중원문화재연구원(2021)
III	구릉지	중산동 547-1유적	목관묘1, 목곽묘	울산문화재연구원(2008)
	"	중산동 542유적	목관묘5	울산문화재연구원(2009)
	"	중산동고분군(중산리유적)	목관묘, 옹관묘2	울산문화재연구원(2011), 창원대학교박물관 (1994, 2006)
	"	천곡동 600-5번지 일원유적	목관묘4	울산발전연구원(2013)
	"	신천동 53번지유적	목관묘1	울산발전연구원(2009)
	"	달천유적	주거지9, 수혈유구42, 고상 건물지1, 환호1, 구1, 목책열1, 채광유구 등	울산문화재연구원(2010)
	"	상안동 가재길유적	목관묘1	울산발전연구원(2013)
	총적지	창평동 810번지유적	주거지2, 옹관묘7, 목관묘10, 토광묘4	우리문화재연구원(2012)
	구릉지	장현동유적	목관묘19, 옹관묘16, 토광묘4	울산문화재연구원(2013)
	"	사연리 능네유적	주거지1, 옹관묘3	울산문화재연구원(2003)

시기	입지	주요 유적	관련 유구	출처
III	총적지	반송리 388-1번지유적	수혈유구1	울산문화재연구원(2019)
	구릉지	반송리 425-1유적	수혈유구28, 지상식 건물지6	울산문화재연구원(2013)
	"	신화리유적Ⅲ(동대박)	목관묘8	동아대학교박물관(2011)
	"	신화리유적(한문연)	목관묘2, 옹관묘2	한국문물연구원(2011)
	"	신화리유적(A-5지구)	주거지5, 수혈유구5, 지상식 건물지1	울산발전연구원(2013)
	"	교동리유적	주거지9, 수혈유구50, 목관묘8, 옹관묘22, 구4	울산문화재연구원(2013)
	"	교동리 103-14번지유적	목관묘3	동북아문화재연구원(2018)
	"	교동리 192-37유적	환호열 1열, 수혈8	울산문화재연구원(2009)
	"	상천리유적 I	주거지12, 수혈유구25, 옹관묘1	울산문화재연구원(2022)
	"	상천리 941-4유적	목관묘7, 옹관묘7	울산문화재연구원(2019)
	"	대안리유적	목관묘65, 옹관묘9	울산대학교박물관(2000)
	"	송정동유적	목관묘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5), 누리고고학연구소(2019)
	"	화산리유적	수혈유구2, 목관묘3	가야문물연구원(2018)
	"	명산리 314-1번지유적	주거지11, 수혈유구2, 구1	울산발전연구원(2009)
	"	다운동유적 II	목관묘	창원대학교박물관(2006)
	"	하삼정유적	목관묘5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9)
	IV	"	발리 456-1유적	목관묘10, 옹관묘2
총적지		중산동 554-3번지유적	목관묘31, 옹관묘7	울산발전연구원 (2019)
"		중산동 613-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목관묘11, 옹관묘4	한국문화재재단(2015)
"		중산동 이화유적	수혈유구3	울산발전연구원(2002)
구릉지		중산동고분군(중산리유적)	목관묘28	울산발전연구원(2002)
"		중산동 615번지유적	목관묘11	울산발전연구원 (2014)
"		중산동 808-8번지유적	구상유구3, 자연유로1, 주혈2개	가람문화재연구원(2019)
"		중산동 798-2번지유적	수혈유구17, 구1	울산문화재연구원(2010)
총적지		중산동 약수유적 II	논1개소	울산문화재연구원(2009)
구릉지		신천동 53번지유적	수혈유구1	울산발전연구원 (2009)
"		송정동유적	목관묘3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5), 누리고고학연구소(2019)
"		산화동 화암유적(1·2유적)	목관묘13	울산발전연구원(2011)
"		장현동유적	목관묘36	울산문화재연구원(2013)
"		동동 65-1번지 외 1필지유적	주거지2	울산문화재연구원(2022)
"		약사동 861유적	수혈31, 소형수혈군250	울산문화재연구원(2005)
"		병영성유적	주거지4	울산문화재연구원(2005)
"		다운동유적 II (창원대)	목관묘	창원대학교박물관(2006)

시기	입지	주요 유적	관련 유구	출처
IV	"	다운동 마구역유적(울발연)	목곽묘1	울산발전연구원 (2003)
	"	다운동 바구역유적(울발연)	목곽묘17, 옹관묘1	울산발전연구원 (2005)
	총적지	입암리유적	주거지13	울산발전연구원(2013)
	구릉지	구수리 277유적	탄요1	울산문화재연구원(2011)
	"	하삼정고분군	목곽묘86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9)
	"	하삼정유적	목곽묘24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7)
	"	서하리 서하유적 III구간	유로1	울산발전연구원(2006)
	"	교동리 19유적	주거지1	울산문화재연구원(2009)
	"	교동리유적	주거지1, 수혈223, 목책열2, 구11, 지상식건물지284	울산문화재연구원(2009)
	"	조일리 65-3유적	목곽묘4	울산문화재연구원(2019)
	"	검단리유적	탄요2	부산대학교박물관(1995)
	"	하대유적	목곽묘81, 옹관묘6	부산대학교박물관(1997)
	총적지	대대리 144-4,5번지유적	저습지, 주혈군 등	울산문화재연구원(2008), 한국문화재단(2015)
	구릉지	원산리 102-2번지유적	주거지6	울산발전연구원(2010)

3) 포항-영천지역

포항지역에는 취락관련 자료가 많지 않지만, 대규모 취락지인 호동유적과 성곡리유적을 통해 3~4세기대 주거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옥성리유적은 삼한~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분묘가 600여기 이상 확인된 대규모 고분군이다. 이 유적은 기원전 1세기 전엽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3~4세기대에 전성기를 보이는 영남지방의 동 시기 최대 집단 묘역 중 하나이다.

영천지역에는 이 시기와 관련된 취락 자료가 빈약한데, 최근 완산동 일대에서 주거지 자료가 일부 확인되었다. 분묘 자료는 용전리와 어은동에서 목관묘가 확인되었다.

포항-영천 지역의 시기별 주요 유적의 현황은 [표 2-4]와 같다.

[표 2-4] 포항-영천지역 시기별 유적 현황

시기	입지	주요 유적	관련 유구	출처
I 기	구릉지	포항 원동 2지구유적(3차 I 구역)	주거지1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3)
	구릉지	포항 도구리 산17-4번지유적	수혈1	한빛문화재연구원(2015)
II	"	포항 마산리고분군	목관묘1	금오문화재연구원(2020)
III	"	포항 마산리고분군	토광묘1	금오문화재연구원(2020)
III	구릉지	포항 성곡리유적	목관묘12, 옹관묘1	한빛문화재연구원(2012)
	"	포항 초곡리유적	목관묘7, 옹관묘3, 토광묘1	영남문화재연구원(2014)
	"	포항 증명리 옹관묘유적	옹관묘8	성림문화재연구원(2009)
III~	"	포항 옥성리유적	목관묘20, 목곽묘, 옹관묘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1998)

시기	입지	주요 유적	관련 유구	출처
IV			등	국립경주박물관(2000) 등
IV	구릉지	포항 성곡리유적	주거지16	한빛문화재연구원(2012)
	구릉지	포항 도구리 산17-4번지유적	주거지3, 구상유구1	한빛문화재연구원(2015)
	"	포항 호동유적	주거지273, 수혈유구34, 구상유구4 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8)
I	총적지	영천 완산동유적	주거지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8)
III	"	영천 완산동유적	주거지1	"
IV	총적지	영천 봉죽리유적	구1, 매납유구3	다은문화재연구원(2021)
	구릉지	영천 완산동 186번지유적	주거지9, 수혈14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2017)

4) 경산지역

경상북도의 남쪽에 위치하는 경산은 낙동강의 한 지류인 금호강의 중류에 위치하며, 남쪽과 동쪽으로는 청도군, 북쪽과 동쪽으로는 영천시, 서쪽으로는 대구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경산은 지형적으로 대구분지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남쪽과 북쪽은 산지이고 중앙부에는 넓은 평야가 전개되어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경산지역에는 압독국(押督國) 또는 압량소국(押梁小國)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국의 고지(故址)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임당유적이다. 이 유적은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조영동, 경산군 압량면 부적리의 구릉지대에 대략 1km 범위에 걸쳐 있으며, 임당동고분군, 조영동고분군, 부적리고분군 등 대규모 고분군과 생활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임당유적에서는 조영 IB지구와 F지구에서 확인된 목관묘 자료로 볼 때 II기부터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분묘 외에 생활유구 자료는 의례시설로 추정되는 이중환호가 I 지구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 등 생활유구는 환호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임당유적에서 2.5km 떨어진 중산동 200번유적에서는 수혈유구 22기, 경작유구가 확인되었으며, 10km 정도 이격된 위치의 경리 440-5번지유적에서는 주거지 3기, 수혈유구 5기, 옹관묘 4기가 확인되어 주변 취락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III기에는 A·C·D·E지구에서 목관묘가 확인되었는데, 시간적 흐름에 따라 유적 서쪽 및 중앙에서 동쪽으로 분묘군이 이동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활유구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IV기에는 주거지 자료가 임당 I 지구와 F지구에서 대규모로 확인되었다. I 지구에서는 주로 방형계와 원형계의 수혈주거지가 분포하고 있고, F지구에서는 지상식의 주구부건물지(周溝附建物址)의 형태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I 지구와 F지구는 주거의 형태와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묘는 100여기 이상의 목곽묘와

[표 2-5] 경산지역의 시기별 유적 현황

시기	입지	주요 유적	관련 유구	출처
I	구릉지	경산 중산동유적	수혈유구5, 목관묘1	영남문화재연구원(2019)
	"	경산 하양 대학리유적	주거지1, 수혈유구15, 구상유구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구릉지	경산 조영 1B지구 목관묘군	목관묘3	영남대학교박물관(1998)
	"	경산 임당동유적(F지구)	목관묘10	영남문화재연구원(1999)
	총적지	경산 중산동 200번지유적	수혈유구22, 경작유구1	흥익문화재연구원(2022)
	구릉지	경산 경리 440-5번지유적	주거지3, 수혈유구5, 옹관묘4	삼한문화재연구원(2011)
	"	경산 평사리유적	수혈4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6)
II	구릉지	경산 임당동 환호유적 (임당동 207-1번지유적 포함)	이중 환호1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2009)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9)
	"	경산 임당 A·1B·E·F·G지구 목관묘군	목관묘 다수	영남문화재연구원 외
III	구릉지	경산 임당 A·C·D·E지구 목관묘군	목관묘 다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	경산 신대리유적	목관묘112, 옹관묘47 등	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	경산 하양 양지리유적	주거지1, 목관묘6	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	경산 하양 대학리 51-1번지유적	수혈유구14, 석관묘2, 집수시설1, 구1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8)
	총적지	경산 옥산동 300번지유적	수혈유구18, 토기매납유구1, 구1	영남문화재연구원(2011)
IV	구릉지	경산 임당 임당동유적 (F지구)	주거지58, 야외노지30, 변소4	영남문화재연구원(1999)
	총적지	경산 임당동 마을유적 (I지구)	주거지22, 저습지	영남문화재연구원(2008)
	구릉지	경산 임당동 목관묘군	목관묘 다수	영남문화재연구원 외

옹관묘 등이 유적의 동쪽과 중앙에서 서쪽으로 입지를 달리하여 분포된 양상이 확인되었다.⁴²⁾ 경산지역의 시기별 주요 유적의 현황은 [표 2-5]와 같다.

5) 대구지역

대구지역에는 원형점토대토기(I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II기) 단계의 소규모 취락유적이 각산동 912-6번지와 이천동 295-7번지유적, 그리고 칠곡 3택지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지표채집을 통해 연암산유적, 서변동 670번지 일대유적, 침산유적, 월성동1275번지유적에서 생활과 무덤 관련 자료가 확인되었다. 이 중 연암산유적은 금호강변 구릉의 완만한 경사면에서 무문토기, 두형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우각형파수부호 등의 토기류와 검파두식, 유구석부, 편평편인석부, 석기의 원석인 석재(石材) 및 미완성석기 등 석기류가

42) 장용석, 2002, 『경산 임당유적의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백 점 채집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백 점의 석기류의 출토 양상을 통해 석기를 대량으로 제작했던 작업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월성동 1275번 지유적에서는 목관묘로 추정되는 유구에서 흑도장경호가 채집되었으며, 서변동에서는 유 견동부가 채집되었다.

이후 Ⅲ기의 이른 시기에는 달성 평촌리유적에서 구들이 설치된 원형계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외에 생활유적의 사례는 빈약하지만, 대구 팔달동유적과 신서동유적에서 대규모의 목관묘군이 확인되어 인근에 취락지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Ⅳ기에는 취락유적보다는 분묘유적의 확인 비율이 높다. 취락유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봉무동유적이 있다. 봉무동유적에서는 주거지, 수혈, 제철 생산과 관련된 폐기장, 단야로 등이 확인되었다. 임당 취락유적으로부터 4km 정도 이격(離隔)된 곳에는 신서동유적과 매호동 1008번지유적이 분포한다. 경산지역의 시기별 주요 유적의 현황은 [표 2-6]과 같다.⁴³⁾

[표 2-6] 대구지역의 시기별 유적 현황

시기	입지	주요 유적	관련 유구	출처
Ⅰ	구릉지	대구 각산동 912-6번지유적	주거지12	영남문화재연구원(2008)
	총적지	대구 이천동 295-7번지유적	주거지3, 구상유구2	금오문화재연구원(2022)
	구릉지	대구 연암산유적	석기류, 토기류 다량 채집(석기제작장 추정)	윤용진 외 (1990)
	-	대구 전 서변동	유구미상(유견동부)	윤용진 외 (1990), 국립대구박물관(1999) 등
Ⅱ	총적지	대구 칠곡 3택지유적-2 · 3 구역	주거지8, 수혈14, 고상건물지14, 옹관묘1, 구6, 늪지1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0)
	"	대구 중동 생활유적	옹관묘1	성림문화재연구원(2022)
	"	대구 옥수동 94번지유적	수혈2	세종문화재연구원(2019)
	구릉지	대구 팔달동 목관묘	40호, 41호, 71호, 76호, 110호 등	영남문화재연구원(2000)
	총적지	대구 월성동 705 · 671유적	수혈2, 목관묘1, 옹관묘56, 매납유구3	삼한 · 대경문화재연구원(2022)
Ⅲ	총적지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	주거지6, 수혈유구2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0)
	구릉지	대구 대현동 목관묘유적	목관묘1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총적지	대구 월성동 777-2번지유적	목관묘1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8)
	총적지	대구 옥수동 128번지 생활유적	옹관묘1	영남문화재연구원(2001)
	구릉지	대구 팔달동유적	목관묘(35호, 39호, 42호, 44호, 45호, 90호, 100호 등), 옹관묘	영남문화재연구원(2000) 등
	"	대구 신천동 621-1번지유적	수혈유구7, 구3, 구상유구, 옹관묘1, 지상식 건물지,	삼한문화재연구원(2010)

43) 대구지역의 시기별 유적 현황 일부는 김권구(2016)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김권구, 2016b,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위계형성」,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영남문화재연구원.

시기	입지	주요 유적	관련 유구	출처
III			주혈군 등	
	총적지	대구 상동 1-64번지유적	수혈4	세종문화재연구원(2012)
	"	대구 학정동 487번지유적	수혈1, 목관묘10	세종문화재연구원(2012)
	"	대구 사수동 563번지유적	목관묘15, 옹관묘2	세종문화재연구원(2012)
	"	대구 가천동유적	목관묘4	영남문화재연구원(2004)
	총적지	대구 봉우동 750번지유적	주거지5	삼한문화재연구원(2011)
	구릉지	대구 팔달동유적	목관묘(12호, 26호, 29호, 50호, 95호 등), 옹관묘	영남문화재연구원(2000) 등
	총적지	대구 학정동 484번지유적	목관묘7, 옹관묘7, 토광묘4	영남문화재연구원(2009)
	"	대구 신서동유적 -B구역(남, 북)	남(목관묘35, 옹관묘7)/북(목관묘15, 옹관묘11)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2)/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1)
구릉지	대구 각산동유적	목관묘2, 토광묘1, 옹관묘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2)	
III~IV	총적지	대구 봉우동유적	주거지17, 수혈유구9, 옹해로 관련 폐기장1, 단야로1	영남문화재연구원(2011)
	구릉지	대구 동내동유적	목관묘6, 목관묘8, 옹관묘2	영남문화재연구원(2001)
IV	"	대구 괴전동유적	목관묘7, 옹관묘2	영남대학교박물관(2004)
	총적지	대구 신서동유적	수혈9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6)
	총적지	대구 시지지구 생활유적II	주거지2	영남문화재연구원(2000)
	구릉지	칠곡 심천리유적	주거지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4)
	총적지	대구 매호동 1008번지유적	주거지29, 주혈군	영남문화재연구원(2009)
	"	대구 동호 택지개발지구유적	수혈2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0)
	구릉지	대구 팔달동유적	목관묘1	영남문화재연구원(2000)
	총적지	대구 신서동 B구역 목관묘군(1차)	목관묘10, 옹관묘1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1),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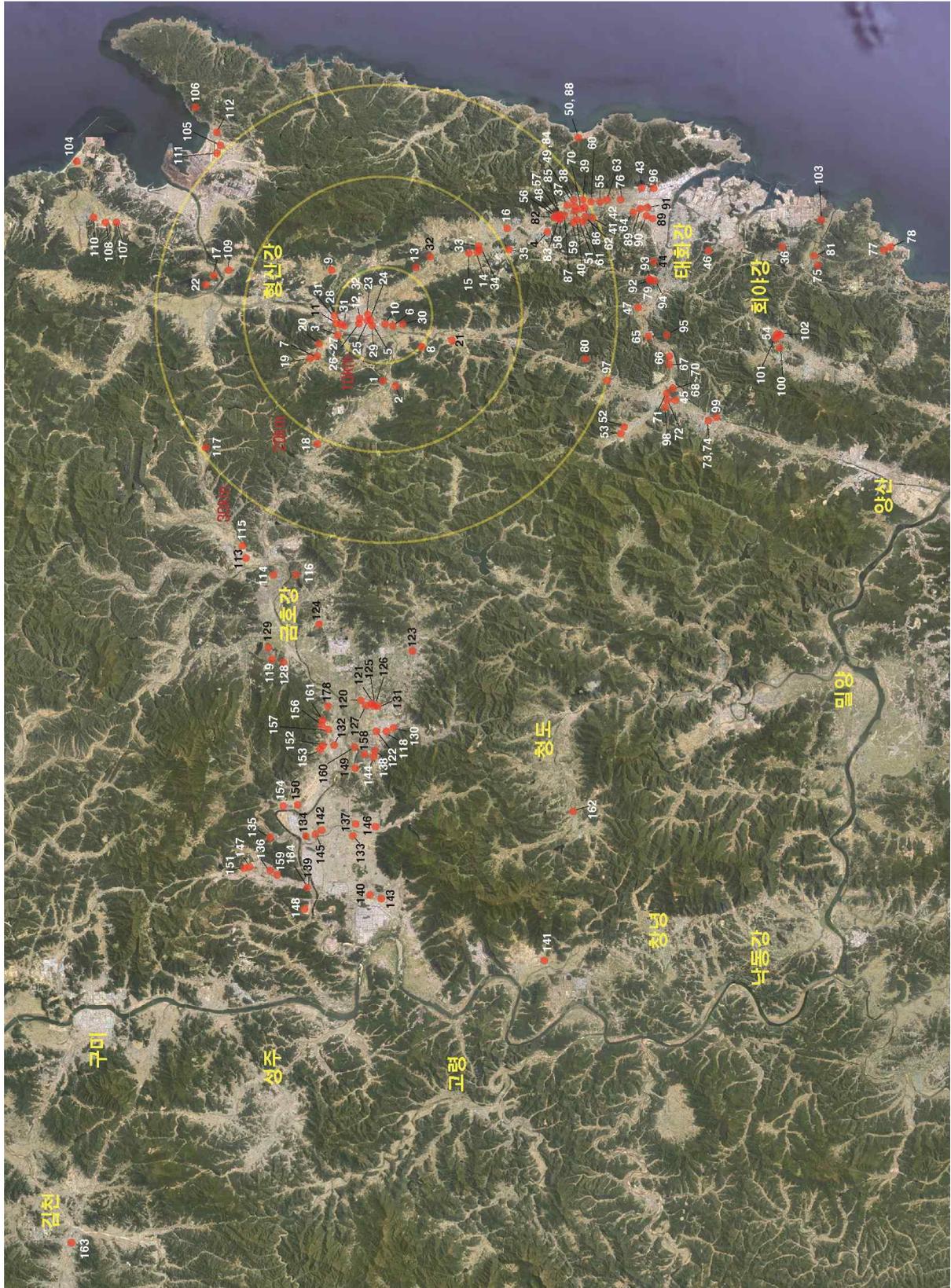
6) 기타 지역

이외에 청도와 김천⁴⁴⁾ 지역은 고고자료와 문헌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사로국과 관련된 3세기대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표 2-7]. 이상의 삼한시대 진한지역 유적의 분포 현황은 [도면 2-2]와 같다.

[표 2-7] 청도, 김천 지역의 유적 현황

시기	입지	주요 유적	관련 유구	출처
IV	총적지	청도 봉기리유적	주거지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6)
IV	구릉지	김천 모암동유적	주거지44, 수혈8, 길유구2, 주혈군2개소	영남문화재연구원(2015)

44) 김천지역은 대구, 경산, 포항, 경주, 울산 등의 진한지역과는 분포상 거리가 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따르면, 김천은 조분왕 2년에 사로국의 왕자인 우로(于老)의 공격을 받아 정벌되었다는 기록



이 있다. 또한 김천 모암동유적에서는 발굴된 3세기대 주거지 자료에서 진한지역의 주거문화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고려하여 김천지역을 본고의 대상 자료로 포함시켰다.

경주지역

1. 경주 광명동 산81-1유적
2.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3. 경주 금장리유적
4. 경주 문산리유적
5. 경주 월정고 남측부지
6. 경주 나정유적
7. 경주 하구리유적
8. 경주 망성리 612-1번지
9.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
10. 경주 탑동 목관묘군
(20-1·6번지, 21-3·4번지 유적)
11. 경주 황성동유적
12. 경주 황성동 강변로·교분군유적
13. 경주 조양동유적
14. 경주 북도리 55-1번지유적(33-1번지 포함)
15. 경주 죽동리 639번지유적
16. 경주 구어리 산461-1번지유적
17. 경주 인동리유적
18. 경주 사리리유적
19. 경주 소현리유적
20. 경주 소현리 115번지유적
21. 경주 소현리유적
22. 경주 인동리 670-1번지유적
23. 경주 월성 북서편유적
24. 경주 월성 해자유적
25. 경주 인왕동 814-3, 4번지유적
26. 경주 황성동 교분군유적
(545, 513-3, 545, 897-1번지)
27. 경주 황성동 강변로유적Ⅱ-Ⅳ
28. 경주 황성동 524-9번지 외 제철유적
29. 경주 황남동 95-6번지유적
30. 경주 남산 경릉사지 I
31. 경주 용강동유적
32. 경주 구정동 교분군유적
33. 경주 죽동리 560·561유적
34. 경주 죽동리 639번지유적
35. 경주 구어리 교분군유적

울산지역

36. 울산 덕신리 오산유적
37. 울산 매곡동유적(III-2지구)
38. 울산 매곡동 330-2번지유적
39. 울산 호계동 28-1유적
40. 울산 천곡동유적(나지구)
41. 울산 상안동고분군Ⅲ
42. 울산 상안동유적
43. 울산 효문동 산68-1유적
44. 울산 옥동·농소간 도로부지유적
45. 울산 교동리유적
46. 울산 두왕동·동백골 분동유적
47. 울산 입암리유적
48.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Ⅱ
49. 울산 매곡동유적(Ⅱ지구)
50. 울산 산화동 화암고분군(3구역)
51. 울산 신천동 585-6유적
52. 울산 산전리 비시미유적
53. 울산 상북유적
54. 울산 대대리 중대유적
55. 울산 연암동·효문동유적
56. 울산 중산동 547-1유적
57. 울산 중산동 542유적
58. 울산 중산동고분군(중산리유적)
59. 울산 천곡동 600-5번지 일원유적
60. 울산 신천동 53번지유적
61. 울산 달천유적(울산문화재연구원)
62. 울산 상안동 가재길유적
63. 울산 창평동 810번지유적
64. 울산 장현동유적
65. 울산 사연리 늪내유적
66. 울산 반송리 388-1번지유적
67. 울산 반송리 425-1유적
68. 울산 신화리유적Ⅲ(동대백)
69. 울산 신화리유적(현문연)

70. 울산 신화리유적(A-5지구)
71. 울산 교동리 103-14번지유적
72. 울산 교동리 192-37유적
73. 울산 상천리유적 I
74. 울산 상천리 941-4유적
75. 울산 대안리유적
76. 울산 송정동유적
77. 울산 화산리유적
78. 울산 명산리 314-1번지유적
79. 울산 다운동유적Ⅱ
80. 울산 하삼정유적, 하삼정교분군
81. 울산 발리 456-1유적
82. 울산 중산동 554-3번지유적
83. 울산 중산동 613-3번지유적
84.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
85. 울산 중산동 615번지유적
86. 울산 중산동 808-8번지유적
87. 울산 중산동 798-2번지유적
88. 울산 산화동 화암유적(1·2유적)
89. 울산 동동 65-1번지 외 1필지유적
90. 울산 약사동 861유적
91. 울산 병영성유적
92. 울산 다운동유적Ⅱ(창원대)
93. 울산 다운동 마구역유적(울발연)
94. 울산 다운동 바구역유적(울발연)
95. 울산 구수리 277유적
96. 울산 연암동, 효문동유적
97. 울산 서하리 서하유적Ⅲ구간
98. 울산 교동리 19유적
99. 울산 조일리 65-3유적
100. 울산 검단리유적
101. 울산 하대유적
102. 울산 대대리 144-4,5번지유적
103. 울산 원산리 102-2번지유적

포항·영천지역

104. 포항 원동 2지구유적(3차 I 구역)
105. 포항 도구리121, 산17-4번지유적
106. 포항 마산리고분군
107. 포항 성곡리유적
108. 포항 초곡리유적
109. 포항 증명리 옹관묘유적
110. 포항 옥성리유적
111. 포항 도구리산17-4번지유적
112. 포항 호동유적
113. 영천 환산동유적
114. 영천 봉죽리유적
115. 영천 환산동 186번지유적
116. 영천 어은동유적
117. 영천 용전리유적

경산지역

118. 경산 중산동유적
119. 경산 하양 대학리유적
120. 경산 조영 1B지구 목관묘군
121. 경산 임당동유적(F지구)
122. 경산 중산동 200번지유적
123. 경산 경리 440-5번지유적
124. 경산 평사리유적
125. 경산 임당동 환호유적
(임당동207-1번지유적 포함)
126. 경산 임당 A·1B·C·D·E·F·G지구 목관묘군
127. 경산 신대리유적
128. 경산 하양 양지리유적
129. 경산 하양 대학리 51-1번지유적
130. 경산 옥산동 300번지유적
131. 경산 임당동 마을유적(지구)

대구지역

132. 대구 각산동 912-6번지유적
133. 대구 이천동 295-7번지유적
134. 대구 연암산유적
135. 대구 전 서변동
136. 대구 칠곡 3택지유적-2·3구역
137. 대구 중동 생활유적
138. 대구 옥수동 94번지유적
139. 대구 팔달동유적
140. 대구 월성동 705·671유적
141.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
142. 대구 대현동 목관묘유적
143. 대구 월성동 777-2번지유적
144. 대구 옥수동 128번지생활유적
145. 대구 신천동 621-1번지유적
146. 대구 상동 64번지유적
147. 대구 학정동 487번지유적
148. 대구 사수동 563번지유적
149. 대구 가천동유적
150. 대구 봉우동 750번지유적
151. 대구 학정동 484번지유적
152. 대구 신서동유적-B구역(남, 북)
153. 대구 각산동유적
154. 대구 봉우동유적
155. 대구 동내동유적
156. 대구 괴전동유적
157. 대구 신서동유적
158. 대구 시지지구 생활유적Ⅱ
159. 대구 칠곡 심천리유적
160. 대구 매호동 1008번지유적
161. 대구 동호 택지개발지구유적

기타 지역

162. 청도 봉기리유적
163. 김천 모암동유적

※ 지도 바탕 : 구글어스

[도면 2-2] 삼한시대 진한지역 유적 분포도

3. 수혈주거지 검토

취락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거지는 한 가구의 생활기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는 취락 고고학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분석대상이 된다. 발굴자료를 통해 남겨진 삼한시대 진한지역 고대 주거의 형태는 크게 생활 바닥면(상면, 上面)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형성된 ‘수혈주거지(豎穴住居址)’와 바닥면이 지표면에 위치하거나 이보다 높은 위치에 형성된 ‘지상식 건물지(地上式 建物址)’로 구분된다.

지상식 건물지는 수혈주거지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활면(床面)의 위치에 따라 지면식 건물지(地面式 建物址)와 고상식 건물지(高床式 建物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면식 건물지는 지표면 상에 생활면을 설치한 건물을 말하며, 고상식 건물지는 생활면이 지면식보다는 높은 위치에 만든 것을 말한다. 최근까지 고고학계에서는 지상식 건물지의 개념을 굴립주 건물지(掘立柱 建物址)로 통칭하여 왔으나 이는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개념의 기준은 서로 다르다. 굴립주 건물은 주혈에 기둥을 세우고 가구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일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개념화된 것이다.⁴⁵⁾ 일본에서 굴립주 건물지는 ‘평옥(지면식) 건물(平屋建物)’과 ‘고상 건물(高床建物)’로 대별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 외에 움집 즉 수혈주거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굴립주 건물지’라는 용어 보다는 상(床)의 위치에 따라 분류기준을 두고 수혈주거와 대비되는 ‘지상식 건물지(地上式 建物址)’라는 분류명을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이 지상식 건물지의 용도 및 기능과 관련해서는 하계용(夏季用) 주거, 창고, 망루(望樓), 기타 작업장 등 유적의 입지와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대체로 지상식 건물지는 주거의 부속 및 특수 시설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상식 건물지만으로 구성된 취락유적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상식 건물지 가운데 지면식은 수혈주거지 내 기둥 배치와 유사하여, 수혈주거의 지상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본고에서는 삼한시대 진한지역 주거지를 수혈주거지와 지상식 건물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 주거지의 구조 속성과 주거유형 검토

45) 배덕환(2005)은 지상식 건물(地上式 建物)을 상(床, 생활면)의 위치에 따라 지상식(地床式)과 고상식(高床式)으로 분류하였다. 본 논고도 크게 이 안에 따랐다. 그러나 한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대분류인 지상식 건물(地上式 建物)과 소분류인 지상식건물(地床式 建物)이 용어상 겹칠 수 있다.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지상식 주거지의 분류를 상(床, 생활면)의 위치에 따라 지면식(地面式)과 고상식(高床式)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따르겠다.

배덕환, 2005, 「선사·고대의 지상식 건물」, 『동아문화』 창간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월성해자-고찰-』.

(1) 주거지 구조 속성

진한지역에서 삼한시대 수혈주거지가 발굴된 유적은 51개소이며, 분석은 744동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거지의 구조를 이루는 많은 구성 요소가 있지만, 크게 보아 평면형태, 기둥배치, 노시설, 면적, 벽구시설 등이 있다.

고고자료에 있어서 속성의 종류는 크게 시간적 속성, 공간적 속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속성이 있는데,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⁴⁶⁾ 주거지의 구조 속성들 역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먼저 평면형태와 기둥형태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시간적 속성과 공간적 속성으로 작용하였다. 대체로 기원 3세기를 전후하여 경주, 울산, 포항 등 낙동강 이동지역에서는 방형계 주거지가 출현하여 유행했으나, 사천, 함양 등의 낙동 이서지역에서는 원형계 주거문화가 4세기 후엽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지역별로 채용되고 선호되는 주거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 평면형태에 따라 기둥 배치도 달라지는데, 기원 3세기대에 원형계 주거지에서는 외주식과 벽주식을 선호하나, 방형계 주거지에서는 벽주식과 4주+벽주식 기둥 배치를 선호함을 볼 수 있다. 이로써 평면형태와 기둥형태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공간적 속성으로서 지역의 주거문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적 속성으로는 노시설과 면적을 들 수 있다. I·II기의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에서는 얇은 수혈을 파거나 바닥 그대로를 이용하여 불을 지핀 무시설식 노시설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III기에는 새롭게 부뚜막과 구들문화가 영남지방에 전래되어 성행하게 된다. 특히 초기 구들은 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나 점차 지역의 환경에 맞게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되어 간다. 이는 노시설이 시간적 속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속성으로도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면적은 각 시기에 따라 소형→중형→대형→초대형으로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삼한시대 낙동강 이동과 이서 지역의 주거유적에서 모두 나타나는 양상이다. 한편, 면적은 계층적 속성으로도 작용하였다. 특히 수혈주거지 보다는 지상식 건물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거지의 면적에서 보이는 계층화 현상은 분묘자료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목곽묘는 규모에 따라 입지와 부장품 등에 있어서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면적이 계층적 속성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벽구시설은 연구자에 따라 시간적 속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벽구시설은 시간적 속성보다는 구릉지와 충적지 등의 입지적 환경이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삼한시대 주거지 구조 중 시간성, 공간성, 사회·문화적 특히 계층성이 잘 나타내는 속성으로는 평면형태, 기둥 배치, 노시설, 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주거지 구조 속성들은 삼한·삼국시대 영남지방 주거지에 대해 검토한 선행 연구들⁴⁷⁾에서

46) 곽종철, 1988, 「편년표작성을 위한 방법적 사례의 정리」, 『고대연구』, 48쪽

47) 김나영, 2007, 「영남지방 삼한시대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 『영남고고학』 43, 영남고고학회.

권귀향, 2012, 『낙동강 이서지역 삼국시대 주지의 전개양상』,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역, 2009, 「영남내륙지역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영남지방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대체로 유효한 구조 속성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고는 진한지역 주거지 구조 속성은 평면형태, 기둥배치, 노시설, 면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평면형태와 기둥배치

평면형태는 주거지의 상부구조와 지붕형식의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변 · 진한 주거지에서는 (말각)방형, (말각)장방형, 세장방형, 원형, 타원형, 제형, 부정형 등 다양한 평면형태가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유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장 · 단축비를 기준으로 방형과 장방형, 원형과 타원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주거지의 장축과 단축이 양호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명확한 분석 데이터를 얻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평면형태를 세분하지 않고 크게 원형계(Ⅰ)와 방형계(Ⅱ)로 구분하였다. 한편, 울산 입암리유적에서는 변 · 진한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凸’자형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는 예계 문화권으로 특징지어지는 중도식(中島式) 주거 형태이다. 따라서 ‘凸’자형은 영남지방에서 울산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사례이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검토하겠다.

기둥배치는 평면형태와 함께 지붕의 하중과 벽체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거지의 공간활용과 외형에 큰 영향을 준다. 진한지역 주거지에서는 무주혈식(無柱穴式), 외주식(外柱式), 벽주식(壁柱式), 4주식, 4주+벽주식, 중앙주식+벽주식 등 다양한 기둥 배치 형태가 확인된다. 이 중에서는 무주혈식, 외주식, 벽주식, 4주식, 4주+벽주식의 기둥 배치가 각 시기에 따라 설치 빈도가 높은 편이다.

먼저, 무주혈식(1)은 주거지 내부나 외부에서 주혈이 확인되지 않는 형태이며, 외주식(2)은 주거지 외부 가장자리를 따라 기둥이 배치된 형태이다. 벽주식(3)은 벽을 따라 일정한 간격의 기둥구멍이 일주하는 형태이다. 주(중심) 기둥은 일주하는 주혈의 네 모서리에 두거나 바닥의 주 기둥 없이 벽주 자체만으로 상부 구조를 지탱하는 형식이다. 4주식의 기둥배치는 벽주(壁柱) 기둥의 유무에 따라 중심 4주만 확인되는 형태(4a)와 중심 4주에 벽주가 부가된 형태(4b)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무주혈식은 주거지 내부에서 주혈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둥배치와 상부구조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째, 수혈 밖 지면에 직접 서까래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거지의 수혈 외부에 주제(周堤=흙담)를 설치하거나 벽체시설로 상부 구조를 지탱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기둥을 지면 위에 바로 세우거나 초석으로 받쳤을 가능성도 있다.

삼한시대 주거지는 주거 바닥의 지상화와 건축 기술의 발달에 따라 둘째와 셋째 경우처럼 지붕의 상부구조를 지탱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주혈식의 경우 상부구조를 복원할 때 이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삼한 · 삼국시

영남고고학회, 제18회 영남고고학 학술발표회 요지문. 영남고고학회.

공봉석, 2014, 「신라의 주거와 취락」, 『신라고고학개론 상(上)』, 중앙문화재연구원: 진인진.

공봉석, 2015a, 「신라 · 가야 취락의 분화와 전개」, 『영남고고학』 73, 영남고고학회.

강정미, 2011, 『기장 가동 취락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둥배치 평면형태	무주혈식 1	외주식 2	벽주식 3	벽주 기둥의 유무(有無)	
				4주식 4a	4주+벽주식 4b
원형계(I)					
방형계(II)					

[도면 2-3] 평면형태에 따른 기둥배치의 유형분류

대의 주거지를 발굴조사할 경우 중복된 양상과 후대 삭평 등으로 인해 정확한 기둥 형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⁴⁸⁾ 따라서 무주혈식으로 분류된 주거지 중에서는 벽주식이나 중심기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건축 기술의 발달에 따른 주거의 지상화로 인해 기둥은 주혈을 파지 않고 지면에 바로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I~Ⅲ기에 주혈이 확인되지 않는 주거지는 첫째와 둘째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IV기에는 지상식의 방형계 주거지가 출현하면서, 지붕의 상부구조는 이전의 I~Ⅲ기 주거지와 달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V기의 주거지 자료에서 기둥 구멍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는 주거지 발굴조사 시에 기둥 구멍을 찾지 못했거나 기둥을 상면에 바로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도면 2-3]은 주거지의 기둥 배치 양상을 원형계(I)와 방형계(II)의 평면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② 노시설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부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취사와 난방을 위한 노(爐: 화덕)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여겨지며, 이는 주거용 건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 삼한시대 주거지의 내부 구조 속성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노 시설의 발전과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48)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부산 기장 가동유적의 발굴조사를 참여한 필자는, 삼국시대 주거지를 조사할 때 구릉 끝자락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곡간 층적층에서는 두터운 퇴적층과 심한 중복양상으로 인해 주거지의 수혈선과 내부시설을 찾기 어려웠다. 반면, 퇴적층이 없는 구릉 끝자락의 기반층에 형성된 삼국시대 주거지는 층적층에 형성된 주거지군보다 유구선과 내부시설 등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 단계의 주혈(柱穴) 조사는 1·2차 평면조사를 마무한 후 주거지 바닥을 일정 깊이 이상 굴착하여 주혈(기둥) 확인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기반층에 형성된 주거지는 곡간 층적층에 형성된 주거지군보다 더 명확한 기둥 배치(4주+벽주식)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층적지에 입지하는 수혈주거지 중에서 주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중심기둥(4주식)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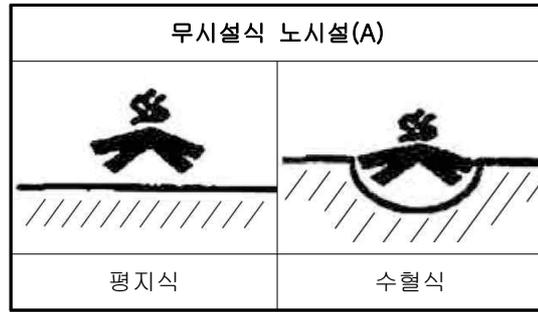
진한지역에서 삼한시대 주거지의 노시설은 무시설식(평지식, 수혈식), 부뚜막식, (외줄, 쪽)구들식(온돌식), 부석식(敷石式) 등의 구조가 확인된다. 이 중 가장 설치 비율이 높은 노시설의 구조는 무시설식, 부뚜막식, 구들식이다.

무시설식(A식)은 청동기시대 노지(爐址)처럼 주거지의 바닥에 별다른 시설물 없이 불을 지핀 구조를 의미한다. 이 노시설은 주거지의 바닥면 위에 불을 직접 지핀 평지식(또는 상면식)과 바닥면에 수혈(竪穴, 구덩이)을 얹게 파서 불을 지핀 수혈식으로 구분된다. 무시설식 노시설은 인간이 불을 사용하여 난방과 취사를 하기 시작했던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형태이다. 삼한시대 진한지역의 주거지에서 무시설식 노시설은 I기에서 IV기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으며, 설치 비율은 I기와 II기가 높았고, III기와 IV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도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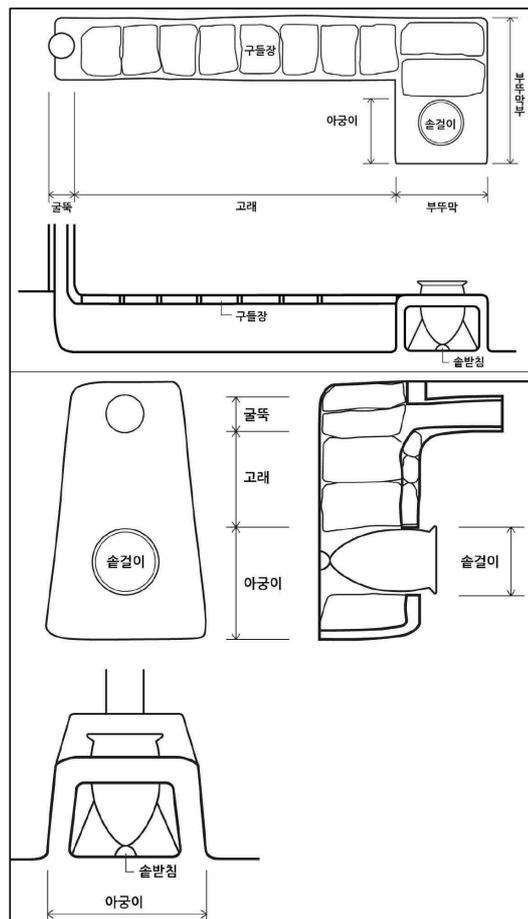
다음으로, 부뚜막식과 구들식은 무시설식에 비해 분화된 세부 구조와 상부의 구조물을 갖추고 있다. 먼저, 부뚜막식(B식)은 흙(粘土)과 돌(石材) 등을 이용하여 벽체와 천정을 쌓아 올려서 불을 들이는 아궁이부(火口部)와 솥을 걸고 받칠 수 있는 솥걸이, 그리고 솥받침(지각)을 만들고, 그 뒤쪽에는 고래를 굴뚝으로 연결하여 연기를 배출시키는 구조이다[도면 2-5].

부뚜막식(B식)은 다시 설치된 위치에 따라 세분되는데, 주거지 벽에 밀착되거나 근접해서 설치된 형태(가식: 밀착)와 주거지 벽가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된 형태(나식: 이격)로 구분된다. B가식은 연기를 주거지 외부의 굴뚝으로 바로 연결하여 배출시키고, B나식은 연기를 지붕 위의 환기구멍을 두어 배출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2-6].

구들식(C식)은 부뚜막에서 연기를 배출하는 시설까지 터널처럼 길게 마련한 형태이다. 삼한시대의 구들은 대체로 고래가 외줄인 즉 쪽구들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구들은 한자로 구들(溫突·溫堦)이라 하며, 아궁이



[도면 2-4] 무시설식 노시설의 분류(이민석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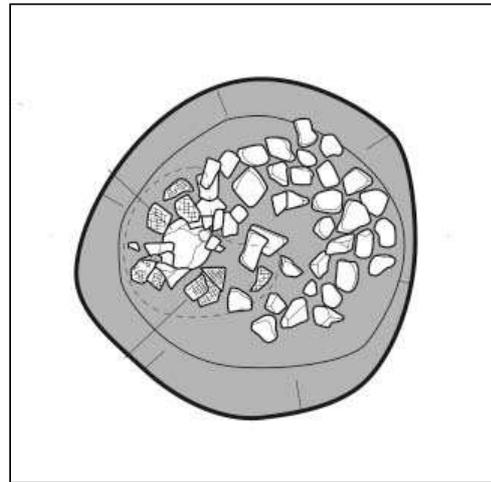


[도면 2-5] 부뚜막 · 구들식 노시설의 세부 명칭 모식도(오승환 2018)

부뚜막식(B)		구들식(C)	
가(수혈벽 밀착)	나(수혈벽 이격)	가(수혈벽 밀착)	나(수혈벽 이격)

[도면 2-6] 위치에 따른 부뚜막·구들식 노시설 분류 모식도

의 불길과 연기(火氣)가 바닥에 깔린 고래를 지나 굴뚝으로 빠져 나가면서 방을 따뜻하게 데워 난방하는 시설이다. 고래 상면의 구들장이 데워지면서 전도 열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방 전체로 복사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따뜻한 공기가 대류하므로 한꺼번에 전도·복사·대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날에 한옥에 설치되는 구들은 방바닥 전면에 고래가 놓이지만, 조선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방 안에 부뚜막과 고래가 모두 놓이는 ‘쪽구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쪽구들은 구들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시원적인 형태로 오늘날의 온구들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아궁이의 연기가 고래를 지나면서 구들장을 데워 난방을 한다는 기본적인 구조는 오늘날의 구들과 동일하다[도면 2-5]. 따라서 이를 구들이 아닌 별개의 용도나 명칭으로 분리해서 이해하기보다 구들 유형의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구들’의 범주 안에는 시원적인 형태의 ‘쪽구들’부터 오늘날의 ‘온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구들이 포함된다.⁴⁹⁾



[도면 2-7] 울산 입암리유적 부석식 노시설

변·진한의 원형계 주거지에서는 대체로 수혈벽면 가까이에 구들식 노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평면형태는 호상(弧狀)을 띤다. 반면 방형계 주거지에서는 생활면의 지상화와 벽체의 발달에 따라 구들이 수혈 벽면에서 점차 이격(離隔)되어 벽체 안쪽에 연접하여 설치된다. 구들의 평면형태는 ‘—’자상, ‘ㄱ’자상, ‘ㄷ’자상, ‘S’자상 등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어 간다. 따라서 구들식은 설치된 위치에 따라 주거지 벽가에 밀착되거나 근접해서 설치된 형태(가식: 밀착)와 주거지 벽가에서 일정거리이상 떨어져 설치된 형태(나식: 이격)로 세분할 수 있다[도면 2-6].

이외에도 울산 입암리유적에서는 부석식 노시설이 확인된다. 이 노시설은 타원형의 얇

49)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25쪽

은 수혈 내부에 작은 판석(板石) 여러 개를 1단 깔고 빈틈에 점토를 메워 마무리한 구조로, 주로 경기 남동부, 북부, 영서, 영동 지역에서 확인되는 중도식 노지와 유사하다(도면 7). 또한 I·II기 주거지에서는 수혈 벽 가까이에 부뚜막의 시원적 형태인 벽부식(壁付式) 노(爐)⁵⁰⁾가 변한지역인 김해 구산동유적에서 확인되나 진한지역에서는 아직 확인사례가 없어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

③ 면적

면적은 주거지 내부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주 인원수 추정을 통한 세대분화, 거주자의 신분(계층화), 지역 정치체의 인구수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주로 면적을 통해 거주 인원을 추정하는데, 1인당 주거면적은 크게 3㎡와 5㎡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적 산출은 주거지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거주 인원수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주거지의 면적 분류에 있어서는 연구자마다 시기, 지역, 유적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공봉석은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의 주거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면적의 기준을 선행 연구성과와 함께 각 지역권별로 비교·검토하여 소형(24㎡ 이하), 중형(25~39㎡), 대형(40~50㎡), 초대형(51㎡ 이상)으로 분류하였다.⁵¹⁾ 본고는 선행연구를 통해 영남지방 삼한시대 주거지의 면적을 분류한 바 있다.⁵²⁾ 면적 기준은 잔존 상태가 양호한 삼한시대 주거지 자료를 대상으로 도수 분포 분석을 통해, 24㎡ 미만을 소형, 24㎡ 이상~42㎡ 미만을 중형, 42㎡ 이상~51㎡ 미만을 대형, 51㎡ 이상을 초대형으로 분류하였다. 공봉석의 면적 분류안은 본고의 선행 연구 분류안과 거의 일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면적 기준은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공봉석의 안에 따라 소형(가: 24㎡ 이하), 중형(나: 25~39㎡ 미만), 대형(다: 40~50㎡ 미만), 초대형(라: 51㎡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 주거유형 분류

주거유형은 필자의 선행 연구(김나영 2007)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나 기둥 배치와 노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정된 사항이 있다. 주거유형의 대분류는 지역성과 시간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평면형태로 하였고, 소분류는 기둥 배치와 노시설에 두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평면형태는 크게 원형계(I류)와 방형계(II류)로 구분하였고,

50) 벽부식(壁付式) 노(爐)는 주거지 바닥과 벽면에 피열흔(皮熱痕: 불에 탄 흔적)이 확인되고, 솔을 걸 수 있는 솔받침이 확인되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부뚜막식 노시설과는 다른 서양의 패치카와 유사한 구조로 생각된다. 벽 가까이에 설치된 노(爐)는 상부 구조물이 없으면 주거지 내부에 환기가 되지 않고, 화재의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과 돌로 벽체와 천정을 쌓아 올려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고래와 굴뚝을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1) 공봉석, 2013, 「영남지방 원삼국·삼국시대 주거」,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문, 한국고고학회, 138쪽

공봉석, 2015a, 「신라·가야 취락의 분화와 전개」, 『영남고고학』 73, 영남고고학회, 34쪽

52) 김나영, 2007, 『영남지역 삼한시대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37쪽

평면 기둥배치 노 시설	원형계(I)					방형계(II)				
	무주 혈식	외주식	벽주식	4주식 (벽주의 유무)		무주 혈식	외주식	벽주식	4주식 (벽주의 유무)	
				4주식	4주+ 벽주식				4주식	4주+ 벽주식
	1	2	3	4a	4b	1	2	3	4a	4b
무시설식 (A)										
부뚜막식 (B)										
온돌식 (C)										

[도면 2-8] 원형계(I)와 방형계(II) 주거지의 유형분류(김나영 2007 수정)

기둥 배치는 무주혈식을 1식, 외주식을 2식, 벽주식을 3식, 벽주 기둥의 유무에 따라 4주식을 4a식, 4주+벽주식을 4b식으로 분류하였다. 노시설은 무시설식을 A식, 부뚜막식을 B식, 구들식을 C식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의 유형을 분류하면 [도면 2-8]과 같다. 이상의 분류안을 바탕으로, 진한지역 주거지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지역별 주거 양상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검토한 주거지 속성 분류를 기반으로, 진한지역 가운데 비교적 자료가 양호한 유적을 중심으로 각 시기별 주거지의 특징과 변화양상을 살펴보겠다.

(1) 경주지역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삼한시대 주거유적은 [표 2-8]처럼 7개소로 수량은 81동이다. 진한의 맹주인 사로국의 주거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확인된 자료 중에는 사로국의 주거 형성과 전개를 파악할 수 있는 양상들이 확인되는 점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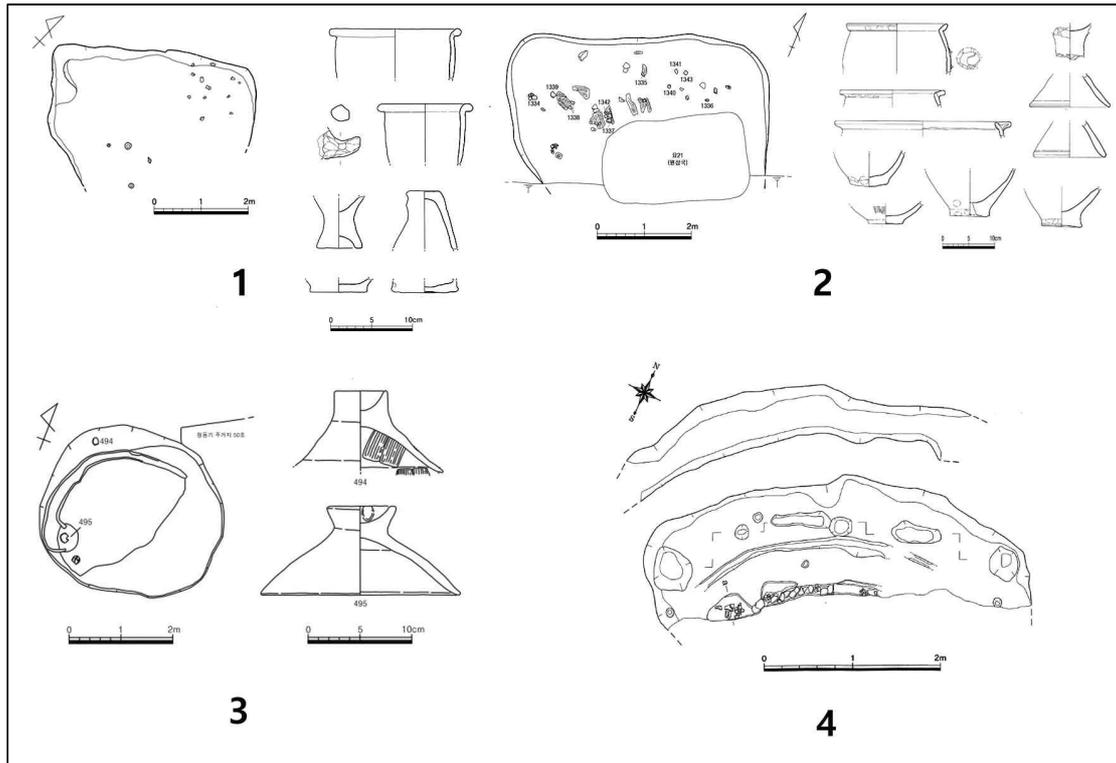
먼저, I기에 해당하는 화천리 산251-1유적 I[도면 2-9-1]과 광명동 산81-1번지유적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 해당하는 유물이 출토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들의 주거 양상은 전형적인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이탈 또는 변형된 모습이다. 평면형태는 원형계, 방형계, 부정형을 보이거나 방형계가 주류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평지식 노시설 외에는 별다른 시설물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평면형태가 부정형한 수혈의 형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출토된 유물로는 원형점토대옹편, 흑도장경호, 두형토기편,

조합우각형파수편, 지석, 석도 등이 있다. 주거지의 잔존 양상으로 보아, 단기간 거주했던 주거시설로 추정된다.

Ⅱ기에는 천군동 큰마을유적[도면 2-9-2]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 2동이 확인되었다. 1호는 평면형태가 방형계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 중앙에 수혈식 노시설이 설치되었다. 2호는 주거지보다는 수혈로 판단되며, 3호에서는 삼각형 점토대토기 단계 유물과 수구 1식 단계의 야요이계(彌生系) 토기가 출토되었다.

Ⅲ기에는 화천리 산251-1번지[도면 2-9-3], 하구리[도면 2-9-4], 황성동 유적에서 부뚜막식 및 구들식의 노시설이 설치된 원형계 주거지가 새롭게 출현한다. 원형계의 평면형태와 부뚜막식 및 구들식 노시설은 이전 시기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구조 속성이다. Ⅲ기 이른 시기의 주거지로는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Ⅱ 2호가 있다. 이 주거지의 연대는 내부에 출토된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유물인 개와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1호와 3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와질토기로 보아, 기원 전 · 후에서 기원 1세기대로 추정된다. 이 주거지는 평면 원형계에 벽에 밀착되어 점토를 이용하여 만든 외줄의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되었다.

Ⅳ기에는 월성 북서편, 황성동, 하구리, 인동리 285-9번지 유적에서 부뚜막식과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된 방형계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 방형계의 평면형태는 원형계 주거지가 주류였던 Ⅲ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구조 속성이다. 특히 월성 북서편과 황성동, 그리고 하구리 유적은 사로국 당시 경주분지에 있었던 주거문화를 알



[도면 2-9] 경주지역 Ⅰ기(1: 화천리 산251-1번지 8호), Ⅱ기(2: 천군동 큰마을 D-3호), Ⅲ-1기 (3: 화천리 산251-1번지 2호, 4: 하구리 D-2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표 2-8] 삼한시대 경주지역 주거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시기	주거지 구조 속성									
			수량	평면형태			기동배치	노시설			면적	기타시설
				원형계	방형계	기타		무시설	부뚜막	구들		
1	화천리 산251-1유적	I	10	1	4	5	무주혈식	●			소·중형	벽구
		III-1	3	1		2		●		●	소형	벽구
2	광명동 산81-1유적	I	14		12	2	무주혈식	●				벽구
4	천군동 큰마을유적 II	II	2		2		무주혈식	●				
5	황성동유적	III	17	13	2	2	외주식, 벽주식	●	●		소형	벽구, 출입구
		IV-1	23	9	14		외주식, 벽주식, 4주식	●	●	●	소·중·대형	
		IV-2	6		6					●	중·대형	
6	하구리유적	III-2	1	1*			벽주식			●*		벽구, 내부구, 외곽주구
		IV-2	2		2		4주+벽주식	●				벽구
7	월성 북서편유적	IV-1	2		2		벽주식		●		중형	
8	인동리 285-9번지 유적	IV-2	1		1		벽주식					
합계			80	25	44	11						

이 중 황성동유적은 단야로, 정련로, 용해로 등이 확인된 철 생산 특수기능취락지이며, 사로국 주거문화의 형성과 전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주거문화와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된 삼한시대 주거지는 가지구에서 20동, 나지구에서 9동, 다지구에서 18동 등 총 47동이다. 이 유적의 주거지 구조 속성은 [표 2-9]와 같이 정리하였다.

① 평면형태

먼저, 황성동유적의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평면형태는 크게 원형, 방형, 부정형이다. 원형 주거지는 총 45동의 주거지 가운데 21동을 차지하며, 대체로 장·단축 비가 1.1:1이다. 방형 주거지는 말각 방형에 가까운 것이 다수이며, 장·단축 비는 1.3을 넘지 않는다. 부정형 주거지는 2동으로, 이 중 I 다-3호 주거지는 부정형한 평면형태와 요철이 심한 바닥 등의 양상으로 볼 때 주거가 아닌 다른 성격의 유구일 가능성도 있다.

다지구에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주로 원형계가 확인되나, 가지구에서는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가 혼재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나지구에서는 주로 방형계 주거지만 확

인된다. 가·나 지구에서 수혈 주거의 지상화가 진행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정형성

[표 2-9]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 구조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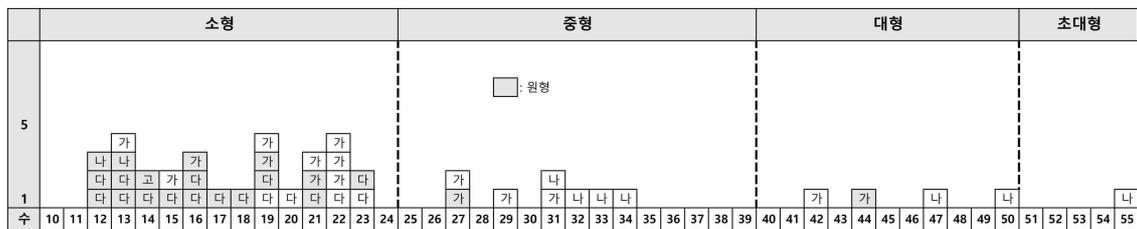
연번	호수	평면형태			장단 축비	규모(cm)			면적 (㎡)	노시설				주혈	비고	
		원형	방형	부정형		길이	너비	깊이		무시설식	부뚜막	온돌1	온돌2			아궁이부위 치
1	I다-1호	●			1.1:1	430	380	20	12.8		●*			서쪽벽	주혈(7)	화재
2	I다-2호			●	1.3:1	525	393	23	23	●				중앙부	주혈(2)	
3	I다-3호			●	2.0:1	710	360	40	20						주혈(1)	
4	I다-4호		●*		1.1:1	540	380	15	22		●			남쪽벽	주혈(3, 외 주식)	
5	I다-5호		●*		1:1	450	448	15	19		●*			동쪽		
6	I다-6호	●			1.1:1	500	450	15	17.7							
7	I다-8호	●			1.1:1	520	460	15	18.8	●				남서쪽2기	주혈(3)	
8	I다-9호	●			1.1:1	480	435	20	16.4		●*			동쪽벽	주혈(10, 벽 주식)	벽구, 화 재
9	I다-10호	●			1.1:1	440	410	20	14.2	●				동쪽벽	주혈(5)	화재
10	I다-11호	●			1.3:1	458	355	30	12.8		●*			서쪽벽	주혈(8)	화재
11	I다-12호	●			1.1:1	420	400	20	13.2	●				서쪽벽	주혈(5)	
12	I다-15호	●			1.2:1	480	410		15.4						주혈(2)	
13	I다-16호	●			1.1:1	440	400		13.8							
14	I다-17호	●			1.1:1	535	510	23	21.4		●*			서쪽벽	주혈(9, 벽 주식)	출입구
15	II다-4호	●			1.1:1	570	530	5	23.7						주혈(3)	
16	II다-5호	●			1:1	452	450	10	16	●				서쪽		
17	II다-6호	●			1.2:1	540	470	5	19.9		●*			서쪽벽	주혈(2)	
18	다-고가-1호	●			1.1:1	450	400	5	14.1		●			서쪽벽		
19	II나-7호	●			1:1	400	400	20	12.6							
20	I나-5호	●			1.1:1	430	390	25	13.2		●			동쪽벽	주혈(5, 4주 식)	화재
21	II가-1호	●			1:1*	750*		10	44.2			●		서쪽		
22	II가-7호	●			1:1	590		20	27.3			●		서쪽	주혈(5, 외 주식)	
23	II가-11호	●			1:1*	520		10	21.2							화재
24	II가-14호	●			1:1	495		8	19.2							
25	II가-20호	●*				560	500		16*			●		서쪽		
34	II가-6호	●			1.2:1	580	500	40	22.8				●*			
26	I나-6호		●		1.1:1	760	670		50.9				●*	북서쪽	주혈(14, 외주식)	화재
27	I가-1호		●		1.1:1	565	557	20	31.5		●			서쪽		점토독(토 단시설)
28	I가-4호		●			510	(400)	25								
29	I가-13호		●		1.1:1	440	410	9	13							
30	II가-2호		●		1.1:1	560	500	20	22						주혈(5)	화재
31	II가-3호		●		1.23:1	530	430	10	22				●	서쪽		
32	II가-4호		●		1.1:1	560	520	10	29.1				●	서쪽	주혈(5)	
33	II가-5호		●		1.2:1	430	370	10	15.9							
35	II가-8호		●*		1.16:1	520	450	40	19							
36	II가-9호		●		1.2:1*	700	600	25	42*				●*			
37	II가-13호		●			440	410	15			●			서쪽	주혈(3)	
38	II가-15호		●		1.1:1	480	450	12	21.6				●*	동쪽	주혈(4)	화재
39	II가-17호		●		1.15:1	370	320	15	11.84							출입구?
40	II가-18호		●			470	(360)	10								
41	II나-1호		●		1.1:1	730	650		47.5							화재
42	II나-2호		●		1.1:1	610	540	20	32.9							
43	II나-3호		●		1.1:1	600	530		31.8				●*	서쪽	주혈(1)	화재
44	II나-4호		●		1.1:1	600	550	10	33							화재
45	II나-5호		●*			780	650		55							화재
46	II나-6호		●		1:1	600	580	10	34.8				●*?			

을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대체로 방형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지구 주거지

중에서 I 다-4 · 5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 방형을 띠는데,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면 다지구의 다른 주거지와 시기 차이가 크지 않거나 동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면적

[도면 2-10]은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면적 도수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주거지의 면적은 앞서 제시한 본고의 면적 분류안처럼 소형(24㎡ 이하), 중형(25㎡~39㎡), 대형(40㎡~50㎡), 초대형(51㎡ 이상)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면 2-10]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 면적 도수 분포도

주로 면적이 24㎡ 미만인 소형은 다지구의 원형 주거지이고, 중형과 대형은 가 · 나지구, 초대형은 나지구에서 확인된다. 또한, 평면형태에 따라 주거지 면적에서 차이가 확인되는데, [도면 2-10]을 보면 원형계보다 방형계 주거지의 면적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③ 노시설

노시설은 크게 무시설식, 부뚜막식, 구들식이 확인된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I 가-1호, I 나-5호, I 다-4호, 다-고가수조-1호, II가-13호 주거지 등에서 부뚜막의 잔존 양상이 확인된다. 부뚜막의 재료는 점토, 석재(돌), 점토+석재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구분된다.

II다-4호 주거지와 I다-16호 주거지 사이의 공지(空地)에서는 다지구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된 노(爐)의 구조를 추정해 볼 있는 부뚜막식 야외노(野外爐)⁵³가 확인되었다. II다-13호 화덕유구는 길쭉한 냇돌 5개를 ‘ㄷ’자형으로 두른 형태로 내부에서 대형 옹기편과 와질토기 시루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I다-4 · 5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노시설과도 유사한 형태로 추정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다지구의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된 노지(爐址)는 특별한 시설 없이 간단한 단야(鍛冶) 공정을 했던 수혈식 노지로 파악되었다. 이 노지는 단야 공정에 사용되었지만 주거의 취사와 난방의 기능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노(爐)의 위치는 바닥 중앙이 아닌 벽(壁)에 연접하거나 치우쳐 위치하며, 주거지 내부에서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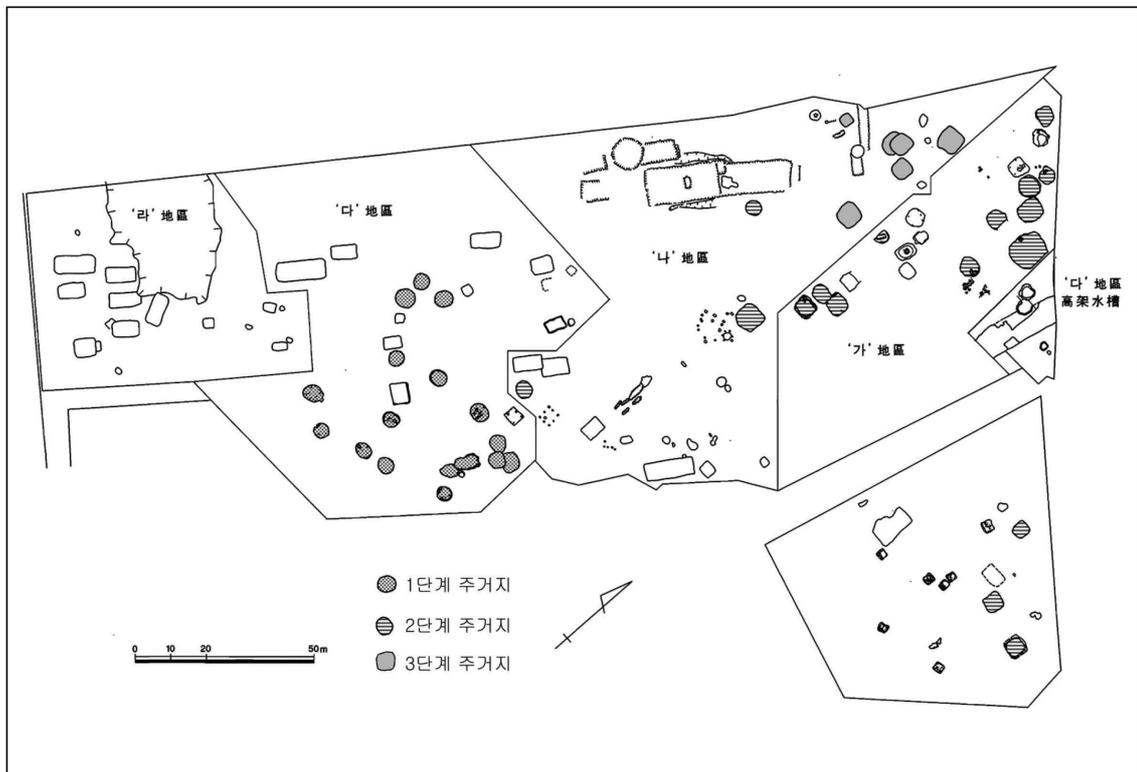
53) 부뚜막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고정식은 다시 주거지에 붙여서 설치한 실내형과 주거지 밖에 별도로 설치한 야외형으로 구분된다.

취락연구회, 2004, 「Ⅲ. 수혈건물지의 각종 부속시설」,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 p.62.

사와 관련된 장동옹(長胴甕)과 시루(甑)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수혈식 노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지구 원형 주거지의 벽쪽에 설치된 노지(爐址)는 소규모 단야 공정과 취사 및 난방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부뚜막식 노(爐)의 잔존 양상으로 추정된다.

구들식 노시설은 가·나 지구의 원형과 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구들은 주로 황색이나 적갈색 점토를 이용하여 설치되었다. 구들의 형태는 원형 주거지와 방형 주거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즉 원형 주거지에서는 부뚜막과 고래 부분이 주로 벽면을 따라 호형(弧形)으로 설치되었고, 방형 주거지에서는 'ㄱ'자 형태로 설치되었다. 원형과 방형 주거지의 부뚜막은 주로 서쪽에 설치되었으며, 고래는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⁵⁴⁾ 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구들 시설의 위치는 가지구와 나지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가지구 주거지의 구들 시설은 수혈 벽면과 밀착되어 있는 반면, 나지구 주거지의 구들 시설은 대체로 벽면(굴광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이격(離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I나-6호와 II나-3호 주거지 내부에서는 수혈 벽에 인접하여 소토와 점토가



[도면 2-11] 경주 황성동유적 시기별 주거지의 분포양상

54) 공봉석은 평지와 구릉지에서 나타나는 유적의 구들 위치를 검토하였는데, 주로 구릉지에 입지하는 유적은 일률적이지 않으나, 평지에 입지하는 유적은 비교적 정형성을 띠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구들의 위치 선정은 유적의 입지에 따른 기후와 지형적인 특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총적 평지에 입지하는 황성동유적은 부뚜막과 구들의 위치가 비교적 정형성을 띠는데, 이 역시 평지라는 지형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봉석, 2008, 「경남서부지역 삼국시대 수혈건물지의 구들연구」, 『한국고고학보』 56호, 한국고고학회.

일정한 폭으로 소결 면을 이루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이는 점토 벽체와 출입구 시설이 아니라, 부뚜막과 고래가 결합된 구들 시설의 잔존 양상으로 추정된다.

④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편년

황성동유적 주거지는 구조와 내부 출토유물의 양상을 기반으로 [표 2-10]과 같이 3 시기로 구분된다.

[표 2-10] 경주 황성동유적 시기별 주거지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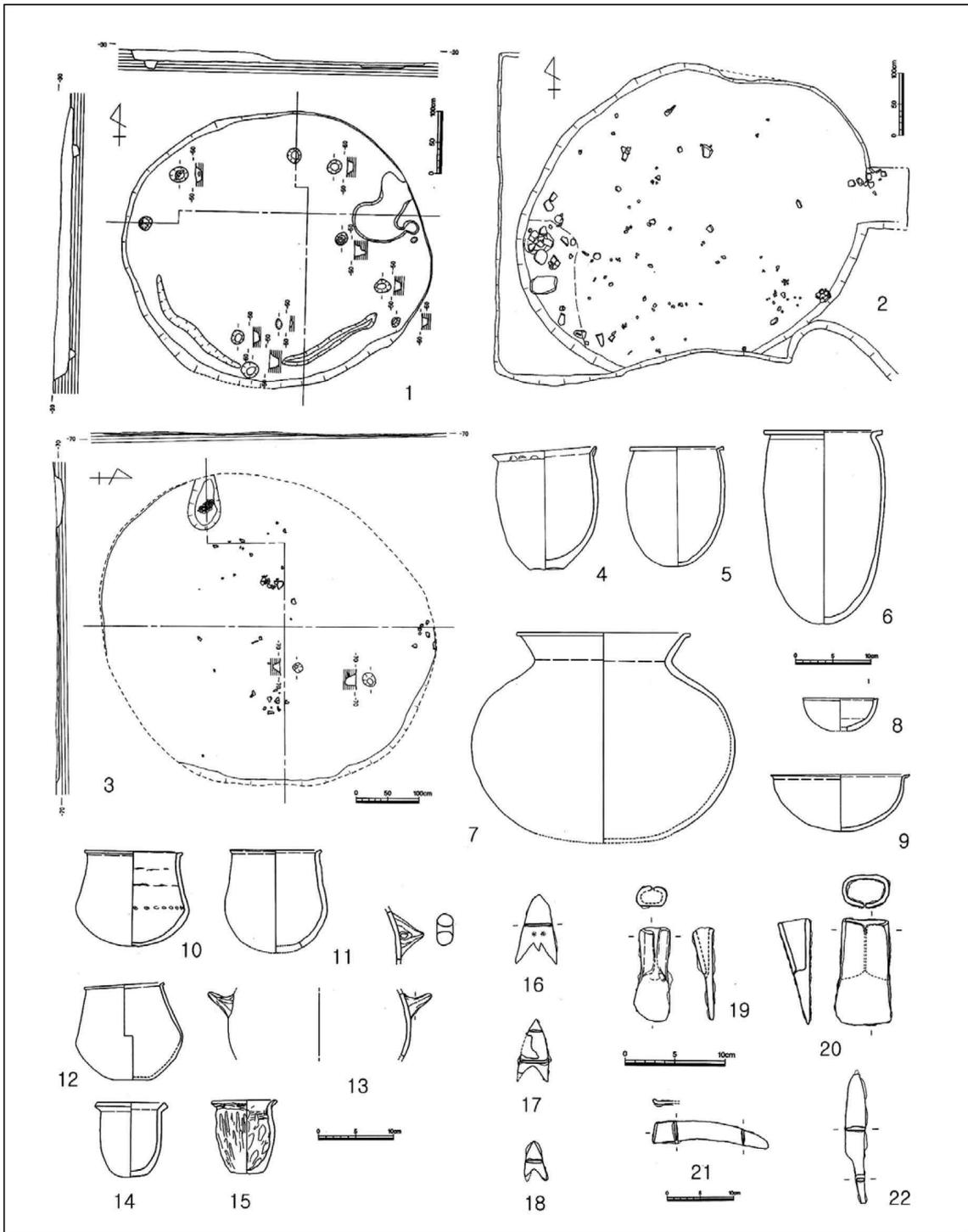
시기	주거지 호수	구조 및 특징			주요 출토유물
		평면	면적	노시설	
Ⅲ-1기	I 다-1호~6호, 8호~12호, 15~17호, II 다-4~6호	원형계	소형	무시설식, 부뚜막식	삼각형점토대토기, 와질 주머니호,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단경호, 단·주조철부, 무경식 삼각형 철촉, 철괴
Ⅳ-1기	다-고가수조-1호, I 나-5·6호, II 나-7호, I 가-1호, 4호, 13호, II 가-1~9호, 11호, 13호, 15호, 18호, 20호	원형계, 방형계	소형, 중형, 대형	구들식 (C 가·나식)	와질 노형토기, 단경호, 장동옹, 시루, 연질 장동옹
Ⅳ-2기	II 나-1~6호	방형계	중형, 대형, 초대형	구들식 (C나식)	와질 대부호, 양이부호, 장동옹, 연질옹, 도질 단경호

Ⅲ-1기는 후기 무문토기(종말기 무문토기)가 잔존하는 양상과 주머니호, 단경호 등의 전기와질토기의 기형으로 보아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중·후엽에서 기원 1세기 전·중엽 사이로 추정된다. 다지구 원형 주거지군이 이 단계에 해당하며, 이 시기 황성동유적의 분묘는 강변로 유적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목관묘이다.

Ⅳ-1기는 후기와질토기와 연질토기 등이 주종을 이루는 시기로, 기원 2세기 후엽에서 3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주로 가지구에서 확인된 주거지군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분묘는 주거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634-1번지와 583-2번지 일대에 분포하는 목곽묘이다.

Ⅳ-2기는 대부호(臺附壺), 양이부호(兩耳附壺) 등의 고식도질토기가 출현하는 단계로, 기원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나지구 주거지군이 이 단계에 해당하며, 이 시기 분묘는 주로 545번지 일대에 분포하는 세장방형 목곽묘로 추정된다.

먼저, Ⅲ-1기의 주거지는 다지구에 확인된 17동이다[도면 2-11·12]. 유물은 후기 무문토기(종말기 무문토기)와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 파수부호 등의 전기와질토기, 그리고 무경식 삼각형 철촉과 단·주조철부 등 다양한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1단계 주거지는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주거지 간 중복 없이 중앙에 공지(空地)를 두고 분포하고 있다. 취락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 공지는 공동체의 집회나 의례, 공동 생산물 분배, 공동 취사 등이 이루어진 광장으로 파악되는데, 황성동 다지구 주거지



[도면 2-12] 황성동 III-1기 주거지와 출토유물(1 · 13 · 16 · 19 · 22: I다-9호 주거지, 2 · 4 · 5 · 8 · 17: I다-17호 주거지, 3: II다-6호 주거지, 6 · 11 · 18: I다-12호 주거지, 7: I다-2호 주거지, 9 · 12: II다-5호 주거지, 10 · 14 · 21: I다-1호 주거지, 15 · 20: I다-11호 주거지)

군 사이의 공지도 이러한 광장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II다-4호 주거지와 I다-6호 주거지 사이의 공지(空地)에서는 부뚜막식 야외노(野外爐)가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취락 공동의 취사가 이루어졌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말각방형, 부정형 등이 확인되는데, 원형이 주류이다. 내부시설로는 주거지의 수혈 벽에 치우쳐 소규모 단야 공정과 취사 등과 관련된 노시설이 확인되며, 면적은 24㎡ 미만의 소형이 주류를 이룬다. 기둥은 I 다-9 · 11 · 17호 주거지에서 수혈 벽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벽주식으로 추정되는 주혈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은 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거나 정형성이 없이 배치된 양상이다.

I 다-9호 주거지에서 탄화(炭化) 목재의 양상으로 보면, 기둥은 주거지 바닥 위에 바로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며, 불규칙적으로 확인되는 주혈들은 보조 기둥이나 다른 용도의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단계 주거지 내부에서는 단 · 주조철부, 삼각형 무경식 철촉 등의 다양한 철기류와 철기를 만드는 재료인 철괴와 구슬형 철괴(I 다-9호 · 11호 · 17호 주거지), 그리고 철기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룻돌(I 다-11호 · 17호, II 다-4호 · 5호 주거지) 등의 철기 생산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도면 2-12]되는 것이 특징이다.

IV-1기는 III-1기 주거지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가지구에서 확인된 17동의 주거지와 I 나-5 · 6호, II 나-7호 주거지이다[도면 2-13·14]. 주거지 내부 출토유물은 와질 노형토기, 장동옹, 소옹, 시루, 연질의 장동옹, 단경호 등 다양한 기종들이 출토되었고, 토기에 격자나 평행 타날 등의 정면기법이 나타난다. 연대는 기원 2세기 후엽에서 3세기 중엽까지의 시기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 중 노형토기(爐形土器) 기형으로 보면 기원 3세기 전엽에서 중엽까지의 기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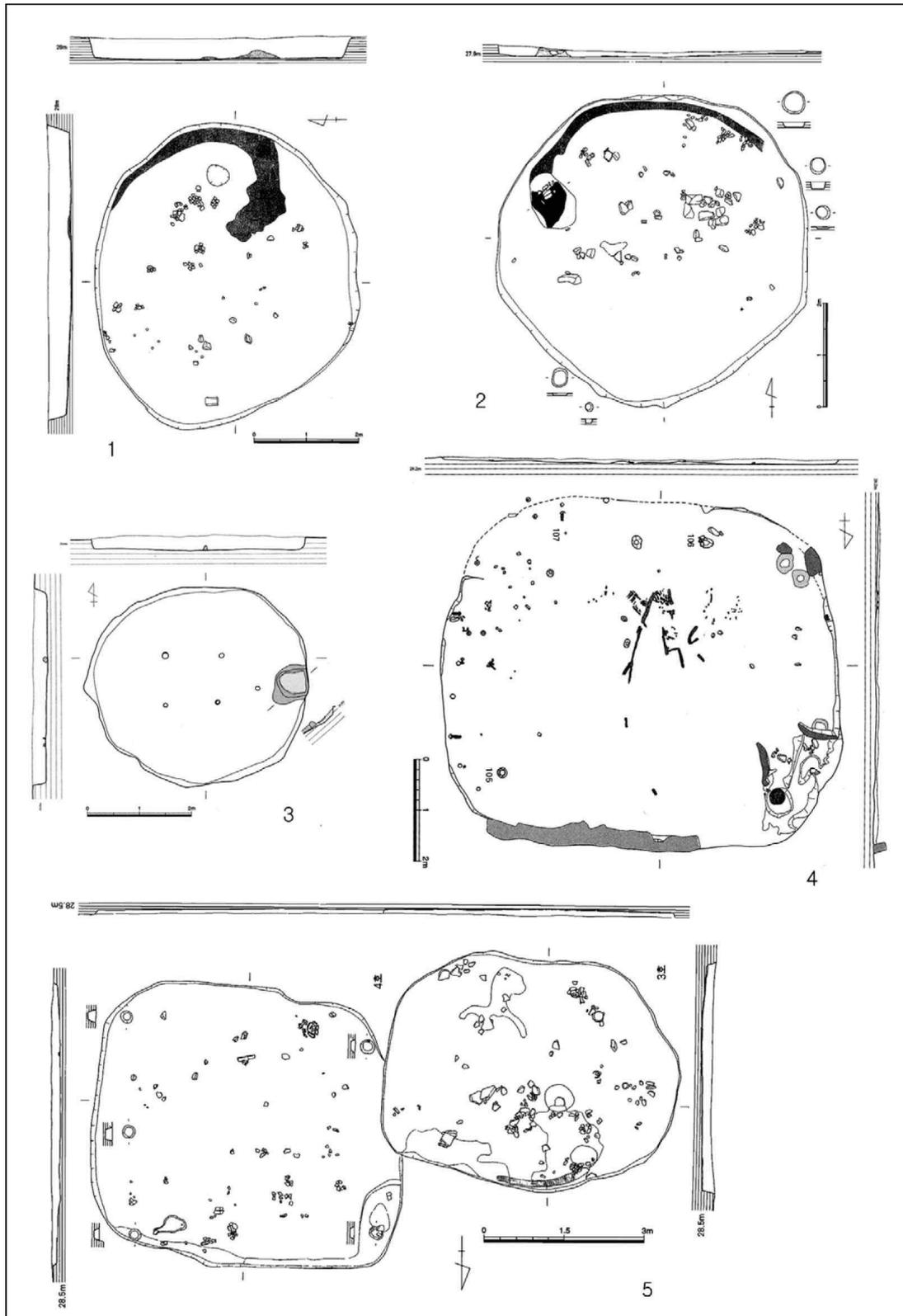
IV-1기 주거지의 분포는 유적의 북쪽과 동쪽으로 확산되어 단야로와 용해로 등의 철기 생산 유구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도면 2-11]. 평면형태는 새롭게 방형이 출현하며 원형 주거지와 혼재하는 양상이다. 면적은 24~50㎡ 사이의 중형과 대형이 나타나는데, 방형계 주거지가 원형계 주거지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내부시설로는 주거지 수혈 벽쪽으로 밀착되어 점토로 만든 구들 시설(쪽구들)이 새롭게 확인된다.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구들 시설은 부뚜막과 고래 부분이 벽면을 따라 호상(弧狀)으로 설치된 것이지만, 방형 주거지에서는 부뚜막과 고래 부분이 ‘ㄱ’자형으로 설치된 형태이다. 기둥 배치는 무주혈식, 외주식, 벽주식이 확인되는데, 벽주식이 주류로 추정되거나 정형하지는 않다. 기둥 구멍(주혈)은 대체로 확인되지 않는데, 화재 주거지의 양상으로 보면 바닥 위에 바로 기둥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IV-2기 주거지는 II 나-1~6호 주거지가 있다[도면 2-11 · 15]. 유물은 노형토기가 점차 사라지고 새롭게 양이부호, 대부호, 도질 단경호 등이 출토되며, 연대는 기원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나지구의 주거지군은 유적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2단계의 가지구 주거지군에서 서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나 확인된 주거지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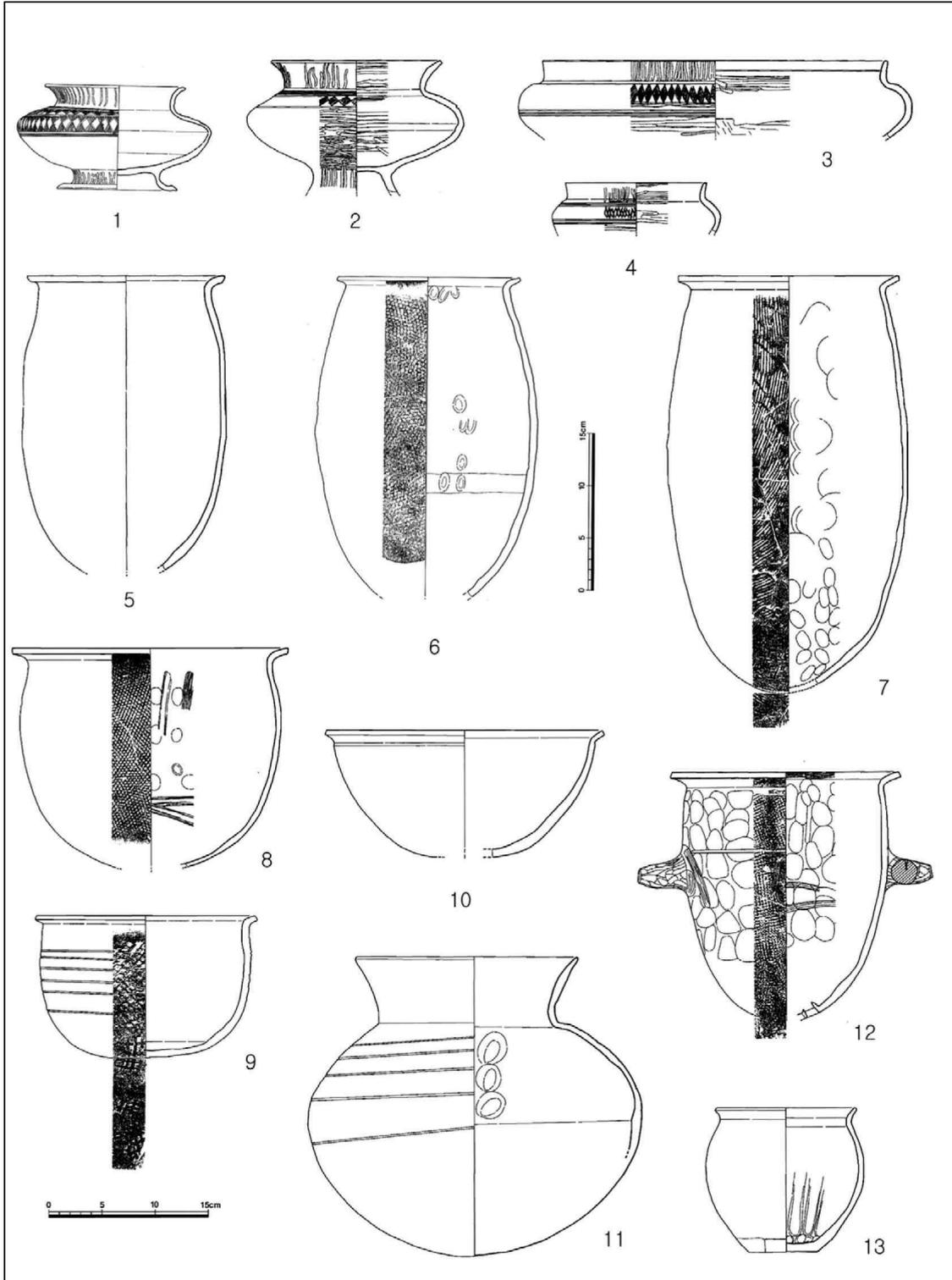
55) 필자는 I 나지구에서 확인된 5호 주거지를 다지구의 원형 주거지군 단계(III-1기)와 동시기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주거지의 부뚜막 내부와 바닥에서 출토된 격자 타날된 적갈색 연질 단경호와 경질 토기편 등의 유물로 보아, I 나-5호 주거지는 IV-1기로 추정된다.

김나영, 2007, 「영남지방 삼한시대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 『영남고고학』 43호, 영남고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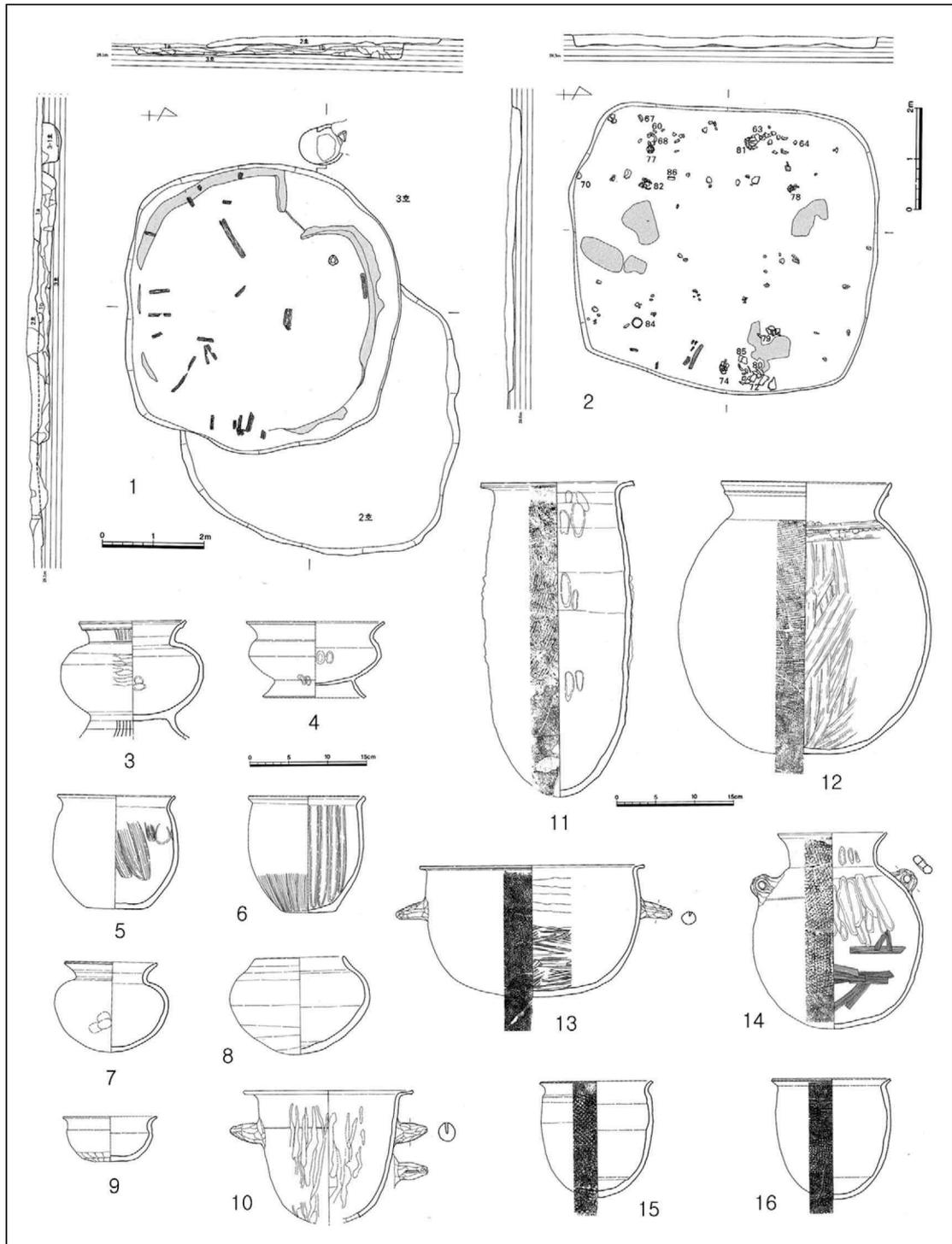
많지 않아 분포 양상은 명확하지 않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면적은 중형과 대형이



[도면 2-13] 황성동 IV-1기 주거지(1: II가-6호 주거지, 2: II가-7호 주거지, 3: I나-5호 주거지, 4: I나-6호 주거지, 5: II가-3·4호 주거지)



[도면 2-14] 황성동 IV-1기 주거지 출토유물(1·6: I나-6호 주거지, 2·3·12: II가-8호 주거지, 4·13: II가-20호 주거지, 5: II가-7호 주거지, 7: II가-5호 주거지, 8·9: II가-3·4호 주거지, 10: I가-1호 주거지, 11: I가-4호 주거지)



[도면 2-15] 황성동 IV-2기 주거지와 출토유물(1·15·16: II나-2·3호 주거지, 2·3·5·7·12: II나-4호 주거지, 4·6·9: II나-1호 주거지, 8·10·11·13·14: II나-2호 주거지)

주류를 이루고 새롭게 50m² 이상의 초대형이 나타난다. 내부시설로는 점토로 만든 ‘ㄱ’자형의 구들식 노시설이 확인되는데, 수혈 벽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벽체 안쪽에 설치되었다. 기둥 구멍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지만, 바닥 위에 기둥을 바로 세

웠거나 벽주식, 4주+벽주식 등의 기둥 구멍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목탄과 잔가지, 짚 등이 섞인 소토나 점토가 다량으로 폐기되었는데, 이것은 주거지 폐기 시에 토벽(土壁)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벽체 가구재의 흔적을 통해 이 단계 주거지의 벽이 내력벽(耐力壁)⁵⁶⁾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력벽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현상 하나가 구들 시설의 위치 변화로 생각된다. 내력벽으로 열효율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⁵⁷⁾ 구들시설은 수혈 벽에서 떨어져 주거지 안쪽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인다.⁵⁸⁾

(2) 울산지역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삼한시대 주거유적은 20개소이다. 주거지 수량은 적지만, 유적 수로 보면, 진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표 2-11].

[표 2-11] 삼한시대 울산지역 주거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시기	주거지 구조 속성								면적	기타 시설	
			수량	평면형태			기둥 배치	노시설					
				원형계	방형계	기타		무시설	부뚜막	구들			
1	효문동 산68-1유적	I	1		1							벽구, 외곽주구	
2	호계동 28-1유적 (V지구) 1호	I	2		1				●			소형	
3	상안동 고분군III	I	1		1							소형 *	
4	중산동 약수유적 II	II	4		4				●			소형	
5	매곡동유적(II 지구)	II	2		2				●			소형	
6	직동리 335-1번지유적	II	1		1							소형 *	
7	상천리유적 I	III-1	12	9	1	2			●	●	●	소형	벽구
8	창평동 810번지유적	III-1	2		2				●			소형	
9	장현동유적	III-1	2	1	1					●		소형	벽구, 외곽주구
10	달천유적	III-1	9	5	2	2	외주식		●			소형	
11	교동리유적	III-1	9	5	4				●	●	●	소형	
12	신화리유적 II (A-5지구)	III-2	5		5							소형	
13	다운동 436-5번지유적	III-2	1			1				●			
14	명산리 314-1번지유적	III-2	11	5	3	3	벽주식				●	소형	외곽주구, 내부구
15	사연리 능네유적	III-2	1	1							●	소형	벽구

56) 내력벽(耐力壁)은 기둥과 함께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벽체를 말한다.

57) 함순섭은 '흙으로 메운 지상 건물의 내력벽을 움집에 못지않은 열관리를 위해 고안한 건축기법'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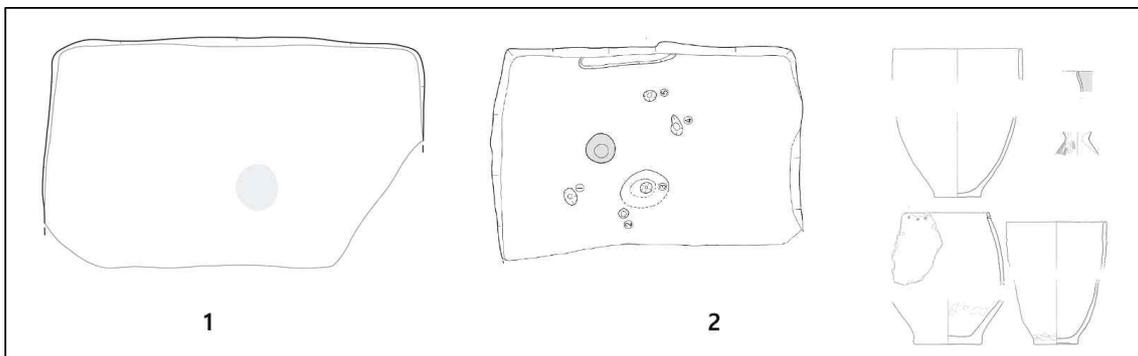
함순섭, 2008,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 살림집의 복원연구」, 『동원학술논문집』 9, 한국고고미술연구원.

58) 김나영, 2009, 「경주 황성동 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 『영남문화재연구』 22호, 영남문화재연구원.

연년	유적명	시기	주거지 구조 속성										
			수량	평면형태			기동 배치	노시설			면적	기타 시설	
				원형 계	방형 계	기타		무 시설	부뚜막	구들			
											*		
16	병영성유적	IV-1	4	3		1			●	●		소형, 중형*	벽구, 배수구
17	동동 65-1번지유적	IV-1	2	1		1				●		중형*	벽구, 배수구
18	교동리유적(104유적 포함)	IV-2	2	1	1		4주식			●		소형	벽구, 배수구
19	원산리 산102-2번지유적	IV-2	6			6	4주식			●		소형, 중형	벽구, 배수구
20	입암리유적	IV-2	13			5 (凸자형)	벽주식			●		소형~대형	부석식노, 출입구
합계			90	31	43	15							

I기 주거지는 호계동 28-1유적[도면 2-16-1]에서 2동, 효문동 산68-1유적 1동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호계동 28-1유적의 주거지는 전형적인 청동기시대 울산식 주거지에서 이탈 또는 변형된 모습으로 평면형태는 방형계이며, 내부 시설은 상면에 평지식 노시설만 확인될 뿐 별다른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⁵⁹⁾ 효문동 산68-1유적의 주거지는 일부만 잔존하여 평면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내부에 주거지 벽면을 따라 벽구(壁溝)가 일부 설치되었으며, 주거지 외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주구(週溝)가 둘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는 대체로 주거지보다 수혈유구가 많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인데, 일부는 임시로 사용된 주거지일 가능성도 있다. 상안동 고분군Ⅲ 1호 수혈과 덕신리 오산유적의 8호 수혈은 평면형태가 정형하고, 평평한 바닥, 그리고 저장공 및 노지 등으로 추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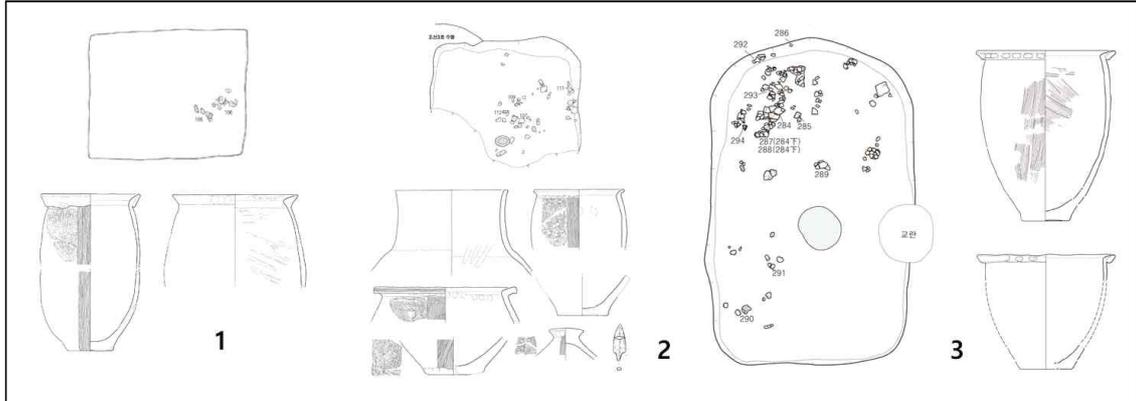


[도면 2-16] 울산지역 I기 주거지와 출토유물(1: 호계동 28-1 1호, 2: 매곡동 Ⅱ지구 3호)

59) 호계동 28-1유적의 Ⅲ지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5동은 모두 5㎡ 이하의 소형이며, 벽구와 주혈의 배치가 정형하지 않은 점 등에서 I기의 주거형태와 유사하다. I기의 삼한시대 주거지와 공존했던 주거지일 가능성도 있다.

는 시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거지로 판단된다.

한편, 매곡동유적 I 지구 4호 주거지, 매곡동유적(II지구)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도면 2-16-2], 검단리 70호 주거지 등에서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물과 원형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주거지의 형태는 울산식 주거지와 유사하다. 이는 재지계와 외래계 문화와의 공존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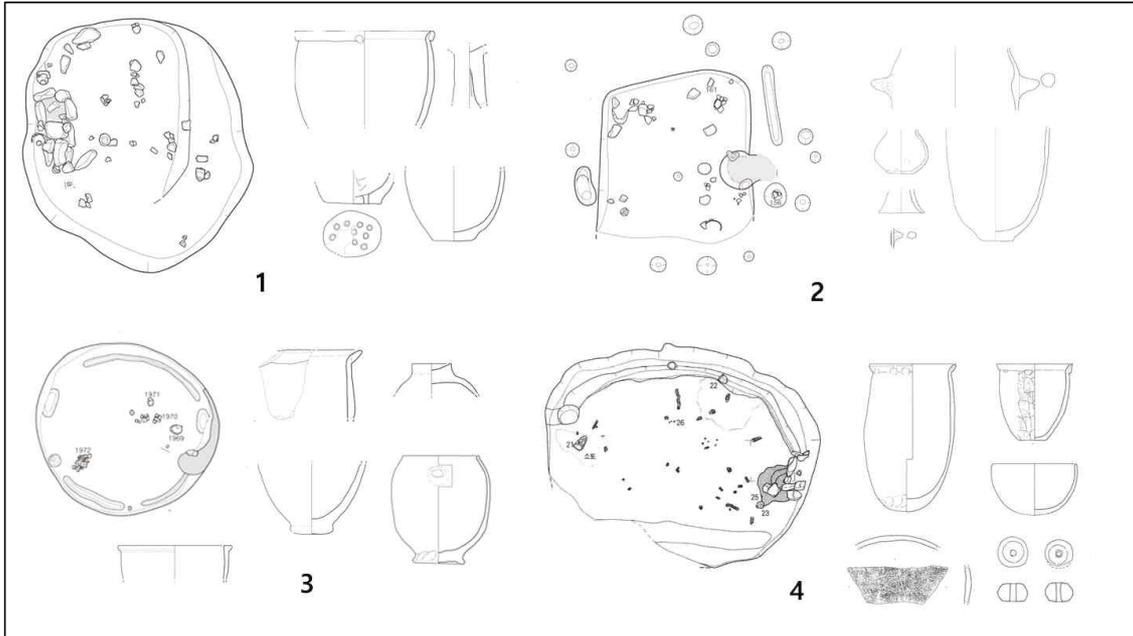


[도면 2-17] 울산지역 II기 주거지와 출토유물(1: 매곡동 II지구 1호, 2: 매곡동 II지구 2호, 3: 중산동 약수II 5호)

II기의 주거지는 매곡동유적(II지구)[도면 2-17-1·2], 중산동 약수유적II[도면 2-17-3], 직동리 335-1번지유적이 있다. 중산동 약수유적II에서는 주거지 4동과 수혈 5기 등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주거지는 평면 방형계에 가까우며, 모두 얇은 수혈을 파서 내부 중앙 부분에 평지식 노시설을 설치하였다. 이 유적의 주거지에서는 삼각형점토대옹, 개(蓋), 두형토기(豆形土器) 등 모두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 유물과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유물의 공반이 확인된다. 특히 5~7호 주거지에서는 일본 야요이계 토기(彌生系土器)로 추정되는 옹(甕)과 호류가 출토되었는데, 수구(須久)I 式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매곡동유적(II지구)에서는 평면 방형계 주거지 2동이 확인되었다. 2호 주거지의 바닥 중앙에는 수혈식 노시설이 설치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호, 옹, 개와 함께 야요이계토기(彌生系土器)로 추정되는 옹이 출토되었는데, 수구 I 式으로 추정된다.

III기에는 주거 형태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부뚜막식 및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된 평면 원형계 주거지가 출현한다. I · II기부터 이어지는 재지의 방형계 주거지와도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교동리유적, 달천유적, 창평동 810번지유적, 신화리유적(A-5지구), 상천리유적, 장현동유적, 사연리 늪네유적, 명산리 314-1번지유적, 다운동 436-5번지유적 등이 있다. 이 시기 9개의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52동으로 주거유적 수가 영남지방에서 울산지역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로운 주거형태는 교동리유적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70기의 수혈 중 주거지로 추정되는 것은 9기이다. 10-1호는 주거지[도면 2-18-1]로 추정되는데, 내부에서 냇돌(川石)을 이용해서 만든 'ㄱ'자형의 구들식 노시설이 확인된다. 21호[도



[도면 2-18] 울산지역 III기 주거지와 출토유물(1: 교동리 10-1호, 2: 교동리 21호, 3: 상천리 12호, 4: 사연리 능네 5호)

면 2-18-2]는 방형계 주거지로 동쪽 중앙 벽쪽에 부뚜막이 밀착되어 설치되었으며, 노시설 일부는 수혈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데 굴뚝이 있었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22호 주거지는 앞 시기부터 이어져온 재지의 방형계 주거지에서 부뚜막이 채용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 밖에도 방형 및 원형계 주거지에서는 바닥 중앙 부분에 평지식 노시설이 설치되었다. 교동리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 유물들이나 주변에서 확인되는 구(溝)와 목관묘 등의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주거지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특히 교동리유적의 평면 원형에 돌로 만든 구들이 설치된 주거지는 늑도식 주거지와 유사하며,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 이후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동리 · 신화리유적에서 남서쪽으로 3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는 울산 상천리유적은 주거지 형태와 유물상으로 보아 울산 달천 · 신화리(A-5지구) 유적과 같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전 · 후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에서는 주거지 12동, 수혈 25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 1동, 원형계 9동으로 원형계가 주류를 이룬다. 내부시설은 수혈 벽쪽에 점토를 이용해서 만든 부뚜막식 및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무시설의 평지식 노시설이 확인된다. 또한 주거지 내부의 벽에서 약간 이격되어 벽주구가 설치되었다[도면 2-18-3].

달천유적에서는 9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가 공존하는데, 원형계 주거지가 주류를 이룬다. 내부시설로는 주거지 바닥 중앙에 평지식 노시설이 확인되며, 기둥형태는 1호 주거지에서 외주식이 확인되는 것 외에 대부분 무주혈식(無柱穴式)이다. 이 외에 특별한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창평동 810번지유적의 13 · 14호 주거지와 신화리유적(A-5지구) 1호~4호 주거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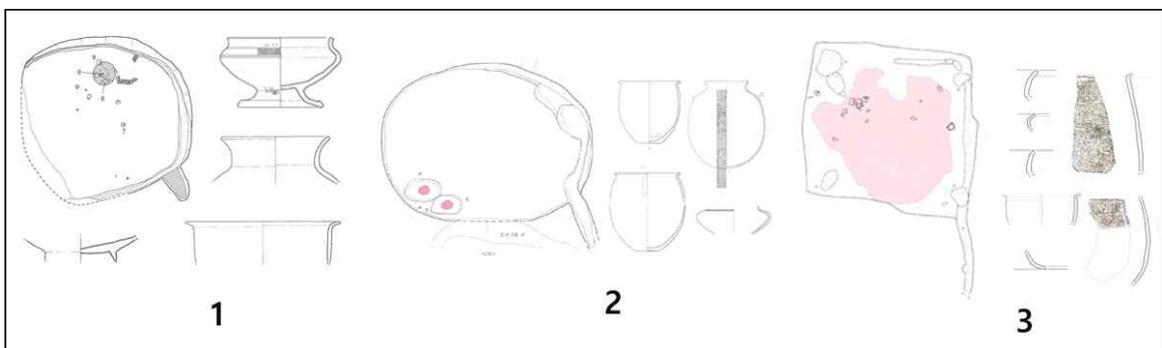
Ⅱ기 주거지의 특징을 보이나, 출토유물에서 와질 소성에 가까운 옹(창평동)과 와질 주머니호(신화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적 양상으로 판단된다.

명산리 314-1번지유적에서는 주거지 11동과 수혈 2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방형계와 원형계가 공존하는 양상이다. 원형계 주거지의 특징은 점토로 만든 구들식 노시설, 내부에 구(溝)가 설치된 점이다. 3호와 5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 경사면 위쪽으로 호상(弧狀)의 주구(周溝)가 확인되었는데, 높은 쪽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배수(排水)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장현동유적(가구역)의 2호 주거지는 원형계 주거지로 명산리 314-1번지유적 주거지처럼 외곽에 호상(弧狀)의 주구가 설치되었다. 내부시설로는 벽구(壁溝), 부뚜막식 노시설, 내부 주혈(柱穴) 등이 확인되었다. 사연리 늪내유적 5호 주거지[도면 2-18-4] 또한 원형계의 평면형태에 벽구와 부뚜막식 노시설이 설치되었다.

이상 Ⅲ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가 공존하는 양상이지만 늦은 시기로 갈수록 점차 원형계로 대체되어 가는 양상이다. 면적은 4~20㎡ 미만의 소형이 주류를 이룬다. 노시설은 기존 무시설식에서 새롭게 부뚜막식과 구들식의 설치 비율이 높아진다. 기둥배치는 외주식과 벽주식이 확인되나 대부분 무주혈식으로 정형한 배치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Ⅳ기의 주거지는 병영성유적, 동동 65-1번지 외 1필지(이하 동동 65-1번지)유적, 교동리유적, 교동리 104유적, 원산리 산102-2번지유적, 울산 입암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먼저, 병영성유적, 동동 65-1번지유적, 교동리유적에서는 Ⅲ기에 출현한 평면 원형계 주거지가 재지화하여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병영성과 동동 65-1번지 유적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북문지 남동쪽에 인접한 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주거형태와 출토유물 등의 양상으로 보아 동시기 유적으로 추정된다. 두 유적 주거지의 내부시설은 부뚜막식 노시설과 벽구를 특징으로 한다[도면 2-19-1·2]. 특히, 동동 65-1번지 1호 주거지는 잔존 상태가 양호하여 당시 주거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평면형태는 원형계이며, 내부에는 부뚜막식 노시설과 벽주구, 그리고 외부에 배수구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 주거지의 조성 연대는 내부에서 채취한 탄화재 시료의 방사성탄소연대측



[도면 2-19] 울산지역 Ⅳ기 주거지와 출토유물(1: 병영성 3호, 2: 동동 65-1 1호, 3: 교동리 104번지 4호)

정 결과와 와질 노형토기, 연질옹, 대호 등의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3세기 전엽~후엽 사이로 추정된다. 이 주거지의 면적은 32㎡인데, 이를 통해 Ⅲ기 주거지보다는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동리 104유적[도면 2-19-3]에서 확인된 주거지 1동과 원산리 산102-2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 6동은 4주식의 기둥배치, 벽주구, 배수구, 부뚜막식 노시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평면 방형계 4주식 주거지는 영남지방의 변·진한 주거지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호서 및 호남 지역의 주 분포권을 보이는 마한계 4주식 주거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입암리유적에서는 IV기의 늦은 시기로 추정되는 주거지에서 영남지방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질적인 주거형태가 확인된다. 이 유적은 태화강에 의해 형성된 충적대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거지는 13동이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계이며, 내부 시설로는 출입구시설과 노시설 등이 있다. 특히, 주거지 외부로 돌출된 출입구시설과 중도식 노지로 특징되는 부석식 노지가 확인되어 주목되는데, 이는 영남지방에서 확인되는 삼한·삼국시대의 주거지와는 상이한 양상이다. 출토유물은 후기와질토기, 고식도질토기 등 재기계토기가 확인되나 일부 주거지에서 출토된 개, 장동옹 등은 이 시기 영남지방 내에서 보이지 않는 유물 양식이다. 울산 입암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거형태와 출토유물 양상은 경기 남동부·북부, 영서·영동 지역에서 주 분포권을 보이는 중도식 주거지⁶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과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3) 포항-영천지역

① 포항지역

포항지역에서 확인된 삼한시대 주거유적은 [표 2-12]와 같이 4개소이다. 확인된 유적 수는 적지만, 주거지의 수량은 290동으로 진한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포항지역에서는 Ⅱ기와 IV기에 해당하는 주거유적은 조사되었으나 I기와 Ⅲ기의 주거유적은 아직 조사사례가 없다. 아마도 동시기 분묘유적의 조사사례를 통해 볼 때, 주거지는 그 주변에 분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표 2-12] 삼한시대 포항지역 주거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시기	주거지 구조 속성									
			수량	평면형태			기둥배치	노시설			면적	기타시설
				원형계	방형계	기타		무시설	부뚜막	구들		
1	포항 원동유적	Ⅱ	1		1							

60) 중도식 주거지는 ‘凸’자와 ‘뿔’자의 평면형태, 하천변의 충적지와 해안 사구에 입지, 돌출된 출입구시설, 중도식 노지(점토띠, 부석, 바람막이 등) 등의 특징을 보인다.

송만영, 2013,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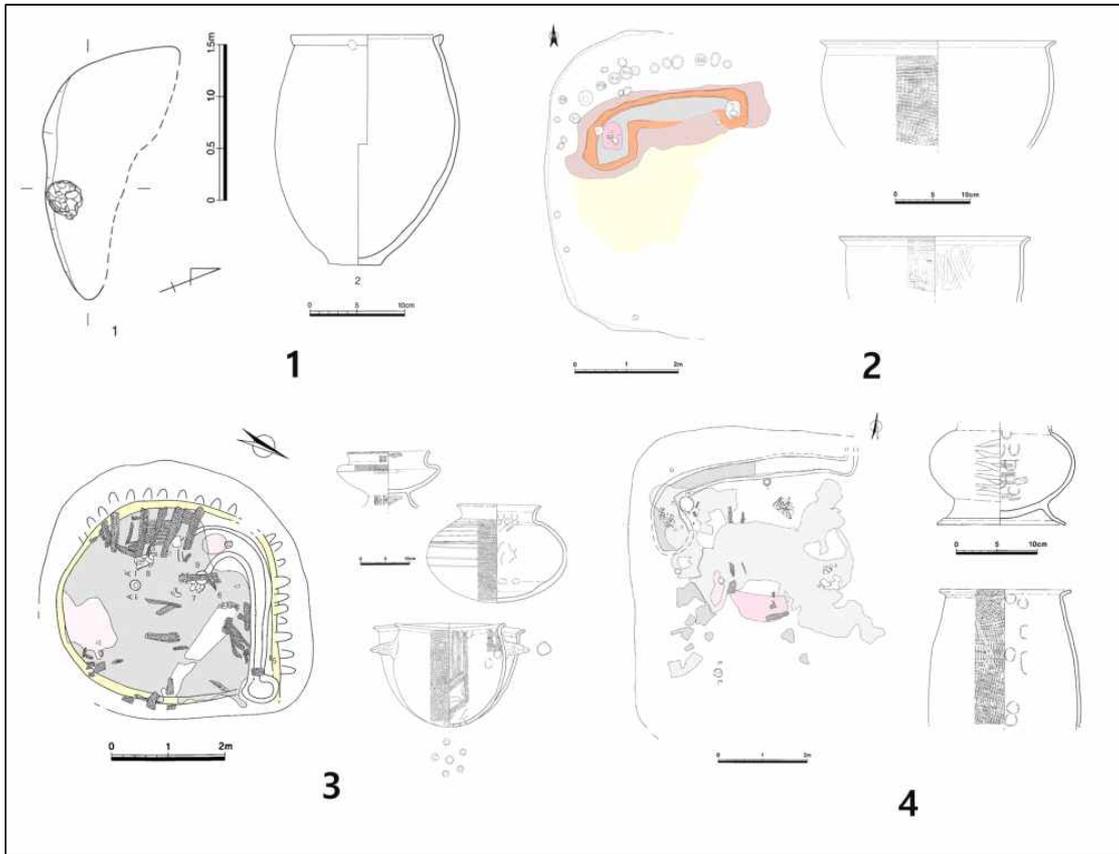
연번	유적명	시기	주거지 구조 속성									
			수량	평면형태			기둥배치	노시설			면적	기타시설
				원형계	방형계	기타		무시설	부뚜막	구들		
2	포항 성곡리유적	IV-1	16	2	12	2	벽주식		●	●	소형, 중형	
3	포항 호동유적	IV	273				벽주식				소형~초대형	
4	포항 도구리산17-4번지 유적	IV	3		1	2			●*			
합계			293	2	14	4						

II기에는 원동유적에서 평면 방형계로 추정되는 주거지에서 삼각형점토대용 1점이 출토되었다.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주거 구조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시기 주변 지역의 주거 양상과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2-20].

IV기에는 성곡리유적, 호동유적 등에서 기원 3~4세기대에 해당하는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성곡리유적은 동시기 무덤이 분포하는 옥성리고분군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는 16동이 확인되었는데, I지구의 낮은 구릉지의 정상부와 주변 사면부에 분포하는 양상이다. 평면형태는 원형계인 1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방형계이다. 주거군은 크게 보아 4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쪽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에는 1호와 2호가 분포하고, 동쪽 사면부에는 3호~15호가 군집을 이루며 밀집되어 분포한다. 그리고 남쪽 구릉 사면부에는 16호 주거지 1동이 분포하고 있다. 면적은 주거지의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잔존하는 장·단축의 양상을 고려하면, 소형과 중형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10호 주거지가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노시설은 14동의 주거지에서 부뚜막식과 구들식이 확인되는데, 모두 수혈 벽에서 이격되어 설치되었다. 구들의 평면형태는 ‘ㄱ’ 자형을 보이며, 모두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아궁이부 바닥에는 작은 냇돌(천석)과 깎돌(할석)을 이용하여 만든 솔밭침(지각)이 놓여있다. 4호 주거지에서는 구들의 고래 끝부분에서 재가 다량으로 관찰되었고 원형의 얇은 흙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굴뚝 자리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연대는 와질의 노형토기, 단경호, 연질의 장란형옹, 장동옹, 시루, 발, 파수부시루 등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기원 3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포항 성곡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경주 황성동유적의 2단계 주거지와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동유적⁶¹⁾은 성곡리유적에서 남동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조사구역 중 II지구에서 해발 74~78m 구릉대지에 기원 3~5세기대의 대규모 취락지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에 심한 중복 양상을 보이며 밀집해 있다. 구릉 정상부는 인공적 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 퇴적층은 2~6차례의 걸쳐 성

6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V. 고찰」, 『포항 호동유적Ⅷ』.



[도면 2-20] 포항지역 II기(1: 원동 3구역 2지구 1호) · IV-1기(2: 성곡리 1구역 4호, 3: 호동 180호) · IV-2기(4: 호동 209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토 ·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는 기원 3~4세기대 주거지가 대략 268동, 5세기대 주거지가 11동 정도로 추정된다. 주로 3~4세기대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에 심한 중복 양상을 보이며 밀집 분포되어 있으며, 5세기대 주거지는 해발 75m 이하의 동쪽 경사면에 소수로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다.

3~4세기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지상식 구조에 심한 중복 양상 등으로 전체보다는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거지의 잔존 양상으로 미루어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가 주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둥 배치는 복잡한 중복 양상과 파괴가 심하여 확인사례가 많지 않다. 다만, 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된 탄화된 목재를 고려해 보면, 주거지 바닥(상면)에 기둥을 바로 세운 무주혈식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5호, 179호, 186호 주거지에서는 벽주식으로 추정되는 기둥 자리가 확인되었으며, 189호 주거지에서는 벽쪽과 바닥 부분에서 벽주혈과 중심 주혈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른 주거지 내부에서도 벽주식, 4주+벽주식 등의 기둥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인공 퇴적층이 비교적 얇은 취락의 남쪽과 동쪽에 형성된 주거지에서는 기둥구멍이 확인된다. 따라서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기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평면형태와 면적을 알 수 있는 주거지는 52동에 불과하여 명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52동 주거지의 면적은 5.4~77.3㎡로, 소형과 중형 주거지가 대부분이며, 50㎡ 이상의 초대형 주거지도 확인된다.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주거지는 214호로, 면적은 77.3㎡이다.

[표 2-13] 포항 호동유적 부뚜막 아궁이부의 위치

아궁이부 위치	북서쪽	서쪽	북동쪽	남서쪽	동쪽	남쪽	합계
백분율(수량)	61.3% (71)	31.9% (37)	1.7% (2)	1.7% (2)	1.7% (2)	1.7% (2)	100% (116)

내부시설은 점토로 만든 구들을 특징으로 하며, 구들은 벽에서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 주거지 안쪽으로 들여져 설치되었다. 구들의 평면형태는 ‘역S’자형과 ‘ㄱ’자형을 보이며, 구조는 부뚜막과 고래(연도부), 그리고 굴뚝(배연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들 시설은 전체 주거지 가운데 138동에서 확인되었으며, 파괴된 주거지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설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뚜막의 하부 구조인 아궁이부에는 주로 돌(석재)을 사용하여 박아 세운 솔받침(지각)이 확인되며, 내부에서 취사용기인 옹, 단경호, 파수부 옹 등이 출토되었다. 구들 시설이 확인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부뚜막 아궁이부의 위치를 살펴보면, 주로 북서쪽이나 서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쪽과 남쪽 등은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표 2-13].

주거지 출토유물은 와질의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단경호, (고식)도질의 대부호, 양이부호, 연질의 장동옹, 시루 등의 토기류와 주조철부, 단조철부, 철검, 도자 등의 철기류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연대는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기원 3세기 전엽에서 4세기 전 · 중엽으로 추정되며, 3세기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주거지의 구조와 출토유물의 양상을 고려할 때, 포항 호동유적은 경주 황성동유적 IV기 주거지와 연결해 볼 수 있다. 포항 호동유적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가 주류인 점으로 볼 때, 경주 황성동유적의 방형계 주거지가 주류가 된 IV-1기 중반 시기부터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영천지역

영천지역에서 확인된 삼한시대 주거유적은 [표 2-14]처럼 2개소이다. 완산동유적에서 I · III기 주거지가 각 1동씩 조사되었으며, 완산동 186번지유적에서는 IV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9동이 조사되었다. II기는 아직 확인 사례가 없다.

완산동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로 보고된 3호 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 발 1점이 출토되었다. 구연단은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전체 기형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기와 유사하다. 주거지는 부분적으로 유실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잔존 양상으로 보아 방형계로 추정된다. 이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1호와 2호 주거지처럼 정형화된 구조를 보이지 않고 변형된 형태를 보인다. 주거지의 내부시설은 바닥 중앙에 수혈식의 노시설이 있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 2-14] 삼한시대 영천지역 주거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시기	주거지 구조 속성									
			수량	평면형태			기둥 배치	노시설			면적	기타 시설
				원형계	방형계	기타		무시설	부뚜막	구들		
1	영천 완산동유적	I	1		1			●				
		III	1		1		벽주식				초대형	벽구
2	영천 완산동 186번지유적	IV	9		9		벽주식, 4주+벽주식			●	중형, 초대형	벽구, 내부구, 저장혈
합계			11		11							

완산동유적의 III기에는 방형계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다. 이 주거지는 면적이 56.7㎡로 초대형이며, 주변 지역의 동시기 주거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내부시설로는 벽을 따라 등 간격으로 배치된 벽주혈과 북동과 남동쪽에 설치된 벽을 따라 벽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내부에는 소형의 수혈 4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연대는 내부와 주변에서 출토된 와질 장동옹, 완 등을 통해 기원 1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완산동 186번지유적에서는 구릉 사면부에 평면 방형계 주거지 9동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연대는 내부에서 출토된 사격자문 노형토기, 격자타날 장경호, 연질 완, 장동옹, 도질 단경호 등의 유물로 볼 때 기원 3세기 후엽~4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구릉 사면부에 중복과 조밀한 분포양상을 보이며, 모두 방형계의 평면형태에 벽구 시설을 갖추고 있다. 5·6·8호 주거지에서는 평면 ‘ㄱ’자형의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구들의 위치는 수혈 벽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안쪽으로 들여져 설치되었다. 5호 주거지는 안쪽 바닥 부분에 ‘ㄷ’자형에 가까운 구(溝)가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은 부뚜막과 고래 시설이 있는 주변부에 15cm 내외의 납작한 냇돌(川石)이 구(溝)의 상부에 덮여 있는 것으로 보아 배수와 습기 제거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 배치는 심한 중복양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벽구 내부와 주변에 등 간격으로 배치된 주혈의 양상으로 보아 벽주식으로 추정된다. 5호 주거지에서는 벽구 내부에 작은 주혈과 바닥 모서리 가까이에 중심 4주로 보이는 주혈이 확인되어 기둥 배치는 4주+벽주식으로 추정된다. 5호 주거지의 면적은 56.3㎡이며, 특히 6호 주거지는 잔존 길이 1,025cm, 너비 1,010cm로 초대형이다.

(4) 경산지역

경산지역에서 확인된 삼한시대 주거유적은 6개소로, 경리 440-5번지유적, 하양 양지리유적, 하양 대학리유적에서 II기에 해당하는 주거지가 소수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산 임당유적의 취락지 3곳에서 IV기에 해당하는 주거지가 73동 조사되었다[표 2-15].

[표 2-15] 삼한시대 경산지역 주거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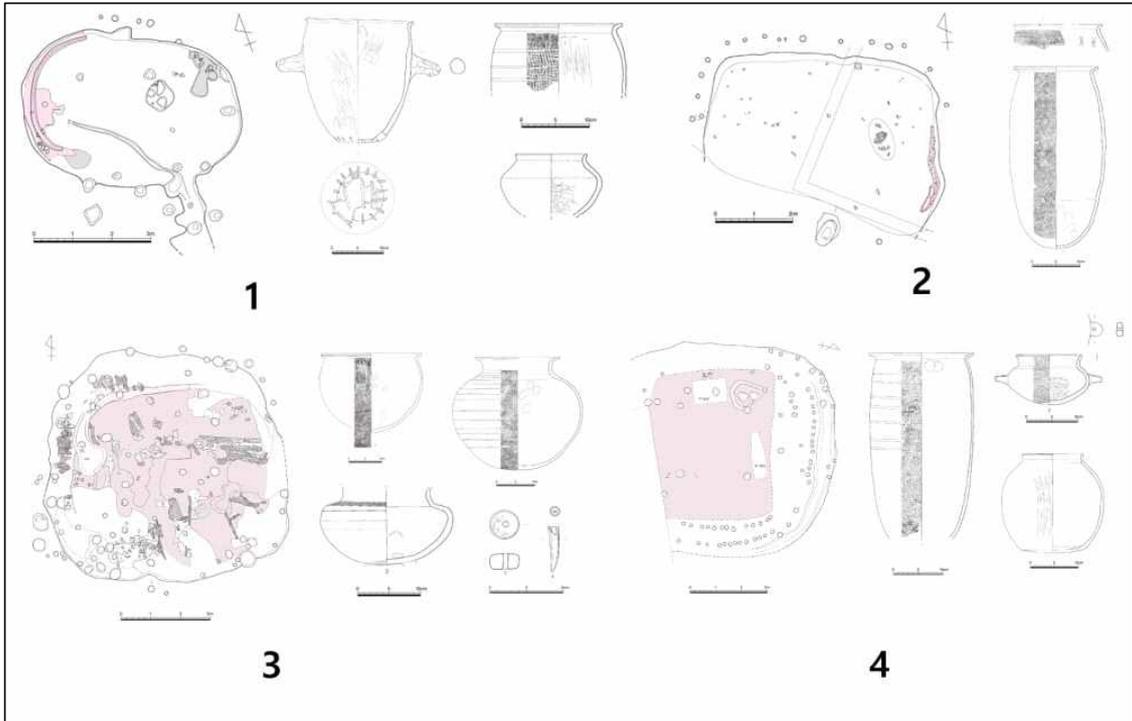
연번	유적명	시기	주거지 구조 속성									
			수량	평면형태			기둥 배치	노시설			면적	기타 시설
				원형계	방형계	기타		무시설	부뚜막	구들		
1	경리 440-5번지유적	II	3	1	2							
2	하양 양지리유적	II	1		1		4주+중앙주식					내부수혈
3	하양 대학리유적	II	2		2			●				
4	경산 임당동 207-1번지유적	IV-1	4	1	3				●			
5	경산 임당동 208-2번지유적	IV-1	17				외주식, 벽주식		●	●	소형 ~ 초대형	
6	경산 임당동 마을유적 (I지구)	IV	52				벽주식, 4주+벽주식		●	●	소형 ~ 초대형	
합계			79	2	8							

II기 유적의 주거형태는 동시기 주변 지역의 주거양상과 유사하며, 평면 원형계나 방형계에 무시설식 노시설을 갖춘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 다만, 하양 양지리유적 II-2구역 10호 주거지는 평면이 방형계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둥 배치 양상으로 주거지 네 모서리와 중앙에 기둥 자리가 확인된다.

IV기의 임당유적⁶²⁾은 여러 지구로 나뉘어져 조사되었다. 그중에서도 취락이 확인된 곳은 I지구와 F지구이다. I지구에서는 수혈주거지가 주로 확인되었고, F지구에서는 지상식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가 확인된 I 지구는 임당유적의 북서편 구릉 말단 사면부와 층적지에 걸쳐 분포해 있다. 주거지는 임당동 207-1번지유적에서 4동, 임당동 환호유적(208-2번지)에서 17동, 그리고 임당동 마을유적(임당동 522번지)에서 58동이 조사되었다. 이들 유적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522번지 일대에서 확인된 임당동 마을유적에서는 58동의 수혈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불명확한 평면형태를 보이는 주거지가 많다. 이는 발굴조사 당시 수혈주거지의 지상화로 인해 굴광선 확인이 어렵고, 복잡한 중복 양상 등으로 인해 명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여타 삼한~삼국시대 취락유적의 발굴조사에서도 겪는 어려움과 한계이다. 따라서 경산 임당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 중 폐기된 내부 구조물과 잔존 양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주거지는 평면형태, 면적, 노시설 등의 구조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I-7호 주거지는 주구(週溝)와 심한 중복 양상을 보이는 기둥 자리만 남아 있어, I 지구에서 일

62) 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V. 고찰」, 『경산 임당동 환호유적-경산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I 지구) 경산 임당동 208번지』.



[도면-2-21] 경산 임당유적 IV-1기(1: 208-1번지 3호, 2: 208-1번지 10호) · IV-2기(3: 1지구 44호, 4: 1지구 59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반적으로 확인되는 주거지 형태와는 다르다. 이 주거지는 잔존 양상으로 보아 F지구 주구부 건물지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된다.

임당유적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크게 원형계와 방형계로 나뉘며, 시기에 따라 원형계에서 방형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출토유물의 시기와 중복양상을 고려해 볼 때, 임당유적 북서편의 208-2번지 일대에서는 원형계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남동편으로 갈수록 방형계 주거지의 분포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도면 2-21-1·2]. 또한, 원형계인 5호 주거지가 방형계인 4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들어선 양상으로 보아, 일정 기간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가 공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황성동유적 IV-1기 주거지의 분포 양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임당유적은 경주 황성동유적의 주거지 구조와 출토유물의 양상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이에 따라 경주 황성동유적의 주거지와 선행연구⁶³⁾를 고려하여 경산 임당 주거지의 시기를

63) 경산 임당유적의 주거지와 관련한 선행연구 중에는 김경환(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영남지방 중에서도 범위를 좁혀 경산지역 단위유적의 주거지 검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경환은 주거지 구조와 출토유물의 분석, 그리고 유구 간 중복 관계 등을 통해 경산 임당의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I단계는 2C 후반~3C 전엽, II단계는 3C 중엽, III단계는 3C 후엽, IV단계는 4C 전반, V단계는 4C 중반 이후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계별 출토유물의 양상에 있어서는 시기적인 변화 흐름은 확인된다. 그러나 각 단계별 출토유물의 획기와 주거지 구조의 획기에 있어서는 큰 변화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1단계 주거지는 주거지 구조 및 특징에 있어서 2단계 주거지와 유사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3단계 주거지는 4단계 주거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선행 연구를 참고하되, 주거지의 시기를 1단계와 2단계를 묶어 1기로, 3단계와 4단계를 묶어 2기로 구분하였다.

김경환, 2015, 「원삼국~삼국시대 경산 임당 1지구 주거지 연구」, 『영남문화재연구』 28, 영남문화재

살펴보면, IV-1기와 IV-2기로 구분할 수 있다[표 2-16].

[표 2-16] 경산 임당유적 시기별 주거지 양상

시기	주거지 호수		구조 및 특징			주요 출토유물
	I 지구	208-1번지	평면형태	면적	노시설	
IV-1기 (2C후엽 ~3C 중엽)	6, 13, 15, 16, 23, 25, 27, 28, 31, 33, 41, 43, 44, 45, 47, 49, 50	1~11, 15	원형계, 방형계 공존	소형~ 초대형	부뚜막식 , 구들식	와질 노형토기, 고배, 단경호, 시루, 연질 장동용, 대호, 단· 주조철부, 철검
IV-2기 (3C후엽 ~4C 전엽)	1, 2, 5, 8, 10~12, 17~19, 21, 24, 29, 32, 35~39, 42, 46, 48, 51~57, 59, 60	12~14, 16, 17	원형계 (소수), 방형계 (다수)	소형~ 초대형	부뚜막식 , 구들식	와질 노형토기, 고배, 와질 대부호, 양이부호, 대호, 와·도질 단경호, 파수부발, 시루, 고배

IV-1기 주거지는 후기와질토기 기종인 노형토기, 고배, 단경호, 시루 등과 연질토기류인 장동용, 단경호 등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연대는 기원 2세기 후엽에서 3세기 중엽 사이로 추정된다. 그리고 IV-2기에는 후기와질토기 기종과 양이부호, 단경호 등의 고식도질토기, 그리고 연질토기인 장동용, 시루 등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연대는 기원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엽 사이로 추정된다.

IV-1기 주거지는 평형 원형계와 방형계가 공존하며, 면적은 소형~초대형까지 다양하나 주로 소형과 중형이 많이 확인된다. 49호의 면적은 124.3㎡로, IV-1기 주거지 중 가장 큰 초대형이다. 노시설은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에서 구들 시설이 확인된다. 원형계 주거지의 구들 시설은 평면 호상(弧狀)이며, 벽면 가까이에 설치되었다. 방형계 주거지의 구들 시설은 대부분 벽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되었다. 부뚜막 아궁이부의 위치는 주로 북서쪽이나 서쪽에 위치한다. 기둥 배치는 조사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 208-2번지 5호·6호·8호 주거지에서는 외주식이 확인되며, 임당동 마을유적 33호 주거지에서는 중심 4주+벽주식이 확인된다. 방형계 주거지 내부에서는 주로 벽면을 따라 벽주혈이 확인되는데, 내부에 4주의 중심기둥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시설로는 208-2번지 1~3호 주거지에서 배수구가 확인된다.

IV-2기 주거지는 주로 남쪽과 서쪽으로 확장되며, 조밀한 분포양상을 보인다[도면 2-21-3·4]. 평면형태는 원형계보다는 방형계가 다수를 차지하며, 면적은 IV-1기처럼 소형~초대형까지 다양하게 확인되지만, 대형과 초대형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방형계 주거지에서는 지상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주거지 내부에 함몰된 목탄과 잔가지, 짚 등이 섞인 소토(燒土)나 점토들이 다량으로 폐기되었는데, 이는 토벽이 주거지 폐기 시에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벽체시설은 IV-1기보다는 더욱 발달된 양상을 보인다. 벽체 시설 안쪽으로는 평면 ‘(역)ㄱ’자형의 구들시설이 설치되었으

연구원.

며, 부뚜막의 아궁이부 위치는 1단계와 같이 북서쪽이나 서쪽에 주로 설치되었다. 기둥배치는 양호하게 조사된 자료가 없어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주거지에서는 4주+벽주식과 벽주식이 확인된다.

한편, 임당유적 I 지구 주거지의 면적은 50m² 이상의 초대형이 많다. 이 초대형의 면적을 보이는 일부 주거지는 잔존 양상으로 보아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당유적에서 50m² 이상의 면적을 가진 주거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임당유적에서 초대형 주거지 비율이 높다는 것이 국읍 취락의 지표로 여겨지기도 한다.⁶⁴⁾ 그러나 임당유적에서 확인되는 평면 방형계에 주거지 안쪽으로 들여 설치된 구들 시설, 그리고 견고한 벽체시설을 갖춘 지상식 주거지는 가용 면적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 면적의 대형화 현상은 영천 완산동 186번지유적, 포항 호동유적, 부산 기장 가동유적, 부산 두구동 취락유적 등과 같이 영남 중부 및 동부 지역의 삼한~삼국시대 주거지에서도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임당유적 주거지의 면적과 관련해서는 취락 주변 일대의 주거지 자료가 축적되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대구지역

대구지역에서 확인된 삼한시대 주거유적은 [표 2-17]과 같이 8개소이다. 먼저 I 기에는 이천동 295-7번지유적과 각산동 912-2번지유적이 있다. 이천동 295-7번지유적은 평면 방형계 주거지 3동이 확인되었는데, 내부시설은 특별한 시설 없이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 3호 주거지는 길이가 813cm로 세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각산동 912-2번지유적에서는 12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벽구 또는 주구(周溝)에 가까운 시설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도면 2-22-1]. 이러한 주거지에 설치된 구(溝)시설은 울산 효문동 산68-1유적 주거지에서도 확인되는 양상이다. 주거지의 구(溝) 내부에서는 소토와 목탄이 다량으로 확인되는데, 벽체시설의 일부가 화재시에 함몰된 양상으로 추정된다.

II 기에는 칠곡 3택지유적(3구역)에서 8동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이 주거지 내부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유물이 공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계이며, 면적은 중형과 소형이 확인되었다. 기둥 배치는 주거지 가장자리를 따라 벽주식으로 추정되는 주혈이 확인되었다[도면 2-22-2].

III기와 IV기에는 달성 평천리유적, 봉무동유적, 시지지구 생활유적 II, 매호동 1008번지유적 등에서 주거지 자료가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달성 평천리유적과 봉무동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64) 장용석, 2002, 『경산 임당유적의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용석, 2012a, 「고고자료를 이용한 2~4세기 임당 중심읍락의 내부구조 검토」, 『인류학 고고학 논총』, 영남대학교문화인류학과 개설 40주년 기념논총, 학연문화사.
장용석, 2012b, 「고고자료로 본 임당 중심읍락의 제 양상」, 『영남문화재연구』 25, 영남문화재연구원.
김경환, 2015, 「원삼국~삼국시대 경산 임당 I 지구 주거지 연구」, 『영남문화재연구』 28, 영남문화연구원.

[표 2-17] 삼한시대 대구지역 주거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시기	주거지 구조 속성										
			수량	평면형태			기동 배치	노시설			면적	기타 시설	
				원형계	방형계	기타		무시설	부뚜막	구들			
1	이천동 295-7번지유적	I	3		3						중형		
2	각산동 912-2번지유적	I	15	1	14							벽구 (주구)	
3	칠곡 3택지유적(3구역)	II	8		7	1	벽주식				소형, 중형	내부 수혈	
4	달성 평촌리유적	III-1	6	6			벽주식	●		●	소형	내부 수혈	
5	봉무동 750번지 유적	III-2	8	8						●	소형, 중형		
6	봉무동유적	III-2	7	7				●		●	소형		
		IV	25	11	14		외주식, 벽주식, 벽주+4주식			●	●	소형~초대형	벽구
7	시지지구 생활유적II	IV-2	2		2		벽주식			●	●	중형	
8	매호동 1008번지유적	IV-2	8		8		벽주식, 4주+벽주식			●	●	소형~초대형	
합계			82	33	48	1							

III-1기의 달성 평촌리유적은 낙동강의 지류인 차천 유역의 충적지에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주거지는 중앙의 공지를 두고 'U'자 형태로 6동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주거군에서 남쪽으로 22m 떨어진 곳에는 수혈군이 위치해 있다. 주거지는 모두 평면 원형계이며, 면적은 모두 소형이다. 6호를 제외한 주거지에서는 벽에 밀착되어 외출의 구들 시설이 설치되었다. 1·2·4호 주거지[도면 2-22-3·4]의 구들 시설은 평면형태가 호상(弧狀)이며, 고래 부분은 주거지 벽을 따라 점판암재 판석(板石)을 일렬로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고래 끝부분에는 굴뚝(연통부)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확인되었다. 1~5호 주거지에서는 삼각형점토대옹, 봉상파수부호, 와질 주머니호 등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 출토 와질 주머니호는 저부가 (말각)평저에 구연이 짧게 외반하고 동상부의 내만도가 크지 않은 형태로 이원태의 I-2기에 해당한다.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중심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중엽에서 후엽 시기로 추정된다.

한편, 6호 주거지는 다른 주거지와 달리 구들 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중앙 가까이에 평지식의 노시설이 설치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활석이 혼입된 화분형토기, 삼각형점토대옹, 봉상파수부호가 출토되었다. 이 주거지는 다른 주거지와는 주거 구조와 출토유물의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주거지에 비해 조성 시점이 조금 이른 기원전 1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평촌리 6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주거형태와 출토유물의 양상은 울산 달천유적과 울산 교동리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재지계와 새로 수용된 주거 구조 속성간의 문화 접변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남쪽으로

22m 떨어진 곳에 분포하고 있는 24기의 수혈군은 6호 주거지와 유물 구성이 같다는 점을 통해 동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봉무동 일대에서 확인된 주거유적은 하나의 연결된 취락으로 ‘봉무들’이라 불리는 총적 대지에 입지하고 있다. 이 유적은 동쪽과 남쪽에는 금호강과 불로천이 흐르고 북서쪽에는 해발 74~427m의 구릉으로 이어진다. 이 유적에서 주거지 자료는 봉무동유적Ⅳ[도면 2-22-5]과 봉무동 750번지유적[도면 2-22-6], 그리고 봉무동유적Ⅴ[도면 2-22-7·8]에서 조사되었다. 봉무동유적Ⅳ은 조사구역 중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원 2세기 전 · 중엽으로 추정되는 원형계 주거지 7동이 분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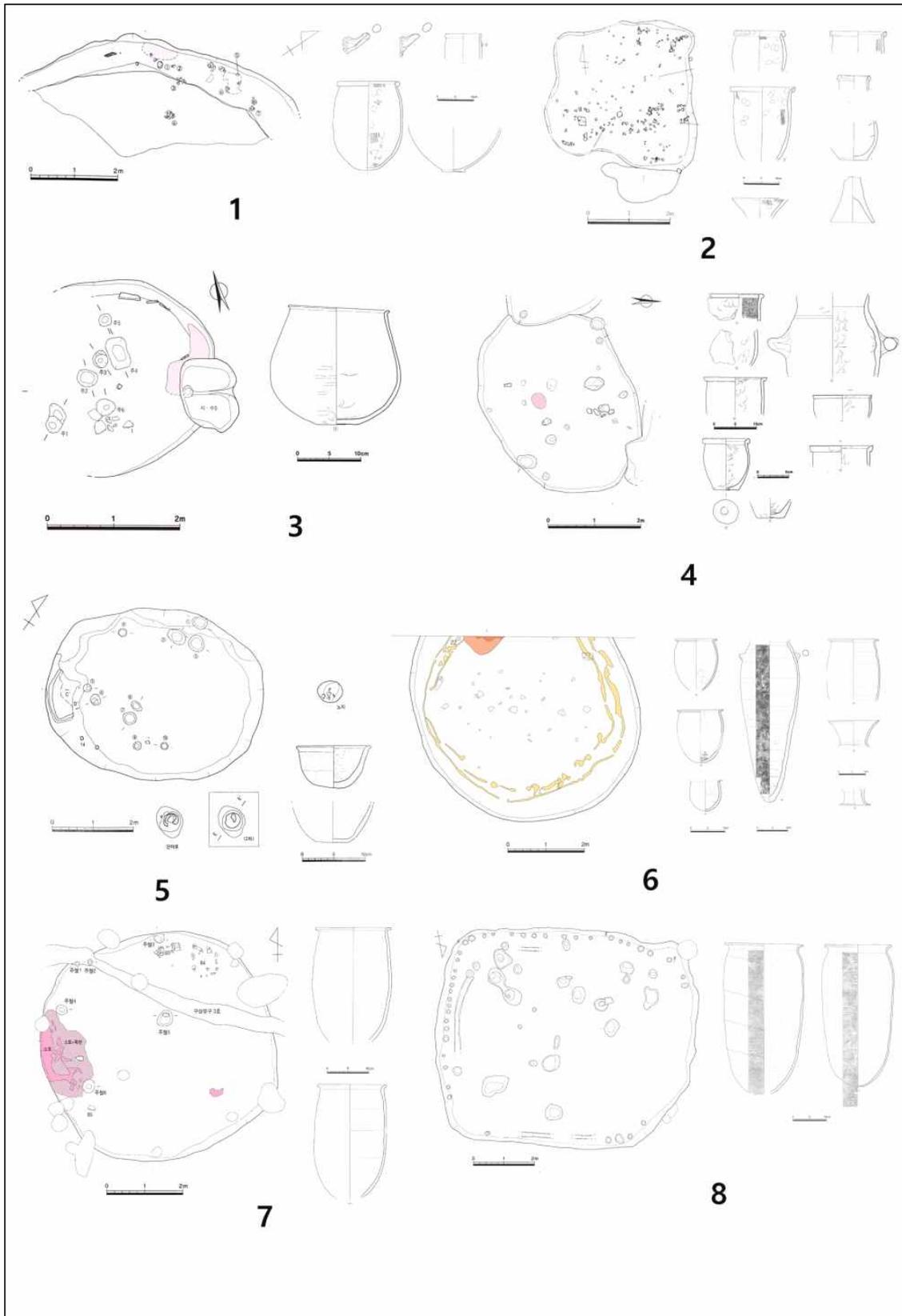
[표 2-18] 대구 봉무동유적 시기별 주거지 양상

시기	주거지 호수			구조 및 특징			출토유물
	봉무동Ⅳ	봉무동 750번지	봉무동Ⅴ	평면	면적	노시설	
Ⅲ-2 (2C 전·중엽)	1~7호	1~8호		원형계	소형, 중형	무시설식, 부뚜막식, 구들식	와질 주머니호, 완, 조합우각형파 수부호, 첨저용. 단경호
Ⅳ-1 (2C 후엽~3C 중엽)			8 ~ 10, 12, 14, 15, 16, 22, 24, 36, 37, 38, 39, 40호	원형계, 방형계 (공존)	소형~ 대형	부뚜막식, 구들식	와질 단경호, 장동옹, 대부광구호, 연질 장동옹
Ⅳ-2 (3C 후엽~4C 전엽)			11, 13, 17, 18, 28, 29, 30, 31, 32, 41호	방형계	소형~ 초대 형	부뚜막식, 구들식	와질 장동옹, 파수부옹, 완, 연질 소옹, 장동옹, 도질 단경호, 파수부호, 대호 등

있다. 이 유적의 남서편 인근에 위치하는 봉무동 750번지유적에서는 원형계 주거지 8동이 조사되었으며, 주거지 구조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봉무동유적Ⅴ 보다는 약간 늦거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유적의 남쪽 부분에 바로 연결되어 봉무동유적Ⅴ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25동의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시기는 [표 2-18]과 같이 3시기로 구분된다. Ⅲ-2기에는 늦은 시기의 전기와질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연대는 기원 2세기 전 · 중엽으로 추정된다. Ⅳ-1기에는 후기와질토기 단계 유물과 연질토기류의 양상으로 보아 기원 2세기 후엽에서 3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주거지는 경주 황성동 Ⅳ-1기와 경산 임당 Ⅳ-1기 주거지와 병행한다. Ⅳ-2기에는 늦은 시기의 후기와질토기와 연질토기류, 그리고 고식도질토기의 양상으로 보아 기원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주거지는 경주 황성동 Ⅳ-2기 주거지와 경산 임당 Ⅳ-2기 주거지와 병행한다.

봉무동유적에서 주거지군의 형성 시기는 봉무동유적Ⅳ→ 봉무동 750번지유적→ 봉무



[도면 2-22] 대구지역 Ⅰ기 (1: 각산동 912-2번지 Ⅰ구역 7호), Ⅱ기(2: 칠곡 3택지 4호), Ⅲ-1기 (3: 달성 평촌리 2호, 4: 달성 평촌리 4호), Ⅲ-2기(5: 봉무동Ⅳ-5호, 6: 봉무동 750-1호), Ⅳ기(7: 봉무동Ⅴ-14호, 8: 봉무동Ⅴ-13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동유적Ⅴ 순으로 추정된다.

(6) 기타 김천, 청도지역

이 외에 청도와 김천 지역 주거유적의 현황은 [표 2-19]와 같다. 청도지역은 봉기리 유적에서 IV-2기의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 2동이 확인되었다. 원형계 주거지에서는 벽에

[표 2-19] 김천, 청도지역 주거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시기	주거지 구조 속성										
			수량	평면형태			기둥 배치	노시설			면적	기타 시설	
				원형계	방형계	기타		무시설	부뚜막	구들			
1	김천 모암동유적	IV-2	44	7	26	11	4주식, 4주+벽주식, 벽주식			●	●	소형~초대형*	벽구
2	청도 봉기리유적	IV-2	3	2	1						●	대형	
합계			47	9	27	11							

밀착되어 점토로 만든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구들의 평면형태는 호상(弧狀)이다. 이 주거지의 면적은 41.9㎡로 대형이다. 방형계 주거지는 원형계 주거지와 달리 주거지 안쪽으로 들여져 구들이 설치되었다.

김천지역의 모암동유적에서는 IV-2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자료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해발 106.2m의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며, 기원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수혈주거지가 44동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가 확인되었는데, 구릉의 삭평과 중복 양상 등으로 평면형태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주거지에서 4주식과 4주+벽주식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2호와 3호 주거지는 주혈의 배치상 4주식으로 추정되며, 6호·13호·17호·24호·25호·26호·28호·30호·32·33호 등은 4주+벽주식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25·26호·28호는 일반 수혈주거지보다는 특수용도로 사용된 지면식 건물지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의 양상에 있어서는 영남 동부와 서부지역의 특징을 보이는 연질토기, 후기와질토기, 고식도질토기 등이 확인되며, 한강유역을 비롯한 충청·호남지역에 분포하는 이(耳)가 수직으로 뚫린 원저의 양이부호(11호), 회색 무문양의 평저 단경호, 경질무문토기 기종인 외반구연옹(30호), 심발(4호) 등 다양한 지역 양식토기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3) 주거유형의 변화양상

이상의 지역별 주거지 구조 양상을 기반으로 시기별 주거유형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하겠다. 먼저, 경주지역은 조사된 삼한시대 주거지 79동 가운데, 내부시설이 양호한 17동을 대상으로 시기별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표 2-20]과 같다.

경주지역에서 I기에 주류를 이루는 주거유형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변형된 형태인 II A1식이다. II기의 주거유형은 아직 확인 사례가 없어 명확하지 않지만, 동시기

[표 2-20] 경주지역 시기별 주거유형의 변화양상

시기	주거 유형	II A1	II B				II C		I B			I C	
			1	2	3	4	1	3	1	2	3	1	2
I기		3											
II기		?											
III기			1	1					1		4	1	
IV	-1기		3		1		3	2	1		1	3	1
	-2기					1	2						

주변 유적의 사례로 볼 때, I기와 유사한 II A1식일 것으로 추정된다.

III기에는 새롭게 평면 원형계에 부뚜막 및 구들식 노시설, 그리고 무주혈식과 벽주식의 기둥 배치를 보이는 IB3식과 IC1식이 나타난다. 평면 원형계와 부뚜막 및 구들식 노시설은 앞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주거 양식이다. 그리고 II B1 · 2식이 확인되는데, 이 주거유형은 앞 시기부터 이어져온 평면 방형계의 재지적 속성과 부뚜막이라는 이질적인 속성 간의 문화 접변 현상을 보여준다.

IV-1기에는 IB1 · 3식과 IC1 · 2식이 재지계의 주거 문화로 지속되면서 새롭게 II B1 · 3식과 IC1 · 3식이 출현한다. 이 시기에 부뚜막식과 구들식 노시설, 그리고 벽주식의 기둥 배치는 앞 시기부터 이어져 온 재지적 구조 속성이지만, 평면 방형계는 새로운 주거 속성이다. IV-2기에는 II B4b식과 IC1식이 확인되며, 4주+벽주식(4b)의 기둥배치는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구조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주거 건축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21] 울산지역 시기별 주거유형의 변화양상

시기	주거 유형	II A1	II B1	II B4a	I A1	I B1	I C		중도식
							1	3	
I기		1							
II기		3							
III기		4	2		6	4	5	1	
IV	-1기					3	?	?	
	-2기			5			?	?	13

다음으로 울산지역은 내부시설이 양호한 47동 주거지를 대상으로 시기별 주거유형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표 2-21]과 같다.

[표 2-21]에서 알 수 있듯이 I · II기에 주류를 이루는 주거유형은 울산식 주거지

에서 변형된 형태인 II A1식으로 III기까지 지속된다. III기에는 새롭게 평면 원형계에 부뚜막식 및 구들식 노시설을 갖춘 IB1식과 IC1·3식의 주거지가 출현하여 IV기까지 재지의 주거문화로 지속됨을 알 수 있다. III-1기에 형성된 교동리 10-1호 주거지는 냇돌(川石)로 구들을 축조하였는데, 이는 진한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II B1식과 IA1식 주거유형은 재지계 주거 속성과 새로 수용된 주거 속성 간의 문화 접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IV-1기에는 현재 IB1식만 조사되었으나 삼한시대 영남지방에서 주류를 이루는 주거유형이 IC1·3식이라는 점에서 추후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주 황성동유적에서는 기원 2세기 중·후엽에 평면 방형계에 구들식 노시설을 갖춘 IC3식 주거지가 출현한다. 울산지역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역시 추후 황성동유적과 취락 패턴이 유사한 중산동 취락 일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IV-2기(대략 기원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엽)에는 당시 영남 지역권에서 보이지 않는 타 주거문화권 양상인 마한계(II B4a식)와 중도식 주거유형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과 이들 지역 간의 다양한 교류와 영향 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울산지역은 삼한시대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취락유적에서도 수혈주거지의 확인 비율이 낮은 편이다. 평면형태도 다소 정형성이 떨어지며, 주거지 내부와 외부에 많은 주혈이 중복된 양상이 많다. 특히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는 취락유적에서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주거지의 지상화에 따른 수혈주거지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⁵⁾ 다만, 이 시기 총적지에 조성된 울산 입암리유적과 주변 지역인 기장 가동유적, 그리고 양산 명동유적 등에서는 여전히 수혈주거지의 조성 비율이 높다. 이러한 양상은 취락의 입지와 성격에 따라 주거 형태에도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구-경산지역은 내부시설이 양호한 166동 주거지를 대상으로 시기별 주거유형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표 2-22]와 같다.

I기와 II기의 주거유형은 조사 자료는 많지 않지만, 경산 하양 대학리유적에서 II A1식이 확인되는 것을 통해 동시기 경주와 울산 지역과 동일한 주거문화의 흐름을 보

[표 2-22] 대구-경산 지역 시기별 주거유형의 변화양상

주거 유형 시기	II A 1	II B				II C					IA		IB				IC			
		1	3	4a	4b	1	2	3	4a	4b	1	3	1	2	3	4a	1	2	3	
I기	1																			
II기	1																			
III기	1											1	2					10		1
IV	-1기		5			1		1			1		3	1	3			2	3	5
	-2기		2	2	1	2	11	1	5	1	3					1		2		

65) 정현석, 2016, 「울산지역 삼국시대 주거지의 전개양상」,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울산』, 2016년 울산문화재단연구원 학술대회, 울산문화재단연구원.

일 것으로 생각된다.

Ⅲ기에는 앞 시기의 ⅡA1식 주거유형이 지속되면서, 경주와 울산지역의 사례처럼 평면 원형계의 부뚜막 및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된 ⅠB1식과 ⅠC(1·3)식 주거유형이 출현 및 성행하게 된다. 특히,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의 Ⅲ-1기에 출현하는 ⅠC(1~3)식은 구들 축조에 판석(板石)이 이용되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사천 늑도유적과 울산 교동리유적의 원형계 구들 주거지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ⅠA3식은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 6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재지계 주거 속성과 새로 수용된 주거 속성 간의 문화접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Ⅳ-1기에는 ⅠA1식, ⅠB(1~3)식, ⅠC(1~3)식이 재지의 주거 문화로 지속되면서, 새롭게 평면 방형계에 부뚜막이 설치된 ⅡB1식 주거유형이 확인된다. 이 주거유형의 세부 속성 중 평면 방형계는 새로운 주거 양식이라 할 수 있다. Ⅳ-2기에는 ⅡB1·3·4(a·b)식과 ⅡC(1~4b)식이 확인되는데, 이 유형들의 세부 속성 중 4주+벽주식(4b식)의 기둥배치는 새로 출현한 주거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대구지역은 Ⅳ-2기에 다른 지역보다 ⅡB4b식과 ⅡC4b식의 설치 비율이 높은 편이다. ⅡC4b식 주거유형에서는 주거지 생활면의 지상화와 벽체 시설의 발달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구들시설은 벽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벽체 안쪽으로 들여 설치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밖에도 포항, 청도, 김천 지역은 경주, 울산, 대구, 경산 지역에서 보이는 주거유

주거문화 요소	재지적 요소	외래적 요소
Ⅰ기		
Ⅱ기		
Ⅲ기		
Ⅳ	-1기	
	-2기	

[도면 2-23] 삼한시대 진한지역 주거유형의 변화양상

형의 변화양상과 동일한 변화의 흐름을 보인다. 이상의 각 시기별 주거유형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도면 2-23]과 같다. 이를 정리해 보면, I기에는 기존 재지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외래의 이주민들의 주거지가 혼재하거나 두 주거문화가 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I기의 원형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주거유형은 평면 원형계 및 방형계에 평지식 또는 수혈식의 노시설을 갖춘 단순한 구조를 보이거나 부정형한 수혈의 형태가 많다. 이후 II기의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에 들어서면, 평면 방형계 무시설식 노시설이 설치된 II A1식 주거유형이 재지의 주거문화로 정착하게 된다.

III-1기에는 재지의 II A1식 주거유형이 지속되면서, 새롭게 평면 원형계에 돌로 만든 부뚜막 및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된 IB·C(1~3)식 주거유형이 울산 교동리유적과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에 유입된다. 돌로 만든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된 원형계 주거지는 점차 지역의 환경과 여건 등에 맞게 점토를 이용해 만들면서 재지의 주거문화로 성행하게 된다. IV-1기에는 IB·C(1~3)식 주거유형이 재지의 주거문화로 지속되면서 경주 황성동유적, 경산 임당유적 등에서 새롭게 평면 방형계 주거지가 출현한다. IV-2기에는 새롭게 4주식과 4주+벽주식 기둥 양식이 채용되면서 구들과 벽체시설의 변화와 발달을 보이는 IIC4(a·b)식 주거유형이 영남 중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성행하게 된다.

이처럼, 삼한시대 진한지역에서는 기존 재지의 주거문화 속에 외래의 주거문화가 유입되면, 이 두 문화는 일정 기간 공존하고 혼재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 문화 간 융합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과 환경에 맞는 주거문화가 선택되어 발전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4. 지상식 건물지 검토

지상식 건물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생활면의 바닥이 지면에 붙어 있는지,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지면식(地面式)과 고상식(高床式)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삼한시대 진한지역에서 조사된 시기별 지면식과 고상식 건물지의 구조, 형태, 용도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진한지역에서 지상식(地上式) 건물지가 확인된 사례는 Ⅱ기와 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에서 고상식이 일부 보이기 시작한다. 구조는 주로 1×1칸의 4주식이며, Ⅱ기에 해당하는 대구 칠곡 3택지유적에서 14동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Ⅲ기에는 울산 달천유적에서 1동, 울산 반송리 425-1유적에서 6동, 울산 신화리유적(A-5지구)에서 1동이 확인되었다. 신화리유적에서는 4×1칸의 건물 1동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울산 지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Ⅳ기에 해당하는 창원지역에서 확인된 신방리 저습유적에서 1동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Ⅰ~Ⅲ기에는 취락내 지상식 건물지의 축조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이러한 건물지는 대부분 주거지의 부속시설, 망루, 창고 등의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2-2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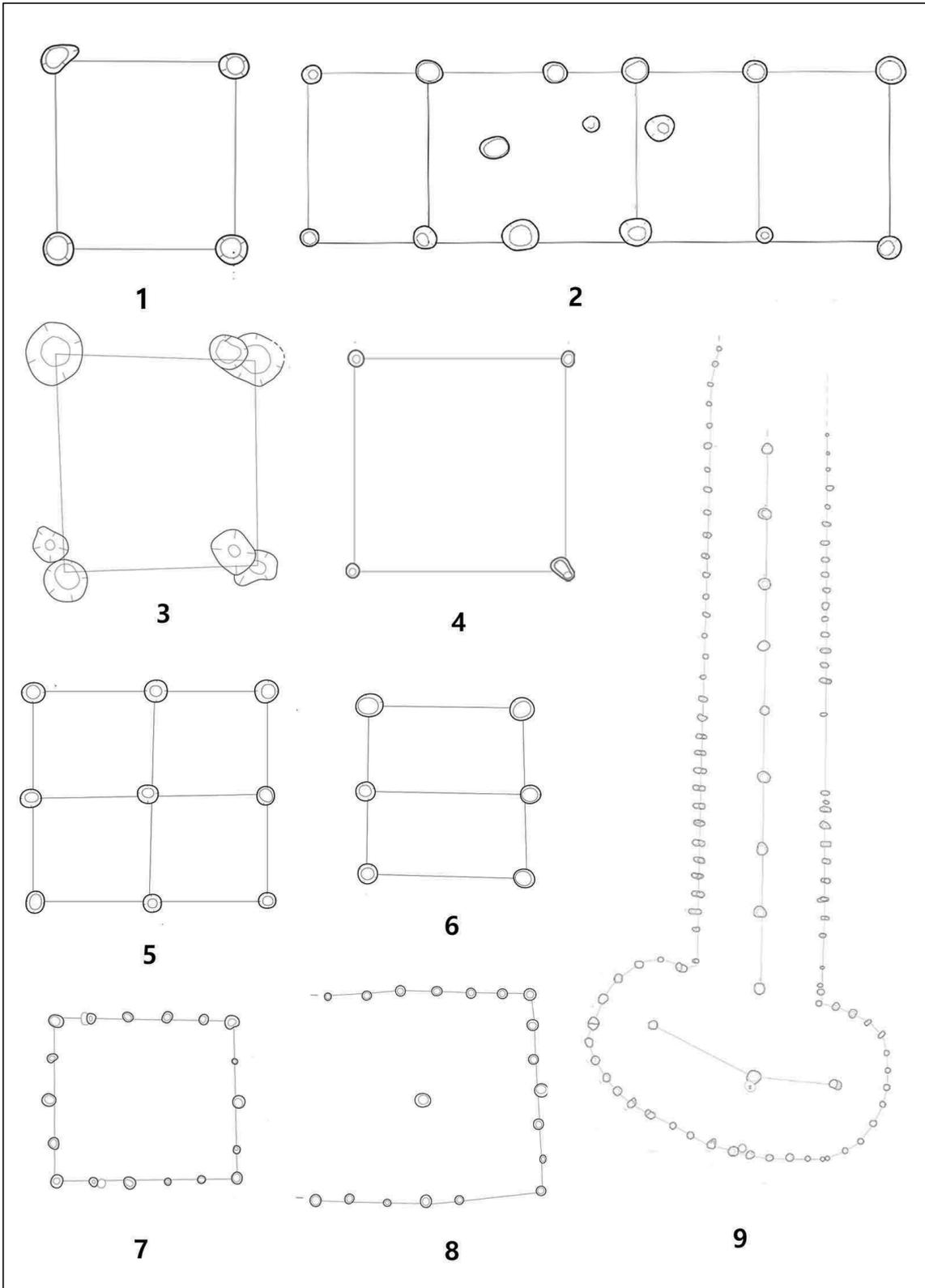
Ⅳ기의 취락유적에서는 수기의 기둥 구멍이 무질서하게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건물의 명확한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이를 통해, 취락 내 지상식 건물지의 빈도가 높아져 감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지상식 건물지는 경산 임당유적, 울산 교동리유적, 김천 모암동유적 등에서 고상식과 지면식 구조가 확인되었다.

경산 임당 F지구에서는 58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일반적인 수혈주거지의 구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주거지들은 구릉 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구조는 경사면 위쪽에 호형(弧形)의 주구(週溝)를 설치한 다음, 안쪽으로 호형이나 방형(方形)으로 벽주(壁柱) 기둥을 배치한 형태이다. 주구는 주거지 밖의 경사면 위쪽에 설치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의 형태를 보인다[도면 2-25-1~4].

이 유적을 검토한 권태용의 연구에 따르면, F지구에서 확인된 58동의 주거지를 주구부 건물지(週溝附 建物址)로 명명하고, 주혈의 배치 양상에 따라 크게 I 형과 II 형으로 구분하였다. I 형은 다시 (장)방형의 주혈배치를 보이면서 2×1칸, 2×2칸 등의 정연한 주혈배치를 보이는 것(a형)[도면 2-25-3]과 등 간격은 아니지만 주로 (장)방형의 주혈배치를 보이는 것(b형)[도면 2-25-1]으로 세분하였다. II 형은 주주(主柱)가 포함된 벽주혈(壁柱穴)이 호상(弧狀)의 1열(列)을 이루는 것이고, 주주혈(主柱穴)과 벽주혈의 직경이 거의 같은 것(a형)과 주주혈의 직경이 벽주혈의 1.5배를 넘는 것(b형)으로 세분하였다[도면 2-25-2·4]. I 형은 창고용이나 작업장으로 사용된 고상식 구조로 보았고, II 형은 주거용의 지면식 구조로 추정하였다.⁶⁶⁾ 권태용이 분류한 I b형은 기둥의 배치와 형태로 보아 고상식보다는 지면식 구조로 판단된다. 이 유형의 건물지는 울산 교동리유적의 73호 건물지[도면 2-24-7]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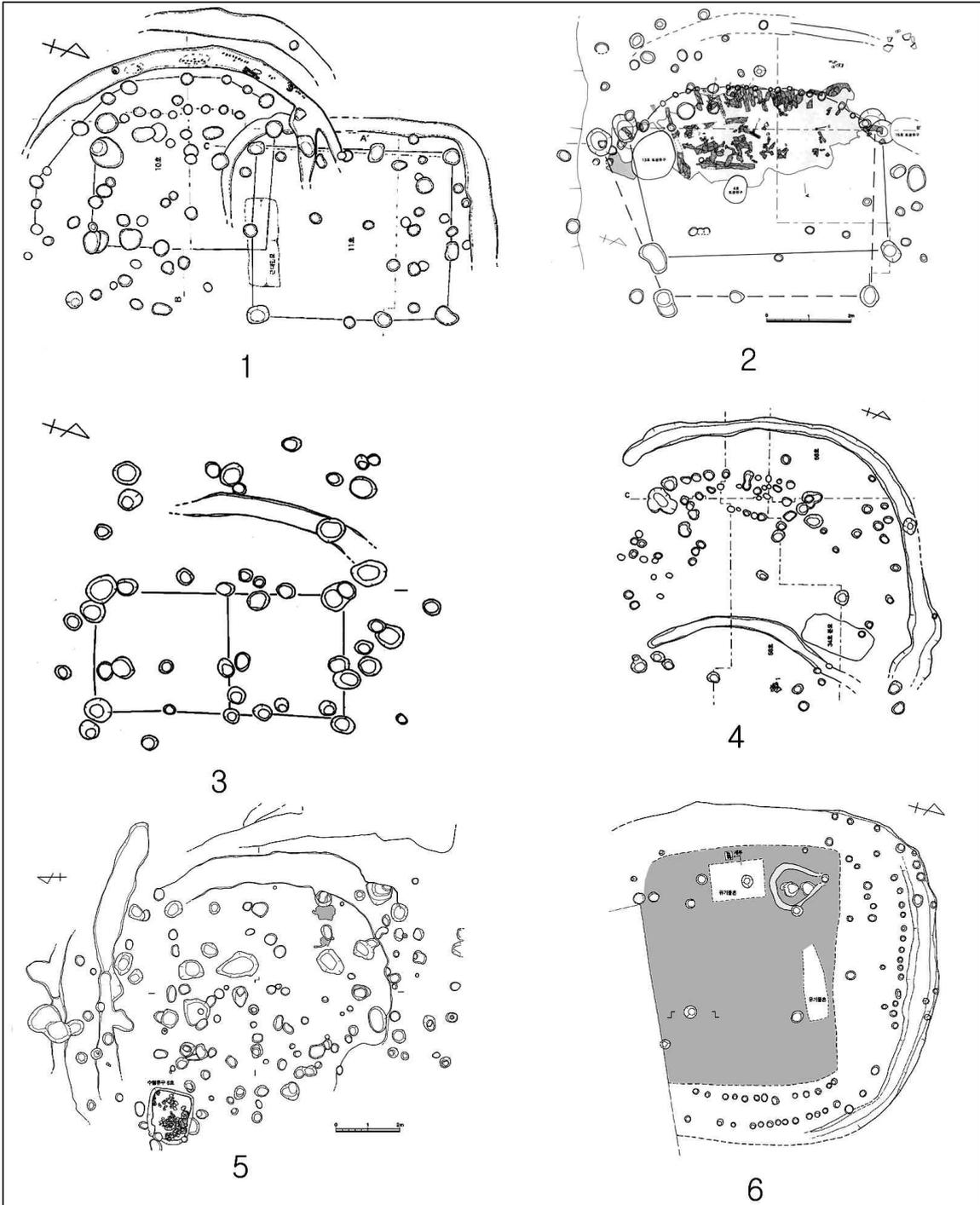
66)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IV. 고찰」, 『경산임당동유적 I - F, H지구 및 토성』.

권태용, 2011, 「경산 임당유적 취락연구-F지구를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56호, 영남고고학회.



[도면 2-24] 삼한시대 진한지역 시기별 지상식 건물지(1: 반송리 425-1 25호[III기], 2: 신화리(A-5지구) 1호[III기], 3: 달천[III기], 4: 교동리 69호[IV기], 5: 교동리 16호[IV기], 6: 교동리 12호[IV기], 7: 교동리 73호[IV기], 8: 교동리 43호[IV기], 9: 교동리 4호 대형 건물지[IV기])

임당유적 F지구 주구부 건물지의 연대는 출토유물의 수량이 적고, 주거의 하부 구조만 잔존하여 명확한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건물지 내부와 주변에서 출토된 노형토기(爐形土器), 단경호(短頸壺) 등의 후기와질토기와 연질토기인 장동옹(長胴甕),



[도면 2-25] 경산 임당유적 F지구 주구부 건물지(1: 10·11호, 2: 15호, 3: 19호, 4: 56·58호)와 I 지구 주거지(5: 7호, 6: 59호)

시루 등의 유물 양상으로 볼 때, 기원 3세기 중·후엽으로 추정된다. 또한 임당유적의 북서편 층적지에 분포하는 I 지구 주거지와는 일정시기 병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II형의 지면식 건물지는 I 지구의 수혈주거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인다. I 지구 7호와 59호 주거지[도면 2-25-5·6]는 주구와 주혈 배치양상만 보았을 때, F지구의 7호·14·15호 등의 주거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동 시기로 추정되는 주변 지역의 기장 가동유적, 포항 호동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주구부 건물지는 주로 배수가 잘되는 층적층보다는 배수와 습기에 취약한 구릉의 기반층에 입지하는 주거지에서 설치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울산 교동리유적에서는 284동의 지상식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 284동의 건물지 주위에는 많은 주혈군이 분포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건물지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크게 지면식과 고상식 건물지로 대별된다. 지면식은 대형 건물지를 포함하여 21동이 확인되었으며, 고상식은 263동이 확인되었다. 지상식 건물지의 면적은 주로 11~25㎡ 이상의 중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먼저, 고상식 건물지는 1×1칸의 4주식, 2×1칸의 6주식, 2×2칸의 9주식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1×1칸의 4주식 구조가 전체 건물지 중 85.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표 2-23]. 이를 통해 유적 전반에 1×1칸의 4주식 구조가 선호되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물지의 각 구조에 따라 분포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유적에서 사용된 건물지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1×1칸의 구조[도면 2-24-4]는 유적 전반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2×1칸과 2×2칸의 구조[도면 2-24-5·6]는 주로 유적의 북동편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 이 건물지들의 용도는 취락 내 가옥이나 창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3] 울산 교동리유적 고상식 건물지의 구조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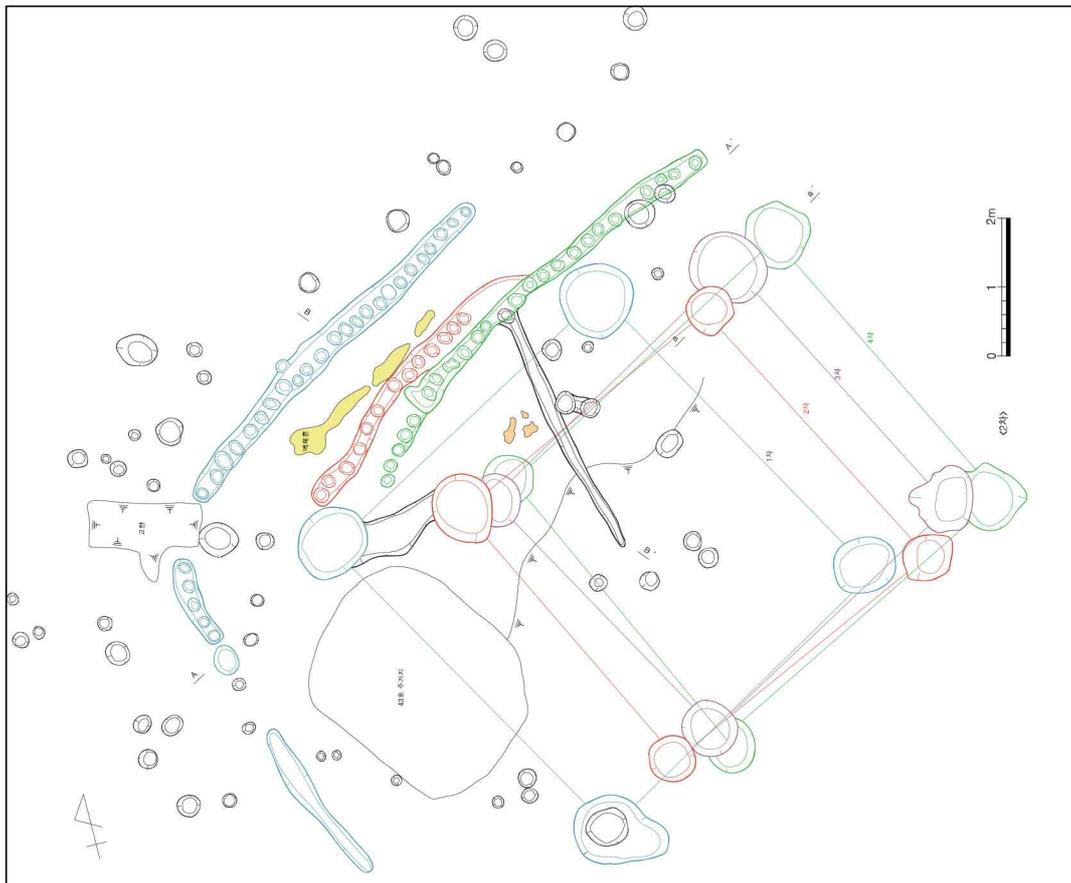
비율 \ 구조	1×1칸(4주식)	2×1(6주식)	2×2(9주식)	합계
비율(수량)	85.9(226)	9.9(26)	4.2(11)	100%(263)

다음으로 지면식 건물지는 21동이 확인되었는데, 방형으로 정형한 것과 정형하지 않은 특수한 형태로 구분된다. 방형으로 정형한 형태의 건물지는 네 모서리에 중심주혈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보조주혈을 설치한 양상이다. 유적 내에서 1칸 구조의 고상식 건물지는 이 지면식 건물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배치된 양상을 보인다[도면 2-24-7]. 방형으로 정형한 지면식 건물지 중 가장 대형은 43호이다. 이 건물지는 유적의 북동편에 치우쳐 주변 건물지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 면적이 40.9㎡ 이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주거용이나 창고용 건물보다는 취락 내 상위층이 거주한 건물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2-24-8].

한편, 교동리유적의 지면식 건물지 중 특수한 형태의 대형 건물지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 건물지의 배치양상은 주변 건물지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취락의 북서쪽 경계 가장자리에 치우쳐 조성되었다. 총 4동이 확인되었는데, 1호와 2호, 3호와 4호는 각각 중복을 이루고 있다. 1·2호는 직접적인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4호는 3호에 의해 건물 전체가 파괴되었다. 3호는 4호와 형태가 같으며 동쪽의 타원형 부분만 축소된 채 설치되었는데, 재건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건축이 행해졌다는 것은 이 대형의 건축물이 취락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상징적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이 대형 건물지의 평면형태는 마치 열쇠 구멍을 연상케 하는데, 종(縱) 방향의 긴 장타원형과 횡(橫) 방향의 타원형이 수직으로 결합된 양상이다. 대형 건물지 중 가장 규모가 큰 4호는 일부가 삭평되어 전체 양상은 알 수 없지만 잔존하는 길이만 61m가 넘는 초대형이다[도면 2-25-9]. 종 방향으로 긴 장타원형에 가까운 부분은 중앙주식(中央柱式)과 양측의 주혈 열(列)로 축조되었는데, 폭은 8~9m로 일정하며, 중앙에 직



[도면 2-26] 김천 모암동유적 25호 주거지

67) 이창희, 2016, 「삼한 · 삼국시대 신화리유적의 취락」, 『울산의 시작, 신화리-땅속에서 만난 새로운 역사』, 울산대곡박물관 2016년 제2차 특별전 도록, 울산대곡박물관.

경 60~80cm의 주혈이 4~6m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 주혈 옆에서 4~4.6m 정도 떨어져 양측으로 크기가 작은 주혈 열이 촘촘히 배치된 양상이다. 그리고 횡 타원형 부분은 건물지의 종 방향의 장타원에 배치된 중앙 주혈과 동일한 규모의 주혈이 3개 위치하며, 삼각형의 배치 양상을 보인다. 그 외 3개의 건물지도 4호와 유사한 형태 및 구조로 추정된다.

또한, 교동리유적에서 대형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취락 내 중앙부가 아닌 건물지군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북서쪽 가장자리 가까이에 단독으로 입지하고 있다. 북쪽이 급한 경사면을 이루는 절벽에 가까워 주변 일대를 조망하기 유리한 위치에 조성되었다. 이러한 곳에 주변을 압도할 만한 대형 건물지를 축조한 것은 취락 내 상징성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외부에 과시하고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취락 내 대형 건물지는 특수 건물지로 분류되는데, 용도는 취락 구성원들의 집회와 회의 장소, 제의 공간인 신전(神殿) 등으로 보고 있다.⁶⁸⁾ 교동리유적의 대형 건물지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취락 내 주거역에서 독립된 곳에 입지해 있고,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의례시설로 보는 견해가 있다.⁶⁹⁾ 필자 역시 이 대형 건물지의 입지와 형태 등에서 보이는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주 용도는 의례와 관련된 특수 건물로 생각된다. 그리고 건물지의 규모로 보아 취락과 읍락 구성원들의 공동 집회소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천 모암동유적의 25·26호·28호 주거지는 취락 내 분포하고 있는 수혈주거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주거지들은 중심 4주와 벽주혈이 한자리에서 2~4차례의 개축의 양상을 보이며, 분포 위치도 구릉의 북동쪽 경계에 떨어져 군집해 있으며, 규모도 초대형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이 주거지들의 성격은 일반적인 수혈주거지가 아닌 취락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리처(管理處)나 공동 작업장 등의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 지면식 건물지로 판단된다[도면 2-26].

요컨대, 진한지역에서 지상식 건물지는 바닥의 위치에 따라 지면식과 고상식으로 구분된다. 고상식 건물지는 I~Ⅲ기까지는 1×1칸 고상식 구조가 주류를 이루며, 취락 내 축조 비율은 높지 않다. 이러한 건물지는 대부분 주거지의 부속시설, 창고, 망루 등의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IV기에는 1×1칸, 2×1칸, 2×2칸 등 고상식의 구조가 다양해진다. 지면식은 주로 IV기에 유행하며, 벽주식, 4주+벽주식 등 수혈주거지의 기둥배치와 유사한 형태, 열쇠모양을 한 대규모의 특수한 형태 등 다양하게 출현한다. 이러한 지상식 건물지는 취락 내 일반 가옥, 수장층 가옥, 의례나 집회 등을 위한 특수 건물, 작업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8) 권태용, 2008, 「IV. 고찰」, 『함안 오곡리 87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69) 이창희, 2016, 「삼한·삼국시대 신화리유적의 취락」, 『울산의 시작, 신화리-땅속에서 만난 새로운 역사』, 울산대국박물관 2016년 제2차 특별전 도록, 울산대국박물관, 147~149쪽

Ⅲ. 진한지역 주거지의 전개와 문화

1. 진한 형성기 주거 양상

진한지역에서 청동기시대와 다른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기원전 4~3세기대이다. 이 시기 진한지역에서는 재지의 청동기 후기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외래의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파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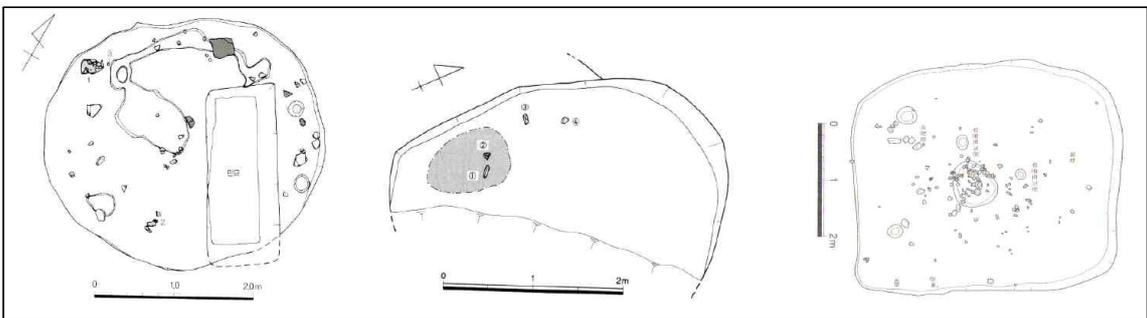
진한 형성기의 주거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지에서 변형된 평면 방형계에 평지식 또는 수혈식 노시설을 설치한 II A1식 주거유형과 부정형한 수혈(豎穴)의 형태를 보이는 임시 주거가 많다. 대체로 이 시기 주거지는 평면형태나 내부시설이 정연하지 않고, 수혈의 깊이가 얇으므로 장기간 존속을 염두에 두고 축조된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⁷⁰⁾

[표 3-1]은 I·II기 주거지의 평면형태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진한지역에서는 I·II기에 원형계보다는 방형계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원형계 주거지는 I기의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과 대구 각산동 912-2유적, 그리고 II기의 경산 경리 440-5번지유적에서 소수로 확인되었다.

한편, 진한지역 주변에 위치하는 김해 대청유적, 합천 영창리유적, 사천 방지리유적 등에서는 원형계 주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도면 3-1]. 출토유물에 있어서도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유물과 함께 송국리 유형의 유물들이 공반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들은 대부분 앞 시기 주거지 특히 송국리형 주거지⁷¹⁾의 형태가 많은데, 이는 송국리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표 3-1] 진한지역 I·II기 주거지의 평면형태

형태 시기	원형계 (I)	방형계 (II)	부정형
I기	3(6.4%)	35(74.5%)	9(19.1%)
II기	1(4.6%)	18(81.8%)	3(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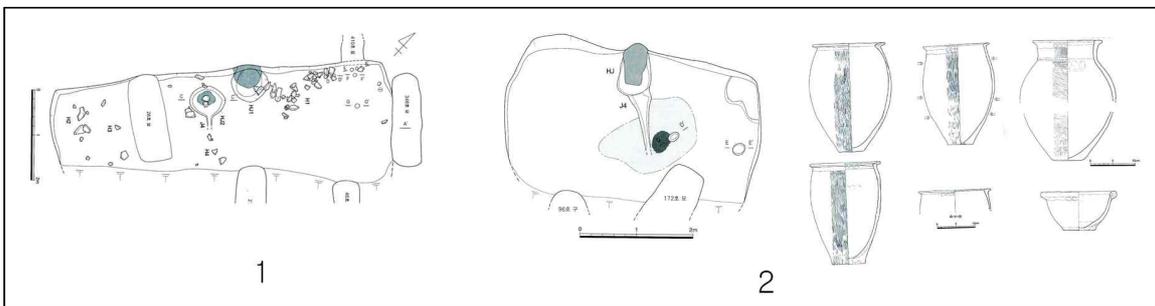
[도면 3-1] 변한지역 I기 주거지(左: 사천 방지리 6호, 中: 합천 영창리 25호, 右: 김해 구산동 2호)

70) 이수홍, 2019,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지역상」, 『청동기학보』 24, 한국청동기학회, 48쪽

71)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보령 관창리유적, 서산 당정리유적, 공주 장원리유적, 제주 삼양동유적, 보성 동천리유적, 군산 도암리유적 등이 있다.

국립김해박물관, 2004, 『한국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자료집』.

다. 반면, 검단리문화권인 울산지역의 매곡동유적(Ⅱ지구), 울산 검단리유적 등에서는 울산식 주거지 또는 변형된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유물이 청동기시대 유물과 공반된다. 또한 울산 신정동(7호, 12호), 매곡동Ⅳ(16호, 18호), 다운동 436-5(1·2호) 유적에서 확인된 일부 주거지는 울산식 주거지에서 이탈한 형태를 보이고 무문양의 심발형토기가 확인되어 청동기시대의 가장 늦은 단계로 추정되며, 삼한시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⁷²⁾ 이러한 주거지의 양상은 청동기시대 중기문화를 영위한 재지민들의 문화가 삼각구연점토대토기 문화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현상으로 보거나⁷³⁾, 재지 무문토기문화와 외래의 점토대토기문화가 공존하면서 나타난 문화 접변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⁷⁴⁾



[도면 3-2] 김해 구산동유적의 주거지 내부 벽부식 노(1: 517호 주거지, 2: 131호 주거지)

이처럼 진한 형성기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I기보다는 II기가 좀더 정형화된 주거 형태를 보인다. 즉, I기에는 원형과 방형, 그리고 부정형한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데, II기에는 방형의 형태로 정형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I기에는 기존 재지민 주거문화에 외래의 주거문화가 유입되면서 서로 공존 및 혼재된 양상을 보이다가, II기에 이르러 두 주거문화가 융합되어 정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변한지역의 김해 구산동유적에서는 수혈 벽 가까이 설치된 벽부식(壁付式) 노(爐)가 확인되어 주목된다[도면 3-2]. 김해 구산동유적은 평면 방형계 주거지가 91동 확인된 대규모 취락으로 원형 및 삼각형 점토대토기와 함께 야요이시대 중기 초의 죠노코시식(城ノ越式)과 중기 전반의 수구 I 식(須玖 I 式)에 해당하는 야요이계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김해 구산동유적의 주거지는 평면 방형계에 수혈 벽 가까이 설치된 벽부식 노(爐)를 특징이다. 벽부식 노는 중부지방의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인 보령 교성리유적, 안성 반제리유적, 고성 송현리유적과 중국의 신민시엔 허우산유적(新民縣 后山遺蹟) 등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부뚜막의 시원적 형태로 추정된다. 김해 구산동유적에서 새로운 형태의 벽부식 노가 확인되는 점은 앞으로 진한지역에서도 벽부식 노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72) 이수홍, 2010, 「울산 청동기시대 문화의 성격」, 『청동기시대의 울산태화강문화』, 울산문화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 울산문화재연구원.

73) 이수홍, 2007, 「동남부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편년 및 지역성」, 『영남고고학보』 40, 영남고고학회.

74) 신영애, 2011, 『영남지방 점토대토기 단계 문화접변』,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둥 형태는 대구 칠곡 3택지유적 주거지에서 벽면을 따라 기둥이 배치된 벽주식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기둥 구멍이 확인되지 않거나 정형성이 없다. 이를 통해서 볼 때, I · II기 주거지는 기둥 없이 수혈 밖 지면에 직접 서까래를 세웠거나, 외부에 주 제대(흙담) 또는 벽체시설로 상부 구조를 지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면적은 대체로 25m² 이하의 소형이 일반적이거나 대구 이천동 295-7번지 3호 주거지는 세장방형에 32.5m²로 중형급 규모를 보이는 이례적인 사례도 있다. 그밖에도 울산 효문동 산68-1유적, 대구 각산동 912-2번지유적 등에서 벽구(壁溝)와 주구(週溝)가 설치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 벽구와 주구 시설은 구릉 경사면의 높은 쪽에 일부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배수(排水)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진한 형성기의 주거는 외래의 점토대토기 문화를 영위한 이주민이 한반도 각지로 유입되면서, 기존 재지민의 주거지와 공존하고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 문화 간의 융합이 진행되어, 정형화된 주거문화가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원형계 구들 주거지의 출현과 전개

기원전 1세기 전엽의 울산 교동리유적에서는 평면 원형계에 돌로 만든 구들식 노 시설이 설치된 IC식 주거유형이 출현한다. 이 유적의 주거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에서 조사된 구들 주거지가 진한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였다. 당시 사천 늑도유적과 방지리유적 등 사천 일대의 도서 해안지역에서만 성행했던 것으로 보았던 돌로 만든 온돌시설이 영남 내륙권의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에서 확인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필자는 영남지방에서 확인되는 구들시설이 이른 시기에는 확인되지 않고 기원 2세기 중엽 이후 문화적 변동과 함께 출현하였을 것으로 보았다.⁷⁵⁾ 하지만 기원전 1세기~기원 2세기 전엽 시기에 해당하는 구들 주거지 자료가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 울산 명산리 314-1번지유적, 창원 신방리유적 등에서 발견됨에 따라 영남지방 구들의 출현 시기를 기원 2세기 후엽에서 기원전 1세기대로 수정하게 되었다.⁷⁶⁾

이에 사천 늑도유적과 울산 교동리유적의 주거지 구조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변 · 진한 지역에서 구들의 출현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사천 늑도 구들 주거지가 울산 교동리 구들 주거지보다 좀 더 선행하거나 동시기에 형성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의 보고⁷⁷⁾에 따르면, 이 유적의 4 · 5호 주거지와 16호 수혈에서 출토된 타날문 단경호를 전국계(戰國系) 타날문 토기로 보아 구들 주거지의

75) 김나영, 2007, 「영남지역 삼한시대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 『영남고고학』 43호, 영남고고학회.

76) 김나영, 2009, 「영남지방 원삼국시대의 주거와 취락」, 『영남지방 원삼국 ·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요지문, 영남고고학회.

7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V. 고찰」, 『대구 달성 평촌리 · 예현리』.

조성 시기를 기원전 2세기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진일⁷⁸⁾은 이 유적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타날문 토기는 유물의 기형과 경도를 볼 때, 전국계(戰國系) 토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삼국시대 도질토기로 추정하여 후대에 이입(移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필자 역시 박진일의 견해에 동의한다.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의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타날문 단경호는 소성과 구연부의 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전국계(戰國系) 토기보다는 삼국시대 타날문 토기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6호 주거지는 평면 원형계에 내부 중앙 바닥에 무시설식 노시설이 설치된 I A1식 주거유형이다. 이 주거유형은 구들이 설치된 1~5호 주거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6호 주거지 내부에서는 화분형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유물이 출토되어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1~5호 주거지보다는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6호 주거지는 동시기로 추정되는 울산 달천유적과 울산 교동리유적 주거지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진한지역에서는 I · II기 주거지의 평면이 주로 방형계이고, 소수가 확인되는 원형계도 정형화된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구 달성 평촌리 6호 주거지는 II~III기 사이 전환기에 축조된 주거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구 평촌리유적에서 구들시설이 설치된 1 · 2 · 4호 주거지에서 삼각형점토대용, 봉상파수부호(棒狀把手附壺), 와질 주머니호 등 점토대토기와 전기와질토기가 공반되는 것으로 보아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 후엽에서 기원 전 · 후의 시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진한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구들 주거지는 울산 교동리유적의 10-1호 주거지라 할 수 있다. 이 유적의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에 해당하나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분묘와 구(溝) 등의 시기와 비교해 볼 때, 기원전 1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다소 정형성이 떨어지지만, 원형에 가깝다. 주거지내 구들시설은 평면 ‘ㄱ’자형을 보이며, 냇돌(川石)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사천 늑도유적과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의 구들식 노시설은 인위적 손질을 가해 판석(板石)으로 축조하였으나 울산 교동리유적은 자연 그대로의 냇돌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울산 교동리 21호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식 노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진한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한 부뚜막식시설이다. 물론 ‘벽부식 노’라는 부뚜막의 시원적 형태가 변한지역인 김해 구산동유적에서 확인되었으나 정형된 형태의 부뚜막시설은 아니며, 또한 이 시원적 형태도 아직 진한지역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다.

이처럼, III-1기에 진한지역에 출현한 원형의 평면형태와 구들식 노시설은 I · II기의 주거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화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원형의 평면형태는 변 · 진한 형성기 주거지에서도 확인되지만, 당시에는 방형계가 주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구조 속성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주거문화의 요소가 어디에서 기원하였으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출현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78) 박진일, 2022, 『삼한의 고고학적 시 · 공간』, 진인진, 163~167쪽

먼저, 구들의 기원부터 살펴보겠다. 구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구려설, 북옥저설(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고조선설, 중원지방설, 서방 이입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이 가운데 송기호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조사된 구들 자료와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온돌이 ‘자바이칼-몽골 북부(북흥노)와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북옥저)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였다는 ‘다원설’을 제기하였다.⁷⁹⁾ 이후, 송기호의 ‘다원설’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용되었다.

또한, 남해안 쪽구들 주거지의 등장에 대해 연구한 김현은, 사천 늑도유적의 쪽구들을 요동반도 및 청천강 이북지역의 고조선, 또 그 이후 낙랑의 유물이 유입되는 시기에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주거문화를 서해안-남해안-왜의 교역루트 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지역-남해안 교역루트 등의 다중 루트를 확보한 집단의 산물로 추정하였다.⁸⁰⁾

최근 오승환은 구들의 기원과 확산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정착과정을 연구⁸¹⁾하였다. 그의 연구는 한반도 북부, 중국 북부(요령성 · 길림성 · 흑룡강성 · 내몽고자치구 · 하북성 북부 · 신강위구르자치구 · 감숙성 북부)지역, 몽골 초원지대, 러시아 연해주~자바이칼 일대와 그 주위의 시베리아지역,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이르는 방대한 구들관련 자료와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와 논점들을 검토하여 온돌의 기원지와 확산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성과가 크다.

오승환은 그간 온돌이 처음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한반도, 러시아, 몽골 북부 지역들이 기원지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노(爐)가 온돌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이나 중간구조가 확인되지 않고 철제 농공구류, 새로운 제도 기술 등의 문화가 갑자기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원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신석기~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아궁이식 노(爐)와 배연시설을 갖춘 구조가 확인된 점에 주목하였다. 이 중 내몽고(內蒙古)의 적봉(赤峰) 방한기



[도면 3-3] 구들의 발생과 확산 과정(오승환 2018)

79) 김현, 2006, 「남해안 쪽구들 주거지 등장에 대한 소고-늑도주거지를 중심으로」, 『석헌 정징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부산고고학연구회 논총간행위원회.

80) 송기호, 2006, 『한국 고대의 온돌-북옥저, 고구려, 발해』, 서울대학교출판부.

81)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승환, 2021, 「온돌 기원지 연구」, 『중앙고고』 34, 중앙문화재연구원.

(敖漢旗) 흥룡구유적(興隆溝遺蹟)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下層文化) 단계 3지점 1호 주거지에서 최초의 ‘ㄱ’자형 온돌구조가 확인됨에 주목하였고, 이후 전국(戰國) 연(燕)의 당산(唐山) 동환타유적(東歡陀遺蹟)에서 전형적인 ‘ㄱ’자형 온돌이 나타남을 밝혔다.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에 시작된 전국 연의 세력확장과 맞물려 구들이 철기 문화와 함께 동북 방향으로 확산된다. 이와 달리 몽골 북부-자바이칼지역에 구들이 등장한 것은 철기문화의 확산이 아닌 인위적인 이주의 결과임을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밝혀내었다. 흉노는 한(漢)과의 오랜 분쟁 과정에서 다수의 한인(漢人)을 약탈·역류하였는데, 이 역류된 한인들이 몽골 북부-자바이칼일대로 강제 이주하게 되면서 북위 50°에 달하는 고위도지역의 혹한을 이겨내고자 그들의 난방문화였던 구들을 축조한 것으로 보았다.

한반도에서 구들은 전국(戰國) 연(燕)의 철기문화와 함께 기원전 3세기 무렵 청천강 유역의 영변(寧邊) 세죽리유적(細竹里遺蹟)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다. 이어 기원전 2세기 후엽에는 서북한지역(세죽리-연화보)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의 사천 방지리와 늑도유적에 삼각형 점토대토기문화와 함께 구들이 출현한다고 보았다. 한반도 북부와 남해안의 양단을 시작으로 구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이후 2세기 초에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출입구부가(出入口附加) 주거지와 구들이 북한강 및 임진강 유역을 시작으로 한반도 중부지방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도면 3-3].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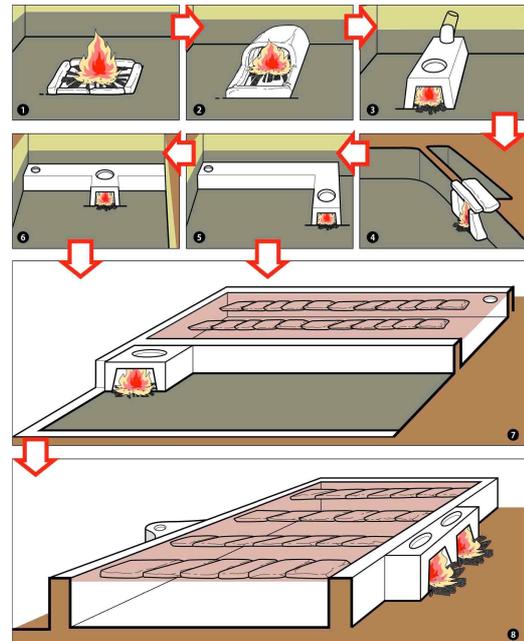
필자는 그동안 사천 늑도유적의 구들 주거지와 그 기원지로 지목된 북한지역, 연해주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등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진한지역 구들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풀기 힘든 연구 과제로 안고 있었다. 그러나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물질자료 등을 통해 실증적이고 논리적 타당성으로 구들의 기원지와 확산 과정을 입증한 오승환의 연구를 통해, 본고에서 구들의 기원지로 추정되는 지역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를 수용하여 진한지역 구들의 기원과 확산 과정을 검토해 보겠다.

먼저, 오승환은 구들의 발생과 발생과정을 [도면 3-4]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① 단계는 무시설의 노(爐)의 사용→ ②단계는 벽가에 노(爐)가 설치되는 벽부노(壁付爐)의 사용→ ③단계는 아궁이와 고래구조를 갖춘 부뚜막 구조로 발전→ 구들 발생 이전 단계는 모두 중국에서 신석기시대에 나타나고 이후 ④단계는 부뚜막 뒤로 벽체를 파서 고래를 만드는 화담(火墻) 구조의 난방형태가 내몽고 흥룡구유적에서 등장→ ⑤ 단계는 벽가를 따라 고래가 설치되는 ‘ㄱ’자형의 구들이 연(燕)의 동환타유적에서 등장하고, 한반도에는 기원전 3세기의 세죽리유적에서 처음 보이기 시작→ ⑥단계는 통일신라시대에 두쪽구들이 등장하지만 고려시대까지 사용되다 소멸→ ⑦단계는 반구들의 형태 사용→ ⑧단계는 고려시대 말에 등장하는 온구들의 형태로 조선시대 후기부터 보편화되어 전국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⁸³⁾

82)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3)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7쪽.

이러한 구들의 변화 흐름을 삼한시대 진한지역에 대입해 살펴보면, 먼저 I·II기에는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에 사용된 무시설식 노(爐)가 여전히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다. 벽부식 노(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변한지역인 김해 구산동유적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진한지역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서북한지역의 세죽리유적에서 구들이 출현하고 큰 시차 없이 기원전 2세기 후엽~기원전 1세기 전엽에 사천 늑도유적에서 구들이 출현한다. 사천 늑도유적의 구들시설과 출토유물은 세죽리-연화보 지역과 유사하다. 세죽리-연화보 지역의 구들은 모두 돌로 만든 평면 ‘ㄱ’자형이며, 삼각형 점토대토기, 타날문 단경호, 회백색 대옹, 화분형 토기, 삼릉축, 한식경, 오수전·반량전 등을 포함하는 유물복합체에서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⁸⁴⁾는 점에서 변·진한지역의 구들의 기원지는 서북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도면 3-4] 구들의 발생과 발달과정 모식도 (오승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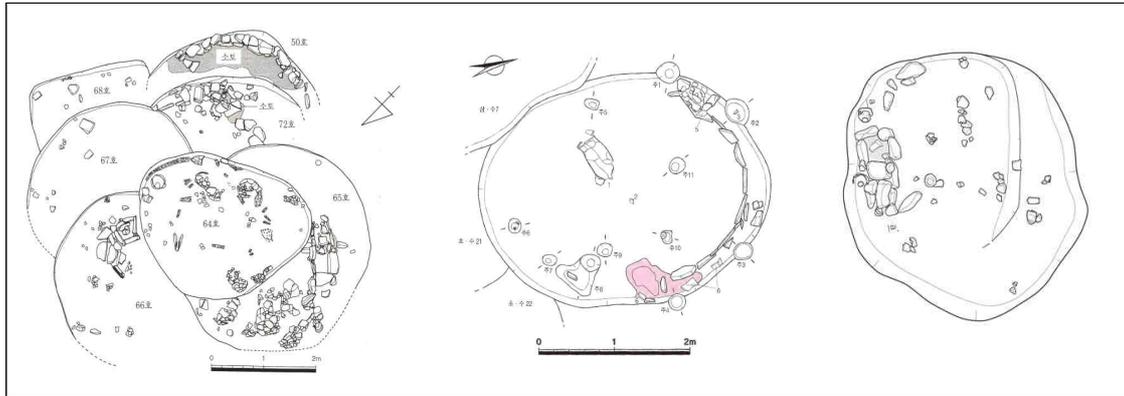
사천 일대의 영남 서부지역에서는 늑도유적 이후 구들의 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연결사례 없이 기원 3세기부터 나타난다. 반면, 영남 동부지역에서는 사천 늑도유적 이후 구들 주거지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영남 동부지역의 구들 주거지는 사천 늑도유적의 직접적인 영향보다 남해안과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여 영남 내륙까지 연결되는 광역의 교역망 통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⁸⁵⁾ 이러한 양상은 울산 교동리유적,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 등 초기 구들 주거지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도면 3-5].

다음으로, III기의 변·진한지역에서는 평면 원형계 주거지가 출현한 후 확산과정을 거쳐 재지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주거 양식이 기존 재지의 주거문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래로부터 유입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기의 변·진한지역에서는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평면형태는 정연하기보다 부정형한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양상은 새로운 이주민들이 진한지역 내로 유입되면서, 취락을 형성하기 위해 정착과 이동을 반복하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II기의 원형계 주거지는 III기의 원형계 주거지와는 내부 구조와 형태 등에 있어서 다른 양식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변·진한지역의 초기 구들에 영향을 준 세죽리-연화보 지역 주거지의 평면

84)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9쪽.

85)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2-223쪽.



[도면 3-5] 변 · 진한지역 초기 구들 주거지(左: 사천 늑도 A가-50 · 64~68 · 72호, 中: 대구 달성 평촌리 1호, 右: 울산 교동리 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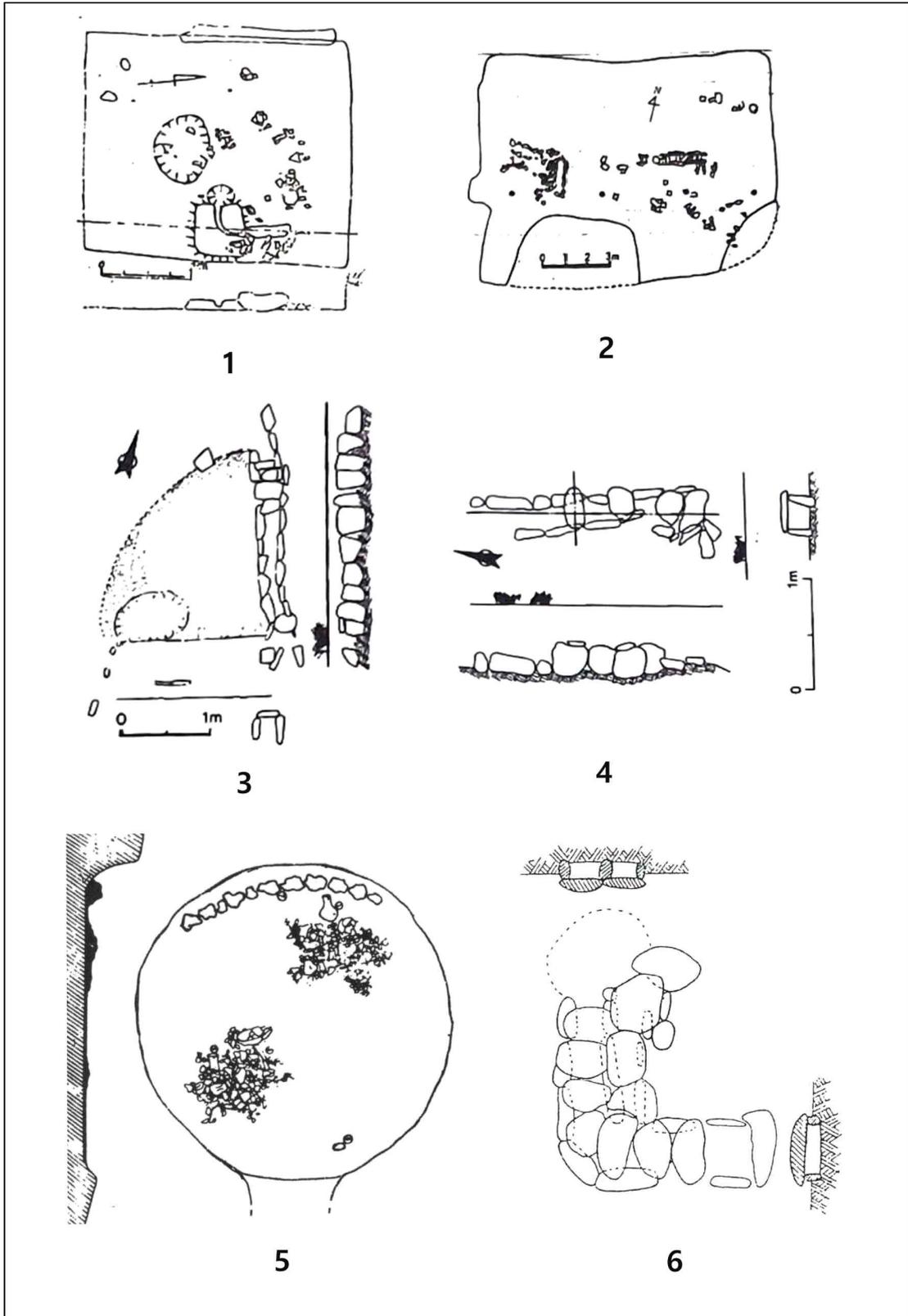
형태는 방형계가 주류이다. 같은 시기 원형계 평면 주거지가 확인되는 것은 중국 동북지역의 대풍(大豊) 석대망유적(石大望遺蹟)의 1호 주거지가 유일한데, 출입구가 부가되어 있어 진한지역의 Ⅲ기에 확인되는 원형계 주거지와는 차이점을 보인다[도면 3-6].

이처럼 중국 동북지역과 서북한지역 초기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방형계인 것과는 달리, 사천 늑도유적과 방지리유적에서 구들이 설치된 주거지는 원형계가 주류이다. 1998~2001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천 늑도유적 발굴조사 구역 중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조사한 A구역에는 부산대학교에서 발굴한 IA지구의 주거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주거지들은 대부분 평면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중복에 의해 파괴가 심하지만 대체로 장방형, 방형, 말각 장방형 등 방형계를 보인다. 층위상 방형계 주거지는 원형계 주거지보다 하층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형계 주거지의 상한 연대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함께 공반되는 야요이(彌生) 토기의 편년안과 대비해 기원전 2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고, 하한은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⁸⁶⁾

사천 늑도유적의 방형계 주거지는 진한지역의 Ⅱ기 주거지 시기와 동시기라 할 수 있다. 진한지역 Ⅱ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가 주류를 이루고, 변한지역인 김해 구산동유적, 동래 내성유적 등 또한 방형계가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 변 · 진한지역 재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로 추정된다.

또한 사천 늑도유적과 큰 시기 차 없이 구들 시설이 출현한 교동리유적은 재지의 방형계 주거지와 새로 출현한 원형계 주거지가 공존하고 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울산 교동리유적의 원형계 주거지에서는 사천 늑도유적의 원형계 주거지에서 보이는 ‘ㄱ’자형 구들과 무시설식 노가 혼재되어 있으며, 방형계 주거지에서는 무시설식 노와 부뚜막식 노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늑도유적의 주거지에 확인되는 방형계와 원형계 주거지에 설치된 구들

86) 부산대학교박물관, 1989, 「V. 고찰」, 『늑도주거지』.



[도면 3-6] 중국 동북, 서북한 지역의 구들 주거지(1: 영변 세족리 1호 주거지, 2: 시중 노남리 2호 주거지, 3: 중강 토성리 1호 주거지, 4: 중강 토성리 4호 주거지, 5: 대풍 석대망 1호 주거지, 6: 북창 대평리 2호 구들)

역시 재지의 주거문화에 외래의 주거문화가 섞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김현은 늑도유적의 쪽구들 주거지에 대해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 간 중복관계를 검토한 후 방형계에서 먼저 쪽구들을 채용한 후 원형계 주거지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들의 구조 또한 변화한 것으로 보았다.⁸⁷⁾ 그러나 초기 구들이 설치된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는 서로 중복관계지만, 출토유물을 보면 그 시기의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천 방지리유적은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에서 모두 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사천 늑도유적과 울산 교동리유적처럼 토착 주거문화와 새로운 주거문화 간의 공존과 융합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Ⅲ기의 진한지역에 서북한 지역의 구들과 부뚜막 문화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기원지의 방형계 평면이 아닌 원형계가 채용되어 IV기까지 이어져 재지화되는 양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는 이 시기의 목관묘와 와질토기 제도기술 등 새롭게 출현한 물질문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거문화 역시 전래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 등에 맞게 주거 형태가 변용되고 변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구들 시설은 폐쇄식 노(爐) 구조의 ‘아궁이’, 축열을 하는 튜브(Tube) 구조의 ‘고래’, 연기를 외부로 빼는 ‘굴뚝’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없으면 만들기 어려운 기술복합체이다.⁸⁸⁾ 이러한 구들 기술이 변·진한지역으로 전래되면서 처음에는 기원지처럼 돌을 재료로 설치하였지만, 점차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점토로 변용되어 설치된다. 점토 구들이 설치된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울산 상천리유적 I, 울산 사연리 늑도유적 등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대략 기원 1세기에는 석재에서 점토로 축조 재료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들의 재료 변화 요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재료 수급이 쉽다는 점 외에도 석재보다 점토가 연기 누출의 염려가 적다는 점, 점토가 구들의 수리와 보수가 용이하다는 점, 돌보다 점토가 구들의 세밀한 구조 표출에 효율적인 점, 석재의 특성상 열전도율은 점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축열 성질은 점토보다 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⁸⁹⁾ 또한 석재 구들과 점토 구들의 고래 온도 변화를 실험한 연구에서는 석재 구들이 점토 구들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나, 이에 비례하여 식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반면, 점토 구들은 그 반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난방유지에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도 제시되었다.⁹⁰⁾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영남지방에서 삼한~삼국시대 주거지에 설치된 구들의 일반적인 재료는 점토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국시대 후기~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시 석재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일반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종합해 보면, 영남지역에서 삼한~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구들의 축조 재료는 석재에서 점토로 변화되었다가 다시 석재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⁹¹⁾

87) 김현, 2006, 「남해안 쪽구들 주거지 등장에 대한 소고-늑도주거지를 중심으로」, 『석헌 정정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부산고고학회 논총간행위원회, 356~359쪽

88)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9쪽

89) 공봉석, 2008, 「경남 서부지역 삼국시대 수혈건물지의 구들 연구」, 『한국고고학보』 66집, 한국고고학회, 99쪽

90)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6쪽

이처럼 구들의 축조 재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서북한지역에서 진한지역으로 석재를 이용한 구들 축조 기술이 전해졌지만, 기술적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점차 지역 환경과 사정에 맞게 구하기 쉬운 점토를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구들 축조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 돌을 이용하여 두쪽 구들과 온구들을 설치해 나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면형태와 구들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구들시설은 고래, 굴뚝 설치 등의 복잡한 구조와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방형계보다 원형계 주거지에서 설치가 더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형계 주거지는 벽면과 직각을 이루는 모서리 부분이 있어서 구조적 어려움과 상부 기둥 형태에 따라 건축 기술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원형계 주거지는 방형계 주거지 보다 간단한 상부구조와 곡선을 띠는 벽면으로 구들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 무렵에 등장하는 구들 및 부뚜막 시설과 원형의 평면형태는 당시 사람들이 기후, 자원과 같은 지역적 특성, 건축 기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한정된 자료를 통해 추론한 것으로, 새로운 주거문화의 출현에는 다양한 배경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많은 고고학적 자료가 조사되어 이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3. 변 · 진한지역 주거지의 분화와 지역성

고고학 자료로 볼 때, 변한과 진한은 기원 2세기 후엽까지 대체로 동일한 주거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III-1기에 부뚜막 및 구들시설이 설치된 원형계 주거지는 변 · 진한지역에 확산 및 성행하여, 재지의 주거문화로 이어진다. 문헌 자료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도 “변한은 진한 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성곽(城郭)도 있다. 의복과 주택은 진한과 같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문헌 기록과 고고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변한과 진한지역 주거지의 유사성은 이 지역들이 공통된 주거문화를 형성하였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변 · 진한 주거지는 기원 2세기 후엽 이후 서로 분화되기 시작하고, 점차 지역성을 띠게 된다. 이 시기에는 영남 중부 및 동부 지역권을 중심으로 주거지뿐만 아니라 후기와질토기와 목곽묘의 출현 등 물질문화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변 · 진한지역의 주거문화 양상은 크게 낙동강을 중심으로 4개의 지역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포항-경주-울산 등 낙동강 동쪽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지역권과 대구, 김천, 경산 등 낙동강 주변의 중부지역권, 거창, 함양, 산청, 진주 등 낙동강 서쪽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권, 그리고 김해 · 창원 · 진해 등 남쪽 도서 해안지역을

91) 김나영, 2020, 「가야 건물지 구들의 분포와 성격에 대한 토론문」, 『가야의 주거문화』, 2020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국립김해박물관, 163쪽

[표 3-2] 변한지역 III~IV기 주거유적 현황

전편	유적명	입지	시기	주거지 구조 속성							출처	
				총수	평면형태		기동배치	노시설				기타시설
					원형계	방형계		무시설	부뚜막	구들		
변한지역	창원 남산유적	구릉 정상부	IV (3~4C)	29	●	●			●	●	벽구	창원대학교박물관 (2003)
	창원 신방리유적	구릉 말단부	III (2C)	1		●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구릉 정상·사면부	IV (3~4C)	6		●	4주식, 4주+벽주식		●	●	벽구, 흙담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9)
	창원 창곡동유적	구릉 정상·사면부	IV (2~3C)	11	●	●		●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1)
	창원 외동유적	구릉사면, 침식대지	IV (3C)	3	●	●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5)
	창원 가음정동유적	구릉정상부, 구릉저지대	IV (3C)	34	●				●	●	벽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7)
	김해 부원동유적	구릉 말단 평탄지	IV (3~4C)	5	●				●		벽구	동아대학교박물관 (1981)
	김해 농소리유적	구릉 정상·사면부	IV (3~4C)	4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4)
	김해 봉황대유적	구릉 사면부	IV (3~4C)	1		●					벽구	부산대학교박물관 (1998)
	김해 회현리 삭방도로구간 내유적	구릉 저지대	IV (3~4C)	3	●							경남발전연구원 (2004)
	김해 외촌리유적	구릉 사면부	IV (3~4C)	13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7)
	김해 죽곡리유적	구릉지	IV (3C)	13	●	●	벽주식		●		벽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9)
	김해 신문리유적	구릉지	IV (3~4C)	24	●	●	벽주식	●			벽구, 배수구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5)
	기장 가동유적	구릉~곡부 충적지	IV (3~4C)	14		●				●	벽구	울산대학교박물관 (2009)
	기장 두명리유적	구릉~곡부	III (1~2C)	4	●					●	벽구, 배수구	우리문화재연구 (2011)
	부산 노포동 91-6번지유적	구릉지	IV (2~3C)	13	●	●	벽주식, 외주식, 중심주+벽주식		●			동양문화연구원 (2017)
	마산 근곡리유적	구릉 말단 사면부	IV (3~4C)	21	●		벽주식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6)
	진해 용원유적	구릉 정상, 사면부	IV (3~4C)	21	●	●	4주+벽주식, 벽주식		●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6)
	진해 석동유적	구릉 사면부	IV (3~4C)	9	●	●	외주식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3)
	사천 녹도유적	도서 (구릉지)	II~III (BC 2C~AD 2C)	208	●	●	외주식			●	●	부산대학교박물관 (2003),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2006), 동아대학교박물관

면역	유적명	입지	시기	주거지 구조 속성								출처
				총수	평면형태		기동배치	노시설			기타시설	
					원형계	방형계		무시설	부두막	구들		
서부지역권												(2005)
	사천 방지리유적	독립구릉 정상, 사면부	II~III (BC 3C~기원전·후)	21	●	●				●	벽구	경남발전연구원 (2004~2007)
	사천 봉계리유적	구릉 정상 사면부	IV (3~5C)	152	●		벽주식		●	●	벽구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고성 동외동유적	구릉 정상부, 사면부	IV (3~4C)	17		●					벽구	국립진주박물관 (2003)
	함양 화산리유적	하안단구	"	42	●	●	벽주식		●	●		경남발전연구원 (2007)
	거창 양평리유적	충척지	III (1C)	5	●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0)
	거창 대아리유적	하천 충척지	"	5	●		외주식		●			동의대학교박물관 (1989)
	합천 저포리유적	구릉 사면부	"	3	●	●	벽주식		●			이성주·이은창 (1987)
	진주 내촌리유적	"	"	53	●				●		벽구	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동아대학교박물관 (2001)
	진주 상촌리유적	하천 충척지	"	13	●				●			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보건대학교박물관 (2005)
진주 평거동유적	하천 충척지 (범람원)	IV (3~5C)	307	●		벽주식	●	●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2005~2008)	
진주 예상리·예하리유적	구릉지	IV (2~4C)	23	●	●	벽주식		●	●	벽구, 장타원형수혈	경상문화재연구원 (2020)	
산청 소남리유적	하천 충척지	IV (3~4C)*	161	●	●	외주식, 벽주식		●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1999)	
산청 사월리 환호유적	구릉지	III(2C)	2	●						벽구	부경대학교박물관 (1998)	
기타	성주 장학리 장골유적 III	구릉지	III-1 (BC 1C)	2		●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8)
	성주 상언리유적	구릉지	III-1 (BC 1C)	1	●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8)
	성주 예산리유적	구릉지	IV (3C)	1		●	4주+벽주식				벽구	대동문화재연구원 (2013)
	양산 평산리유적	구릉지	IV (3C)	16	●	●	외주식, 벽주식		●	●	벽구	동의대학교박물관 (1998)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지역권이다. 이 가운데 중부와 동부 지역권은 대체로 진한의 영역과 일치되며, 서부지역권과 남해안지역권은 변한의 영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변한지역으로 추정되는 서부지역권과 남해안지역권의 주거유적 현황은 [표 3-2]와 같다. 현재까지 확인된 변한지역 취락유적은 사천 늑도유적과 사천 방지리유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거지 수가 10동 미만이며, 취락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확인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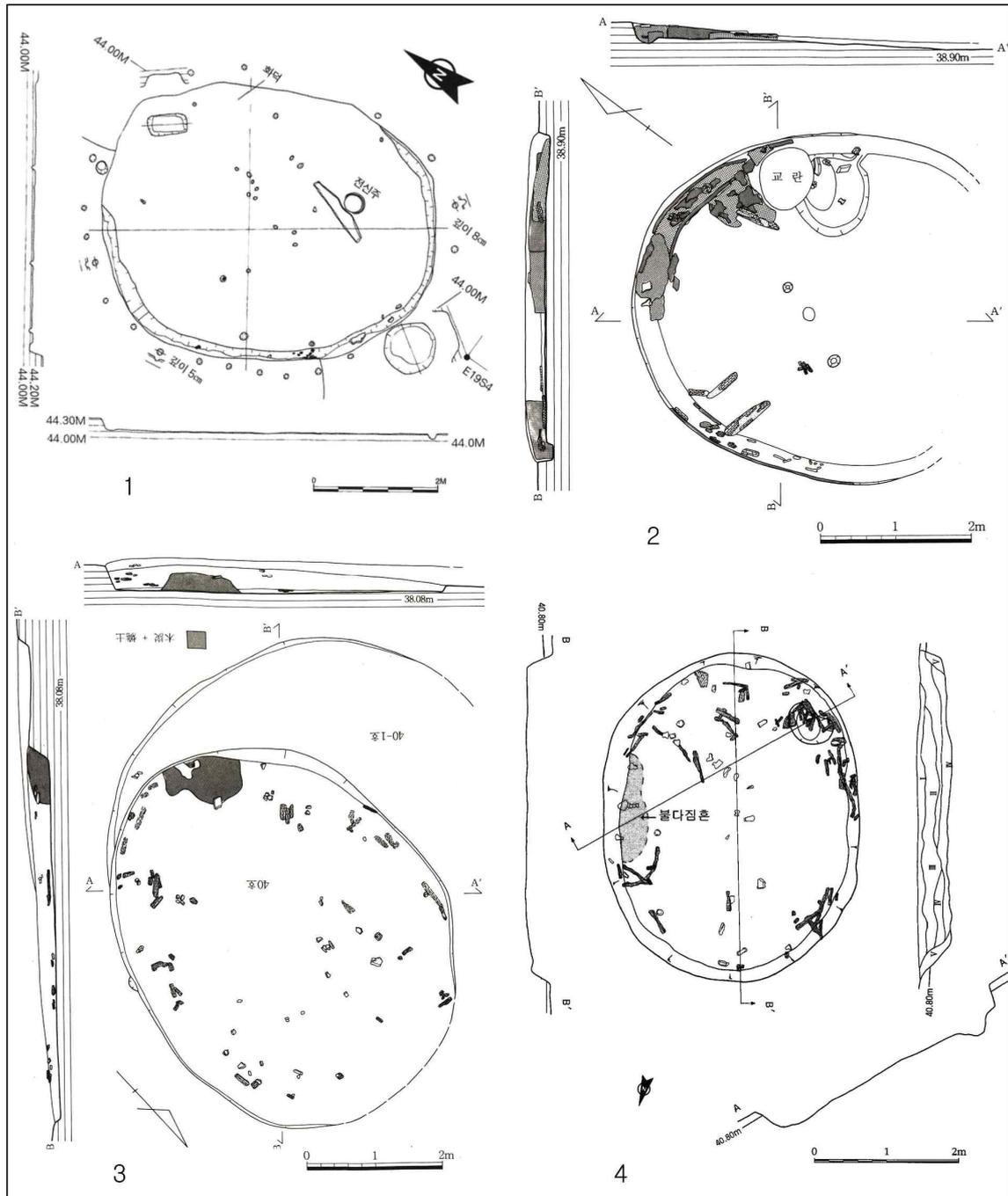
있어 이 시기 주거문화의 양상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남강유역에서는 삼한 후기 전반(원삼국시대 전기)의 유적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이 시기 주거문화가 공백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한시대 하한으로 생각되는 AD 300년쯤에 소멸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4세기대로 이어지는 유적들이 많아 삼한시대와 삼국시대 주거지의 구분이 모호한 편이다.

한편, 울진 오산리 931번지유적과 상주 양범리 314유적의 주거지에서는 중부지방에서 주로 확인되는 경질무문계통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주거지에서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영남지방의 유적들과는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주거지의 구조에 있어서도 영남 동부지역과 강릉, 여주 등에서 보이는 주거지 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 지역들은 인접 지역권의 문화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곳으로 파악되며, 이를 통해 영남지방의 후기 주거문화권의 범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진한과 변한지역의 각 지역권별 주거지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 삼한시대 영남지방 지역권별 주거지의 특징

구분	지역	서부지역권	남해안지역권	동부 및 중부 지역권
		함양-거창-산청-진주	사천-창원-진해	동부: 포항-경주-울산-부산 /중부: 김천-대구-경산
평면 형태	I 기	원형계, 방형계, 부정형	원형, 방형, 부정형	원형, 방형, 부정형
	II 기	?	방형계 주류	방형계 주류
	III 기	원형계 주류	원형계 주류	원형계 주류
	IV-1	"	"	원형계 지속, 방형계 출현
	IV-2	"	원형계 지속, 방형계 출현	방형계 주류
노시설	I·II 기	무시설식 주류	무시설식 주류	무시설식 주류
	III 기	부뚜막식, 구들식(가식)	부뚜막식, 구들식(가식)	부뚜막식, 구들식(가식)
	IV-1	"	"	부뚜막식, 구들식(가식)
	IV-2	"	부뚜막식, 구들식 (가·나식)	구들식(가·나식) 주류
기둥 형태	I·II 기	무주혈식 주류	무주혈식 주류	무주혈식 주류
	III 기	무주혈식, 외주식, 벽주식	무주혈식, 외주식, 벽주식	무주혈식, 외주식, 벽주식
	IV-1	"	"	"
	IV-2	"	외주식, 벽주식, 4주식, 4주+벽주식	벽주식, 4주식, 4주+벽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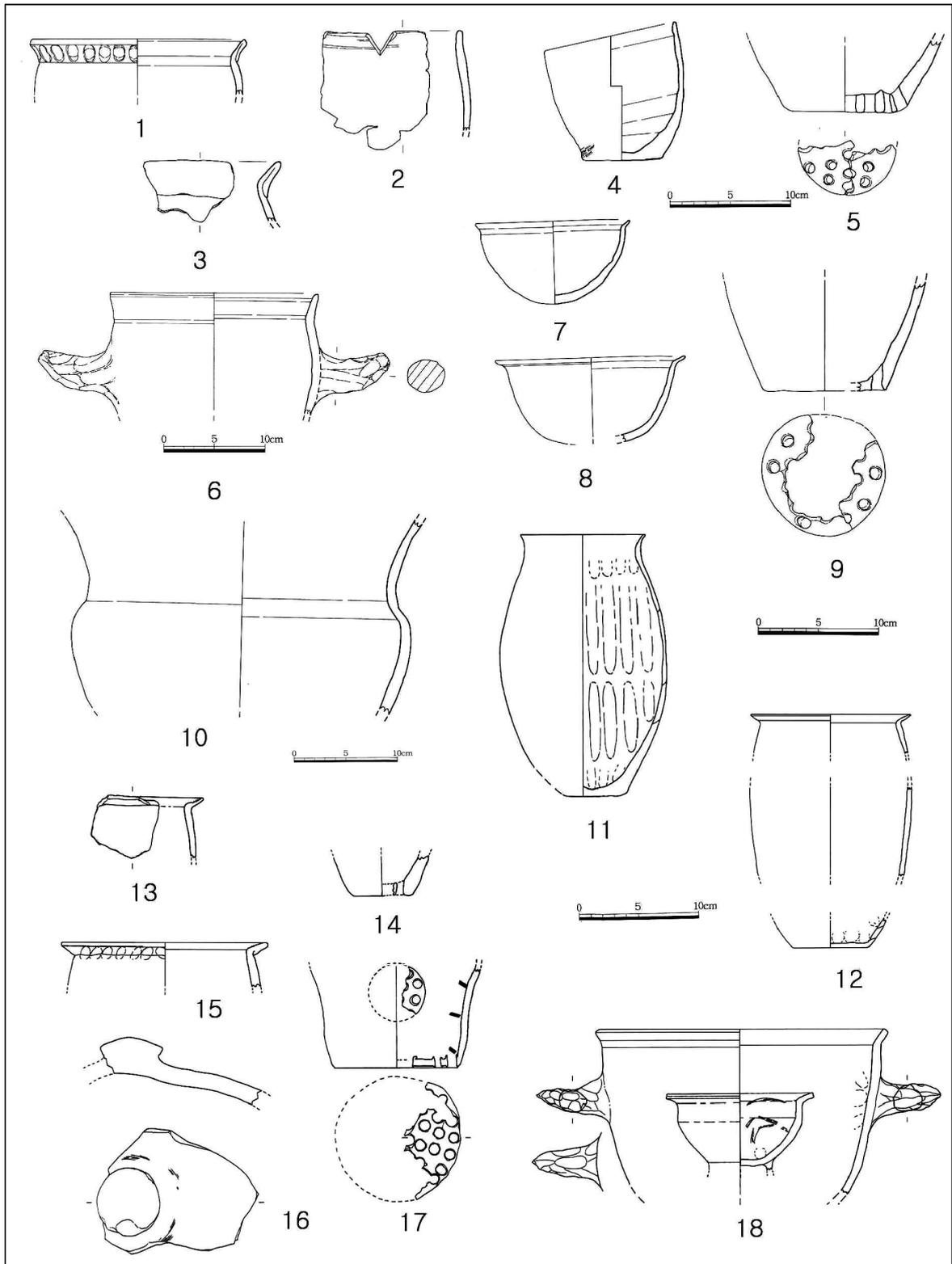
서부지역권은 III기부터 원형계 주거지가 출현하여 성행하며, 이후 삼국시대에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도면 3-7·8]. 노시설은 주거지 벽 가까이 설치된 부뚜막 및 구들식 노시설이 사천 늑도유적과 사천 방지리유적에서 출현한 이후 IV기까지 이어진다. 기둥 형태는 무주혈식, 외주식, 벽주식이 주로 확인된다. 주거유형은 IB1~3식, IC1~3식 주거지가 III·IV기까지 지속됨을 볼 수 있다. 이 지역 주거지는 수혈이 여



[도면 3-7] 영남 서부지역권의 IV기 주거지(1: 진주 내촌리[한양대] 3호, 2: 진주 내촌리[동아대] 3호, 3: 진주 내촌리[동아대] 4호, 4: 진주 상촌리 11호)

전히 깊은 것이 특징인데, 중부 및 동부 지역권이 점차 수혈 바닥의 깊이가 얇은 지상식 주거지로 변화해가는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서부지역권의 원형계 주거는 기원 4세기 후엽까지 지속되는데, 이 시기 주거지는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구조면에서 상당한 정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평면형태는 타원형이 많으며 벽기둥과 벽면 처리 등 벽체 조성 방법이 정형화되고, 규모도 전반적으로 커진다.⁹²⁾ 이러한 영남 서부지역권의 원형계 주거지는 동부지역권과 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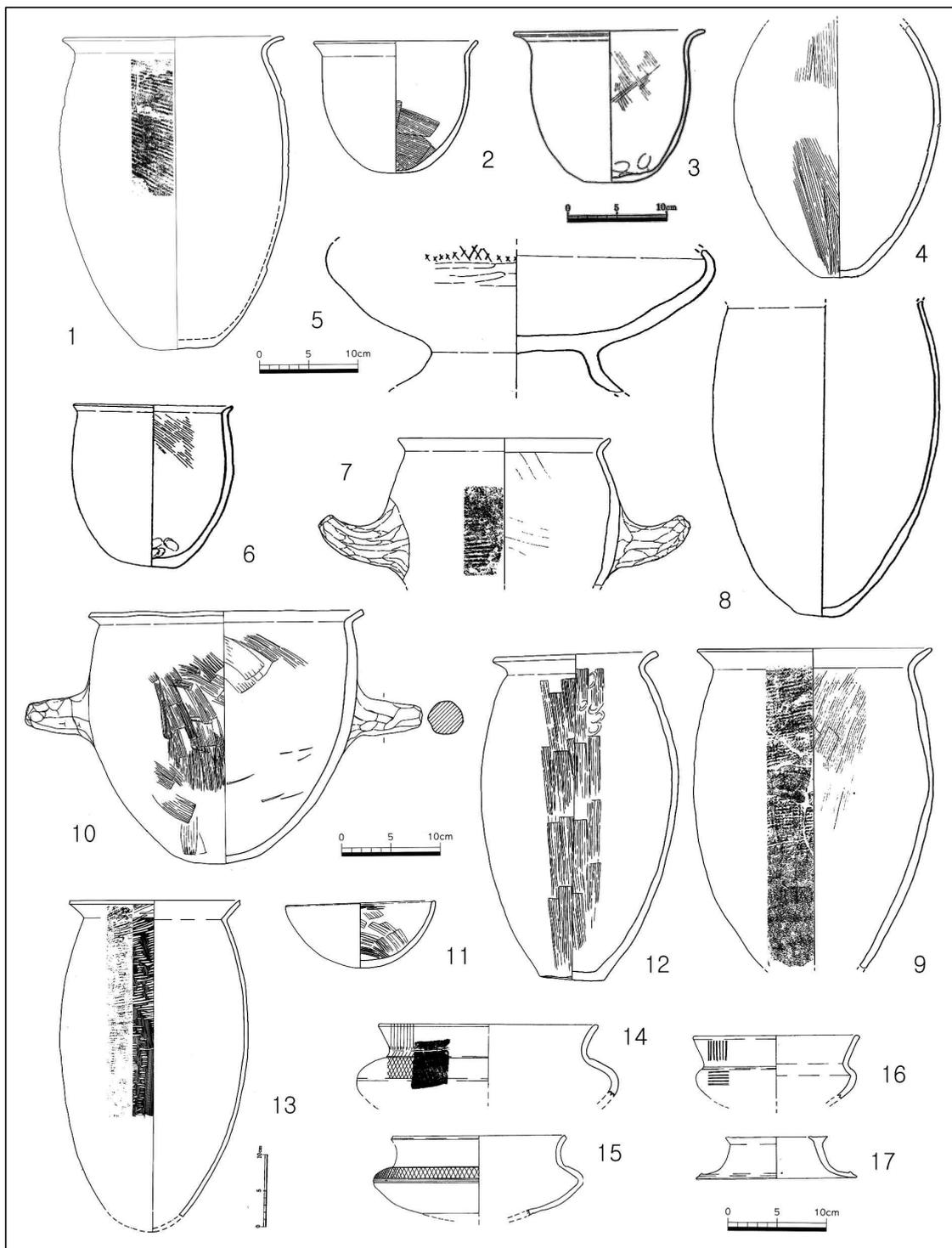


[도면 3-8] 영남 서부지역권의 IV기 주거지 출토유물(1~10: 진주 내촌리[동아대], 11~18: 진주 내촌리[한양대])

92) 공봉석, 2015a, 「신라·가야 취락의 분화와 전개」, 『영남고고학』 73, 영남고고학회,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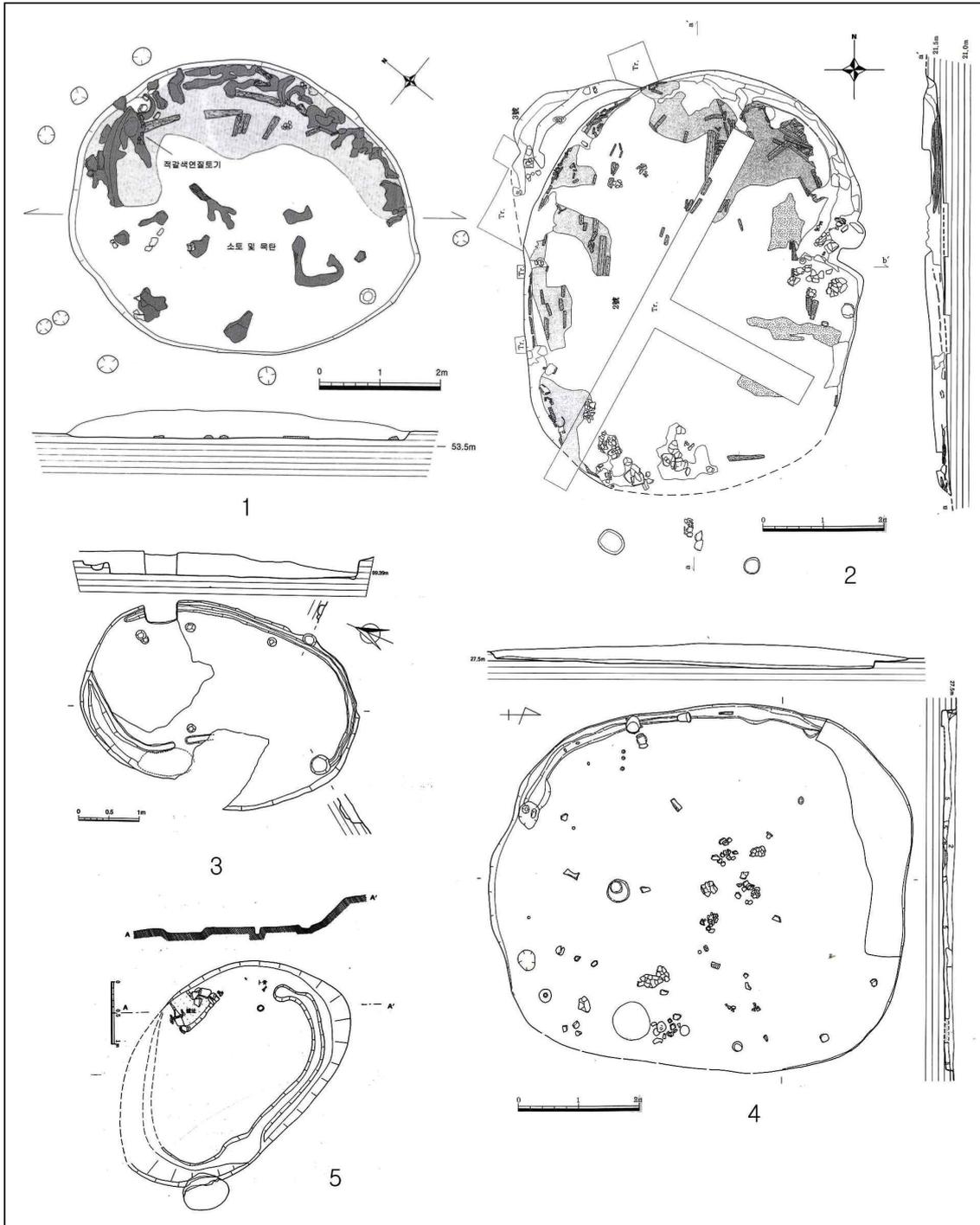
안지역권과는 다른 이 지역만의 강한 보수성을 보여주는 주거문화라 할 수 있다.

반면, 영남 동부 및 중부 지역권과 서부지역권 사이의 접이지대인 남해안지역권은



[도면 3-9] 영남 남해안지역권 IV기 주거지 출토유물(1: 진해 석동유적, 2~4: 창원 외동유적, 5~9: 창원 남산유적, 10~12: 고성 동외동유적, 13~17: 김해 부원동유적-C지구)

양 지역 주거문화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도면 3-9 · 10]. 즉 평면형태는 원형



[도면 3-10] 영남 남해안지역권 IV기 주거지(1: 진해 석동 1호, 2: 창원 외동 2호, 3: 창원 남산 21호, 4: 김해 부원동 C-2호, 5: 고성 동외동 1호)

계와 방형계 모두가 확인되며, 노시설은 부뚜막식 및 구들식(가·나식), 그리고 기둥 배치는 외주식, 벽주식, 4주+벽주식 모두가 확인된다. 특히 점이지대에 위치하는 창원 과 진해, 사천과 고성 지역은 연접한 지역권의 주거문화와 유사한 면이 많다. 이러한 양상은 IV-2기에 이르면 더욱 현저히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진

해 용원유적은 토기 양식으로 보았을 때는 서부 경남지역의 연질토기 문화와 유사하나 주거지의 양상에 있어서는 영남 동부지역권 주거문화의 요소가 많다. 평면형태는 원형계가 주류이지만 방형계도 공존하며 분포하고 있다. 특히, 원형계 주거지에서 4주+벽주식이 확인되는 점, 방형계 주거지 내에서 구들식 노시설과 4주+벽주식의 기둥배치가 확인되는 점 등은 진해지역이 동부지역권 즉 진한지역의 주거문화에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동부지역권과 마한지역권의 주거문화가 함께 확인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거지는 12동으로,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계이다. 1호와 5호 주거지는 구들을 수혈 벽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벽체 안쪽으로 들어 설치하였고, 수혈의 깊이도 얕아져 (반)지상식인데, 이러한 주거 양상은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와 유사하다. 또한 3호 주거지는 평면 방형계로 수혈 벽 가까이에 부뚜막식 노시설과 북동쪽 모서리에 ‘ㄱ’자상으로 벽구(壁溝)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주거 양상은 마한계 4주식 주거지와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김해지역은 고김해만의 해수면 하강에 따라 저지대로 생활 영역이 확대되면서 입지에 적합한 지상식 건물지가 주거용으로 많이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⁹³⁾ 특히 습지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김해 봉황대 일대 유적에서는 주거역 주변에 목책이나 석렬(石列)을 두르거나 주거 건물에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⁹⁴⁾ 이러한 지상식 건물지는 영남 동부지역권인 경산 임당유적, 울산 교동리유적의 취락에서도 나타난다. 기원 3세기부터 진한지역에서는 지면식과 고상식 건물지를 취락의 입지와 성격 등에 맞게 주거, 창고, 작업장 등 다양한 용도로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변·진한 주거지는 I~III기까지 동일한 주거문화를 형성하다가 IV-1기부터 진한지역에 방형계 주거지가 확산되면서 분화되기 시작한다. 진한지역의 방형계 주거지는 수혈의 깊이가 얕아지는 (반)지상식의 구조로 수혈 벽에서 떨어져 벽체 안쪽에 구들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벽주식과 4주+벽주식의 기둥을 설치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주거유형이 확인된다. 변한지역 중 서부지역권은 III기부터 이어진 원형계 주거지가 강한 보수성을 띠며 기원 4세기 후엽까지 재지 주거문화로 이어지고, 남해안지역권은 도서 해안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진한지역과 마한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영향을 받은 복합적 주거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영남 동부지역권과 남해안지역권에서는 지상식 건물지의 설치 빈도가 높아 지는데, 이는 취락의 입지와 성격 등에 맞게 주거, 창고, 작업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93) 권귀향, 2012, 「낙동강 이서지역 삼국시대 주거지의 전개양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4) 공봉석, 2015a, 「신라·가야 취락의 분화와 전개」, 『영남고고학』 73, 영남고고학회, 32쪽

5. 진한지역 방형계 4주식 주거지의 전개와 출현 의미

영남지방에서 확인된 주거유적 가운데 주거지 내부에서 4주식(중심주식)의 기둥배치가 확인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다. 신석기시대 중기가 되면 장방형의 중·대형 주거지가 등장하는데 이에 따른 속성으로 4주식의 기둥 배치가 일부 확인된다. 이후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보편적인 기둥배치로 자리 잡아 성행한다. 특히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주 분포를 보이는 청동기시대 대표 주거형식인 울산식 주거지의 한 형태로 평면 방형계 4주식으로 기둥을 배치한 구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4주식 주거지의 형태는 청동기시대의 종말과 함께 잠시 소멸하였다가 기원 3세기를 전후로 다시 등장한다. 삼한·삼국시대 4주식의 등장 이전에는 주로 무주혈식과 벽주식이 채용되었으며, 평면 원형계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진한지역에서는 기원 3세기대에 평면 방형계에 4주식과 4주+벽주식의 기둥이 설치된 주거지가 출현하여, 점차 이 지역의 특징적인 주거문화로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 문화가 어떠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출현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주식 주거지(四柱式 住居址)는 중심 4주식의 실내 기둥이 설치된 주거지를 말하는데, 한반도에서는 주로 마한·백제 영역인 호서와 호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4주식 주거지가 마한·백제 영역뿐만 아니라 진·변한과 가야, 그리고 신라권역에서도 확인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진한지역에서 확인되는 방형계 4주식 주거지의 전개와 출현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삼한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까지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검토해 보겠다. 먼저,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중 4주식의 주혈 배치를 보이는 유구를 중심으로 유적의 현황과 시기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각 지역별 4주식 주거지의 구조 및 특징을 통해 유형을 설정하고, 각 지역권별 4주식 주거유형의 분포와 주변지역 양상 등을 검토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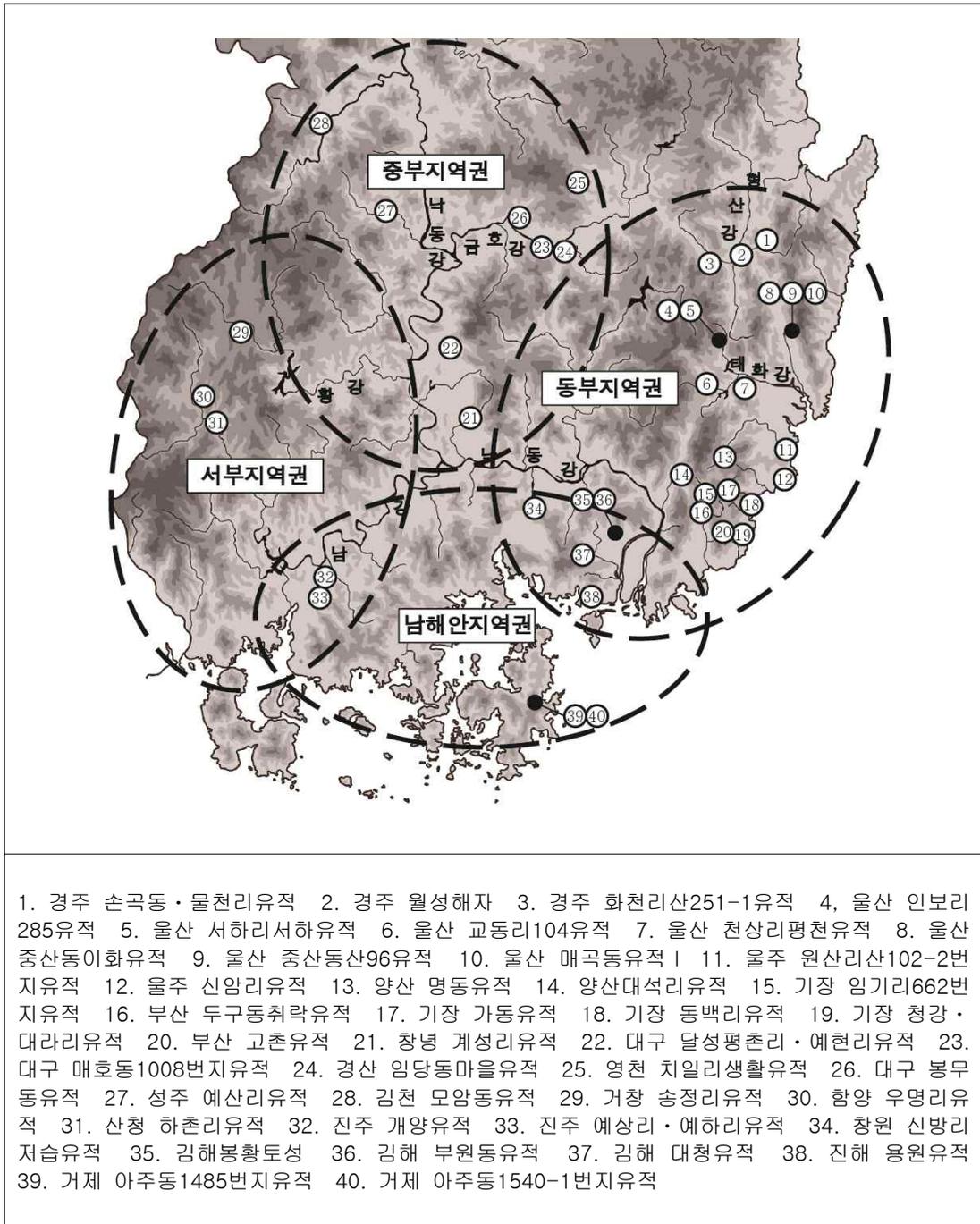
1) 자료 검토

(1) 지역권별 4주식 주거유적 현황

검토 대상은 앞서 언급했듯이 4주식(중심주식)의 기둥형태를 보이는 수혈주거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면식 건물지 가운데 수혈주거지와 유사성이 높은 것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 취락 유적에서 4주식의 주거형태가 확인되는 곳은 [도면 3-11]과 같이 40개소이며, 분석은 317동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대상 유적내에서 4주식 주거지 현황은 [표 27]과 같다.

4주식 주거지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크게 네 개의 지역권을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주·울산·양산 등 낙동강 동쪽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지역권과

창녕·대구·김천·경산·성주 등 낙동강 주변의 중부지역권, 거창·함양·진주 등 낙동강 서쪽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권, 그리고 김해·창원·진해 등의 남쪽 도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지역권이다[도면 3-11]. 동부지역권의 4주식 주거지는 경주, 울산, 양산, 부산 지역 등에서 확인되었는데, 현 자료상 울산지역과 양산지역, 그리고 부산지역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전체 검토대상 주거지 가운데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지역권의 4주식 주거지는 창녕, 대구, 영천, 김천, 성주 지역에서 확인되었는데, 수량은 적지만 분포상에 있어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서부지역권의 4주식 주거지



[도면 3-11]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 4주식 주거유적 분포도

는 거창, 함양, 산청, 진주 등에서 확인되었다. 그동안 다른 지역권에 비해 4주식 주거지의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 거창 송정리유적에서 4주식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남해안지역권의 4주식 주거지는 김해, 거제, 진해, 창원 등지에서 조사되었는데, 동부

[표 3-4]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 4주식 주거유적 현황

(4주식 기수/전체 수량, * : 추정)

지역권	연번	유적명	입지	평면형태		기동배치			노시설		기타시설
				원형	방형	4주식	4주식+벽주식	기타	부뚜막식	구들식	
내륙지역권	1	경주 손곡동·물천리유적	구릉지	4	5/31		●	●			벽구
	2	경주 월성해자	총적지		6/10		●				
	3	경주 화천리산251-1유적	구릉지		1/3	●			●	●	벽구, 장타원형수혈
	4	울산 인보리285유적	총적지		1/4		●				
	5	울산 서하리서하유적	구릉지		1/1		●				
	6	울산 교동리104유적	구릉 정선부		1/1	●			●*		벽구, 배수구
	7	울산 천상리평천유적	구릉지	1	3/9	●		●	●		벽구, 배수구
	8	울산 중산동이화유적	구릉지	1	7/41		●	●			벽구
	9	울산 중산동산96유적	구릉지		5/19		●	●			벽구
	10	울산 매곡동유적	구릉지	1	2/2		●		●		벽구
	11	울주 원산리산102-2번지유적	구릉지		4/6	●			●		벽구, 배수구
	12	울주 신암리유적	구릉지		2/13		●				
	13	양산 명동유적	총적지(선상지)		61/95	●	●	●	●	●	벽구, 배수구
	14	양산 대석리유적	총적지		1/12		●	●			
	15	기장 임기리662번지유적	총적지(하안단구)		10/13		●	●		●	
	16	부산 두구동취락 유적	총적지		47/158	●	●	●		●	
	17	기장 가동유적	곡간 평지	3	30/140	●	●	●		●	
	18	기장 동백리유적	구릉지		13/29	●	●	●	●	●	벽구, 배수구
	19	기장 청강·대라리유적	구릉지	6	17/142	●	●	●	●	●	벽구
	20	부산 고촌유적	구릉~곡부		2/9						
내륙지역권	21	창녕 계성리유적	구릉~곡간평지		13/25	●			●		벽구, 배수구, 장타원형수혈
	22	대구 달성평촌리·예현리유적	총적지	1/1			●		●		
	23	대구 매호동1008번지유적	총적지(선상지)		10/29		●	●	●	●	출입구
	24	경산 임당동마을유적	구릉~곡간평지	2/17	1/33		●	●	●	●	벽구
	25	영천 치일리생활유적	총적지		1/2		●				
	26	대구 봉우동유적	총적지	3	4*/20		●	●		●	
	27	성주 예산리유적	구릉지		1/1		●				벽구
	28	김천 모암동유적	구릉지	7	12/26	●	●	●	●	●	벽구
서부지역권	29	거창 송정리유적	총적지(범람원)	66	26/200	●	●	●	●	●	벽구, 저장혈, 출입구 등
	30	함양 무명리유적	총적지		6/11	●			●*		
	31	산청 하촌리유적	총적지	28	1/55		●				
	32	진주 개양유적	구릉지		2/2	●					벽구
	33	진주 예산리·예하리유적	구릉지		1/5	●				●	벽구, 출입구
내륙지역권	34	창원 신방리저습유적	총적지		1/12	●			●	●	벽구
	35	김해 봉황토성	구릉지	1/13			●	●			
	36	김해 부원동유적	구릉~곡간평지	1/4	0/2	●					
	37	김해 대청유적	구릉지	7	3/11	●		●			
	38	진해 용원유적	구릉지	3/11	2/9	●	●	●	●	●	
	39	거제 아주동485번지유적	구릉지	2	9/39	●			●		벽구, 배수구
	40	거제 아주동1540-1번지유적	구릉지	2	1/10	●		●	●		

지역권보다는 분포 비율이 낮은 편이다.

(2) 대상 유적의 시간적 위치

4주식 주거지 자료 분석을 통해 대상 유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간적 위치를 설정해 보겠다. 대상으로 하는 삼한 · 삼국시대 주거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기와 제의를 위해 사용했던 의례용기 등이 있다. 이러한 생활용기와 의례용기의 종류로는 토기류, 옥석류, 금속류, 직물류 등이 확인되는데, 주거 자료에서는 토기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4주식 주거유적내에서 출토되는 토기류는 (후기)와질토기, 고식도질토기, 도질토기(신라 · 가야토기), 연질토기 등이 확인된다.

삼한 · 삼국시대 토기연구는 주로 분묘 부장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취락 자료의 증가로 연질토기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영남지방 3~7세기대의 연질토기⁹⁵⁾는 선행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4~5세기대에 지역성이 나타난다. 영남 동부지역은 환저장동옹(丸底長胴甕), ‘一’자 증기공(蒸氣孔)을 가진 장동옹계 시루, 소형옹(小形甕), 우각형파수(牛角形把手) 등이 취락유적 출토 토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영남 서부지역은 평저장동옹(平底長胴甕), 원형증기공을 가진 발계(鉢系)시루, 발형토기(鉢形土器), 소형옹(小形甕), 절두우각형파수(折頭牛角形把手)가 중심으로 기종 구성과 세부형태에 있어 차이가 확인된다.⁹⁶⁾

본고가 대상으로 한 4주식 주거유적의 4~5세기대 연질토기의 양상도 각 지역권별로 이러한 흐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절지에 위치하는 김천 모암동유적과 거창 송정리유적, 도서 해안지역의 진해 용원유적 등은 지리적 특성상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영남 동부와 서부 등 다양한 지역 양식의 생활토기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영남지방의 삼한 · 삼국시대 취락 유적에서는 (후기)와질토기와 (고식)도질토기 등도 연질토기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와질토기와 도질토기는 분묘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어 제기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실제 취락 유적에서 연질토기와 함께 비슷한 비율로 공반된 사례가 많아 의례용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⁷⁾

와질토기는 영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무덤 자료에서 주로 출토되는 후기와질토기와 생활용 토기 중 와질 소성의 장동옹, 완(甃) 등이 있다. 와질토기문화권인 대구, 경주, 울산 등의 동남부지역권에서 주로 확인된다.

95) 이창희, 2005, 『삼한시대 남해안의 일상토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효은, 2016, 「경남서부지역 삼국시대 생활용 토기의 변천과 의미」, 『영남고고학』 75, 영남고고학회.

조성원, 2016, 「4~5세기 경남지역 취락 출토 연질토기의 지역성 검토」, 『고고광장』 19, 부산고고학회.

정주희, 2020, 부산지역 삼국시대 마을 유적 출토 토기의 검토, 『부산의 삼국시대 마을』, 정관박물관.

96) 조성원, 2016, 「4~5세기 경남지역 취락 출토 연질토기의 지역성 검토」, 『고고광장』 19, 부산고고학회.

97) 정주희, 2020, 부산지역 삼국시대 마을 유적 출토 토기의 검토, 『부산의 삼국시대 마을』, 정관박물관.

도질토기는 신라·가야토기가 분화되기 시작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고식도질토기와 이후의 도질토기로 구분된다. 고식도질토기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전 시기의 토기제작기술의 전통 아래 단경호 등의 새로운 기종이 생산되어 영남지방의 공통된 토기양식군으로서 생산 및 유통되어 사용되었다. 영남지방의 고식도질토기는 크게 경주와 김해·부산, 그리고 함안의 세 지역 양식이 존재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함안 양식은 승문계타날호를 중심으로 한 중첩소성과 대량 생산이 확인되며, 영남지방 각지에 대량생산되어 직접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⁹⁸⁾

무파수노형기대(無把手爐形器臺), ‘工’자형 통형고배, 승문계타날호(繩文系打捺壺)는 함안 양식을 대표하며, 특히 통형고배(筒形高杯)는 진주, 함안, 양산, 부산, 경주, 대구 등지의 취락 유적에서 확인되어 영남지방 전역에 분포가 확인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주와 산청 등의 서부경남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완형무투창고배(盃形無透窓高杯)는 당시 함안지역의 ‘工’자형 통형고배와 김해·부산지역의 외절구연고배(外折口緣高杯)와 함께 지역양식을 대표하는 토기로서 취락 내 생활용기로 사용되었다.⁹⁹⁾

영남지방의 고식도질토기 성행기에 해당하는 각 지역권별 주거 유적에서도 크게 경주지역과 함안지역, 그리고 부산·김해지역 양식의 고식도질토기가 다양한 양상으로 확인된다. 먼저, 경주지역양식은 이전 시기의 후기와질토기를 이은 기종이 나타나는데, 경주·울산 등의 취락 유적과 부산 두구동취락 유적, 청강·대라리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파수부노형기대와 외절구연고배는 당시 김해·부산지역에 한정하여 분포하고 있는 점에서 금관가야 문화권을 상징하는 표지적 유물이라 할 수 있는데, 김해 대청유적, 부산 두구동취락유적, 기장 가동유적 등 김해와 부산지역의 취락 유적에서 출토양상이 확인된다.

영남지방의 고식도질토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신라·가야 양식 토기로 분화되는데, 통일기 양식이 출현하기 전까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양식 토기와 고성과 고령 등을 중심으로 하는 후기의 가야양식 토기로 대별된다. 신라 토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성립되어 점차 주변의 대구, 경산, 성주, 의성 등의 소지역별로 양식분화가 이루어진다. 가야토기는 5세기에 들어서면, 전기의 금관가야 양식의 특징이 사라지고 이전 시기의 아라가야양식과 새롭게 소가야양식, 그리고 대가야양식 토기가 등장하여 지역적 특색을 보이며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취락 유적에서도 분묘에서 출토되는 고배(高杯), 대부장경호(臺附長頸壺), 기대, 단경호 등 신라와 가야 양식 토기가 생활용기와 의례용기로 사용되었으며, 유적 편년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상으로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의 각 지역별 유물의 양상을 토대로 선행 연구 성과와 보고서 고찰 등을 참고하여 4주식 주거유적의 시간적 위치를 정리하면 [표 3-5]와 같

98) 정주희, 2020, 부산지역 삼국시대 마을 유적 출토 토기의 검토, 『부산의 삼국시대 마을』, 정관박물관.

99) 정효은, 2016, 「경남서부지역 삼국시대 생활용 토기의 변천과 의미」, 『영남고고학』 75, 영남고고학회.

[표 3-5]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 4주식 주거유적 시기별 분포표

지역권	유적명	3C	4C	5C	6C	7C
동부 지역권	울산교동리104유적	■				
	울주원산리산102-2번지 유적	■				
	양산명동유적	■	■	■		
	기장청강·대라리유적	■	■	■		
	기장가동유적	■	■	■	■	
	경주화천리산251-1유적		■	■		
	기장동백리유적		■	■		
	울산천상리평천유적			■		
	부산두구동취락 유적		■	■		
	울산매곡동유적			■		
	울산중산동이화유적			■		
	양산대석리유적			■	■	
	기장임기리662번지유적			■	■	
	부산고촌유적				■	
	경주월성해자				■	■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			■	■	■
	울산중산동산96유적			■		
	울산서하리서하유적				■	■
	울주신암리유적				■	■
	울산인보리285유적				■	■
중부 지역권	경산임당동마을유적	■	■	■		
	김천모암동유적	■	■	■		
	대구매호동1008번지유적		■	■		
	성주예산리유적		■	■		
	대구봉무동유적		■	■	■	
	영천치일리생활유적		■	■		
	창녕계성리유적		■	■		
	대구달성평촌리·예현리 유적		■	■	■	
서부 지역권	진주예상리·예하리유적	■	■	■		
	거창송정리유적		■	■		
	산청하촌리유적		■	■		
	함양우명리유적		■	■	■	
	진주개양유적		■	■	■	
남해안 지역권	창원신방리지습유적	■	■	■		
	김해부원동유적	■	■	■		
	진해용원유적		■	■	■	
	김해대청유적		■	■		
	거제아주동1485번지유적		■	■	■	
	거제아주동1540-1번지유적		■	■		
	김해봉황토성		■	■	■	■

다. 영남지방 4주식 주거유적의 시기는 주로 4세기에서 5세기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2) 4주식 주거지의 구조 속성과 유형 설정

(1) 주거지의 구조 속성 검토

4주식 주거지의 주요 속성은 평면형태, 기둥배치, 노시설, 면적, 벽구, 배수구, 장타원 수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평면형태, 기둥배치, 노시설, 면적은 앞장에서 분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외에 벽구, 배수구, 장타원 수혈을 살펴보겠다. 먼저, 벽구(壁溝: 벽도랑)는 주로 평지보다는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설치비율이 높은 편이다. 확인된 4주식 주거유적 중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는 울산 교동리 104유적, 울산 원산리 산 102-2번지유적 등은 벽구의 설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대부분 후대의 삭평으로 전체보다는 일부분만 잔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배수구와 연결되었다.

배수구는 주로 청동기시대의 평면 방형계 울산식 주거지에서 많이 보이는 구조로 삼한·삼국시대와 형태상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울산 교동리 104유적, 울산 원산리 산102-2번지유적, 울산 천상리 평천유적, 기장 동백리유적, 창녕 계성리유적, 거제 아주동 1485번지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확인된 배수구 중 가장 큰 규모는 창녕 계성리유적의 봉화골 I - 7호 수혈 건물지인데 길이가 11m에 달한다. 배수구 내부에 발형기대(鉢形器臺)와 대형 장경호(長頸壺) 2점이 파쇄된 채로 매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폐기 시에 의례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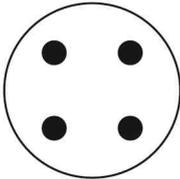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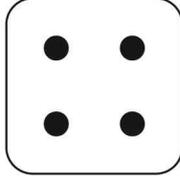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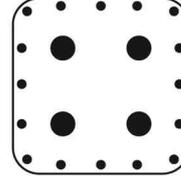
장타원형 수혈은 호남지역의 마한 주거지에서 주로 확인되는 구조 속성으로 공간 분할을 위한 시설, 저장공, 수혈주거지의 상부 공간에 오르기 위한 시설¹⁰⁰⁾ 등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영남지방에서는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 2호 주거지와 창녕 계성리 봉화골 9호 주거지 등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4주식 주거지에서 현 발굴자료 상 주로 확인되는 속성은 평면형태와 기둥배치라 할 수 있다. 노시설과 벽구 등의 속성은 주거지의 입지나 성격 등에 따라 설치되지 않거나, 주거지 폐기과정에서의 함몰, 후대의 교란 및 파괴 등으로 남아 있지 않아 명확한 주거유형으로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크게 평면형태와 기둥배치를 중심으로 주거유형을 설정하고, 노시설과 면적 등의 속성은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 4주식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크게 원형계(I)와 방형계(II)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둥형태는 벽주혈의 유무에 따라 4주식(a)과 4주+벽주식(b)으로 나눌 수 있다. 평면형태와 기둥형태에 따라 4주식 주거지를 분류하면 [도면 3-12]와 같다.

비율을 살펴보면 원형계 주거지보다는 주로 방형계 주거지에서 4주식의 설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원형계 주거지에서 4주식은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 김해 부원동유적, 진

100) 김은정, 2017, 「마한 주거 구조의 지역성」, 『중앙고고』 24, 중앙문화재연구원.

원형계(Ⅰ)		방형계(Ⅱ)	
4주식(4a)	4주+벽주식(4b)	4주식(4a)	4주+벽주식(4b)
			
2(0.6%)	6(1.9%)	84(26.5%)	225(71.0%)

[도면 3-12] 4주식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기둥배치 분류

해 용원유적 등에서 소수로 확인되었다.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 원형계 주거지 내에 설치된 기둥형태가 벽주식인 것을 통해서도 중심 4주식은 선호되는 건축 양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형계보다는 방형계를 중심으로 4주식 주거지의 유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방형계 주거지는 벽주식의 유무에 따라 II 4a식과 II 4b식으로 분류되는데, 편의상 II 4a식을 4주식 주거유형으로 II 4b식을 4주+벽주식 주거유형으로 지칭하여 검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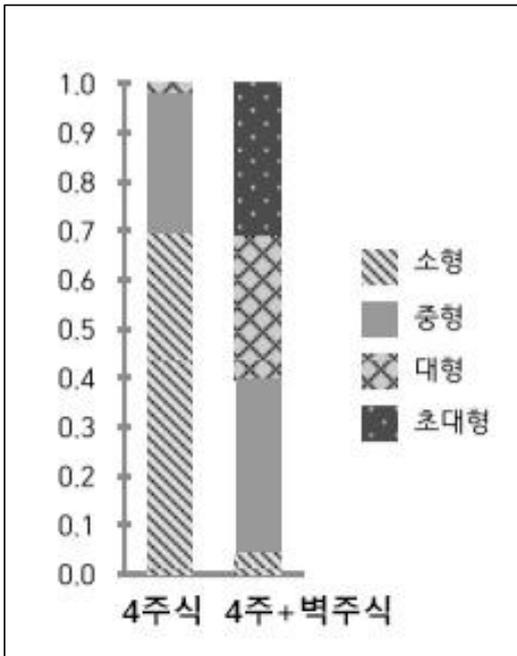
(2) 유형별 특징

다음은 앞 장에서 설정한 4주식(II 4a식)과 4주+벽주식(II 4b식) 주거유형의 특징을 살펴 보겠다. 먼저, 두 유형에서 확인되는 노시설의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표 3-6] 4주식·4주+벽주식 주거유형 노시설 수량(비율%)

노시설 \ 주거유형		4주식 주거유형	4주+벽주식 주거유형
		가식	26(65%)
부뚜막식	나식	1(2.5%)	2(1.9%)
	가식	13(32.5%)	8(7.5%)
구들식	나식	0(0%)	96(89.7%)
	합계	40	107

4주식 주거유형의 노시설은 부뚜막식과 구들식 모두 확인되나 주로 구들보다는 부뚜막의 설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부뚜막식과 구들식은 다시 설치된 위치에 따라 세분되는데, 주거지의 벽가에 밀착되거나 근접해서 설치된 형태(가식)와 주거지 벽가에서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 설치된 형태(나식)로 구분된다. 대체로 수혈 벽면과 밀착되거나 가까이에 설치된 '가식(밀착)'의 비율이 높다. '나식(이격)'은 창원 신방리 3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으며, 구들식의 '나식(이격)'은 아직 확인 사례가 없다. 반면, 4주+벽주식 주거유형의 노시설은 부뚜막식은 소수로 확인되고 구들식이 97.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4주+벽주식 주거유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쪽구들은 수혈 벽에서 일정 거리



[도면 3-13] 4주식(左) · 4주+벽주식(右)
주거유형 면적 비율

이상 이격되어 벽체와 근접하여 설치된 ‘나식(이격)’이 8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4주식 주거유형에서 구들의 ‘나식(이격)’이 확인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다음으로 [도면 3-13]과 같이 두 유형의 면적을 살펴보면, 4주식 주거유형은 소형과 중형이 대부분으로 그 중에서도 소형이 69.2%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40㎡ 이상의 대형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초대형은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다. 대체로 4주식 주거유형의 주 면적이 소형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40㎡이상의 대형과 초대형의 빈도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4주+벽주식 주거유형은 4주식 주거유형과 달리 소형은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중형의 비율이 높고 대형과 초대형도 비슷

한 점유율을 보인다. 이처럼 중형~초대형의 높은 빈도율을 보이는 4주+벽주식 주거유형이 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4주식 주거유형보다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을 수 있다.

또한, 벽주를 기본으로 채용하는 4주+벽주식 주거유형은 면적에 있어서 4주식 주거유형보다 약 2배 정도 크다[표 3-7]. 주로 중형 이상의 주거지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넓은 면적에 4주식만으로 상부구조를 지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벽주를 설치함으로써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보조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삼

[표 3-7] 각 유형별 평균 면적과 입지 비교

주거 유형	평균면적 (㎡)	입지	
		구릉지	총적지
4주식	22.8	45(54.9%)	37(45.1%)
4주+벽주식	45.0	56(24.7%)	171(75.3%)

국시대가 되면 수혈주거지의 지상화가 나타나는데 외부로부터 단열과 보온, 방수 등을 대비하여 벽체 역할의 벽주를 세우고 실내에 중심기둥(4주식)을 세움으로써 안정성과 보온성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표 3-7]과 같이 두 유형의 선호 입지를 살펴보면, 4주식 주거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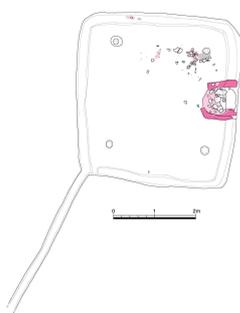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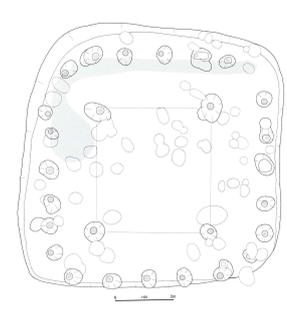
[표 3-8] 4주식 · 4주+벽주식 주거유형 벽구와 배수구 수량(비율%)

주거 시설 \ 주거 유형	4주식 주거유형	4주+벽주식 주거유형	합계
벽구	32 (48.5%)	34 (51.5%)	66
배수구	13 (72.2%)	5 (27.8%)	18

의 경우 구릉지의 풍화암반토를 기반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단한 수혈벽면 상부에 벽체를 조성하여 벽주의 흔적이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4주+벽주식 주거유형 주거지의 경우 충적지의 사질토를 기반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혈벽면의 보강을 위해 수혈벽면 내부에 벽주를 설치했던 것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벽주철의 잔존 유무로 대별되고 이로 인한 벽체 구조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시설의 경우도 4주식 주거유형은 소형의 수혈식 주거지로 부뚜막으로 취사와 난방이 가능하지만, 4주+벽주식 주거유형의 경우 지상화된 형태로 면적 또한 중형 이상으로 넓어져 난방, 제습에 취약하므로 쪽구들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지 난방과 제습 효율성을 높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의 내부 시설로는 벽구와 배수구가 있다. [표 3-8]와 같이 확인 사례는 많지 않지만, 벽구는 4주식과 4주+벽주식 주거유형 모두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비슷한

[표 3-9] 4주식 · 4주+벽주식 주거유형의 구조 및 특징

주거유형 구분	4주식 주거유형(II 4a식)	4주+벽주식 주거유형(II 4b식)
대표유구		
입지	구릉지>충적지	구릉지<충적지
평면형태	원형계<방형계	원형계<방형계
기둥배치	4주식	4주+벽주식
면적	소형>중형>대형	소형<초대형<대형<중형
노시설	부뚜막식(가식:밀착)>구들식(가식)	부뚜막식(가식)<구들식(나식:이격)
배수구	多	小
주요 유적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유적, 울산 교동리 104유적, 울산 원산리 산102-2번지유적, 울산 천상리 평천유적, 창녕 계성리유적, 거제 아주동 1485번지유적, 함양 우명리유적, 기장 동백리유적 등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 II, 부산 두구동 취락유적, 기장 가동유적, 양산 명동유적, 기장 청강·대래리유적, 기장 동백리유적, 대구 매호동 1008번지 유적 등

비율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수구도 사례가 많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4주+벽주식 보다는 4주식 주거유형의 주거지에서 설치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주식 주거유형 중 배수구가 확인된 사례는 울산 교동리 104유적, 울산 울주 원산리 산102-2번지유적,

울산 천상리 평천유적, 기장 동백리유적, 창녕 계성리유적, 거제 아주동 1485번지유적 등이 있는데, 주로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는 유적이다. 4주+벽주식 주거유형에서 배수구는 기장 가동유적과 양산 명동유적 등에서 일부 확인되었는데 배수가 취약한 곳에 입지한 주거지에서 설치 사례가 확인된다.

이상으로 4주식과 4주+벽주식 주거유형의 구조 및 특징을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3) 분포양상 및 지역성

영남지방에서 확인되는 4주 · 4주+벽주식 주거유형의 분포양상을 [표 3-10]과 [도면 3-14]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4주식 주거유형은 영남 동부 및 중부지역에서 구분포권을 보이지는 않으나 울산 [표 3-10] 각 지역권별 4주식 · 4주+벽주식 주거유형 분포양상과 창녕에서는 확인 사례가 다소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창녕지역에서 확인되는 4주식 주거유형은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호남지역과 유사한 생활용 토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마한 · 백제계로 추정된다. 창녕 계성리유적[도면 3-15-11]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마한 · 백제지

지역권		4주식 주거유형	4주+벽주식 주거유형	합계
동부 지역권	경주	1(9.1%)	10(90.9%)	11
	울산	8(30.8%)	18(69.2%)	26
	양산 · 부산	27(15.2%)	151(84.8%)	178
중부지역권		15(35.7%)	27(64.3%)	42
남해안지역권		14(87.5%)	2(12.5%)	16
서부지역권		17(47.2%)	19(52.8%)	36

역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 취락의 성격을 마한 · 백제식 연질토기와 백제식 4주식 주거지(큰골 13호) 등을 통해 마한지역에서 살던 백제화된 유이민들이 이주해온 도피성이 강한 취락¹⁰¹⁾으로 보거나 주거지 구조와 연질토기의 기종 및 특징을 통해 호남 서해안에 출자를 둔 마한 · 백제계민들이 이주해온 취락으로 보는 견해¹⁰²⁾가 있다. 본고 역시 창녕 계성리유적에서 보이는 주거구조와 출토유물 등의 양상은 동시기 영남 동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주거문화와는 이질적인 점, 주로 호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주거문화와 유사한 점 등을 통해서 전형적인 마한 · 백제계로 생각되며, 호남지역과 관련성이 큰 집단의 사람들이 이주해온 취락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울산지역은 3~5세기대 주거지[도면 35-3~5]에서 전형적인 4주식 주거유형의 특

101) 유병록, 2009, 「삼국시대 낙동강하류역 및 남해안 취락의 특성」, 『영남지방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1,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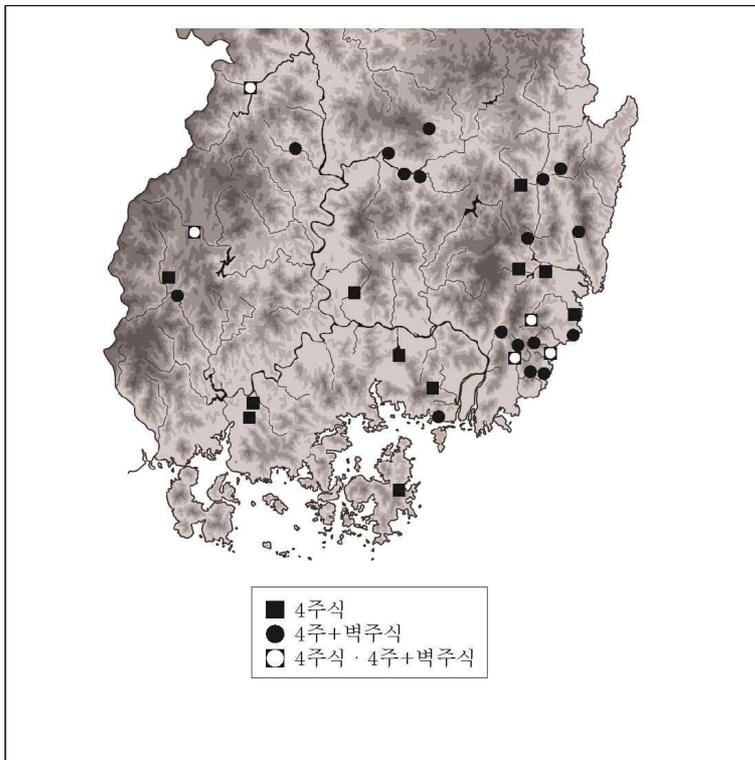
유병록, 2013, 「창녕 계성리마을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창녕계성리에 찾아온 백제사람들 이방인의 꿈』, 창녕군·창녕박물관.

102) 홍보식, 2013, 「삼국시대의 이주와 생활유형」, 『한국고고학보』 87, 한국고고학회.

정일, 2014, 「영남지방 출토 영산강유역 마한계 문물(文物)의 변화양상」, 『전남고고』 7, 전남문화재연구원.

장을 보이지만 출토유물에 있어서는 경주·울산지역권에서 보이는 재지계토기가 확인되는 점에서 창녕 계성리유적처럼 마한·백제계와 관련된 집단의 이주에 의해 축조된 주거지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리고 영남 동부지역의 경주 화천리산251-1유적[도면 3-15-2], 기장 동백리유적[도면 3-15-9] 등에서 확인된 4주식 주거유형은 영남 동부의 재지계토기가 확인되지만 주거 구조에 있어서는 마한·백제계 주거문화와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도면 3-14] 4주식·4주+벽주식 주거유형 분포양상

반면, 남해안지역과 서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4주식 주거유형은 마한·백제 지역의 주거문화에 영향을 받아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지역은 지리적 위치상 양 지역권의 문화상을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점이지대로 파악되는데, 거제 아주동 유적[도면 3-16-7·8]과 김해 대청유적[도면3-16-9]의 주거구조와 출토유물 등에서 다른 지역과의 접촉 및 교류

양상이 간취된다. 특히 거제 아주동 취락의 성격에 대해서는 주거지에서 출토된 하지기계 고배의 제작 기술이 일본 열도의 하지기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이곳에 왜인이 거주하였다고 보는 견해¹⁰³⁾와 함안 고식도질토기와와의 조합을 근거로 함안과 일본 구주지역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견해¹⁰⁴⁾, 그리고 마한계토기 출토를 근거로 아주동 정착민들이 왜계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과 교류했을 것이라는 견해¹⁰⁵⁾가 있다. 본고 역시 거제 아주동유적의 주거양상은 창녕 계성리유적처럼 주거 형태와 출토유물 등의 양상을 통해 마한·백제 지역과 일본열도 등과의 직접적인 상호 교류와 이주 등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4세기 후엽에서 5세기대에 해당하는 영남 서부의 거창 송정리유적, 진주 평거동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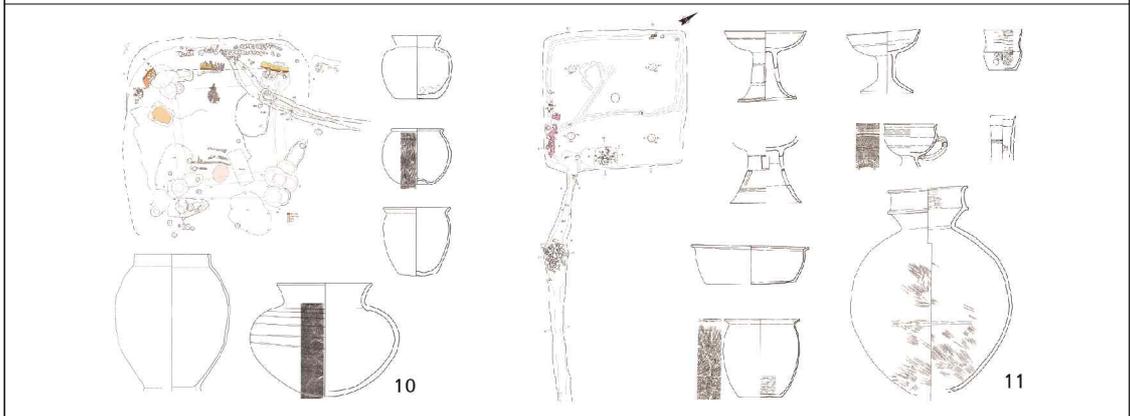
103) 홍보식, 2013, 「삼국시대의 이주와 생활유형」, 『한국고고학보』 87, 한국고고학회.

104)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V. 고찰」,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

105) 정일, 2014, 「영남지방 출토 영산강유역 마한계 문물(文物)의 변화양상」, 『전남고고』 7, 전남문화재연구원.



1. 경주 월성해자 5호 2. 경주 화천리산251-1 2호 3. 울산 교동리104 4호 4. 울주 원산리산 102-2번지 1호 5. 울산 천상리평천 II-1호 6. 부산 두구동 49호 7. 기장 가동 36호 8. 양산 명동 33호 9. 기장동백리 I-3호



10. 김천모암동 30호 11. 창녕계성리 봉화골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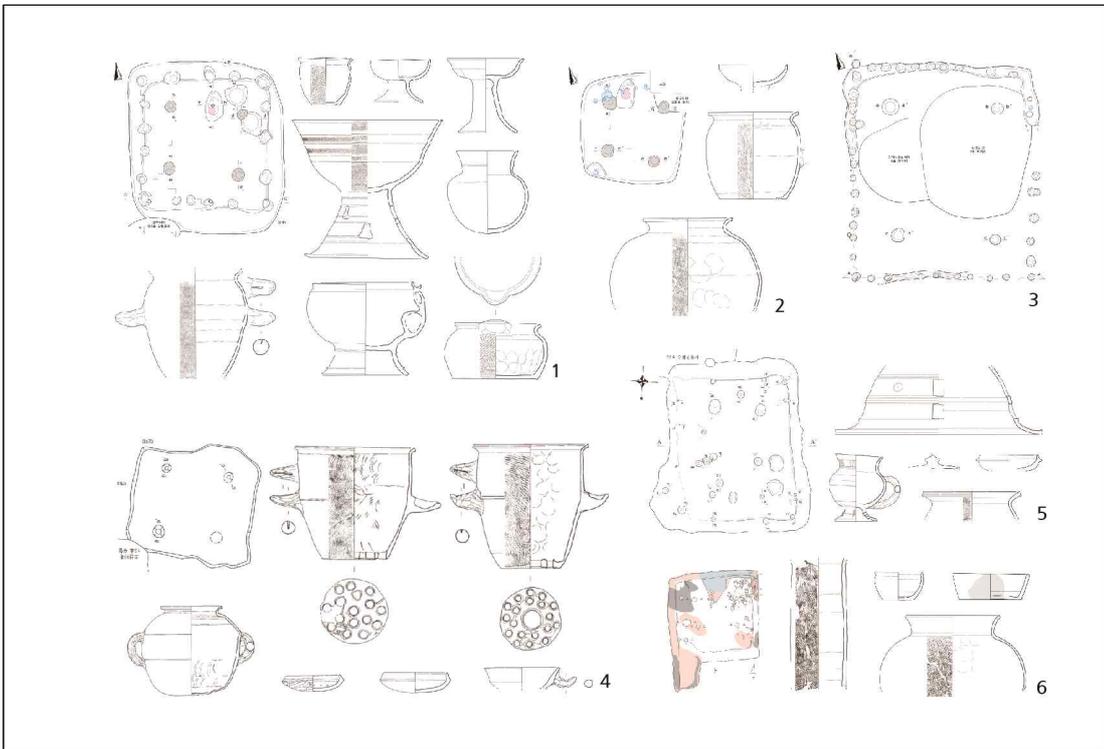
[도면 3-15] 영남 동부(上)·중부(下) 지역권 4주식 주거지와 출토유물

적, 산청 하촌리유적, 진주 가호동유적의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무주혈식의 방형계 주거지는 주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전반적인 구조양상은 4주식 주거유형과 유사하여 일부는 동일 유형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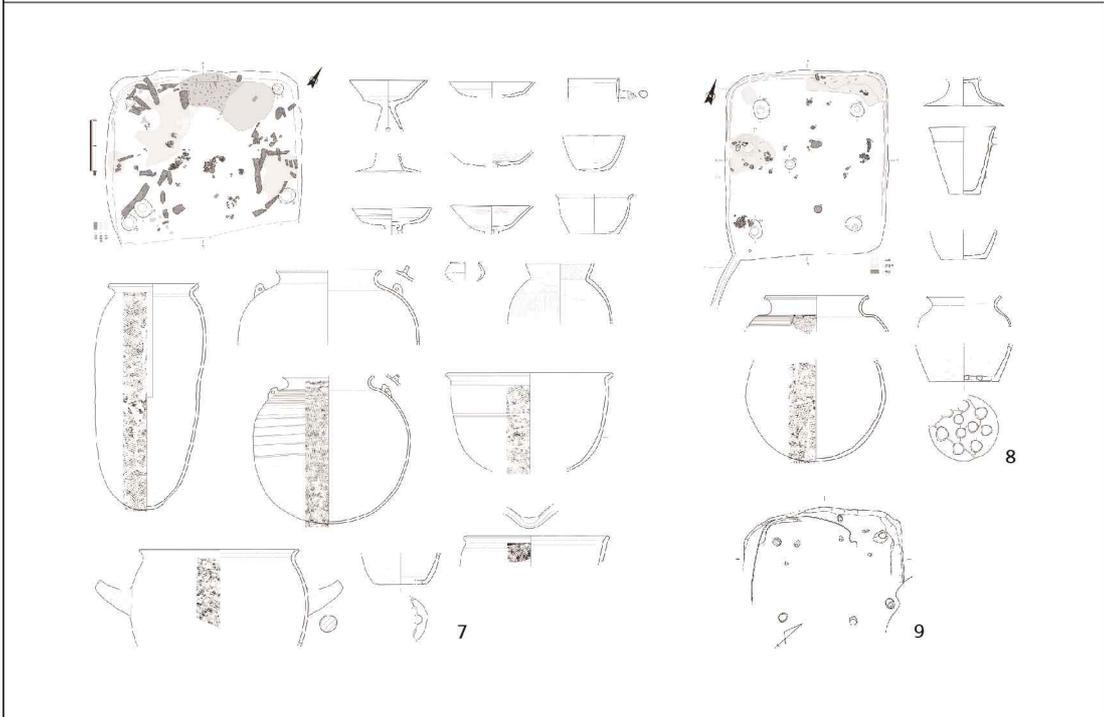
다음으로 4주+벽주식 주거유형은 울산, 양산, 부산, 김천, 대구 등의 영남 동부 및 중부 지역에 주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양산과 부산지역에서는 4주+벽주식 주거유형이 84.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4주+벽주식 주거유형의 등장은 현 자료상 중부지역의 김천 모암동유적[도면 3-15-10]과 경산 임당동 마을유적 등의 사례로 보아 3세 중 · 후엽경으로 보인다. 동부지역에 4주+벽주식 주거유형은 3세기대 자료는 많지 않지만, 4~5세기대에 설치비율이 높아 이 시기에 유행했던 주거유형으로 추정된다. 4~5세기대 4주+벽주식 주거유형은 양산 명동유적[도면 3-15-8], 기장 가동유적[도면 3-15-7], 부산 두구동취락유적[도면 3-15-6]에서 확인사례가 많다. 물론 취락내 방형계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기둥배치는 중심4주+벽주식만이 아닌 무주혈식과 벽주식의 설치비율도 높다. 그러나 이러한 무주혈식과 벽주식만 확인된 주거지는 기둥배치 외에 내부 시설과 출토유물 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기둥을 지면에 바로 세웠거나 주거지 기반토의 토층양상에 따라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영남 동부지역의 일반취락내 주거지의 기둥배치는 4주+벽주식이 일반화된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의 중앙인 경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거자료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월성 해자 북서편유적[도면 3-15-1]과 손곡동 · 물천리유적에서 4주+벽주식 주거유형 사례가 확인된다. 양산과 부산지역처럼 수혈주거지의 구조보다는 지면식 건물지의 형태로 확인되는데, 성격은 취락내 분포양상으로 보아 일반주거용보다는 해자방어를 위해 배치된 군인들이나 토기 생산 공방지를 관할했던 사람들의 거처(숙소), 관할처 등의 특수기능을 담당하였던 건물로 추정된다. 이러한 4주+벽주식의 지면식 건물지는 부산 고촌유적, 양산 대석리유적 등 주로 일반취락보다는 특수목적 위해 조영된 취락에서 고상식 건물지나 수혈유구들이 밀집 조영된 곳에 소수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점과 50㎡이상의 초대형의 규모가 많은 점 등에서 당시 취락을 관할했던 사람들의 거처였거나 관할처 등의 특수용도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반면 동부 및 중부지역 외 다른 지역권에서는 4주+벽주식 주거유형의 분포 비율이 낮는데, 남해안지역권에서는 김해와 진해 등의 주거유적에서 소수 확인되었으며, 서부지역권에서는 거창 송정리유적[도면 3-16-1~3]과 산청 하촌리유적[도면 3-16-5]에서 확인되었다. 서부지역권에서는 주로 4~5세기대에 재지의 원형계주거지와 마한 · 백제지역의 주거문화에 영향을 받은 소형의 방형계 주거지가 유행하여 4주+벽주식 주거유형의 사례가 매우 낮았지만, 최근 거창 송정리유적에서 4주+벽주식 주거유형의 4주식 주거지의 분포사례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1. 거창 송정리 A-236호 2. 거창 송정리 A-100호 3. 거창 송정리 A-1호 건물지 4. 함양 우명리 11호 5. 산청 하촌리 70호(경문연) 6. 진주 예상리·예하리 4구역 1호



7. 거제 아주동1485번지 1-9호 8. 거제 아주동1485번지 1-36호 9. 김해 대청 12호

[도면 3-16] 영남 서부(上) · 남해안(下) 지역권의 4주식 주거지와 출토유물

거창 송정리유적에서 4주+벽주식 주거지는 5세기대 무주혈식 및 4주식의 방형계 주거지와 공존하며 분포하고 있다. 무주혈식과 4주식의 방형계주거지는 주로 생산과 관련된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주변에 분포하고 있고, 다시 4주+벽주식 주거유형이 주거역의 중심부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보고자¹⁰⁶⁾에 따르면 주변 유구들과의 분포양상과 주거지의 규모 등의 비교를 통해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가 소형의 방형계 주거지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주로 대형의 규모를 가지는 4주+벽주식 주거지로 보고 있다.

4) 진한지역 방형계 4주식 주거지의 기원과 출현 의미

천안 이남의 중서 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4주식 주거지는 한강 하류와 중도 유형 문화에서 보이는 ‘ㄴ’자형, ‘凸’자형, 육각형 주거지와 구별되는 마한계 주거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다.¹⁰⁷⁾

지금까지 마한 4주식 주거지의 출현은 천안 장산리유적¹⁰⁸⁾이 기원 2~3세기대에 해당한다는 편년을 주요 근거로 천안 일대로 보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편년안을 수용하여 3세기 중반 천안 일대의 마한 목지국 세력이 백제와의 경쟁 속에서 남하한 결과 대규모 이주가 발생함에 따라 차령산맥 이남지역에 4주식 주거지가 확산 및 축조되었다고 추정한 연구¹⁰⁹⁾가 있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남하설을 수용하여 마한 4주식 주거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¹¹⁰⁾ 이후 마한·백제 4주식 주거지의 연구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각 지역권별 4주식 주거지의 연구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¹¹¹⁾

최근에는 호남지역과 호서지역의 4주식 주거지는 지역의 차이점은 감지되지만 방사성탄소연대상 호남 서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이를 가능성이 높아 이주론에 입각한 4주식 주거지의 남하설을 비판한 연구가 있다.¹¹²⁾ 이 견해를 수용하여 사주공 내 면적비와 방사성탄소연대 분석을 근거로 4주식 주거지가 호남지역에 처음 출현한 이후 호서와 호남 두 지역에서 별개의 독자적인 전개과정을 거치다가 3세기대 두 지역 간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4주식 주거지라는 건축양식이 마한 전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¹¹³⁾

106) 공봉석·부경문화연구원, 2017, 「V. 고찰」, 『거창송정리유적IV』.

107) 김승욱, 2004, 「전북지역 1~7세기 취락의 분포와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4, 한국상고사학회.

108) 이강승·박순발·성정용, 1996, 『천안 장산리 유적』, 충남대학교박물관.

109) 김승욱, 2004, 「전북지역 1~7세기 취락의 분포와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4, 한국상고사학회

110) 정일, 2006, 「전남지역 4주식 주거지의 구조적인 변천 및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54, 한국상고사학회.

김은정, 2007, 「전북지역 원삼국시대 주거지 연구」, 『호남고고학보』 26, 호남고고학회.

111) 서현주, 2013, 「마한·백제 사주식주거지의 의미와 과제」,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112) 박지웅, 2014, 『호서-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3) 허진아, 2018, 「호서-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 등장 과정과 확산배경」, 『한국고고학보』 108, 한국고고학회.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마한 주거문화의 확산 시기는 대체적으로 3세기대로 추정되는데 영남지방의 주거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영남지방에서 청동기시대 이후 방형계 4주식 주거지의 등장은 현 자료상 김천 모암동유적, 경산 임당동 생활유적, 울산 교동리 104유적 등의 사례로 미루어 대략 3세기 중·후엽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한의 주거문화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영남 중부 및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천 모암동유적에서는 4주식과 4주+벽주식 주거유형이 취락내 공존하는 사례를 보이는데, 이는 김천이 지리적으로 영남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마한·백제권역인 호서 및 호남 지역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이 지역들의 주거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김천 모암동유적은 4주식보다 4주+벽주식 주거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출토 유물에 있어서 중부지방과 유사한 토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호남지역보다는 4주+벽주식 주거유형과 유사한 주거형태가 확인되는 호서지역과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4주+벽주식 주거유형은 영남 외에 경기·호서·호남지역에서 유사한 형태가 확인된다. 주로 호서지역에서 평면 방형계에 4주+벽주식 주거지가 확인되는데, 아산만(곡교천유역), 미호천유역, 금강중류역에서 4주식 주거지와 함께 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다.¹¹⁴⁾

확인된 사례 중 진천 삼릉리 89-1호 주거지¹¹⁵⁾, 청원 연제리 1호 주거지¹¹⁶⁾, 청주 송절동 VII-2-70호 주거지, 연기 대평리 KC-78호 주거지 등은 영남지방의 4주+벽주식 주거유



[도면 3-17] 호서지역 4주+벽주식 주거지

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 주거지들은 대체로 3~4세기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평면 방형계에 4주+벽주식의 기둥배치와 벽에서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 설치된 쪽구들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체적으로 4주식 기둥만 설치된 주거지에 비해 4주+벽주식 주거지는 중·

114) 신연식, 2013, 「호서지역 사주식주거지연구」,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양지훈, 2014, 『호서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5) 한남대학교박물관, 2006, 「제2부 분석과 고찰」, 『진천 삼릉리·산수리 토기 요지군』.

116)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V. 고찰」, 『청원 연제리유적』.

대형 이상으로 규모가 큰 편이며, 청원 연제리 1호 주거지는 면적이 103.42㎡로 초대형이다. 또한 연기 대평리유적(B지구)에서는 방형계의 4주식과 4주+벽주식 주거지가 공존하며 분포하고 있는데, 4주+벽주식 주거지가 36.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도면 3-17].¹¹⁷⁾

이처럼 호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방형계의 4주+벽주식주거지는 영남의 중부 및 동부지역에서 주 분포를 보이는 4주+벽주식 주거유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두 지역 간 관련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출토유물의 양상에 차이점이 많다. 다만, 김천 모암동유적의 일부 유물에서는 호서지역의 출토유물과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어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청주 송절동유적¹¹⁸⁾은 구석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복합유적으로, 특히 서기 2세기~4세기에 걸쳐 조성된 주거지, 분묘, 제철관련 유구, 수혈 등 1,200여개의 유구가 확인된 대규모 취락 유적이다. 이 가운데 주거지는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5개 지구에서 500여동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방형,凸자형, 呂자형 등이 확인되는데, 3~4세기대에 조성된 방형계가 주류를 이룬다. 송절동유적에서 확인되는 방형계 주거지의 구들시설은 주로 점토를 이용하여 수혈 벽가에서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 ‘ㄱ’자형으로 설치하였으며, 기둥배치는 4주식, 벽주식, 4주+벽주식이 확인되어 유적내 4주식과 4주+벽주식 주거유형이 공존하며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유적에서 주목되는 점은 확인된 토광묘에서 기원 2세기~3세기 전반 영남지방과의 교류의 산물로 추정되는 양이부옹, 주머니호, 조합식파수부호, 대부광구호 등의 와질토기가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원 2세기대부터 청주 일대 재지인들이 영남의 진·변한의 사람들과 교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¹⁹⁾

호서지역의 미호천유역 취락자료에서 보이는 물질자료를 통해서 영남 중부 및 동부지역에 3세기대부터 등장하는 4주+벽주식 주거유형은 호서지역과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그리고 영남 서부의 거창 송정리유적에서 확인되는 4주+벽주식 주거유형은 영남 동부지역과 유사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호서지역의 연기 대평리유적에서 확인되는 평면 방형계의 4주+벽주식 주거지와도 유사하다. 즉 두 유적 모두 주로 벽체를 세우기 위한 기초 흙인 벽구의 설치비율이 높는데 구(溝) 내부에 벽주혈이 촘촘히 설치되었으며 평면형태는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연기 대평리유적 KC-65호 주거지와 거창 송정리 A-131호 주거지 등에서는 중심 주혈을 중심으로 외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口’자의 평면 형태를 보이는데 주구(週溝)에 가까울 정도로 간격과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영남지방의 창녕 계성리유적과 거제 아주동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4주식 주거유

117)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2, 『연기 대평리유적-고찰 및 분석-』.

118) 충북대학교박물관·충청대학교박물관·중원문화재연구원·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한국선사문화연구원·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 『청주 송절동 유적XIII』.

119) 국립청주박물관, 2019, 『호서의 마한-미지의 역사를 깨우다』 특별전 도록.

형은 주로 호남지역에서 확인되는 마한 4주식 주거지와 매우 유사하다. 호남지역에서 주 분포권을 보이고 있는 마한 4주식 주거지는 특히 고창, 함평, 광주 등의 서부지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¹²⁰⁾

이 지역의 마한계 4주식 주거지는 대부분 방형계로 네 벽면 모서리에 배치된 중심 4주식을 특징으로 하며, 지역과 유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벽구, 부뚜막, 배수구, 장타원수혈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다. 면적은 10~50㎡로 각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평균 4명이 거주할 수 있는 10~20㎡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¹²¹⁾ 이 주거지는 3~5세기에 집중되는 양상이며, 출토유물은 기존의 경질무문토기와 함께 타날문이 시문된 심발, 장란형토기, 원형 투공의 평저시루(우각형파수 또는 절두형파수), 주구토기, 완, 원저단 경호, 이중구연호, 양이부호(耳 수직 투공)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마한계 4주식 주거지와 출토유물이 영남지방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거창 송정리유적, 함양 우명리유적, 거제 아주동유적, 창녕 계성리유적 등 주로 영남 서부와 남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취락 유적에서 확인된다.

이상으로 주변지역에서 확인되는 4주식 주거지의 분포양상 및 특징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영남지방에서 확인되는 4주식과 4주+벽주식 주거유형은 호서와 호남지역의 주거문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4주식 주거유형은 호남지역의 마한·백제계 주거문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4주+벽주식 유형은 호서지역의 마한 주거문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 영남 동부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재지화하여 성행하였던 주거유형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4주식 주거유형은 주로 영남 서부와 남해안지역에 주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영남 동부 및 중부지역에서는 울산과 창녕지역에서 분포 사례가 높다. 영남 지방의 4주식 주거유형은 주거구조와 출토유물 등의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마한·백제계 주거문화의 이주나 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4주+벽주식 주거유형은 주로 영남 중부와 동부인 진한지역에 주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양산과 부산지역에서 분포 비율이 높다. 그리고 3세기대 김천 모암동유적과 경산 임당유적 등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호남지역보다는 호서지역과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진한지역에서 원형계 주거지가 기원전 1세기 전엽에 등장한 이래 주류를 이루다 대략 기원 3세기 전·중엽에 경주 황성동유적을 중심으로 방형계 주거지가 출현하며, 그 전형을 이루는 시기는 3세기 후엽부터이다. 3세기 후엽 시기에 경주 황성동유적의 방형계 주거지는 중심 4주식만 확인되지 않았을 뿐 그 외의 주거형태와 취락의 입지와 성격 등에 있어서 청주 송절동주거지의 형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¹²²⁾ 즉, 청주 송절동유적은 확인되는 방

120) 허진아, 2018, 「호서-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 등장 과정과 확산배경」, 『한국고고학보』 108, 한국고고학회.

121) 정일, 2006, 「전남지역 4주식 주거지의 구조적인 변천 및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54, 한국상고사학회.

122) 경주 황성동유적과 포항 호동유적의 방형계 주거지에서는 기둥배치에 있어서 벽주식은 확인되나 중

형계 주거지의 노시설이 주로 점토를 이용하여 수혈 벽가에서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 ‘ㄱ’자형으로 설치된 점, 제철생산과 관련하여 총적지에 조성된 특수한 성격의 취락이라는 점, 그리고 분묘관련 자료에서 2~3세기대 와질토기가 출토된다는 점 등에서 경주 황성동 취락 집단과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¹²³⁾

이처럼 기원 3세기대에 진한지역이 마한지역과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교역과 교류 등이 이루어졌음이 여러 물질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마한 목지국은 아산만 유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 군현으로 통하는 교통로상 유리한 지점이다. 오산 꺾동과 아산 진터의 기원 2세기 무덤에서 영남지방에서 만든 철모들이 출토되었고, 경주, 대구, 경산 등에서도 오산, 아산 등 중서부 지방의 유개대부호(有蓋臺付壺)의 뚜껑과 유사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진천 송두리유적을 비롯한 청주 송절동유적 등에서도 영남지방에서 제작된 와질토기가 연이어 출토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진한 소국들이 군현과 교섭할 때 중서부 내륙 지역을 거쳐 아산만 일대를 통과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¹²⁴⁾

3세기 중·후엽에는 진한과 변한 지역과의 주거 형태가 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 원인과 배경은 진한이 마한과의 관계망 속에 상호 교류, 교역 등을 하며 방형계 4주식 주거문화를 수용한 부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 4주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발굴 당시에 복잡한 중복 양상과 토양 상태 등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3) 김나영 · 이진영, 2021, 「삼한 · 삼국시대 영남지역 4주식 방형계 주거지 연구」, 『중앙고고연구』 35, 중앙문화재연구원.

124) 이현혜, 2022, 『마한 · 진한의 정치와 문화』, 일조각, 411~412쪽

6. 취락 자료로 본 고대 진한의 주거 문화

삼한에 대한 문헌자료는 중국측 사서와 한국측 사서가 있다. 중국 사서의 경우, 삼한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3C 전반 오(吳)의 사승(謝承)이 편찬한 『후한서(後漢書)』로 알려졌지만,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3C 후반 위(魏)의 어환(魚豢)이 편찬한 『위략(魏略)』에서는 한족(漢族)을 세 부류로 구분하여 그 풍속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원본은 일찍이 산일되어 버리고 관련 내용이 서진(西晉)의 진수(陳壽)[233~297]가 편찬한 『삼국지(三國志)』(3C 후반)에 인용되고 있다. 『삼국지』는 현존하는 자료 중 삼한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5C 전반 남조(南朝) 송(宋)의 범엽(范曄)이 편찬한 『후한서(後漢書)』에도 삼한에 관한 서술이 있다.¹²⁵⁾

그러나 『후한서(後漢書)』 동이전은 『삼국지』 동이전보다 편찬 시기가 늦고 『삼국지』 동이전의 내용을 해석, 정리한 것이 많아 『삼국지』 동이전보다 사료적 가치가 떨어진다. 『삼국지』 한조의 기록 대부분은 3세기 전반경 중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자료를 근거로 서술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타국인의 눈에 색다르게 비쳐진 모습들을 우선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민족지적 내용이 많다. 반면, 한국측 사서인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는 사로국의 성장 과정을 신라인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후대의 사실을 소급하거나 부풀리기도 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 변화를 특정 시점에 일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압축한 것이 많아 기년을 비롯하여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양자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사료이기에 어느 쪽의 역사상을 주로 참고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삼한에 대한 이해는 『삼국지』가 기본적이며 필수적이다.¹²⁶⁾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삼한의 주거문화와 관련한 내용은 매우 소략하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삼한의 주거문화와 관련한 기사는 아래와 같다.¹²⁷⁾

A. 거처는 草家에 土室을 만들어 사는데, 그 모양은 마치 무덤과 같았으며, 그 문은 윗부분에 있다. 온 집안 식구가 그 속에 함께 살며, 長幼와 男女의 분별이 없다.¹²⁸⁾

B. 弁辰은 辰韓 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城郭도 있다. 衣服과 주택은 辰韓과 같다. 言語와 法俗이 서로 비슷하지만, 鬼神에게 제사지내는 방식은 달라서 부뚜막을 모두 문의 서쪽에 설치한다.¹²⁹⁾

C. 위략에서 말하기를 그 나라는 집을 지을 때에 나무를 가로로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감

125) 임혜경, 2019, 「역사적 실체와 관념적 인식의 사이에서」, 『호서의 마한』 특별전 도록, 국립청주박물관, 15쪽

126) 이현혜, 2022, 『마한·진한의 정치와 사회』, 일조각, 379쪽

127)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원문해제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을 참고하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https://db.history.go.kr>).

128) 居處作草屋土室, 形如冢, 其戶在上, 舉家共在中, 無長幼男女之別. (『三國志』 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韓)

129)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三國志』 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弁辰)

옥과 흡사하다.¹³⁰⁾

먼저, A기사에서 ‘초가집(草家)에 흙집(土室)이고, 그 모양이 무덤과 같고, 그리고 출입문이 윗부분에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가옥의 형태 및 구조가 수혈 가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B기사에서는 진한과 변한의 주택이 같다는 표현을 볼 때, 변·진한지역에 기원전 1세기대에 출현하여 기원 3세기대까지 재지계 주거지로 존속하였던 원형계 주거지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삼한 가옥 내 난방시설인 부뚜막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C기사는 ‘집을 지을 때 나무를 가로로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감옥과 흡사하다는 표현’으로 보아 그 형태가 지상 가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세 기사는 타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삼한의 주거문화를 기록으로 남긴 유일한 문헌자료이다. 관련 내용은 소략하지만, 삼한의 주거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진한의 주거문화 중 수혈 가옥, 지상 가옥의 양상을 앞서 살펴본 고고학 자료와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수혈 가옥의 양상

삼국지 동이전의 A기사는 수혈 가옥의 형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굴된 주거지 자료에서는 가옥 전체가 아닌 하부 구조만 남겨져 있어 전체 주거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화재 주거지에서는 보, 도리, 서까래 등의 탄화된 가구재가 확인되어 지붕 상부 구조를 복원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양상은 아니다. 그러나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가형토기(家形土器: 집모양 토기)와 고구려 벽화 등의 자료를 통해서 고대 진한의 주거 형태와 구조에 대해 일부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가형토기는 4~5세기대 자료이기 때문에 삼한시대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5세기대 신라와 가야의 주거문화는 변·진한의 주거문화에서 이어진 부분이 많기에 가형토기를 통해 삼한시대 가옥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가형토기(家形土器, 집모양토기)는 당시의 건축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주거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지 않은 고대 건축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발굴된 주거지는 대부분 바닥 부분만 남아 있으므로 가형토기는 당시 가옥의 외형과 상부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형토기는 출토 유구가 명확한 7점 중 5점이 무덤에서 출토되었는데, 내세에도 영혼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지내길 바라는 당시의 내세관이 투영된 토기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액체를 따를 수 있는 주구(注口)가 있어 제사의식을 행할 때 주기(酒器)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¹⁾

현재 한반도에서 발굴 출토된 삼국시대 가형토기는 대략 22점으로 신라와 가야지역

130) 魏略曰：其國作屋，橫累木爲之，有似牢獄也。（『三國志』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弁辰）

131) 정관박물관, 2019, 『영혼의 안식처 집모양 토기』, 2020 정관박물관 학술총서, 정관박물관, 6쪽



[도면 3-18] 김해 봉황동유적 출토 가형토기(정관박물관 2019)

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가형토기의 지붕 아래 평면형태는 김해 봉황동유적 출토품과 가장 가동고분군 출토 가형토기를 제외하면 모두 방형계이다. 4~7세기대 신라권역 주거유적에서 확인되는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가 주류를 이루는데, 가형토기의 평면 구조와도 일치한다.

반면, 가장 가동고분군 출토 가형토기는 일반 가형토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평면형태가 원형인데, 앞서 분류한 지상식 건물지 중 지면식 건물지와 유사하다. 이러한 가형토기는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주거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신전 등의 특수 건물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김해 봉황동유적 출토품은 지붕 아래 평면 구조가 원형에 가까운데, 삼국시대 가야권 주거지 평면형태의 주류가 원형계라는 점에서 당시 가야지역 가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된다. 이는 진한지역에서 확인되는 원형계 주거지의 원형 복원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도면 3-18].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가형토기는 당시의 건축물인 고상 창고, 초가집, 기와집 등을 본떠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형토기는 크게 초가지붕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출입구와 다락 공간이 있는 초가형(草家形)과 나무 기둥을 이용해 지면으로부터 건물 본체를 높이 띄우고 맞배지붕을 얹은 고상창고형(高床倉庫形)으로 구분된다. 초가집을 본뜬 가형토기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점토를 쌓아 만든 벽체 위에 정면만 개방된 초가지붕을 얹고, 바로 아래에 여닫이문을 만들어 사다리를 통해 출입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모양을 한 가형토기는 현재 3점 정도 알려졌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전 현풍 출토품과 삼성미술관 리움 2점이 이에 해당한다.

3점의 집 구조는 유사하나 지붕과 굴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전 현풍출토와 삼성미술관 소장품-1은 모임지붕+맞배지붕의 형태이지만,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2[도면 3-19]는 우진각지붕+맞배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다.¹³²⁾

가형토기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주된 특징은 실외기둥(정면 출입구에 배치)과 출입구 사다리, 맞배·모임지붕 등인데, 사다리와 지붕 등의 상부 구조물은 대체로 발굴자료에서 잔존 양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화된 목재가 잔존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확인하

132) 정관박물관, 2019, 『영혼의 안식처 집모양 토기』, 2020 정관박물관 학술총서, 정관박물관.
 함순섭, 2008,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 살림집의 복원연구」, 『동원학술논문집』, 국립중앙박물관·한국고고미술연구소.



[도면 3-19] 가형토기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2(정관박물관 2019)

기 어렵다. 또한 발굴자료를 근거로 나타난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된 실내기둥(4주식)의 요소는 가형토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굴자료에서 4주식의 주혈이 확인되고 가형토기에서 가구를 구성하는 주요 부재인 보와 도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둥 또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실내기둥으로써 가형토기에서는 내부시설의 하나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임을 인식하여 생략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형태의 집모양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전의 A기사와 부합된다. 이 기사는 삼한시대의 기록이지만 가형토기와 발굴자료를 통해서 볼 때, 삼국시대까지 이어진 주거문화임을 알 수 있다.

‘흙집(土室)’은 발굴 조사된 진한과 신라권역 수혈주거지의 벽체 구성과 연관지어 볼 때 벽기둥(壁柱)으로 골조를 세우고 그 사이를 견고하게 흙으로 메워 벽체를 만든 ‘내력벽’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밀폐된 살림집의 벽체가구로 보인다. 그리고 “출입문이 위에 있다”는 기록은 초가형 토기의 사다리 위에 표현된 출입문과도 일치하는 양상이다



[도면 3-20] 가형토기 출입시설의 형태와 복원 모형(함순섭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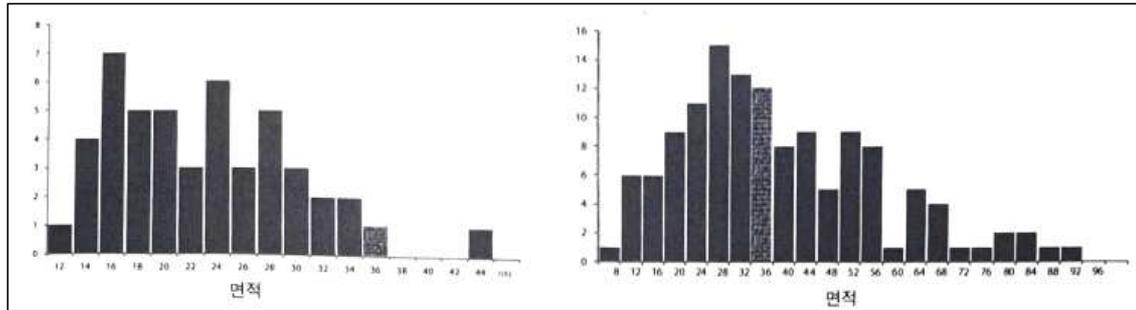
[도면 3-20]. 또한 “온 식구가 집(안)에 함께 살기에 장유와 남녀의 분별이 없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는 집안 내부에 격벽(隔壁, 칸막이 벽)과 같은 분할시설 없이 단실구조(單室構造)로 식구가 모두 함께 살았던 건물로 해석하기도 한다.¹³³⁾

“장유와 남녀의 분별이 없다”라는 기사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시 이 문헌이 쓰였던 3세기대에 확인되는 수혈주거지의 면적 변화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영남지방의 3세기 이전 주거지의 면적은 25㎡ 이하의 소형이 주를 이루었다면, 3세기

133) 함순섭, 2008, 「영남지방 삼한 · 삼국시대 살림집의 복원연구」, 『동원학술논문집』, 국립중앙박물관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1~25쪽

후반 이후에는 대체로 25㎡ 이상의 중형 주거지가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영남지방 주거의 규모 변화는 3세기 후반경, 즉 주거문화의 지역색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체로 대형화된다. 영남 동부지역은 대체로 6세기 전반경까지 큰 변화 없이 규모의 대형화 현상이 지속되나, 영남 서부지역은 4세기 후반경에 타원형 주거지가 방형으로 바뀌면서 소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도면 3-21].¹³⁴⁾

이처럼 진한과 신라권역으로 추정되는 영남 중부 및 동부지역에서는 3세기대부터 6



[도면 3-21] 영남 동부지역 삼한(左) · 삼국시대(右) 주거지 규모 비교(공봉석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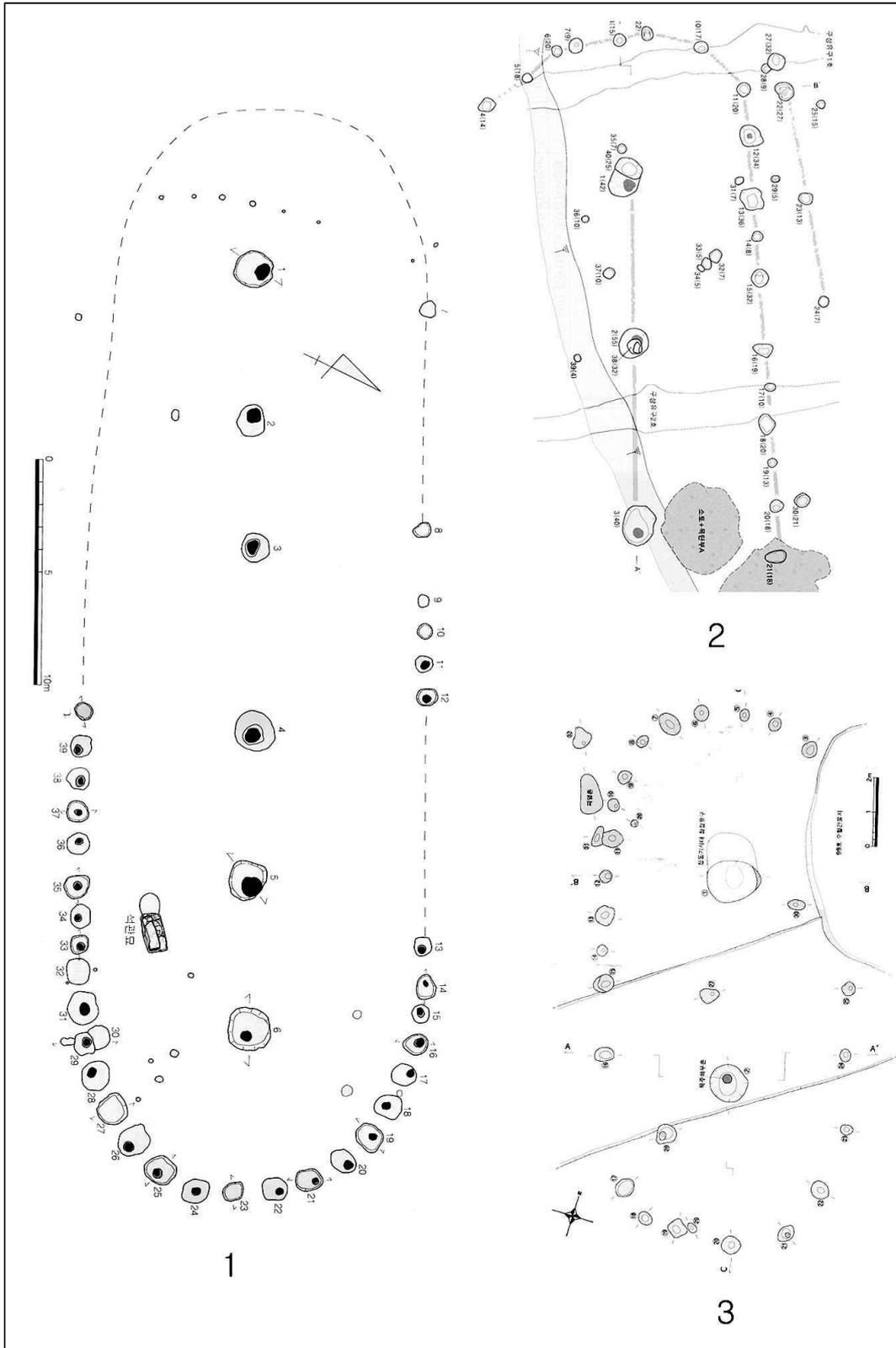
세기대까지 대형이 주류였으며, 이는 가옥 내부에서의 가족 구성이 전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암시한다. 즉 3세기 이전에는 부부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중심이었지만, 3세기 이후에는 조부모 등의 가족 구성원도 함께 가옥 내부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초가집과 같은 단일 공간 구조에서 부부와 자녀, 그리고 조부모까지 모두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남지방의 3~6세기 주거지 자료에서 보이는 규모의 확대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전(韓傳)에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단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 내의 부뚜막 설치 위치가 문의 서쪽에 놓인다는 부분 역시 변 · 진한 주거지에서도 대체로 부뚜막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항 호동유적 138동 주거지에서 부뚜막은 동쪽과 남쪽보다는 북서쪽(61.3%) 또는 서쪽(31.9%)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상은 삼국시대에도 대체로 이어지지만, 각 유적의 입지와 환경 등에 따라 부뚜막의 위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혈주거지에서는 취락내의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규모나 출토유물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등 수장층 가옥으로 파악되는 확연한 계층화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마한 지역권뿐만 아니라 신라와 가야 지역권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다. 물론, 경산 임당유적 I 지구에서 초대형 주거지가 확인되었지만,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수혈주거지와 혼재되어 있으며, 입지상의 우월성은 보이지 않아 I 지구 취락을 관할하는 우두머리 주거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면식 건물지에서는 일부 계층화 현상이 간취된다. 고대의 집을 본뜬 토기는

134) 공봉석, 2013, 「영남지방 원삼국 · 삼국시대 주거」,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문, 한국고고학회, 138~139쪽.



[도면 3-22] 주변 지역의 특수 대형 건물지(1: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유적, 2: 함안 오곡리 87유적, 3: 진주 평거동유적)[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제기나 주기의 기능도 함께 갖추었기에 그 이용 주체를 지역 수장급 인물로 추정하곤 한다.¹³⁵⁾ 만약, 상위 지배층이 자신들의 가옥을 축소하여 가형토기를 만들었다면, 일반 하위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 형태를 본떠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가형의 가형토기는 진한과 신라지역권에서 확인되는 방형계 수혈 가옥 형태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초가형 가형토기는 수혈주거지가 아닌 4주+벽주식의 지면식 건물지를 형상화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건물지는 김천 모암동 25호[도면 2-26], 경주 월성 해자 5호[도면 3-15-1], 거창 송정리 A-1호 건물지[도면 3-16-3] 등 주로 진한과 신라·가야권에서 확인되었다. 4주+벽주식의 지면식 건물지는 취락 내에서 차지하는 규모, 입지 등에 있어 일반 수혈 주거지와는 차별성을 보이며, 상위층 사람들과 관련된 가옥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울산 교동리유적에서 확인된 ‘열쇠 모양’의 특수 대형 건물지와 수장층 가옥으로 추정되는 43호 건물지 역시 입지, 형태, 규모 등에 있어서 다른 건물지와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당시 계층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동리유적의 대형 건물지는 영남지방에서 확인된 청동기~삼국시대 대형 건물지들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례적이다. 즉, 선사~고대의 취락 유적에서 확인되는 특수 대형 건물지들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세)장방형이거나 트랙에 가까운 긴 장타원형이 일반적이다. 영남지방의 특수 대형 건물지는 중산동 산96유적(IV지구),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함안 오곡리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는데[도면 3-22], 모두 4세기대 이후 삼국시대에 해당한다. 대체로 이 대형 건물지들의 평면형태는 트랙(track)에 가까운 장타원형이며, 취락내 다른 구성 시설들과 분리되어 중앙의 공지나 독립된 공간에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동리 취락 구성원들이 열쇠 모양에 가까운 독특한 형태의 건물지를 만들었던 이유와 의도는 무엇이였을까. 내부시설과 유물 등이 확인되지 않고 주혈만 잔존하는 상태에서 이를 명확히 밝혀내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이 건물지 형태의 상징적 측면에 접근하여 하나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앞 장에서 교동리 대형 건물지의 용도를 의례 시설로 추정하였는데, 그 단서 중 하나를 건물지의 횡타원형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공간은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의미와 의도를 두고 조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당시 교동리 취락을 이끄는 지배계층이 의례나 의식 등을 거행할 때 머무는 신성(神聖) 공간으로 추정된다. 횡혈식 석실분, 전방후원분 등의 고대 무덤에서도 ‘원(圓)’ 부분은 왕이나 신분이 높은 계층이 안치(安置)되는 신성 공간이다. 무덤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도 지배계층과 일반 구성원들 간에 차별을 둔 신성 공간이 있었을 것이다.¹³⁶⁾

‘신성성’은 인간이 찾고 만들어낸 독특한 개념이다. 장소건, 물건이건, 생명체건, 인간은 만나고 경험하고, 상상하는 것에 신성성을 부여하려 애쓴다. 신성성을 찾는 본능에 가까운 인간의 태도를 이용하려던 움직임은 신석기시대 후기, 계급사회의 씨앗이

135) 정관박물관, 2019, 『영혼의 안식처 집모양토기』, 2019 정관박물관 학술총서, 7쪽

136) 교동리 대형 건물지의 기능과 성격, 그리고 공간 안에서의 신성 행위와 그 상징성 등에 대해서는 전호태 선생님의 교시(敎示)가 있었다.



[도면 3-23] 부산 가동 고분군(1-2호 석곽묘 하부 목곽묘) 출토 가형토기(정관박물관 2019)

보일 때부터였던 듯하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면 신성성은 지배계급에 의해 가장 중요한 관념 도구로 활용된다.¹³⁷⁾ 이 신성성은 이후 청동기시대를 거쳐 삼한시대에 이르러 지배계층에 의해 더욱 강화된 관념의 도구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동리 대형 건물지의 특수한 형태 및 구조는 당시 이 취락을 운용하고 관리하던 지배계층이 공간에 두는 차별성과 함께 신성한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적 표상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수 대형 건물지를 교동리 취락에 조성한 것은 이곳이 당시에 주변취락 보다 위계가 높은 중심취락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볼 수 있다.

[도면 3-23]은 부산 가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가형토기이다. 이 토기는 원형 받침판 위에 건물 본체를 올리고 지붕을 덮은 구조로, 여타 가형토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와 형태라는 점에서 주거용 가옥이 아닌 신전과 같은 특수목적 가진 건축물을 본뜬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원형 받침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평면 반원형으로 11주(柱)의 기둥이 가옥 본체의 측면과 후면을 이룬다.¹³⁸⁾ 이러한 기둥형태는 울산 교동리유적,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등에서 확인된 장타원형의 대형 건물지에서 보이는 기둥 배치양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일부 문헌 기록에서는 주거문화의 계층화 현상을 엿볼 수 있는데, 가락국기에서 보이는 수로왕의 새로운 왕궁 신축,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된 남해왕 3년에 시조묘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일반 주거지와는 형태적인 면에서나 공간적인 면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건축물이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수인기(垂仁記)에는 ‘군가(郡家)라고 하는 관공서가 등장하는 데 군공(郡公)들이 상주(常住)하고 있고, 이 지역의 신앙대상을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건물이 다수의 군공들이 모여서 정사(政事)를 의논하고 있는 곳이며 제사 지내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음을 말하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¹³⁹⁾

137) 전호태, 2021, 「울산 천전리 각석과 신성공간」, 『역사와 세계』 60, 효원사학회, 97-99쪽

138) 정관박물관, 2019, 『영혼의 안식처 집모양 토기』, 2020 정관박물관 학술총서, 78~81쪽

139) 권주현, 2000, 「가야의 생활문화(2)-주거문화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17 · 18,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101~105쪽

이처럼 문헌 기록에서 언급된 일반 가옥과는 차별된 특수한 건물들은 진한지역의 고고학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건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시의 계층화 현상이 주거문화에도 반영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3) 지상 가옥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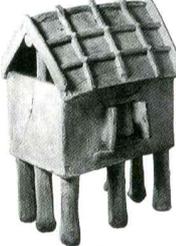
『삼국지』 동이전에서 ‘그 나라는 집을 지을 때에 나무를 가로로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감옥과 흡사하다’라는 C기사를 통해 당시 지상가옥이 존재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나무를 가로로 쌓아서 만든다’라는 표현은 수혈식 주거지와 지면식 건물지 보다는 고상식 건물지의 구조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이는 벽주식, 4주+벽주식 등의 기둥 배치를 보이는 수혈식 주거지와 지면식 건물지는 모두 세로로 기둥을 세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둥 사이의 가로로 결구한 벽체 가구재를 보고 뇌옥과 같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표 3-11] 삼한 · 삼국시대 동부지역권 고상식 건물지의 구조별 수량

유적 구분	울산 교동리유적 (3C후~4C전엽)	기장 가동유적 (4~5C)	대구 봉무동유적 5~6C
1×1칸	218(85.5%)	1(2%)	7(4%)
1×2칸	26(10.2%)	6(10%)	20(11%)
1×3칸		3(5%)	6(3%)
1×4칸			4(2%)
2×2칸	11(4.3%)	33(58%)	59(31%)
2×3칸		10(18%)	16(8%)
2×4칸		4(7%)	3(2%)
3×2칸			55(28%)
3×3칸			10(5%)
3×4칸			1(1%)
4×2칸			7
4×3칸			3
5×2칸			1
합계	255	57	192

진한지역 고상식 건물지의 구조는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지만, 가장 비율이 높은 평면 구조는 1×1칸과 2×2칸 구조이다. [표 3-11]은 고상식 건물지의 수량이 많은 울산 교동리유적, 기장 가동유적, 대구 봉무동유적을 중심으로 건물지의 구조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 유적 중 기장 가동유적, 대구 봉무동유적의 고상식 건물지는 주변 유구와의 관계, 입지 등을 통해 창고의 용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고상식 건물지를 시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엽에는 1×1칸의 규모의 비율이 높고, 4~6세기에는 2×2칸의 구조가 다수를 차지한다. 5~6세기대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다양한 구조의 건물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가야지역권에서도 확인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고상식 건물지는 발굴 시 기둥 자리만 남아 있기에 상부의 구조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상부 구조는 집모양 토기 자료를 통해서 그 원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확인된 고상식 건물 모양의 토기는 총 11점으로 보통

			
경주 사라리유적 출토품	창원 석동 복합유적 출토품	창원 다호리유적 출토품	함안 말이산고분군 출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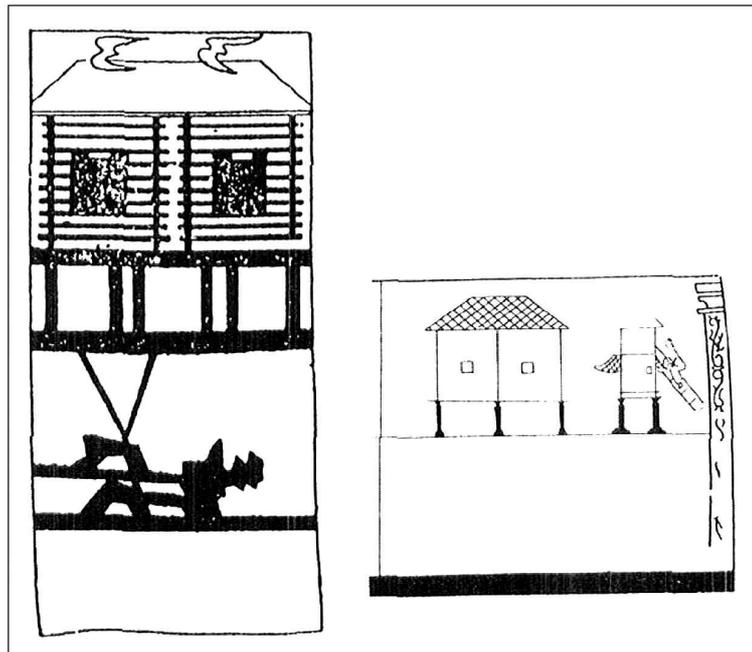
[도면 3-24] 신라 · 가야의 고상 창고형 토기(김상태 2019, 수정 전재)

1칸(1×1칸, 4柱)이나 4칸(2×2칸, 9柱)의 나무 기둥과 귀틀¹⁴⁰ 위에 육면체의 건물 본체를 지어 올리고 맞배형의 지붕을 얹은 구조이며, 사다리를 통해 정면이나 측면에 자리한 여닫이문으로 출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3-24]. 이러한 형태의 집모양 토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출토지가 모두 영남지방으로 신라와 가야지역에 고상 창고가 발달하였다는 발굴조사 성과와도 일치하는 양상이다.¹⁴¹⁾

고상식 건물지는 그 기능을 보통창고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반도의 고대 고상 창고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高句麗條)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나라에 큰 창고가 없으며, 집집마다 각기 조그만 창고를 두고, 그 이름을 부경이라 한다.¹⁴²⁾

위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의 부경(桴京)은 그 기능을 창고로 말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건물의 모습은 고구려 덕흥리 고분군과 마선구 1호묘의 벽화를 통해



[도면 3-25] 마선구 1호묘(左)와 덕흥리 고분군(右)의 부경 벽화

유추해 볼 수 있다[도면 3-25]. 이 벽화고분에 그려진 부경의 모습은 변 · 진한지역에서 확인되는 발굴자료와 삼국시대 집모양 토기와 비교해 볼 때, 세부적으로 차이가

140) 귀틀: 마루를 놓을 때, 굵은 나무를 가로세로 짜 놓는 틀

141) 정관박물관, 2019, 『영혼의 안식처 집모양 토기』, 2020 정관박물관 학술총서.

142) 無大倉庫, 家家自有小倉, 名之爲桴京(『三國志』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高句麗)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구조가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의 용도는 마을이나 국가 등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잉여물의 저장이나 중요 물건을 보관해두는 창고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마선구 1호묘에서 묘사된 고상식 건물지는 귀틀 윗 부분의 벽 기둥 사이에 표현된 나무 벽체 가구재가 가로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삼국지』 동이전에서 ‘그 나라는 집을 지을 때에 나무를 가로로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감옥과 흡사하다’라는 C기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된다. 그리고 덕흥 리고분군에서 그려진 왼쪽 창고는 2칸 이상, 오른쪽은 1칸 구조의 건물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 교동리유적은 삼한시대 영남지방의 고고자료 가운데 고상가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 이 유적에서 고상식 건물지의 용도는 전체 취락의 일부만 조사되어 명확하지 않지만, 잔존 양상으로 보아 크게 창고용과 주거용의 두 가지 기능을 상징해 볼 수 있다.

먼저, 창고의 기능을 가진 건물지는 주로 북동편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6주식(2×1)과 9주식(2×2칸) 등의 구조를 가진 건물지군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창고 건물지에 취락 구성원들이 무엇을 저장했던 것일까. 현재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지만,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교동리와 신화리 일대에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는 주변 입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잉여 곡식을 저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기타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품이나 중요 물품 등을 저장하여 취락 내 공동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음 주거용 건물지는 1×1칸 규모의 4주식 고상 건물지로 판단된다. 이는 유적 내 가장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구조이고, 85.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교동리유적에서 확인된 지상식 건물지의 성격을 교통의 결절지에 위치하고 있는 취락의 입지상 특징을 근거로 생산물 또는 주요 교역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는 견해¹⁴³⁾도 있지만, 유적 내 밀집도와 배치로 보아 창고로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 주거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⁴⁾. 왜냐하면 대구 봉무동유적, 기장 가동유적 등 영남지방 삼한·삼국시대의 지상식 건물지가 대규모로 확인된 취락유적과 비교해 볼 때, 교동리유적처럼 1칸 규모의 고상식 건물지로만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 2×2칸 이상의 고상식 건물지가 취락내 창고 건물의 일반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동리유적의 남서편에 인접해 있는 교동리 104유적에서는 평면 방형계의 4주식 수혈주거지(4주식 주거유형)가 확인되었다. 이 주거지의 면적은 15.4㎡의 규모로, 이는 교동리 취락의 4주식 고상 건물지의 평균 규모와 일치한다. 이에 본고는 현 자료상 교동리유적의 건물지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1×1칸의 4주식 고상 건물지의 용도는 창고용보다는 당시 취락 내 주거용, 특히 계절성 주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¹⁴⁵⁾ 그러나 기둥자리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계절성 주거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143) 공봉석, 2015, 「신라·가야 취락의 분화와 전개」, 『영남고고학』73, 영남고고학회.

144) 이창희, 2016, 「삼한·삼국시대 신화리 유적의 취락」, 『울산의 시작, 신화리-땅속에서 만난 새로운 역사』, 울산대국박물관 2016년 제2차 특별전 도록, 울산대국박물관, 146쪽

145)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VI. 고찰」, 『울산교동리유적IV』.

다만, 고대 중국과 일본의 문헌 『晉書』, 『禮記』, 『日本書紀』에 언급된 일부 내용을 통해 계절성 주거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숙신을 일명 읍루라고도 하며 (중략) 여름에는 소(巢)에 거(居)하고 겨울에는 혈(穴)에 거(居)한다.¹⁴⁶⁾

겨울에는 굴에 살고 여름에는 회소(檜巢: 전나무를 엮어 만든 집)에 거한다.¹⁴⁷⁾

겨울에는 혈(穴)에 숙(宿)하고 여름에는 소(巢)에 거(居)한다.¹⁴⁸⁾

위의 중국과 일본의 고대 문헌 기록에서 보이는 겨울의 혈(穴)은 수혈주거를 말하고, 여름의 소(巢)는 나무로 만든 고상식 건물지로 추정된다. 즉, 고대인들은 혹한기에는 땅을 파서 움집에서 기거하였고, 더운 여름에는 나무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고상가옥을 만들어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진·변한인들의 계절에 따른 주거방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겨울에는 수혈주거에서 거쳐하다가 여름에는 고상식 건물에서도 생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동리 취락 자료에서 보이는 4주식 고상 건물지는 주거용, 특히 계절성 주거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C기사에서 이 고상식 건물지를 ‘집(屋)’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영남지방의 삼한·삼국시대 주거 형태는 수혈식뿐만 아니라 지상식 건물지의 축조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1칸식 4주식 고상 건물지의 취락내 조성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건물 중에는 가옥 단위당 부속된 창고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6) 『晉書』 肅慎氏條.

147) 『禮記』 권9 禮運.

148) 『日本書紀』

IV. 취락의 시설 검토

취락 공간에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성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취락의 시설들은 그 용도와 기능에 따라 취락의 유형,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앞 장에서는 수혈주거지와 지상식 건물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 장에서는 주거지를 제외한 취락의 시설들을 검토해 보겠다. 대상 자료는 기능과 용도를 유추할 수 있는 유구를 선별하여 크게 생산시설, 의례시설, 방어·경계 시설, 매장시설 등으로 구분하였다.¹⁴⁹⁾

1. 생산시설

취락에서 확인되는 생산시설은 당시 취락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업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진한지역에서는 제철시설, 목탄가마, 토기가마, 농경과 관련한 시설이 일부 확인되었다.

1) 제철시설

영남지역 철기문화 확산의 직접적인 계기는 한군현(漢郡縣)을 통한 단조철기 문화의 유입에서 시작되며, 그 시기는 기원전 2세기 후반대부터 나타난다. 초기에는 철소재의 수입에 의한 단야작업에 의한 철생산의 수준이었다. 기원전 2세기 말경 전국계의 주조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철생산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⁵⁰⁾

진한지역에서 철생산과 관련한 가장 이른 시기의 유구는 기원전 1세기대에 해당하는 울산 달천유적의 채광(採鑛)유구이다. 울산 달천유적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채광(採鑛)시설이 확인된 곳이다. 기원전 1세기대로 추정되는 7호와 44호 수혈은 부정형한 형태로 깊이가 깊지 않으며 내부 바닥과 벽면에는 채광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많은 요

분포 범위	제철로의 유형	위 치	비 고
A 구역	단야주거지 a군	가장 남쪽, 원삼국시대 (타)원형 주거지역의 중심부	비소
B 구역	단야주거지 b군	중앙부 남쪽, 원삼국시대 방형 주거지역에 포함	
C 구역	단야공방지	B 구역을 대부분 포함하면서 남동쪽으로 확대	
D 구역	용해로 a군	중앙부에 해당, 제철유구 중 가장 범위가 넓음	
E 구역	용해로 b군, (정련)단야로	D 구역의 중앙부에 해당, 단야작업 동반	
F 구역	제강로	가장 북쪽, 삼국~통일신라시대 분묘와 겹침	

[표 4-1] 경주 황성동유적 제철로의 공간 분포(김권일 2020)

철(凹凸)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혈 내부에서 수구(須玖) II 식 단계의 야요이계토기

149) 본고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였기에 그 외 취락의 내·외 시설은 보조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전반적인 특징과 선행 연구성과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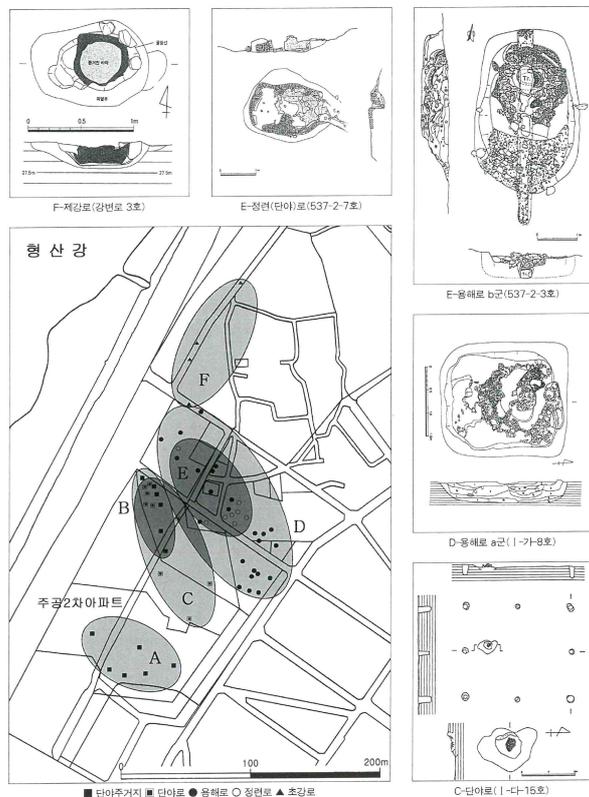
150) 김호상, 2011, 「신라 형성기의 생산유적」,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彌生系土器)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弁辰條)에 변·진한과 왜(倭) 지역 간의 철을 매개로 한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기록과 부합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달천광산의 표토층에서는 소철괴상의 철광석이 다량 산재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당시 철 채광 방식은 노두(露頭)의 철광석을 채굴하였거나 표토에 산재하는 철광석을 수집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⁵¹⁾

경주지역은 진한지역에서 울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제철¹⁵²⁾유적이 조사된 곳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주 황성동유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단야로(鍛冶爐), 용해로(鎔解爐), 폐기장, 탄치장(炭置場) 등 다양한 제철 관련 유구들이 조사되었다.

경주 황성동유적은 김권일의 최근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살펴보겠다. 김권일¹⁵³⁾은 공간구분에 따른 경주 황성동 제철로의 유형을 [표 4-1]과 같이 A~F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황성동 제철유구의 공간구분으로 본 시기배열은 A→B→C·D·(F)→(F)·E의 4단계로 요약하였다[도면 4-1].

1단계는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처음 단야조업이 시작되며, 주변지역에서 철 소재를 공급받아 평면(타)원형 주거지(다지구)내에서 단조 철기를 제작하는 시기로, 연대는 기원 1세기 중엽~2세기 전엽으로 설정하였다. 이 단계는 개별 혹은 가족공동체 차원의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철기를 생산했으나, 이는 철기 생산 전문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하였다. 2단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재를 공급받아 주거지내에서 단조 철기를 생산하지만 이내 주거지를 벗어나 독립된 전문공방지를 형성하게 되며, 연대는 기원 2세기 중·후엽으로 설정하였



[도면 4-1] 경주 황성동유적 제철유구의 공간구분과 노의 유형(김권일 2020)

151)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V. 고찰」, 『울산달천유적-3차 발굴조사』.

152) 제철조업은 철광석이나 사철, 토철 등의 원료를 제련 및 정련하여 소재를 얻는 공정과 이를 단타 성형하여 단조철기를 만드는 공정, 그리고 용해한 소재를 거푸집에 흘려 부어 주조철기를 제작하는 공정 및 강철제 철기의 생산을 위한 제강공정으로 대별된다. 제강은 노에서 소재 자체를 강화(鋼化)하는 방법과 이미 제작된 철기의 특정부위에 침탄이나 탈탄을 가해 강화(鋼化)하는 방법이 있다. 김권일, 2009, 「경주 황성동유적 제철문화에 대한 연구」, 『영남문화재연구』 22, 영남문화재연구원, 93쪽.

153) 김권일, 2020, 『古代 嶺南地域 製鐵技術의 考古學的 研究』, 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다. 이 단계는 원료의 채광지와 1차 제련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소(AS)가 검출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경주 감은포, 언양 석남산 등 주변 철산(鐵山)에서 소재의 공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하였다. 3단계는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에서 용해 조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가장 큰 획기로 설정하였다. 이 단계에는 주거지를 벗어나 독립 단야 공방지(정련 단야)가 형성되고, 용해 공방이 도입되어 대량화·규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그리고 철 소재인 선철(銑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원료 공급처인 달천광산을 확보하는 시기로 보았다. 연대는 기원 2세기 말~3세기 중엽으로 설정하였다. 4단계는 용해 주조 공방의 범위가 축소되고 제강(製鋼)이 제철 조업의 주요 공정으로 자리 잡는 시기로, 연대는 기원 3세기 중엽~4세기 전반으로 설정하였다.¹⁵⁴⁾

이처럼 경주 황성동유적에서는 철기 생산 유구가 가장 중심을 이룬다. 분묘 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들이 이 유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철기 생산 유구의 분화와 발달에 따라 주거지의 성격이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제철 생산의 시작은 주거지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본고의 III-1기에 해당하는 I 다지구 1호·9호·11호·17호 등 주거지에서는 다양한 철기류와 철기를 만드는 재료인 철괴, 그리고 철기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룻돌(I 다-11호·17호, II 다-4호·5호 주거지), 노지(爐址) 등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주거지 내부에서의 소규모 철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주 황성동유적 IV-1기(기원 2세기 후엽~3세기 중엽)와 IV-2기(기원 3세기 후엽~4세기 전엽) 주거지는 III-1기 다지구 원형계 주거지와 비교해 볼 때, 일반 주거로 사용된 듯하다. 대체로 황성동유적 IV기 주거지 내부에서는 철기 생산과 관련된 자료의 출토 비율이 매우 낮다. I가-4호 주거지와 II가-11호 주거지에서는 철재와 송풍관 내부 구조에서 단야 공방의 흔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곳에서 철기 생산이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II나-2호와 4호 주거지에서 송풍관 파편이 확인되었으나, 극히 소량에 불과해 주거지 폐기 시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단계 주거지의 주 용도는 당시 철기 생산 수공인들의 전용 거처지로 사용된 듯하다.

대구 봉무동유적IV 5호 주거지에서도 소규모 단야 공정이 이루어진 흔적이 확인되었다. 5호 주거지는 평면 원형계에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주거지 내부와 주변 분포 주거지에서 와질 장동용, 단경호, 완(盥) 등의 유물 양상으로 보아 조성 시기는 기원 2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이 주거지 외부에서는 점토와 돌을 이용하여 만든 단순한 구조의 노지 2기가 확인되었는데, 내부에서 단조 박편(薄片)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주거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단야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대구 봉무동유적에서는 용해로와 관련된 폐기장, 단야로 각 1기가 조사되었으며, 수혈유구와 도로유구 등에서도 철광석, 송풍관, 주조팬이 등이 출토되어 일부는 제철 유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북동쪽으로 2.2km 거리에는 경주 용강동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154) 김권일, 2020, 『古代 嶺南地域 製鐵技術의 考古學的 研究』,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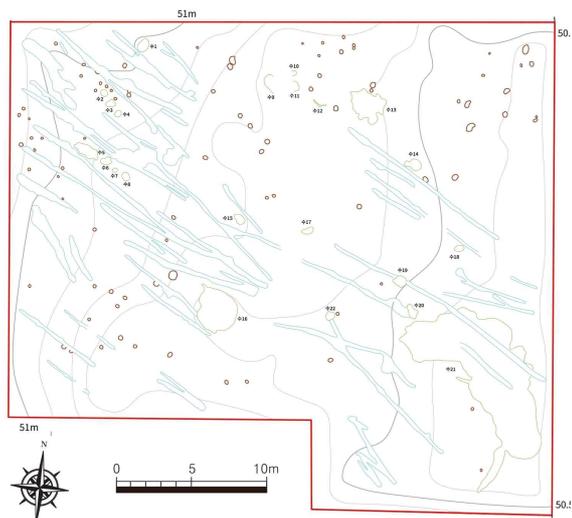
이 위치하는데, 용범 폐기장에서 비슷한 시기의 주조갱이 용범과 송풍관, 용도불명 용범, 철재 등 다량의 용해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월성해자 계림 남쪽에서도 추정 단야로와 모랫돌, 철재, 철괴 등 단야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었다.¹⁵⁵⁾

최근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 I-1구역에서도 제철유구가 확인되었다. 제철유구는 선상지의 선정부와 선양부의 평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조철부를 생산한 용해로 8기가 조사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시료분석에서 비소(AS)가 검출되어 철광석 원료는 달천 광산에서 공급받았고, 조성 시기는 B지구 2호 제철유구 내부의 목탄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기원 2세기 후반에서 3세 전엽으로 추정하였다. 이 제철유구의 남쪽 구릉에는 동시기로 추정되는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고분군을 조성한 사람들과 철제품을 생산을 하던 사람들은 동일한 집단에 속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 인근에는 백탄 가마 38기가 조사된 천군동유적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곳에 생산된 목탄으로 철제품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⁵⁶⁾

한편, 울산지역에서도 IV기(기원 3세기 후엽~4세기 전엽)에는 앞 시기에 보이지 않는 철 생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울산 중산동 798-2유적의 수혈에서는 단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식 노와 철 제작과 관련된 다량의 할석들과 철광석, 용범편, 슬래그 등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확인된 철광석은 성분분석을 통해 비소가 검출되어 당시 이곳이 달천 광산에서 원료를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제련로와 용해로와 관련된 직접적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곳과 200m 떨어져 있는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에서는 시굴 트렌치상에서 제련로로 추정되는 노벽이 확인되어 이 일대에 철 제작과 관련된 유구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2) 농경 관련 시설

삼한은 농경을 생업으로 하는 사회였으므로 농업생산력은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었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었다.¹⁵⁷⁾ 그러나 진한지역에서 농경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농경관련 유구는 II기에 해당하는 경산 중산동 200번지유적에서 이랑밭으로 추정되는 경작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경작유구는 고랑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를 띠고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두둑의 형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도면 4-2] 경산 중산동 200번지유적 경작유구

155) 김권일, 2020, 『古代 嶺南地域 製鐵技術의 考古學的 研究』,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32쪽

156) 대동문화재연구원, 2023, 「V. 고찰」,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Ⅱ』.

157) 이현혜, 2016, 「제 4장 진한연맹체와 사로국」, 『신라의 건국과 성장』 02, 경상북도, 126쪽.

동시기 경작유구인 마산 진동유적의 밭과 비교해 보면 정형성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유사한 형태로 보아 이랑밭으로 추정된다[도면 4-2].

그 밖에는 경주 인동리 670-1번지유적의 습지,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Ⅱ의 논유구, 경산 임당동유적의 저습지 등에서 자연과학적분석을 통해 재배 벼로 추정되는 단서가 확인되어 당시 논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농경과 관련한 자료가 매우 적으므로 고고 유물과 문헌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농경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먼저, 진한지역의 주 농기구는 철제농구일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철제괭이의 날인 주조철부는 영남지역에서 기원전 2세기에 출현하여 통일신라시대에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장방형은 제한적인 시기(기원전2~1세기)에만 존재하지만, 사다리꼴 모양(제형)은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영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인된다¹⁵⁸⁾. 그리고 철제 따비는 대부분 주걱형이며 경주 조양동, 황성동, 덕천리, 울산 하대 등 진·변한 각지의 목곽묘 유적에서 자주 출토된다. 황성동 철기 제작소에서는 기원 3세기에 들면서 주조괭이를 대량으로 생산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밭 개간을 촉진하고, 휴한 기간을 단축시켜 경작지를 확대시킨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목곽묘 단계에 이르면 U자형 철제 삽날과 쇠스랑이 등장한다. 나무삽이나 가래날의 가장자리를 5~7cm 너비의 철판으로 테를 돌려 보강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중국의 영향이다. 삽이나 가래는 흙을 파서 옮기는 도구로서 수로를 파거나 보수할 때 또는 논에 물을 넣거나 빼기 위한 물길을 터거나 막는데 주로 사용한다.¹⁵⁹⁾

또한, 대전에서 출토된 농경문청동기를 통해서 당시 농경의 양상과 농경의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농경문청동기는 출토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유물의 시기는 대략 기원전 4~3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유물의 한 면에는 오른쪽에 따비와 같은 도구로 정연하게 표현된 밭을 갈고 있는 남자와 괭이질을 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향아리에 무언가를 담은 사람이 표현되어 있다. 오른쪽 인물들은 봄의 수확 장면을 묘사하였고, 왼쪽 인물은 가을 추수의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비로 기경을 하고 있는 남성은 성기가 다소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머리에 새깃 장식의 표현이 있으며, 다른 한 면에는 솟대와 새가 그려져 있다. 솟대는 오늘날에도 농촌의 마을 입구에서 장승과 함께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청동기시대 이래 솟대와 관련된 농경의례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머리에 깃을 꽂고 따비로 나경(裸耕: 벌거벗은 상태에서 밭을 가는 행위)을 하는 인물상과 솟대, 그리고 새가 표현된 농경문청동기의 사례는 삼한의 농경의례와 새에 관한 신앙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에 깃을 꽂고 따비로 나경(裸耕)을 하는 인물상 아래에 표현된 밭은 '이랑'이 표현되어 있다. 진한지역에서 이랑밭은 앞서 살펴본 기원전 2세기대로 추정되는 경산 중산동 200번지유적에서 확인되었으나 다소 정형성이 떨어진다. 청동기시대이긴 하지만 진주 대평리 어은 1·2

158) 김호상, 2011, 「신라 형성기의 생산유적」,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7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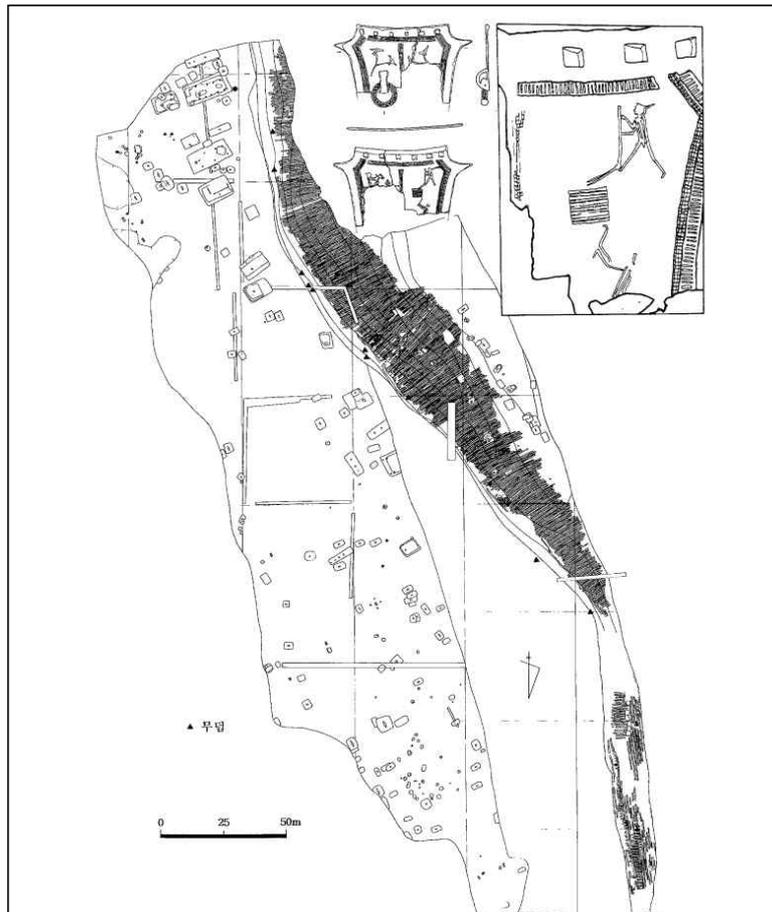
159) 이현혜, 2016, 「제 4장 진한연맹체와 사로국」, 『신라의 건국과 성장』 02, 경상북도, 127~128쪽.

지구에서 확인된 밭이 좋은 참고가 된다[도면 4-3].

3) 수공업 관련 시설

고고 자료에서 수공업과 관련한 생산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산 임당 유적의 저습지에서 도가니, 철제집게 등의 철기 생산 관련 유물과 갑옷을 만들던 목형, 그리고 베틀 부속구 등의 유물이 확인되는 점에서 철기와 목기 생산 공방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아래 『삼국지』 위서 동이전 기록에서는 마을 단위에서의 농업과 비단과 관련된 직조 수공업이 있었던 기록이 전해진다.



[도면 4-3] 농경문청동기와 진주 대평리 어은 1지구유적(주거지 및 밭 경작유구)[이상길 2000]

그 백성은 土著生活을 하고 곡식을 심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綿布를 만들었다.¹⁶⁰⁾

土地는 비옥하여 오곡(五穀)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 비단과 베를 짤 줄 알았으며, 소와 말을 탈 줄 알았다.¹⁶¹⁾

또한 삼한시대부터 삼(麻)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삼베를 짜서 의복을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제경에 부착되어 있는 마포의 흔적과 『삼국사기』 유리왕 9년(BC 32년)에 두레 길쌈의 풍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¹⁶²⁾

그 밖에 생산시설로는 경주 황성동유적(Ⅱ나-13호 토기요),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

160) 其民土著, 種植, 知蠶桑, 作綿布. (『三國志』 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韓)

161)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乘駕牛馬. (『三國志』 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弁辰)

162) 김호상, 2011, 「신라 형성기의 생산유적」,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7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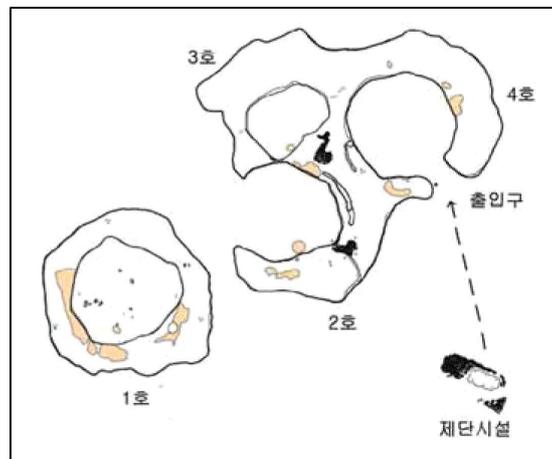
에서 토기 가마가 소수 확인되었다. 생활유구와 분묘에서 확인되는 와질토기 수량에 비해 토기 가마의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아 토기 생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자료 증가를 기대한다.

2. 의례시설

삼한 시기의 의례(‘제의’, ‘제사’)는 개인→가족(주거지)→혈연(주거군)→집단(취락)→단위체(읍락)→소국과 같은 단계에 따라 개인 단위의 의례로부터 사회 단위의 의례까지 다양한 종류의 의식 행위들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⁶³⁾ 진한지역에서 취락내 의례와 관련한 시설은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일부 주구형유구(週溝形遺構) 및 제단시설, 환호(環濠), 입주수혈(立柱竪穴), 저습지(低濕址) 등에서 의례와 관련된 양상들이 확인되었다.

1) 주구형유구(週溝形遺構) 및 제단시설

주구형유구 및 제단시설은 I기에 해당하는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이 유구는 취락내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구릉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거지, 수혈 등의 생활 영역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취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먼저, 주구형유구는 4기가 확인되었는데, 형태는 구와 원형의 중앙부로 나뉜다. 2호~4호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가운데 4호 주구는 단절된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일 가능성이 있다. 주구형유구 내부에는



[도면 4-4]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주구형 유구 및 제단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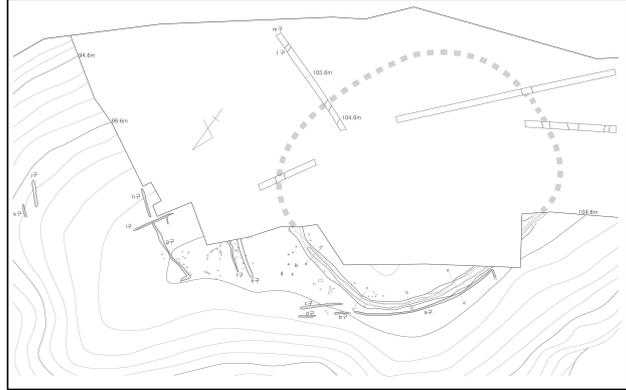
소토와 적석(積石) 양상이 확인된다. 그리고 주구 내부의 중앙부에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으며, 2호와 4호 주구형유구와는 인접하여 의례와 관련된 제단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제단시설은 크고 작은 암반석을 이용해 만든 세장방향의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제단시설은 4호 주구형유구의 출입 시설로 보이는 단절된 구간과 마주하고 있다. 4기의 주구형유구의 성격은 잔존 형태와 입지, 그리고 인접하여 제단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도면 4-4].¹⁶⁴⁾

163) 이영철, 2014, 「고대 취락의 제사」,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93쪽

164) 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V. 고찰」,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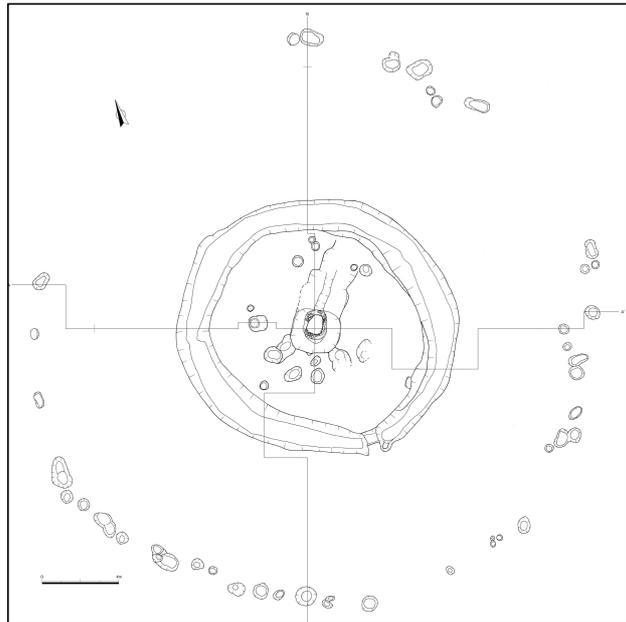
2) 환호(環壕)

일반적으로 환호가 담당했던 기능은 방어, 상징적 경계, 의례장소 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산 임당유적과 울산 교동리 192-37유적에서 조사된 환호는 방어보다는 의례의 기능에 더 가까워 보인다. 경산 임당유적에서 환호는 임당 토성이 축조된 구릉과 북편으로 마주하는 야트막한 구릉에 위치하며, 동-서 방향의 2열로 나란하게 설치된 이중 환호의 형태를 하고 있다. 환호의 평면형태는 호상(弧狀)이며, 규모는 내환호(북쪽)가 (현)길이 100m, 너비 1~2.5m, 깊이 1~1.5m이고 단면은 'U자형이다. 외환호(남쪽)의 규모는 최근에 조사된 경산 임당동 207-1번지유적의 조사성과를 반영하면 (현)길이 125m, 너비 1.5~3.2m이며, 단면형태는 내환호와 동일하다. 환호의 조성 시기는 원형과 삼각형점토대 토기가 공반된 양상으로 미루어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되며, 하한은 환호 상부에 조성된 주거지의 연대로 보아 기원 2세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당유적에서 환호의 기능은 일부만 확인되어 전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지만, 환호 내·외부에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점, 환호의 입지가 취락내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환호 내부가 협소한 점, 방어기능과 관련된 시설인 토루(土壘)나 목책(木柵)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서 당시 임당 취락의 공동 의례 공간으로 추정된다.¹⁶⁵⁾



[도면 4-5] 울산 교동리 192-37유적 환호

울산 교동리 192-37유적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 유물과 와질토기가 공반되는 기원전·후의 시기의 환호가 확인되었다[도면 4-5]. 환호는 구릉 능선부에 설치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말각 방형으로 전체 길이가 190m로 추정된다. 환호 외곽으로는 폭



[도면 4-6] 경주 나정유적 입주 의례 관련 수혈 및 환호

165) 우병철 · 김민철 외, 2010, 「V. 고찰」, 『경산 임당동 환호유적』, 영남문화재단연구원, 206~208쪽
하진호, 2012, 「임당유적 취락의 형성과 전개」, 『영남문화재단연구』 25, 영남문화재단연구원, 105~107쪽

30~90cm의 구(溝)가 여러 겹 둘러싸고 있다. 환호의 기능은 내부 공간이 환호 면보다 높은 점, 주거지가 설치되지 않은 점,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는 점 등을 통해 경산 임당 환호처럼 방어보다는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도면 4-5].¹⁶⁶⁾

3) 입주수혈(立柱竪穴)

입주 의례(제사)는 솟대와 같은 기물이나 대목(大木) 등을 세운 일종의 성역(聖域)에서 취락 구성원들이 모여 치른 제사를 의미한다. 솟대는 한자식으로 표현한다면 소도(蘇塗)가 되는데,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소도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 귀신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입주수혈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다. 입주 제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물 확인이 쉽지 않겠지만, 기둥을 세운 주혈이 확인될 경우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¹⁶⁷⁾

이러한 『삼국지』 위서 한조에 기록된 소도에서 치러지는 입주 의례의 전통은 마한을 비롯하여 진·변한지역 즉, 삼한 전체에 해당하는 공통된 사실일 것이라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 듯하다.¹⁶⁸⁾ 입주의례와 관련된 시설은 청동기시대 진안 여의곡과 김해 율하리유적 등 분묘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입주 의례가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원초적인 입주 의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¹⁶⁹⁾ 마한지역에서는 고창 만동고분, 나주 용호고분, 광주 동림동 취락유적 등 취락내 다양한 공간에서 확인된다. 입주 의례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물 확인이 쉽지 않겠지만, 취락내 기둥을 세운 주혈이 확인될 경우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¹⁷⁰⁾



[도면 4-7] 경주 나정유적 수혈 내 기둥 초석(礎石)시설

진한지역에서는 경주 나정유적, 울산 교동리유적, 경산 임당유적, 대구 신서동유적에서 입주 의례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었다.

166) 이수홍, 2010,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취락」, 『마한·백제 사람들의 주거와 삶』, 중앙문화재연구원 창립 10주년·국립공주박물관 개관 70주년 기념도록.

167) 이영철, 2014, 「고대 취락의 제사」,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02쪽

168) 주보돈, 1995, 「삼한시대의 대구」, 『대구시사』, 제1권 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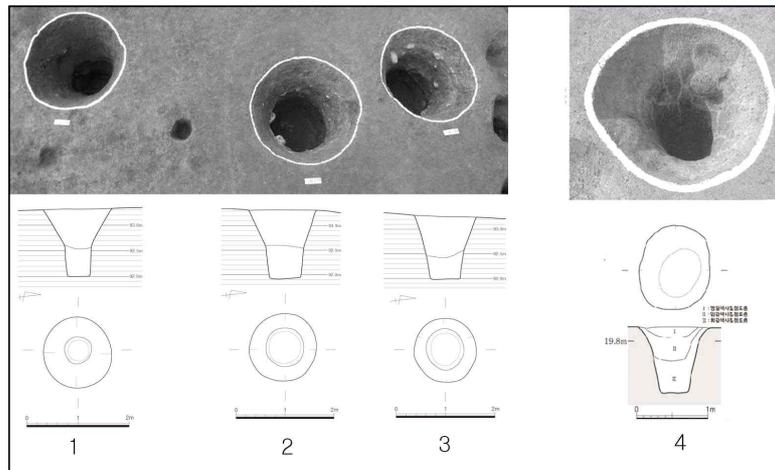
169) 이종철, 2018, 「입주목·솟대 제의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시론」, 『한국고고학보』 제106집, 한국고고학회.

170) 이영철, 2014, 「고대 취락의 제사」,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02쪽

먼저, 경주 나정유적에서는 4차에 걸친 발굴조사 중 1차 시설에서 수혈유구 1기, 구상유구(환구) 1기, 주혈군 1기, 목책시설 1기가 조사되었다. 수혈 내부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편, 두형토기, 곡옥, 유리구슬, 숫돌 등이 출토되었다. 구상유구는 중앙 수혈유구를 중심으로 사방 외곽으로 5m 떨어진 지점에 평면 원형으로 둘러져 있다. 규모는 너비 2m, 최고 깊이 1.5m 내외로 단면형태는 'U'자상이며, 중앙 수혈유구를 중심으로 직경이 약 14m 내외이다[도면 4-6]. 구상유구(環溝)는 안성 반제리유적에서 조사된 환호유적과 같은 제의적 성격의 유구로 추정되며 환호 주변으로는 목책이 둘러져 있다. 환호 안 중앙부에 위치한 수혈유구는 평면형태가 올챙이와 유사하며 단벽(短壁) 쪽에 치우쳐 큰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둥 구멍이 확인된다. 바닥에는 기둥을 받쳤던 것으로 추정되는 타원형의 판석(板石)이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도면 4-7].¹⁷¹⁾

울산 교동리유적에서는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126~128호, 183호, 261호 수혈이 확인되었다. 이 수혈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굴착 단면은 'U'자형과 'Y'자형이다. 규모는 직경 113~135cm, 깊이 80~160cm이다. 이 수혈은 저장공보다는 나무를 세운 기둥 구멍에 가까워 보이며, 취락내 공지나 비교적 유구의 빈도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도면 4-8].

이러한 울산 교동리유적의 수혈 형태는 광주 동림동유적에서 확인된 입주(立柱) 의례로 추정되는 수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 동림동 취락은 수혈 주거군과 지상식 건물군으로 구분되는데, 지상식 건물군 내에 평면 원형에 직경 126cm, 깊이 106cm 규모의 수혈(I 구역 12호 수혈)이 존재한다. 보고에 의하면 이 수혈의 용도는 토층 양상을 고려하여 화장실로 추정하였다.¹⁷²⁾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이 수혈의 용도를 환상(環狀)의 열을 이루는 지상식 건물지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굴착 단면이 수직의 'U'자형을 이루고 있는 점, 토층 가장 하단인 III층에서 나무의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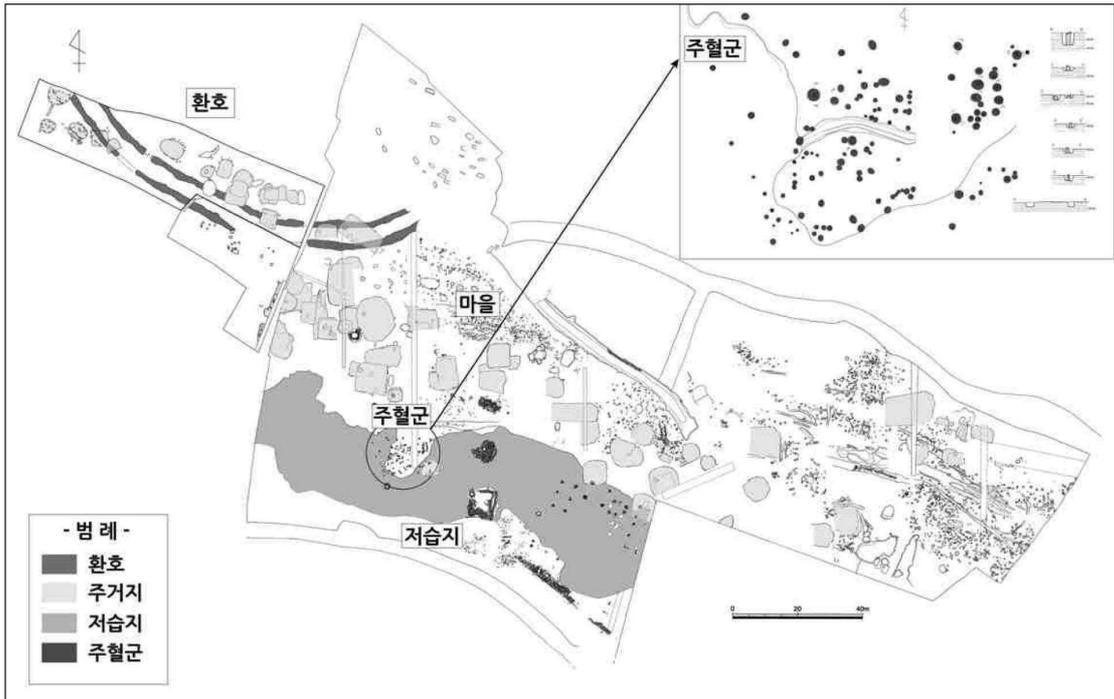
[도면 4-8] 울산 교동리유적(1~3: 126~128호)과 광주 동림동유적(4: I-12호)의 입주수혈

기물로 추정되는 회갈색 진흙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대목(立大木)·숫대제의(祭儀)와 관련된 입주수혈(立柱豎穴)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¹⁷³⁾ 이 선행연구를 참고해 볼 때, 울산 교동리유적의 126~128호, 183호, 261호 수혈의 용도는 광주

17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VI. 고찰」, 『경주 나정』.
 17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 유적IV-수혈, 지상건물지, 토광, 목조물, 정-』.
 173) 이종철, 2018, 「入大木·숫대 祭儀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試論」, 『한국고고학보』 106, 한국고고학회, 17~18쪽

동림동유적에서 확인된 I-12호 수혈과 유사한 점에서 저장공보다는 입주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판단된다.

경산 임당유적의 저습지에서 입주 의례와 관련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임당 저습지는 I 지구 주거지군 남쪽 경사면 아래에 동-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저습지 내부



[도면 4-9] 경산 임당 저습지유적 주혈군(이수정 2022)

에서는 4,462점의 유물이 대량으로 확인되었는데, 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토층 양상과 유물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저습지의 주 사용 시기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5~9층)는 후기와질토기와 고식도질토기가 공반되는 기원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중엽이며 치수용 제방이나 보를 설치하여 저습지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1~4층) 저습지 폐기 이후 시기로 기원 4세기 중엽에서~5세기 초에 자연 습지화된 것으로 보인다.¹⁷⁴⁾ 저습지 1단계 시기에는 I 지구 2단계 주거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 저습지 내부에서는 토기 및 토제품, 칠기류, 다양한 목기류, 농공구류, 갑옷을 만들었던 목형틀, 복골 등이 출토되어 당시 임당 I지구 취락민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저습지 내부에서 원반형(圓盤形) 토제품, 명기형(明器形) 토제품, 토구(土球), 복골(卜骨) 등 의례와 관련된 유물들이 대량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이 저습지 주변에서 수변(水邊) 의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산 임당유적 저습지 북쪽 중앙에 내부로 오목하게 돌출된 부분과 그 주변에 주혈군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솟대와 관련 짓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그 근거를 저습지 주변에 분포하는 주혈군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고, 주혈들 중에는 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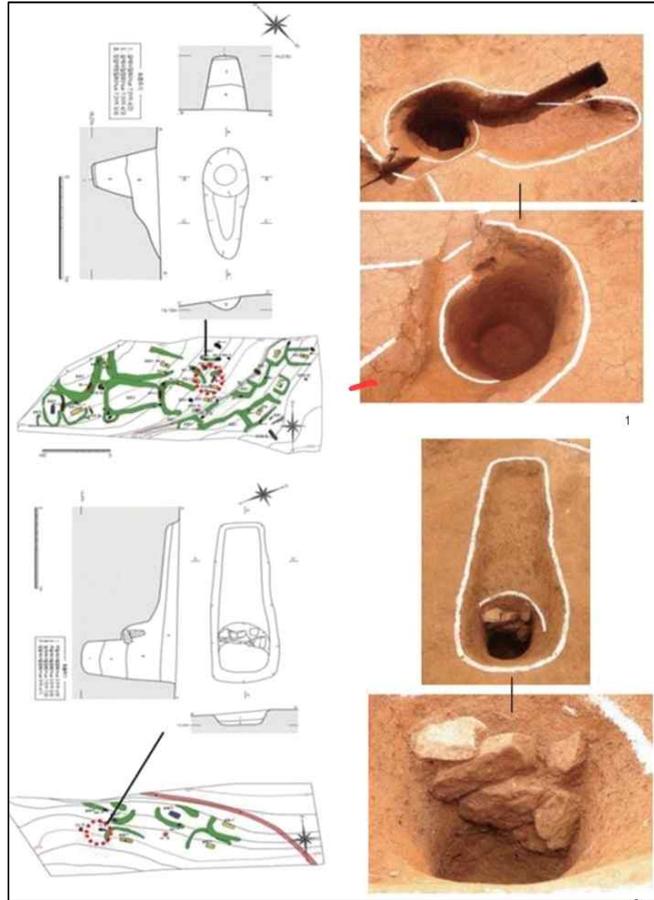
174) 이수정, 2022,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유물로 본 의례」, 『영남문화재연구』 32, 영남문화재연구원, 67쪽

80cm, 깊이 70cm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 것이 있는데, 이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 조에 나오는 나무(숫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도면 4-9].¹⁷⁵⁾ 그리고 저습지에서 출토된 조형토기(鳥形土器)를 숫대 위에 결구해서 사용했던 조형목기와 관련된 유물로 보았다. 이 저습지 주변에 분포하는 주혈은 나정유적과 교동리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입주수혈과는 형태와 규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저습지 내부에서 의례 관련 유물의 비율이 높은 점, 이곳이 마을 공동의 의례 공간으로써 상징성을 띠는 점, 건물지 등의 정형성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습지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주혈의 일부는 숫대와 관련된 입주목(立柱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구 신서동유적에서 확인된 7·8호 수혈유구는 형태가 울산 교동리유적과 광주 봉림동 취락유적과 유사하고, 바닥에서 목재흔과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입주수혈로 판단된다.¹⁷⁶⁾

한편, 입주 의례와 관련된 수혈은 마한지역에서 확인 사례가 많은데, 주거공간에서 확인된 입주수혈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타원형계이고, 단면형태는 상광하협(上曠下狹)의 ‘U’자형을 띤다. 반면 무덤구역에서 확인되는 입주수혈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 또는 올챙이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단면형태는 대목을 밀어서 세우는 과정에서 한쪽 짧은 변에 턱이 진 계단 형태를 띠게 된다[도면 4-10]. 입주 의례는 일반적으로 주거구역과 이격된 지형상 높은 지점, 주거구역과 무덤구역의 경계지점, 무덤구역의 중앙부, 개별 고분의 초입부 등으로 다양하게 확인된다. 입주 의례는 사회 구성원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의 기능과 더불어 주거구역 등의 공간배치의 단위가 된다.¹⁷⁷⁾

이처럼 마한지역의 입주수혈은 생활 공간과 매장 공간에 있어 형태가 차이가 있음



[도면 4-10] 마한지역 입주 의례 사례(해남 안호리 고분 2·3지점)[한옥민 2020]

175) 이수정, 2022,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유물로 본 의례」, 『영남문화재연구』 32, 영남문화재연구원, 74~76쪽

17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6, 「IV. 맺음말」, 『대구 신서동, 대림·사복동 유적/ 경산 평사리 유적』.

177) 한옥민, 2019, 「고고자료로 본 마한 의례」, 『삼한의 신앙과 의례』, 2019년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01, 국립김해박물관.

을 알 수 있다. 진한지역의 생활 공간에서 확인되는 입주수혈의 사례로는 울산 교동리유적, 경산 임당유적, 대구 신서동유적이 있다. 이 유적들에서 확인되는 입주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계이며, 단면형태는 상광하협(上曠下狹)의 ‘U’자형을 띤다. 울산 교동리유적에서는 1칸식과 2칸식 고상 건물지의 경계역과 유적 북서쪽의 광장으로 추정되는 공지에 입주수혈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경산 임당유적 I지구 취락에서는 저습지 주변에 입주수혈과 관련된 주혈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유적에서 확인된 입주수혈의 분포 사례로 볼 때, 공지, 저습지 주변 등 취락내 상징적인 공간에서 솥대와 같은 나무를 세워 놓고 마을 공동의 의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주 나정유적의 입주수혈의 평면과 단면형태는 마한지역의 무덤 공간에서 확인되는 형태와 매우 유사한 점에서 주목된다. 경주 나정유적은 시조 혁거세의 탄강지로 전해지는 곳으로 이와 관련된 우물(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이곳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신성한 성역(聖域)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주 나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이 유적의 성격을 건국 초기에 조성된 제의 시설로 보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 나정유적의 1차 시설은 시조 탄생설화의 우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천 고강유적, 안성 반제리유적과 같이 제의 관련 시설로 볼 수 있는 유구 조합을 이루고, 동시기의 부속유구에서 수습된 두형토기 등 제사 용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출토 양상으로 보아 건국 초기에 조성된 제의시설로 추정하였다. 시조묘가 나정유적이 아닌 주변의 다른 곳에서 확인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겠지만, 건국 초기 국읍으로 상정되는 건국 세력의 근거지에 속한 나정에 제의 공간을 조성하고, 환호와 목책으로 구획된 원형의 신성 공간 내부에 특수 목적의 구덩이를 마련하여 제사 지냈다는 점에서 나정의 1차 제의시설이 갖는 당시 정치·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았다.¹⁷⁸⁾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록에 의하면, 남해왕 3년(기원 6년)에 경주 나정에 박혁거세의 시조묘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온다. 나정유적이 시조묘가 있었던 자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 이곳이 중요한 상징적 공간이었음은 분명하다. 아울러 나정유적의 1차 시설에서 확인된 입주수혈의 형태가 마한의 분묘 주변에서 확인되는 입주수혈의 형태와 유사한데, 이는 이곳의 의례 형태가 생활 영역에서 치러진 의례 형태와 차이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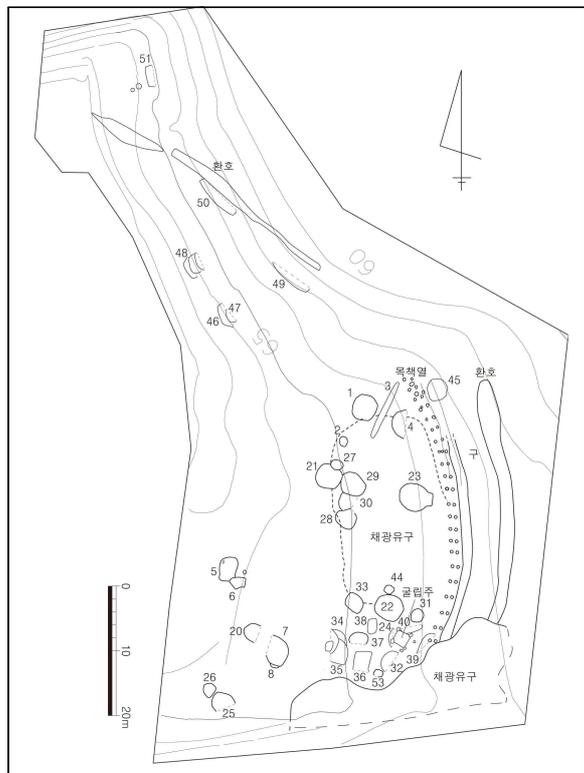
Ⅲ-1기(기원전 1세기대)의 울산 교동리유적 중앙 남편 곡부 쪽에 설치된 14호 구(溝)는 북쪽으로 60m 정도 이격된 곳에 수장층으로 추정되는 1호 목관묘가 단독으로 위치해 있고, 구(溝) 내부에 다량의 유물과 목탄이 매몰되어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이곳에서 매장 의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178) 황인호, 2022, 「신라 도성 내 국가제의 공간 연구 - 경주 나정 유적을 중심으로 - 」, 『신라사학보』 56, 신라사학회, 87~91쪽

그리고 Ⅲ-1기(기원전 1세기대)의 울산 달천유적에서는 남쪽 환호의 가장 위쪽에 유물이 다량으로 폐기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한 곳에서 철광석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양상은 단순 폐기가 아닌 이곳에서 의례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환호 내부에서 철광석이 토기 못지않게 의례의 기물(器物)로 사용된 것은 달천 취락 구성원들이 이 자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3. 방어 · 경계 시설

취락내 방어 및 경계(또는 구획)와 관련된 시설로는 환호와 목책, 그리고 구(溝)가 있다. 기원전 1세기 전엽에 형성된 울산 달천유적의 환호는 남서편 일대가 유실되어 주거지와 수혈 아래쪽에 호상(弧狀)의 형태로 일부만 잔존한다. 환호 안쪽으로 약 5m 떨어진 곳에 구와 2열의 목책열이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달천유적 환호의 용도는 내부에 주거지와 수혈들이 설치되어 있고, 환호 안쪽으로 구와 2열의 목책열이 설치된 것으로 미루어 취락민과 내부시설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4-11].



[도면 4-11] 울산 달천유적 환호

Ⅲ-1기(기원전 1세기)와 IV-2기(기원 3후엽~4세기 전엽)의 교동리유적에서는 구 15기와 목책열이 확인되었다. IV-2기에 조성된 목책열은 유적 북쪽 구릉 사면부와 서쪽 구릉 평탄부 및 사면부에 설치되었다. 북쪽 구릉 사면부에 설치된 목책열은 'L'자의 형태를 띠며, 일부는 5호 구(溝)를 따라서 등고선과 직교되게 설치되었다[도면 5-4 · 6 참조]. 울산 교동리유적에서 확인된 구와 목책열은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14호 구(溝)를 제외하면, 대체로 취락의 경계 및 구획 등을 위한 용도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산 임당유적에서는 F지구, G지구, I 지구 등에 걸쳐 조성된 토성(土城)이 발굴조사되었는데, 이는 대략 4세기를 전후하여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토성 바닥면에서는 23기의 주혈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토성 초축(初築) 이전 목책 열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¹⁷⁹⁾

179) 김권구, 2016a, 「영남지역 읍락의 형성과 변화-경주 · 경산 ·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

그 밖에 시설로는 수혈, 유로(流路) 등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수혈은 지면에서 수직으로 굴착한 형태의 유구를 통칭하며, 주거지나 분묘처럼 내부 시설과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용도와 성격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수혈유구는 분포 양상과 내부 잔존 시설, 그리고 출토유물 등에 따라 유구의 성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체 취락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현재까지 수혈의 용도에 관해서는 취락 내 다른 기반시설과의 배치, 내부 시설, 출토유물 등의 양상에 따라 의례 시설, 생산과 관련된 작업시설(공방지), 저장시설, 토취장, 폐기장, 운반(유통)시설 등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¹⁸⁰⁾ 주거지와 지상식 건물지가 확인된 곳에서는 수혈의 분포 비율이 높은데, 이는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폐기장, 저장시설, 토취장(土取場) 등 다양한 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4. 매장(埋葬)시설

취락내 주거지가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삶의 공간이라면, 분묘는 인간의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취락 내 매장시설인 분묘는 넓은 의미에서 취락의 한 범주에 들어가며, 당시 사람들의 종교성과 더 나아가 사회, 정치, 위계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취락의 중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분묘는 당시 매장관념이 물질화로 표현된 것이며, 여기에는 집단과 집단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위계가 반영되어 있다.¹⁸¹⁾ 지금까지는 대부분 분묘 주변에 주거지와 건물지 등의 취락 자료가 분포한다는 전제하에 당시의 읍락 구조, 국(國)의 형성과 발전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분묘의 규모와 내부 부장유물 등은 당시 취락의 위계와 성격 등을 유추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분묘를 주거지, 건물지 등의 자료와 함께 분석한다면 취락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진한지역의 분묘는 크게 옹관묘, 목관묘, 목곽묘가 확인되며, 시기에 따라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변화가 간취된다. 주로 초기에는 적석목관묘가 축조되다가 점차 순수 목관묘로 전환되며, 그리고 기원 2세기 후엽에 목곽묘가 출현하여 주류를 이룬다.

먼저, I기의 분묘는 경주 광명동 산81-1유적, 울산 상연암유적, 울산 두왕동·동백골 본동유적, 경산 중산동유적 등에서 확인된 옹관묘, 석곽묘, 적석목관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 분묘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단계 유물과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유

구』 82, 한국고대사학회, 172쪽

180) 김두철, 2000, 「제사고고학의 연구성과와 과제」, 『고고학의 새로운 지향』 제4회 부산북천박물관 학술발표회.

김성태, 2003,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수혈의 용도에 관한 일고」, 『영남문화재연구원』 16, 영남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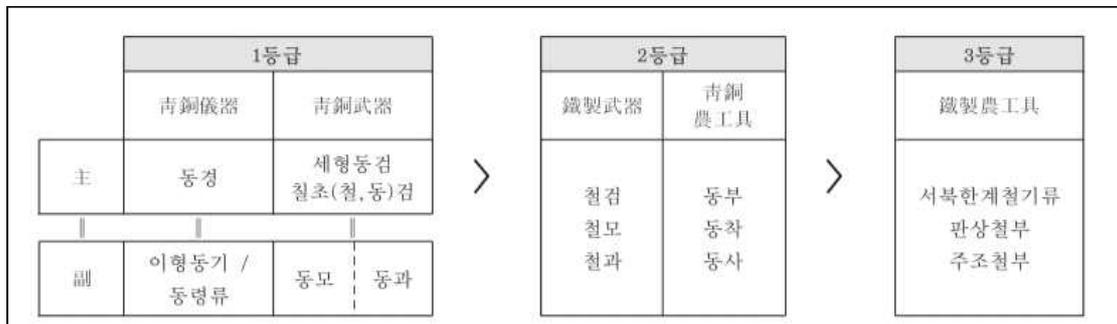
유병록, 2009, 「삼국시대 낙동강하류역 및 남해안취락의 특성」, 『영남지방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유병록, 2010, 「최근 성과로 본 영남지역 4~5세기 삼국시대 취락」, 『日韓聚落の研究』, 제4회 한일취락연구회 공동연구회.

181) 윤온식, 2016, 「2~4세기 경주지역 목곽묘의 위계와 시공적 변화」, 『야외고고학』 26, 70쪽

물들이 공반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는 새로운 문화와 재지 문화 간 공존 및 융합 양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석곽묘, 석관묘, 옹관묘 등의 축조 사례로 미루어 보아 여전히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된 묘제 문화가 강하게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Ⅱ기에는 Ⅰ기의 분묘 문화가 지속되면서 Ⅱ기의 늦은 시기로 갈수록 순수목관묘의 축조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Ⅱ, 울산 연암동·효문동 유적, 경산 경리 440-5번지유적 등에서 옹관묘 축조 문화는 지속되며, 경산 임당유적, 경주 하구리, 문산리 유적, 울산 신천동 586-6유적, 울산 중대유적, 울산 상안동고분군 Ⅲ 등에서는 소규모 단위의 목관묘 축조가 확인된다.



[도면 4-12] 목관묘유적 위신재의 분류(윤형준 2011)

한편, 삼한시대의 목관묘와 목곽묘의 부장 유물에는 크게 토기류와 금속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계층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위신재로는 금속류인 청동기와 철기류를 들 수 있다. 각 시기에 따라 유물의 조합상이 달라지는데, 삼한 전기의 목관묘 단계에서는 청동기와 철기 조합이 위신재로 부장되다가 삼한 후기의 목곽묘 단계에서는 청동기는 소멸되고 철기류로 대체된다.

윤형준(2011)은 목관묘 부장 위신재(威信財)를 크게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분류안을 참고해 볼 때, 가장 높은 등급의 위신재로는 동경, 세형동검, 칠초(鐵, 銅)검이 포함된 청동제 유물임을 알 수 있다[도면 4-12].¹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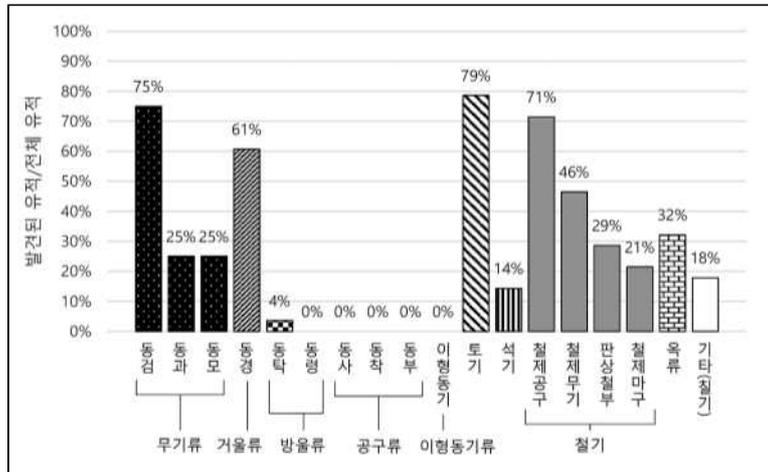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단계 구분은 동검(銅劍)의 형식 변화를 토대로 한다. 그 중 세형동검문화에 관한 연구는 동검과 공반된 유물 조합상을 근거로 단계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동검의 공반 유물 가운데 시간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동경(銅鏡)이다.¹⁸³⁾ 요녕지역의 청동기문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동경은 다뉴조문경(多鈕粗文鏡) 형태로 제작되다가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 다뉴세문경(多鈕細紋鏡)으로 변화되면서 세형동검을 비롯한 청동방울, 나팔형 동기 등 의기성 청동기와 함께 사용된다. 기원전 1세기대 이후 다뉴세문경은 점차 소멸되고 중국 한경(漢鏡)과 이를 모방한 방제경(仿製鏡)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한경은 중국에서 유입된 교역품으로 한반도에 유통되며, 당시 지배층이나 수장들은 권위와 신분의 상징물로서 소유하게 된다.¹⁸⁴⁾

182) 윤형준, 2011, 「목관묘 등급을 통해 본 삼한 전기 계층사회」, 『고문화』 7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22쪽

183) 김효정, 2021, 「세형동검문화 청동기기의 의미 복원 연구」, 『고고광장』 28, 부산고고학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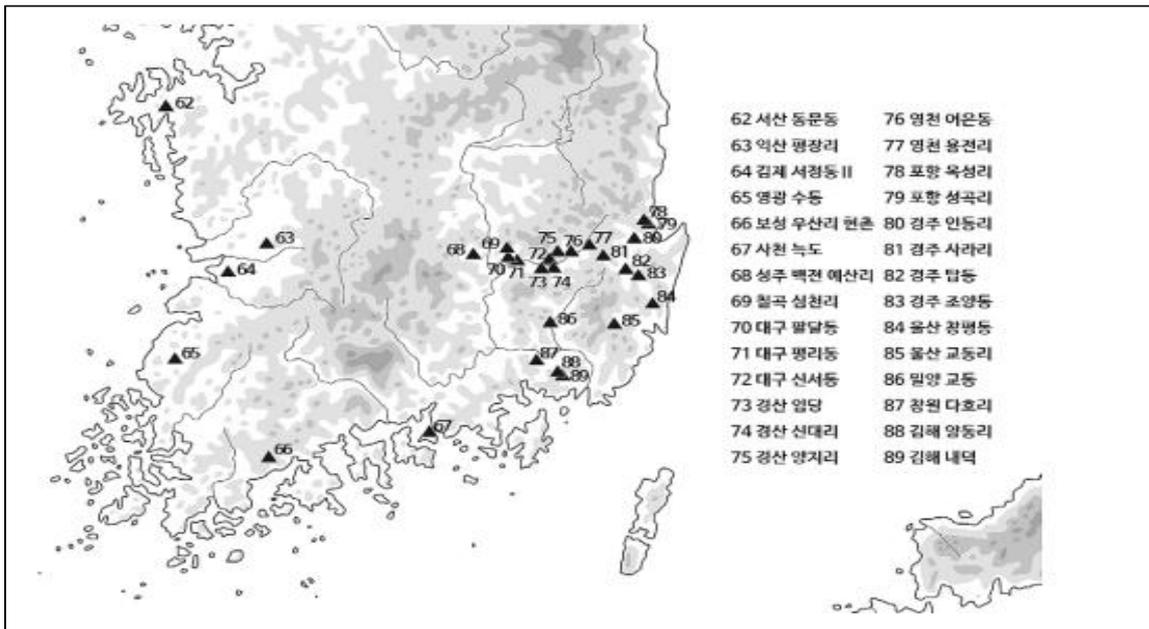
184) 복천박물관, 2009, 『신의 거울 동경』, 2009년 복천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뉴 조문경을 표지하는 청동 의기 출토 분묘유적은 한반도 중서부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검파형동기, 원개형동기, 나팔형동기, 방패형동기 등 이형동기와 함께 공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뉴세문경을 표지로 하는 청동 의기 출토 분묘유적은 한반도 중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도 전역 및 경상도 일부까지 세



[도면 4-13] III기(한경 및 방제경) 분묘유적 부장 유물 출토율 (김효정 2021)

형동검문화가 확산된다. 이 시기에는 간두령, 쌍두령, 팔주령 등 한반도의 독자적인 동령류가 등장하며, 새로이 전국계 주조철부와 철착, 철사, 철검 등 주로 농공구류의 철기류가 부장된다. 한경 및 방제경을 표지로 하는 청동 의기 출토 분묘유적은 중심지역이 한반도 동남부지역으로 이동하며, 세형동검문화의 청동기 조합은 축소된다. 대신 앞서기에 농공구류가 부장되었던 철기의 경우는 무기류가 부장되기 시작하고, 부장량이



[도면 4-14] III기(한경 및 방제경) 청동제 의기 출토 분묘유적 분포도(김효정 2021)

증가하여 청동기를 능가하게 된다[도면 4-13].¹⁸⁵⁾

변 · 진한지역에 다뉴경을 표지로 한 청동제 의기는 기원전 3~2세기대에 김해, 경주,

185) 김효정, 2021, 「세형동검문화 청동 의기의 의미 복원 연구」, 『고고광장』 28, 부산고고학연구회, 46~50쪽.

대구 등에 유입되기 시작하며, 진한지역에서는 현재 분묘에서 출토되기보다는 대부분 출토지가 불명확한 유물들이라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후 기원전 1세기 대에는 한경 및 방제경을 표지로 한 청동제 의기가 영남지방으로 확산됨을 알 수 있다. [도면 4-14]에 제시된 기원전 1세기~기원 2세기대 진한지역의 청동제 의기 출토 목관묘유적은 대구, 경산, 영천, 포항, 경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경 및 방제경은 대구지역의 팔달동유적, 경산지역의 임당, 신대리, 양지리 유적, 영천지역의 어은동, 용전리 유적, 포항지역의 성곡리유적, 경주지역의 탑동 21-3·4번지, 사리리 유적, 울산지역의 창평동 810번지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¹⁸⁶⁾ 대체로 동경을 포함한 청동제 의기가 출토된 분묘유적은 부장품의 질과 양이 탁월한 점에서 당시 최상위 계층의 묘로 추정된다.

이처럼 진한지역의 III기에는 경주 조양동유적, 대구 팔달동유적 등에서 규모가 큰 목관묘군이 확인된다. 이 시기부터 목관묘의 균집화 양상이 확인되며, 입지와 출토유물에 있어 우월성을 보이는 유력자의 단독묘의 축조가 확인된다.

영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원전 1세기대의 목관묘가 발굴된 곳이 경주 조양동분묘군이다. 이 가운데 5호 묘가 적석목관묘의 구조를 보이며, 내부에서 흑도장경호, 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 주머니호, 두형토기, 철검, 철검, 주조철부, 판상철부, 철모, 환두도자, 소형 동탁, 소문 다뉴경 등이 출토되었다. 5호 묘는 이른 시기 와질토기의 양상을 보여주며, 기원전 1세기 전엽으로 추정되는 소문 다뉴경은 이 시기 목관묘 편년의 중요 지표가 되고 있다. 조양동 38호 목관묘에서는 기원후 1세기 후엽으로 추정되는 전한경 4점과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 등의 전기와질토기, 검파두식, 소형 동환, 철검, 철사, 판상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전한경은 중원에서 제작되어 서북한을 경유하여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세품으로, 이를 부장하였다는 사실은 당대 한군현 집단에 대한 교섭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⁸⁷⁾

경주지역 외에 전한경을 부장한 사례는 울산 창평동 810번지유적, 경산 하양 양지리 유적이 있으며, 발굴자료는 아니지만, 대구 지산동에서 일광경(日光鏡)과 소명경(昭明鏡)이 출토된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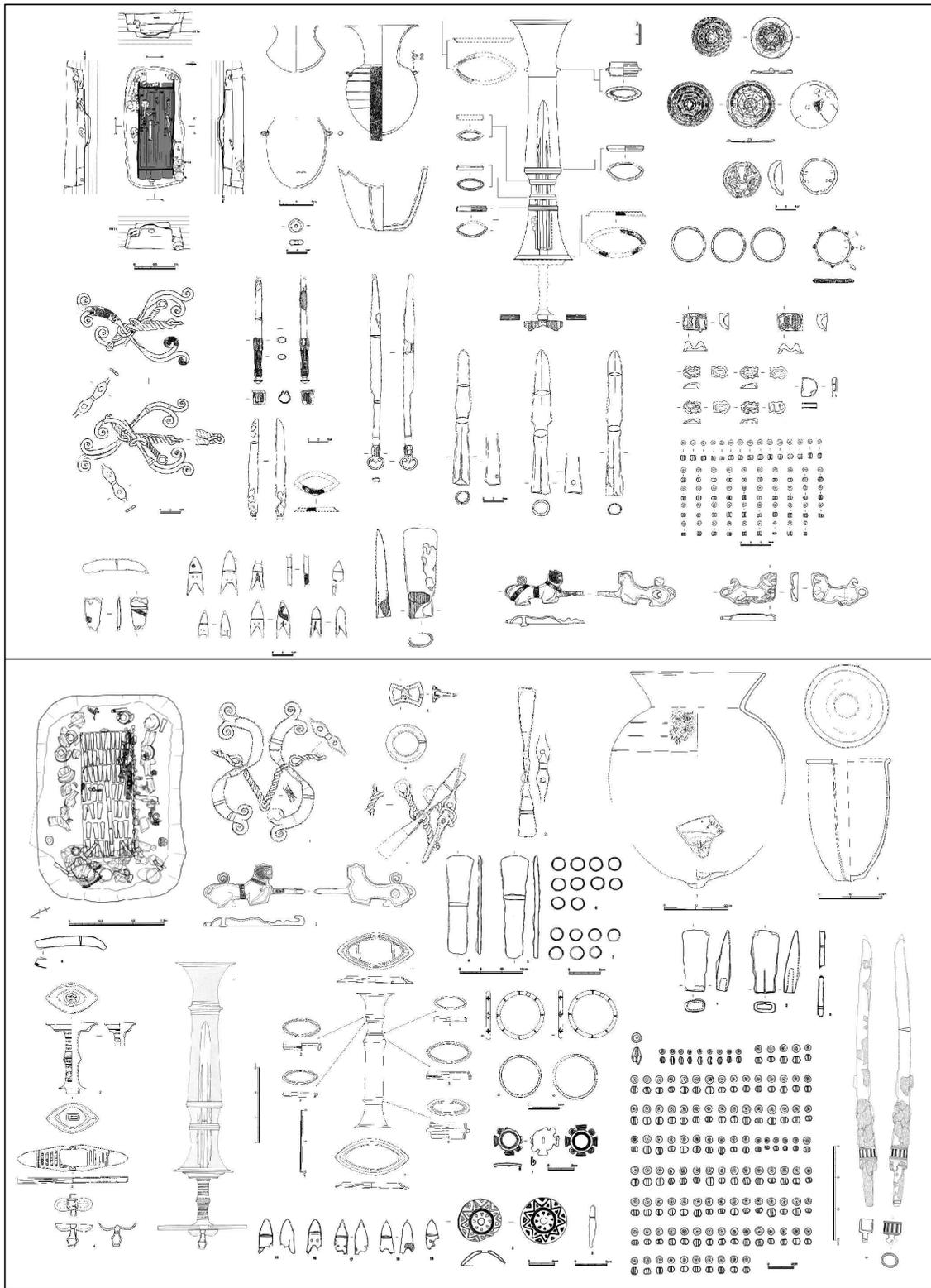
경산 하양 양지리유적에서는 6기의 목관묘가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1호[도면 4-16]는 바닥에 요갱이 설치된 통나무 목관을 사용한 묘이다. 내부에서는 기원전 1세기 후엽으로 추정되는 전한경(前漢鏡)3, 동탁1, 칠초동검2, 칠초철검2, 칠초동모2, 동과초1, 호형대구1, 유리제경식, 철검(45점), 주머니호1, 파수부장경호1 등 총 91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피장자의 지위가 당시 상위 지배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울산 창평동 810번지유적 2호 목관묘에서는 기원전 1세기 후엽의 전한경을 비롯하여, 청동제 검파두식을 갖춘 철검, 재갈 등의 마구류 등이 출토되어 당시 울산지역에서 위계가 높은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된다.¹⁸⁸⁾

186) 국립청주박물관, 2020, 『한국의 청동기문화 2020』, 2020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도록, 300쪽

187) 이청규, 2022, 「사로국의 고고학적 기원: 무덤을 중심으로」, 『경주 탑동유적을 통해 본 사로국과 신라』, 2022년 소규모국비지원 발굴조사성과 학술대회, 한국문화재단,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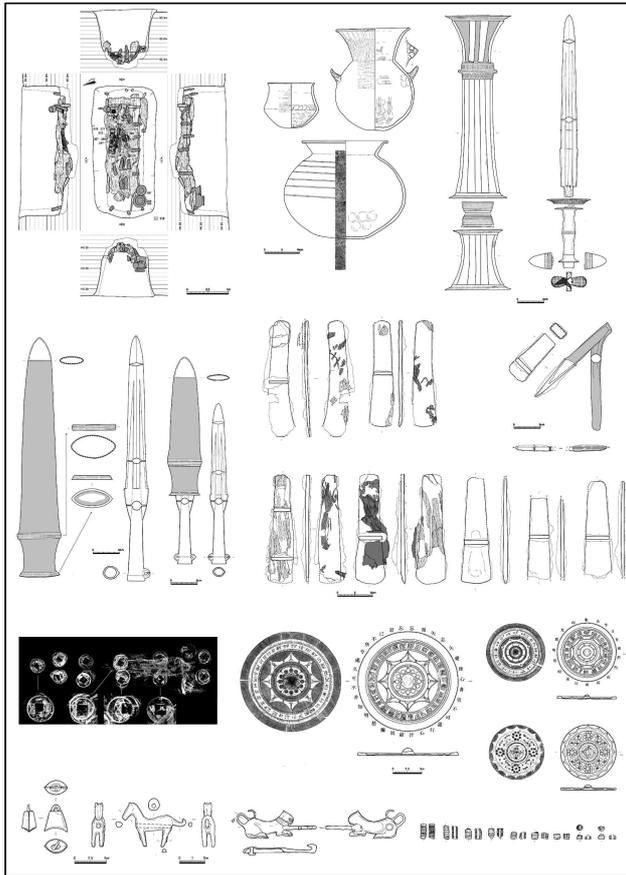
188) 이양수 · 김지현, 2012, 「V. 고찰-울산 창평동 810번지 유적 2호 목관묘 출토 한경에 대하여



[도면 4-15] 경주 탑동 21-3 · 4번지 1호묘(1)와 사라리 130호묘(2)

대구 팔달동유적은 기원전 1세기대부터 대규모 목관묘군이 군집으로 축조되기 시작하며, 45

- J. 『울산 창평동 810번지유적』, 울산광역시 · 우리문화재연구원.



[도면 4-16] 경산 하양 양지리 1호 목관묘

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체로 20기 내외로 확인되며, 무덤 간 중복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경산 임당유적, 대구 팔달동유적처럼 큰 군집을 이루면서 활발히 조성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기원 1세기 후반에 최상위 수장층 목관묘로는 경주 대천 서면 지구의 사라리 130호묘와 경주분지 내에서 확인된 탑동 21-3·4번지 1호 목관묘가 있다. 사라리 130호묘[도면 4-15-2]는 묘광의 면적이 7.6㎡로 다른 목관묘에 비해 묘광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목관묘 내부에서는 청동기 51점, 철기 116점, 토기 9점, 유리 옥 및 수정 옥 1련 등 177점이 출토되었다. 이 출토유물 가운데 세형동검, 철검, 청동 거울, 70매의 판상철부, 그리고 철제 마구와 옥 장신구는 피장자가 지배자임을 보여주며, 철복, 'S'자형 표비를 포함한 마구류, 방제경 등의 외래계 유물을 통해서 대외 교역에도 관여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경주분지 내에서 확인된 탑동 21-3·4번지 1호 목관묘[도면 4-15-1]에서는 일광경(日光鏡), 방제경, 주머니호, 호형대구, 세형동검, 철제재갈, 철복, 철검, 철부 등의 위계가 높은 위신재와 대외 교역과 관련된 유물들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주 사라리 130호묘는 탑동 21-3·4번지 1호 목관묘 보다 무덤의 규모와

호와 100호 목관묘에서 1등급 위신재인 세형동검과 함께 2·3등급의 철제 무기류와 철제 농공구류 등이 다량으로 부장되는 점에서 상위 지배층의 존재를 암시한다.¹⁸⁹⁾

울산 교동리유적의 목관묘는 8기가 확인되었는데, 1호 목관묘는 2~8호 목관묘와 떨어져 유적 중앙의 능선 최상부 평탄지에 단독으로 위치해 있다. 1호 목관묘는 출토유물에 있어서도 다른 목관묘와 차이를 보이는데, 목관 상부와 묘광 사이에서 기원전 1세기 전엽으로 추정되는 삼각형점토대옹, 두형토기, 한국식동검, 동과, 동모, 환두도, 환두도자, 단·주조 철부, 원통형동기,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1호 목관묘는 부장품의 질과 양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당시 수장층의 묘로 추정된다.

기원 1세기대에는 목관묘가 취락 단위로 조성되어 고분의 규모가 커

189) 윤형준, 2011, 「목관묘 등급을 통해 본 삼한 전기 계층사회」, 『고문화』 7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부장유물 특히 철기 양에 있어서 우위를 보이는데, 이는 각각의 일정 지구 집단의 수장이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권력 기반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¹⁹⁰⁾

[표 4-2] 목관묘 부장유물과 상징적 표상(이재현 2016)

구분	부장유물	권력기반 및 상징적 표상
1부류	외래 수입품, 청동제 의기, 차마구류, 다량의 철기류	- 경제력, 사회관계, 정치력(군사) 과시 - 특별한 지도자, 능력(태양신의 대리자, 무력) - 조령신앙: 벽사 및 승천 기원
2부류	철제무기류와 농공구류를 비교적 다수 부장한 무덤	- 중간 정도의 경제력 - 조령신앙: 벽사 및 승천 기원
3부류	철기 및 청동 부장품이 없거나 소수(3점 이하)의 철기류를 부장한 무덤	- 낮은 수준의 경제력과 이념

이재현은 부장품의 질과 양을 권력의 기반과 관련지어 목관묘 시기의 무덤을 [표 4-2]와 같이 3개의 부류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진한지역 중 경주, 울산 지역의 목관묘 자료를 검토하였다. 경주의 목관묘는 동남부, 서남부, 서북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동남부지역의 1부류는 조양동 목관묘와 미발굴 자료지만 죽동리, 구정동, 입실리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조양동유적에서는 5호, 38호, 60호가 1부류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시기적으로 연속되고 있어 지위가 계승된다고 보았고, 당시 경주 동남부지역의 중심적인 취락으로 상정하였다. 경주 분지내 분포하는 서남부지역에서 1부류는 탑동, 사라리, 모량리 목관묘 자료로 보았다. 탑동 1호 목관묘와 사라리 130호의 경우는 부장유물이 동시기의 진·변한 무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지만, 앞뒤 시기에 이와 필적하는 유구가 없어 하나의 계층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경주 서북부지역에서 황성동과 하구리 유적은 2·3부류 속하며, 특히 황성동은 무덤의 수가 많아 큰 규모의 집단에 속하지만, 외래 위세품이나 청동기 등을 보유한 두드러지게 우월한 존재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목관묘 시기 경주지역은 계층분화가 매우 미약하며, 중심취락으로 추정되는 조양동유적에서만 1~3부류의 분화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다. 울산지역은 창평동 810번지, 중산동 542, 571-1, 장현동, 천곡동, 상안동 목관묘 자료를 통해 계층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창평동 810번지 2호 유적은 전한경 2면이 출토되어 1부류로 분류되지만 이후에 계승되는 무덤이 없어 하나의 계층으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2·3부류가 확인되는 장현동유적이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였고, 그 외 목관묘 유적들의 세력은 미약한 것으로 보았다.¹⁹¹⁾

이 선행연구를 참고해 볼 때, 진한지역의 1부류 목관묘는 경주 조양동, 탑동 21-3·4번지, 사라리 유적, 울산 교동리, 창평동 810번지 유적, 경산 임당, 하양 양지리 유

190) 장기명, 2019, 「철기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이청규, 2022, 「사로국의 고고학적 기원: 무덤을 중심으로」, 『경주 탑동유적을 통해 본 사로국과 신라』, 2022년 소규모국비지원 발굴조사성과 학술대회, 한국문화재단, 17쪽

191) 이재현, 2016, 「진·변한 ‘국’의 형성과 발전」, 『진·변한 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90~94쪽

적, 대구 팔달동유적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분묘를 중심으로 중심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목관묘 단계에서는 부장품에 있어서 개인 간에 차이를 보이지만, 무덤의 입지와 규모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계층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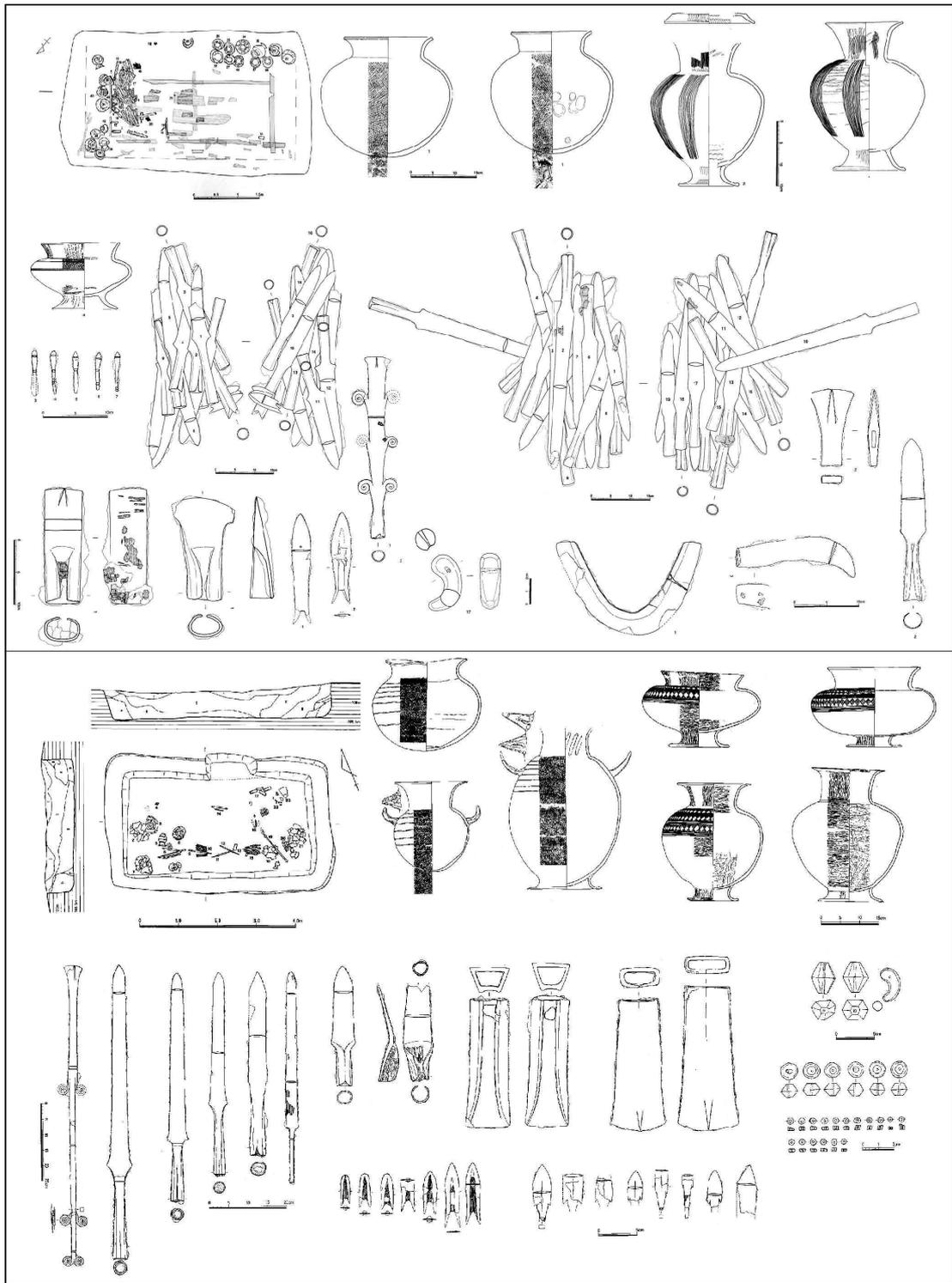
기원 2세기 후반대에는 진한지역에 대형 목곽묘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체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다. 목곽묘는 목관묘에 비해 묘광과 면적 등이 넓어지며, 유구의 수와 유물의 양이 증대된다. 부장품에서는 앞 시기에 유행한 청동제 의기류와 중국산 위세품이 거의 없어지고, 대신 껍수문을 장식하거나 크기가 장대(長大)한 철기가 유행하여 대형묘에 대량으로 부장되기도 한다.¹⁹²⁾

윤온식은 2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 진한지역 목곽묘에서 나타나는 위계의 변화를 추적하여 사로국의 성장 및 진한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로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목곽묘의 위계를 살피기 위해 부장품을 크게 착장형(칼과 검)과 보유형 기물(기본조합 철기류, 토기류 등 기타 선호 기물)로 구분하여 최고 위계 그룹(R, S, A)과 그 하위 그룹(B~E)을 설정하였다. 이 위계 구분을 토대로 경주지역과 주변 지역집단의 위계 변동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진한과 사로국의 관계에서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무덤 위계 변동의 큰 분기점을 기원 3세기 후반과 4세기 후반으로 보았다. 3세기 후반은 진한 중심지역의 대부분 집단에서 위계가 급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4세기 후반은 경주 도심 지구의 경우는 최상위(R, S, A그룹) 위계를 축조한 반면 그 나머지 집단은 B그룹 이하의 무덤을 제한적으로 축조한다 하였다. 그리고 2세기 후반은 후기 목관묘 단계에서 중심세력을 형성하였던 경산과 경주 지역의 일부 집단(사라리와 황성동 집단)의 세력이 급락한 반면, 중산리집단과 옥성리집단 등은 세력이 급성장한 것으로 보았다. 사로국이 3세기 후반에 진한 소국에서 독립적인 주장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A그룹 무덤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4세기 후반에는 사로국 국읍의 A그룹 무덤 중 일부는 위계가 격상되어 S그룹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사로국이 진한 통합을 마무리하고 초기 관료제를 갖춘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수준을 갖추는 등 질적인 변화를 도모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⁹³⁾

안재호는 울산 하대 목곽묘 집단의 사회적 위상을 검토한 연구에서 당시 사회 계층의 근거를 부장품보다는 분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묘광의 규모를 더 높은 수준의 속성으로 보았다. 즉 부장품은 피장자 혹은 그가 속한 가계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평균적인 부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묘광의 평면적으로 결정되는 봉분의 크기는 후세에까지 묘주(墓主)의 사회적 위계를 알리는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무덤의 입지와 위치, 조영 주체 등도 계층의 근거 중 하나로 보았다. 이 계층의 속성을 기준으로 하대유적과 주변지역의 목곽묘 자료와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묘광의 분류에서 대형분이 나타나는 유적은

192) 이재현, 2016, 「진·변한 ‘국’의 형성과 발전」, 『진·변한 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95쪽

193) 윤온식, 2021, 「지역과 지구별 집단의 위계 변동으로 본 사로국의 진한 통합」, 『야외고고학』 41, 한국문화유산협회, 37쪽



[도면 4-17] 포항 옥성리 78호 목곽묘(1)와 울산 하대 44호 목곽묘(2)

울산 하대유적과 경주 황성동유적임을 주목하였다. 유적에서 대형분의 조영은 정치체가 사회정치적으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소국내에서 국읍 또는 읍락에 속하는 것이라 하였다. 묘광(墓廣)과 출토유물의 양상 등을 고려해 볼 때, 목곽묘 전기에는 하대 사회가 울산-경주권역에서는 발달된 사회였으며, 목곽묘 후기에는 황성동 사

회가 우위를 차지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정치체간의 계층적 구조였다고 해도 각 정치체는 독립적이고, 때로는 연합적인 관계로 보았다.¹⁹⁴⁾

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목곽묘 사회는 목관묘 사회와는 달리 계층화가 현저히 나타나고, 계층의 속성에 있어서 부장품뿐만 아니라 묘광의 규모와 입지 등에서도 차별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원 2~3세기대 진한지역에 조성된 중심 고분군은 해당 지역의 권력자나 지배층의 매장시설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분군은 당시 사회에서 정치·문화 등의 중요한 경관을 형성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중심 고분군으로는 울산 하대유적, 포항 옥성리고분군, 경주 덕천리유적 등이 있다.

울산의 하대유적에서는 유물의 수량이 풍부한 대형 목곽묘가 많이 확인되었다. 특히 44호 목곽묘[도면 4-17-2]는 대형분으로 구릉 능선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전기와질토기 기종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후기와질토기 기종인 노형토기, 대부광구호, 유자이기, 철모, 철부 등 다양한 기종의 토기류와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또한 하대 23호 대형 목곽묘는 소형 묘에 비해 입지상에 있어서 우월성이 확인되며 동정(銅鼎)이 출토되었다. 동정은 중국에서 예기(禮器)의 하나로 사용되었으며, 권력의 상징물로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기물이었다. 이는 당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며, 울산지역에 강력한 정치체의 출현을 의미한다. 울산의 고대 정치체는 우시산국과 굴아화촌이 문헌기록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우시산국은 웅촌면 대대리, 굴아화촌은 범서읍 굴화리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우시산국은 울산 남부권역에 존재한 고대의 정치체이며, 하대에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동시기 고분으로는 북부권역에 중산동, 중부권역의 다운동, 서부권역의 하삼정 등에서 확인된다. 이들 고분군은 묘형과 목곽의 규모, 출토유물 등의 조합상으로 볼 때 정치체의 존재가 인정되며, 각 고분군 간에는 위계의 차이를 보인다.¹⁹⁵⁾

포항 옥성리유적에서는 대규모 목곽묘군이 확인되었는데, 현재 확인된 수량만 약 560여기에 달한다. 이 중 나-78호묘[도면 4-17-1]는 기원 3세기 초에 해당하는 대형 목곽묘로 다량의 토기류와 철모 104점이 부장되었다는 점에서 최상위 계층의 묘제로 추정된다.¹⁹⁶⁾

경주 내남 방면에 위치하는 덕천리유적은 내남들의 평지에 목곽묘가 100기 이상 확인되었다. 목곽묘는 장방형 목곽에서 세장방형 목곽으로의 변화양상을 보인다. 목곽묘 내부에서는 기원 3세기 전엽에서 중엽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철기류와 토기류, 그리고 다면옥과 수정제 곡옥, 유리제 금박옥 등의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위신재 또는 상징적 유물로 여겨지는 대부광구호, 오리모양토기, 신선로모양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오리모양토기는 11점이나 출토되어 단일 유적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덕천리유적은 대규모 매장시설과 무덤 내부에서 출토된 풍부한 부장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당시 이 일대 읍락의 중심고분군임을 알 수 있다.

194) 안재호, 2020, 「하대 목곽묘집단의 사회적 위상」, 『울주연구: 우시산국 실존을 증명하다』, 18, 울주 문화원 부설 울주향토사연구소, 201~203, 240~242쪽

195) 권용대, 2018, 『울산의 고분과 고대사회』, 서경문화사.

196) 경상북도, 2016, 『사로국시기 건국과 성장』 01 자료집,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V. 진한지역 취락의 성격과 전개양상

1. 취락의 성격

1) 취락의 입지

취락의 입지 유형은 각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세분할 만큼 자료가 풍부하지 않아 크게 구릉지와 충적지로 구분하였다. 구릉지 취락은 구릉 정부, 사면부, 말단부 등에 입지하는데, 지형에 따라 다시 평지구릉과 산지구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충적지는 강이나 하천이 범람하거나 퇴적되어 형성된 평지로, 취락은 자연 제방, 하안단구, 선상지 등에 입지하고 있다.

구릉지 취락의 경우 구릉의 정상부보다 사면 및 말단부에 입지해 있는 예가 많은 편이다. 취락의 입지로 구릉이 선호되었던 것은 지형 특성상 평지를 끼고 있어 식수나 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하천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평지에 입지한 취락에 비해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한 장점이 고려된 것이다. 반면, 충적지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을 수반하지만 넓은 가경지와 식수원 확보에 용이한 장점으로 인해 농경과 관련된 대규모 취락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을 갖추고 있다.¹⁹⁷⁾

[표 5-1] 진한지역 시기별 취락의 입지 양상

입지 \ 지역	경주				울산				경산-대구				합계 (비율)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구릉지	2	3	15	8	15	10	25	21	3	4	5	3	114 (71.7%)
충적지	3	0	4	13	1	1	1	11	1	2	3	5	45 (28.3%)
합계	5	3	19	21	16	11	26	32	4	6	8	8	159(100%)

[표 5-1]은 진한지역 중 경주, 울산, 경산-대구 지역의 시기별 입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시기를 종합해 볼 때, 진한지역 취락의 입지는 충적지 보다는 구릉지의 분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시기별 입지에 있어서는 주로 IV기로 갈수록 충적지 분포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경주 황성동유적과 울산 중산동 798-2번지, 대구 봉무동유적 등 제철과 관련하여 조성된 취락에서 확인되는 양상이다. 이는 제철 생산과 관련하여 연료의 공급, 제품 운반의 용이 등을 위해서 충적지의 입지를 선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울산 교동리유적, 경산 임당유적 등은 구릉지와 충적지 일대에 대규모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 유적은 당시 중

197) 공봉석, 2014, 「신라의 주거와 취락」, 『신라고고학개론 상(上)』, 중앙문화재연구원: 진인진, 130쪽

심취락으로 추정되는데, 취락의 규모와 유구의 구성 등에서 일반 취락들과는 차별을 보인다. 이처럼 취락의 입지는 취락의 규모와 직접적인 연관¹⁹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취락의 위계와 성격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락의 입지 유형은 취락의 규모와 형태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여건과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진한지역 취락의 입지 양상을 통시적인 변화의 흐름만을 살핀 것으로, 추후 지역별 자료가 확보되면 입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 방법이 요망된다.

2) 취락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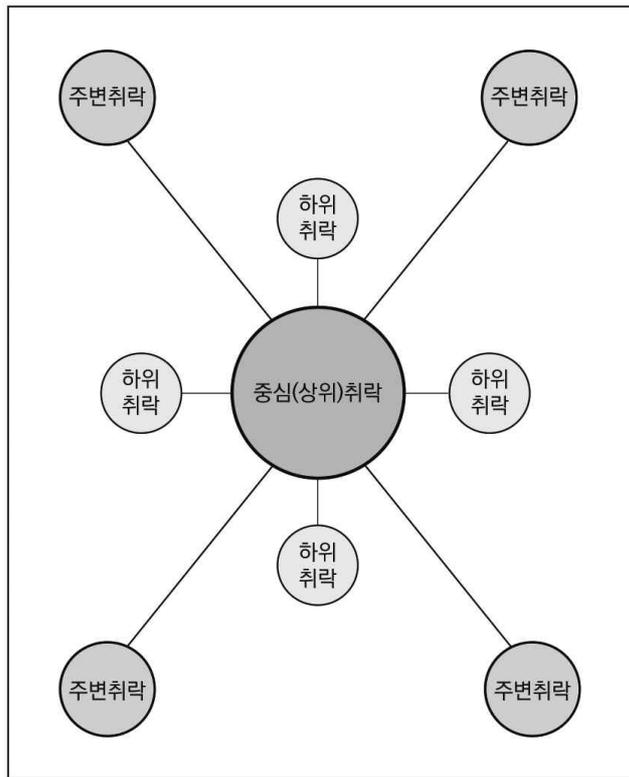
취락의 유형은 개별 주거지를 비롯하여 생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시설, 경작지, 저장시설, 폐기장, 패총, 우물 등과 죽음의 공간인 분묘, 기원을 담은 의례 공간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경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모든 공간이 대상이 된다.¹⁹⁹⁾ 이희준은 삼한 읍락을 몇 개의 취락군 즉 촌락(村落)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작은 취락인 hamlet을 소촌(小村), 그다음 village를 촌(村)으로 보았을 때, 이 촌(village)과 복수의 소촌(hamlet)들이 결집된 단위를 촌락으로 보았다.²⁰⁰⁾ 그러나 현재 고고학 자료가 한정되기에 이를 구체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삼한 · 삼국시대 취락의 유형은 연구자마다 경관, 위계, 규모, 성격,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유병록은 삼국시대 취락의 종류를 존속기간, 입지, 위계 등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취락의 위계와 관련해서는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하였다. 중심취락은 유구의 수적(數的) 우월성과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장기 존속 취락이면서 특수기능취락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지상식 건물지가 확인되고, 교통의 요지에 입지하며, 주변 고분군과 연관성 등을 그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주변취락은 ‘하위취락’과 동일 개념이지만, 중심취락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벗어난 일반취락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취락의 설치나 조성에 의도성의 여부에 따라서 특수기능취락(목적취락)과 자연발생적인 일반취락으로 구분하였다. 특수기능취락은 교통의 요지나 상징적인 지형입지, 생산물 원료의 확보 용이성, 그리고 중심취락의 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 교통취락, 생산취락, 제의취락, 방어취락 등으로 세분하였다.²⁰¹⁾

이영철은 마한 취락의 유형을 크게 거점취락과 일반취락으로 구분하였다. 거점취락(據點聚落)은 국읍이나 읍락, 별읍과 같은 마한 소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

198) 공봉석, 2014, 「신라의 주거와 취락」, 『신라고고학개론 상(上)』, 중앙문화재연구원: 진인진, 131쪽
 199) 조성희, 2020, 『3~7세기 전북지역 취락의 고고학적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9쪽
 200) 이희준, 2000, 「삼한 소국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43, 한국고고학회.
 이희준, 2011b, 「고고학의 신라 형성기 사회 연구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논의」,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614쪽
 201) 유병록, 2009, 「삼국시대 낙동강하류역 및 남해안취락의 특성」, 『영남지방 원삼국 ·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81쪽

· 경제 · 사회적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된다고 보았다. 거점취락의 경관과 구조는 구성원들의 생산 · 소비활동과 관련된 저장혈, 창고, 가마, 공방(작업장), 경작지 등의 부동산 관련 부속시설은 물론 이동이나 유통체계의 프레임이 되는 도로망 등을 갖추고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일반취락(一般聚落)은 마한소국의 구성단위 중에 가장 하위에 속하는 촌락(촌 · 락) 수준의 취락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일반취락은 보통 주거지 수가 20동 내외로 구성, 주거단위는 매우 단순하게 확인, 저장시설은 소형 수혈이 주를 이루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는 단수로 시설된다고 보았다.²⁰²⁾



[도면 5-1] 삼한시대 진한지역 취락유형 구분 모식도

조성희는 3~7세기 전북지역 취락의 유형을 중심취락과 일반취락으로 구분하였다. 중심취락은 수십 기 또는 수백 기의 주거지로 구성되고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존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된 취락으로 보았다. 중심취락에서 반경 5km 내에 위치하는 일반취락은 중심취락과 친연성이 깊고 종속적인 연결망으로 지역권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일반취락은 공반 생활유구에 따라 주거군 단독으로 확인되는 I 유형과 수혈, 구, 건물지, 토기가마, 폐기장, 환호, 토성 및 목책 등의 시설과 공반하는 II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II 유형은 다시 주거군+생산(II A), 주거군+저장(II B), 주거군+방어(II C) 유형으로 세분하였다.²⁰³⁾

본고에서는 진한지역 취락의 유형을 유병록의 안을 참고하여 [도면 5-1]과 같이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중심취락은 다시 상위와 하위취락으로 세분하였다. 하위취락은 상위취락의 직접적인 종속 아래 있으면서 농경, 제철, 수공업 등의 생산활동을 통해 상위취락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취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취락은 상위취락과의 정치 · 경제적 등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주변취락은 주로 중심취락에서 대략 3~5km²⁰⁴⁾ 거리 내에 위치하면서 경제, 정치 등의 상호 밀접한

202) 이영철, 2018, 「마한의 마을 구조」, 『마한의 마을과 생활』, 학연문화사, 63~74쪽

203) 조성희, 2020, 『3~7세기 전북지역 취락의 고고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0, 170~176쪽

204) 고대 읍락의 가시권은 시기와 지리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3~5km의 범위 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범위 내에는 읍락의 주요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 관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고 있는 취락을 의미한다. 주변취락은 다시 설치 의도와 성격에 따라서 크게 일반취락과 특수기능취락으로 세분하였으며, 이들 취락의 의미는 유형록의 안에 따른다. 즉, 일반취락은 자연발생적인 취락으로 수혈주거지와 수혈 등 단순한 시설의 구성을 보이며, 특수기능취락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생산취락, 교통취락, 제의취락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처럼 중심취락은 상위 지역에서 하위 지역으로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의 집중을 나타내며, 주변취락은 중심 지역 주변에 분포하며 중심과의 연결성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 진한 취락유적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주로 주거지와 분묘 등 개별 유구만 조사된 경우가 많다. 주거지는 바닥의 지상화 현상으로 파기가 심한 데 반해서 분묘는 땅속 깊이 매장되어 있어 다른 유구보다는 확인 사례가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진한지역의 취락 연구는 분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부분이 많다. 이는 분묘가 전체 취락의 공간 구조 중 죽음의 영역이긴 하지만, 당시 취락의 위계, 읍락(邑落) 및 국(國)의 범위, 그리고 정치체의 양상 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묘만으로는 당시 고대 진한의 생활상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진한 취락의 유형은 주거지와 생산시설 등 생활유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분묘는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검토해 보겠다. 다음 [표 5-2]는 진한지역 취락유적에서 시기별 주거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구성 시설들을 살펴본 것이다.

[표 5-2]를 살펴보면, 먼저 I기와 II기 취락은 조사된 사례가 많지 않고, 청동기시대 후기 이후 영남지방으로 유입되는 유이민들과 기존 재지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취락이 형성되고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취락의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확인된 주거지 수는 경주 광명동 산81-1유적,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대구 각산동 912-6번지유적 외에는 모두 10동 미만이며, 부속시설 또한 다양하지 않다. 이는 진한

[표 5-2] 삼한시대 진한지역 유적의 취락내 구성 시설

시기	유적명	수혈 주거지	지상식 건물지	생산 시설	의례 시설	방어· 경계 시설	매장 시설	기타
I	경주 광명동 산81-1유적	14					●	수혈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16			●	●		수혈, 폐기장
	울산 덕신리 오산유적	1						수혈8, 주혈군
	대구 각산동 912-6번지유적	12						
	대구 이천동 295-7번지유적	3						구상유구2
II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	3						수혈10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 II	4					●	수혈5
	울산 매곡동유적(II 지구)	2						수혈1
	대구 칠곡 3택지유적-2 · 3구역	8	14				●	수혈14, 구6,늪지1

시기	유적명	수혈 주거지	지상식 건물지	생산 시설	의례 시설	방어· 경계 시설	매장 시설	기타
III	경주 황성동유적 (다 · 고가수조지구)	18		● (제철)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유적	4					●	
	울산 교동리 및 신화리 일대 취락	14	1		●	●	●	수혈55
	울산 달천유적	9	1	● (철채광)		●	●	수혈42
	울산 창평동 810번지유적	2					●	
	울산 장현동유적	2					●	수혈3, 구1
	울산 반송리 425-1유적		6					수혈28
	울산 상천리유적 (941-4번지유적 포함)	12					●	수혈25
	울산 명산리 314-1번지유적	11						수혈2, 구1
	경산 하양 양자리유적	1					●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	6						수혈24
	대구 봉우동유적Ⅳ	5			● (제철)			
	IV	경주 월성 북서편유적	2					
경주 월성 해자유적		2		● (제철)				수혈8
경주 황성동유적 (가 · 나 · 라지구 외)		26		● (제철, 가마)			●	
울산 교동리유적 (104유적 포함)		2	284		●	●		수혈223
울산 원산리 산102-2번지유적		6						
울산 입암리유적		13						
포항 성곡리유적		16						
포항 호동유적		273						수혈34, 구상유구4
영천 완산동 186번지유적		9						수혈14
경산 임당유적 (I·F 지구 등)		73	58	● (수공업)	●		●	야외노지30, 변소4
대구 봉우동유적		17		● (제철, 가마)				수혈9

시기	유적명	수혈 주거지	지상식 건물지	생산 시설	의례 시설	방어· 경계 시설	매장 시설	기타
	김천 모암동유적	44						수혈8, 길유구2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경주 화천리 산 251-1번지유적은 생활유구, 의례시설, 경계(구획)시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 일대 중심취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유적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경주 광명동 산81-1유적이 분포하는데, 확인된 취락 시설은 주거지, 수혈, 석곽묘 등 단순한 구성을 보인다. 두 유적은 가까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당시 상호 연계망을 가지고 있었던 취락으로 생각된다.

Ⅲ기에는 앞 시기보다 취락 관련 자료가 많이 확인되었다. 울산 신화리와 교동리 일대 유적에서는 남북으로 1.9km, 동서로 2.2km에 이르는 커다란 구릉 안에 대·소규모의 취락이 분포하고 있는데, 교동리유적에서 수장층으로 추정되는 분묘자료가 확인되는 점에서 당시 이 일대에 상위취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울산 교동리유적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울산 상천리유적이 분포하고 있는데, 중심취락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일반취락으로 추정된다. 경주 황성동유적, 울산 달천유적, 대구 봉무동유적 등에서는 철 생산시설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는 점에서 특수기능취락지의 형성을 짐작케 한다.

Ⅳ기에는 울산 교동리유적에서 284기에 달하는 지상식건물지, 포항 호동유적에서 278동의 수혈주거지, 그리고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대규모 제철 관련 생산시설 등의 자료가 확인되는 점에서 취락의 분화와 발전 등을 시사한다. 울산 교동리유적과 경산 임당유적은 주거지, 생산시설, 방어시설, 분묘시설 등 취락과 관련된 대규모 자료를 통해 읍락의 중심취락 또는 소국의 중심 읍락(국읍)으로 볼 수 있다. 경주 황성동유적, 대구 봉무동유적에서는 제철 관련 시설이 확인되는데, 이는 중심취락 주변에 분포하는 특수기능취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삼한시대 진한지역에서 [도면 5-1]과 같이 취락의 유형별 관계는 I기와 II기 취락 보다는 III기와 IV기 취락으로 갈수록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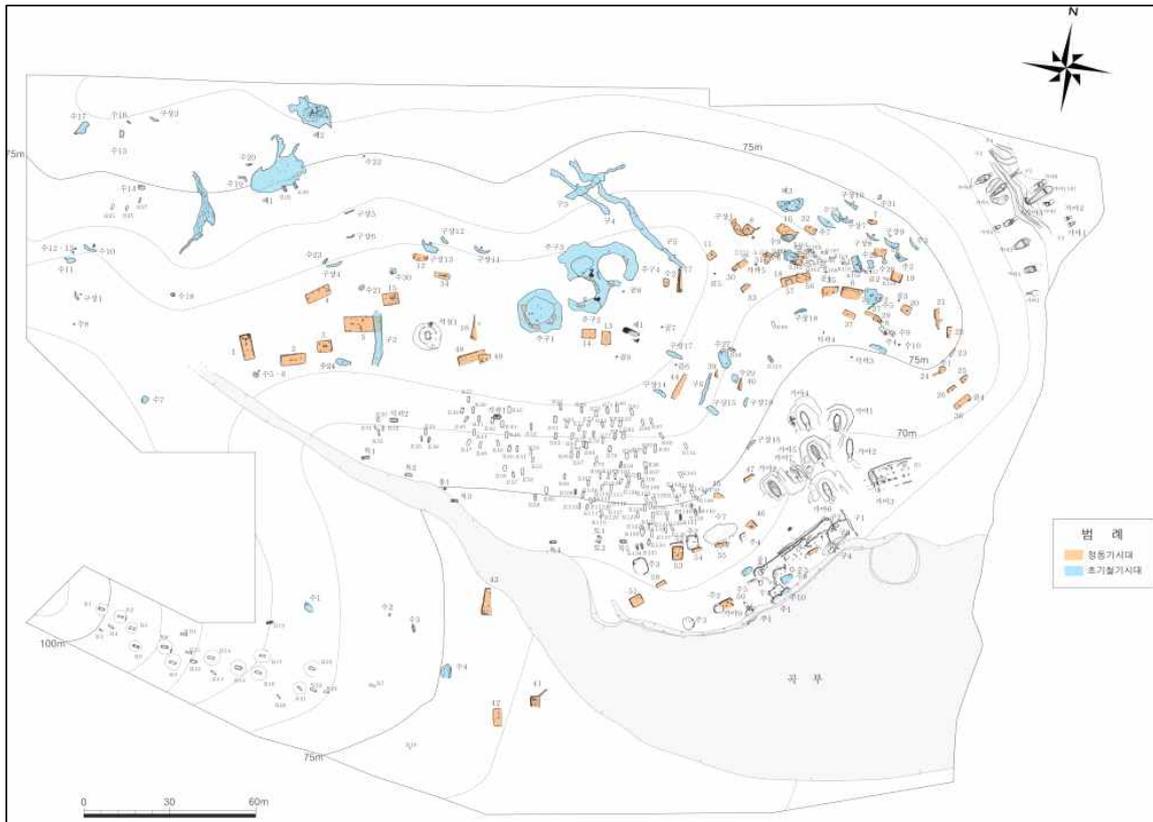
이상의 시기별 취락의 유형은 전체 취락 중 일부만 확인되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추후 자료가 증가하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비교적 취락의 유형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 사례를 중심으로 진한 취락의 구조와 전개양상을 검토해 보겠다.

2. 취락의 구조와 전개양상

1) 취락의 형성(I기)

진한지역 I기 취락은 대부분 수혈이나 옹관묘 등 소수의 유구로 확인되어 당시 전체 취락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확인된 유적 외에도 지표조사를 통해서 진한지역에 원형점토대토기 문화가 계속해서 유입되었음을 단편적으로나마 알려준다.

I기 취락의 사례로는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유적, 경주 광명동 산81-1유적, 울산 덕신리 오산유적, 울산 입암리유적, 대구 각산동 912-6번지유적 등이 있다. 대부분 취락의 일부만 확인되어 전모를 알 수 없지만, 취락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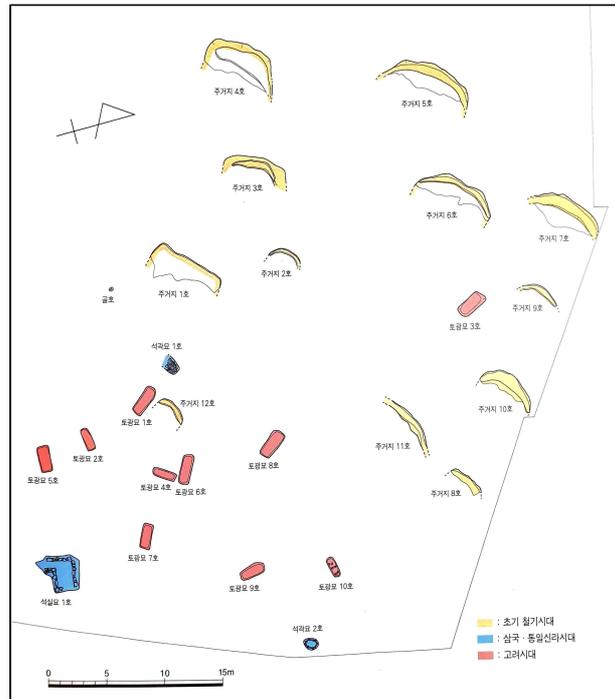


[도면 5-2]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 취락의 양상

로 추정된다. 이 시기 취락의 입지는 재지의 청동기시대 취락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구릉의 고지를 선택했다는 설이 유력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주 금장리유적, 울산 입암리유적, 대구 이천동 295-7번지유적 등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는 취락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시기 취락의 입지는 재지의 청동기시대 취락이 점유하지 않은 공간을 찾아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I기의 유적 가운데 당시 취락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곳은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유적이다[도면 5-2]. 이 취락은 주변 일대를 조망하기 좋은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거지 16동, 수혈유구 31기, 구상유구 19기, 주구형유구 4기, 폐기장 3기, 제단시설 1기가 확인되었다. 취락내 주거지는 16동이 확인되었는데, 형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변형된 평면 원형계나 방형계 수혈식 노시설을 갖춘 단순한 구조로 IA1과 II A1식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거지의 양상은 정형성이 매우 떨어지고 부

정형한 입지 주거의 형태가 많다. 소형의 구상유구 가운데 일부는 대구 각산동 914-1번지 유적[도면 5-3]처럼 주거지 외곽으로 주구(週溝)를 두른 양상인데, 이를 참고해 볼 때, 주거지의 잔존 양상일 가능성도 있다.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 취락의 내부 구조는 크게 보아 중앙에 의례시설로 추정되는 주구형유구와 제단시설이 위치하고, 양옆으로는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 등의 생활영역이 배치되어 있는 양상이다. 중앙의 구상유구 및 제단시설은 의례시설이자 양 생활영역을 구분 짓는 마을 공동의 중요 공간으로 인식된 듯하다.



[도면 5-3] 대구 각산동 914-1번지 취락의 양상

한편,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은 주변 일대를 조망하기 좋은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다.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취락은 고지성 구릉지 입지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고지성 구릉지의 입지 사례로는 안성 반제리유적, 보령 교성리유적, 합천 영창리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입지적 특징을 이주 집단이 주변 재지 집단과의 마찰을 피하거나 영역 확장 등의 목적으로 고지에 취락을 형성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적 입장도 제기되었는데, 송만영은 중부지방에서 확인되는 점토대토기 단계의 고지형 취락은 이주한 점토대토기 집단과 재지의 지석묘 집단 간의 갈등을 반영하기보다는 제천 의례와 관련된 취락으로 보았다. 청동기시대 취락은 수계를 중심으로 구릉과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은 고지의 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릉의 취락들이 결집하며, 고지의 제의 공간들을 연결하는 사회경제적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²⁰⁵⁾ 필자 역시 점토대토기단계의 주거지와 분묘 자료에서는 재지 집단과 외래 집단과의 충돌보다는 공존하고 융합하는 양상을 보이며, 환호 주변으로 방어와 관련된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서 이 시기 고지형 입지 취락의 성격은 제천 의례와 관련된 취락으로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

중부지방처럼 고지형 입지는 아니지만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구릉지에 환구시설과 제단시설을 갖춘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은 이 일대 취락의 공동 제의 공간으로써 중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주변 지역에서 확인되는 의례적 성격의 환호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제의권의 범위는 넓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

205) 송만영, 2013,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203~208쪽

구형유구 또는 고지성 환구(環溝)시설과 관련해서는 청동기시대 지신(地神)의례 또는 지석묘 등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 조상숭배의례에서 천신(天神)의례 또는 신성한 성격이 부여된 추상적 조상숭배의례로 변화되는 과정속에 천신의례와 그와 결합된 다양한 의례가 행해졌던 제장(祭場)으로 보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²⁰⁶⁾

한편, 경주 광명동 산81-1유적, 울산 매곡동유적(Ⅱ지구), 울산 검단리유적 107호 주거지 등에서는 울산식 주거지 또는 변형된 주거형태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유물과 청동기시대 후기 단계의 유물이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리고 I기의 분묘는 위석목관묘, 석곽묘, 옹관묘 등이 확인되었는데,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묘제 문화가 이 시기까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I기의 주거지와 분묘 등의 양상을 통해서 볼 때, 원형점토대토기문화를 영위한 집단이 진한지역에 이입되는 시기에 당시 청동기시대 재지민 사회와 일정 부분 공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연대 문제와 문화 양상 등은 근거 사례가 많지 않아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²⁰⁷⁾

요컨대, I기 취락은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진한 취락의 형성기라 할 수 있다. 진한지역에 유이민들이 유입되면서 기존 재지민의 문화와 공존 및 융합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주거지의 형태는 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변형된 형태인 평면 방형계나 원형계에 무시설식 노시설을 갖춘 I A1과 II A1식 주거 유형이 확인되나, 대부분 부정형한 수혈의 형태나 임시 주거지의 형태가 많다. 분묘는 새롭게 적석목관묘가 출현하지만 석곽묘, 옹관묘 등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된 묘제 문화가 지속된다. 주거지와 부속시설을 통해서 볼 때, 장기보다는 단기에 조성된 유구들이 많은데, 이는 유이민들의 정착이 안정되지 못한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유적의 고지성 구릉에서 확인되는 의례와 관련된 주구형 유구 및 제단시설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당시 취락들은 고지에 제의 공간이 있는 취락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연결망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5-4] 울산 중산동 약수Ⅱ 취락의 양상

2) 취락의 정착(Ⅱ기)

206) 김권구 2012,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 環溝)에 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6, 한국상고사학회.

207) 본고에서 I·Ⅱ기 취락은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외래계 이주민 취락만을 다루었으며, 재지계 토착민 취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자료가 축적되면 검토해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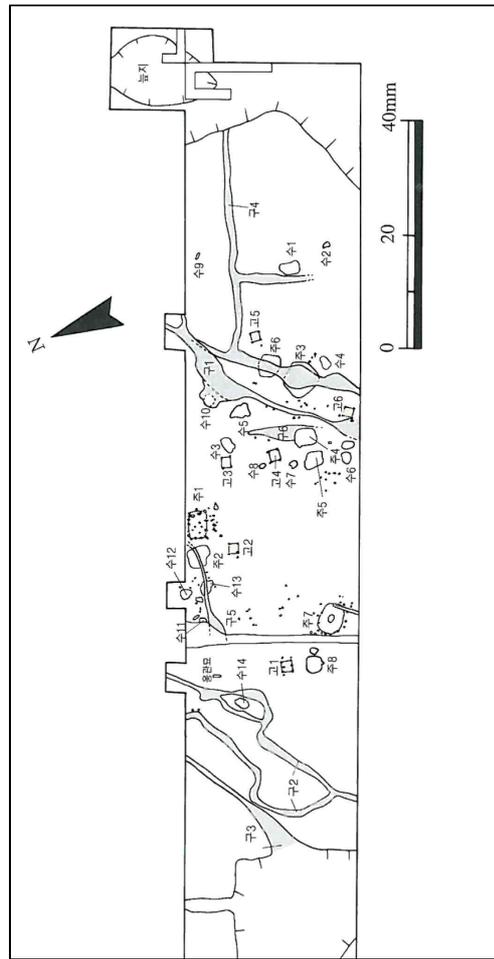
Ⅱ기의 취락은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Ⅱ, 대구 칠곡 3택지유적에서 주거지, 수혈, 옹관묘 등이 소규모로 형성된 것 외에는 대부분 수혈과 분묘 등의 소수 유구로만 확인되어 전체 취락의 구조를 알기 어렵다. 다만, Ⅰ기 취락에 이어 점토대토기문화를 영위하는 이주민들이 진한지역으로 계속 유입되어 정착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Ⅱ에서는 소규모의 정주 취락의 양상이 확인되는데, 주거지는 4동이 완만한 구릉 사면부에 서로 간 중복 없이 배치되어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 형태가 주를 이루며 내부에는 평지식 노시설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주거유형은 인근에 위치하는 울산 매곡동유적(Ⅱ)에서도 확인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약수유적Ⅱ의 수혈유구는 주거지와 인접하거나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데, 내부 양상으로 보아 토취장 또는 폐기장 등으로 사용된 듯하다. 무덤은 주거지와 수혈 등의 생활유구에서 일정 정도 떨어져 남서편 사면부 낮은 곳에 단옹식(單甕式) 옹관묘 1기가 매납되어 있다. 교동리유적 Ⅰ기 취락의 옹관묘 역시 무덤 영역이 생활영역과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삶의 다른 영역과 무덤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도면 5-4].

대구 칠곡 3택지유적은 금호강의 지류인 팔계천(八溪川)이 범람하여 형성된 충적대지에 입지하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방형계 주거지 8동, 고상식 건물지 6동, 수혈 14기, 늪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앞 시기에 비해 취락이 안정되고 정착된 양상을 엿볼 수 있다[도면 5-5].

Ⅱ기의 주거형태는 평면 방형계에 무시설식 노시설을 갖춘 ⅡA1식 주거유형이 주류를 이루는데, Ⅰ기 주거지보다는 정형화된 양상을 보인다. 경산 중산동 200번지유적에서는 밭이랑으로 추정되는 경작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Ⅱ기부터 정착이 이루어져 농경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주 나정유적은 경주 분지지역의 탐동 700-1번지 일대의 나지막한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곳에서는 구상유구(또는 환구[環溝]) 내부 중심에 올챙이 모양에 가까운 수혈에서 기둥을 세운 초석(礎石)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혈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立大木懸鈴鼓事鬼神)”는 기록에서 보이는 입주의례(立柱儀禮)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의 기둥을 세운 수혈과 구상유구 바깥으로는 울타리처럼 나무를 두른



[도면 5-5] 대구 칠곡 3택지 취락 양상

목책(木柵)시설이 확인되었다. 입주수혈 주위에 환호(環濠)와 같은 구상유구와 목책시설을 두른 것은 당시 사회 구성원들이 이곳을 다른 공간과는 구분 짓는 신성한 영역으로 인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정유적은 신라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깃든 곳으로 이와 관련된 우물(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한지역의 분묘에서 확인되는 입주의례 수혈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취락내 생활 구역에서 치러진 의례 시설이 아닌, 죽은 자에 대한 염원을 기원하기 위한 의례 시설로 추정된다.

경산 임당유적의 이중 환호유구도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파악된다. 임당 구릉의 북서편 단독 구릉에 설치된 이중 환호는 신성한 공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며 취락 간 통합의 중심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환호 주변에서는 주거 및 생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당 구릉내 3~5개소(G·F·조영1B·E·A지구)에서 초기목관묘 자료가 확인되었다. 임당 환호를 유지 관리하는 주체는 임당 구릉에 조성된 초기목관묘 집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⁰⁸⁾

한편,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 중산동 약수유적Ⅱ, 매곡동유적(Ⅱ지구)의 주거지 및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및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 유물과 함께 수구(須玖)Ⅰ식의 야요이계(彌生系)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시기부터 철을 매개로 경주·울산 지역과 왜(倭)지역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시기 분묘는 목관묘가 채용되기 시작하는데, 경주 하구리유적, 경산 임당동유적 등을 통해서 늦은 시기로 갈수록 채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Ⅱ기 취락은 삼각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Ⅰ기에 이어 계속해서 유이민들이 유입되어 소규모 단위의 취락을 형성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는 Ⅰ기부터 이어진 ⅡA1식 주거 유형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평면 방형계 주거지는 앞 시기보다 정형된 형태를 보이고 재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분묘는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Ⅰ기의 묘제 문화가 이어지거나, Ⅱ기의 늦은 시기부터 소규모로 목관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주 나정유적의 입주수혈과 경산 임당 이중 환호유구 등의 사례를 통해 볼 때, Ⅰ기와 같이 의례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 간 통합의 중심점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철을 매개로 경주·울산 지역과 왜 지역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취락의 변동과 성장(Ⅲ기)

Ⅲ기에는 Ⅰ·Ⅱ 취락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고 주거지, 분묘 등이 다양한 변동과 재편되는 양상이 간취 된다. 주거지는 앞 시기부터 이어진 재지의 방형계 주거지가 지속되면서 새롭게 평면 원형계에 부뚜막식 및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된 IB·C(1~3)식 주거유형이 출현한다. 가장 이른 시기의 구들시설은 돌로 만들었는데, 울산 교동리유적과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울산과 대구 지역에서 확인되는 초기 구들시설은 사천 늑도유적의 직접적인 영향보다 남해안과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여 영남 내륙까

208) 하진호, 2012, 「임당유적 취락의 형성과 전개」, 『영남문화재연구』 25, 영남문화재연구원, 117쪽

지 연결된 광역의 연결망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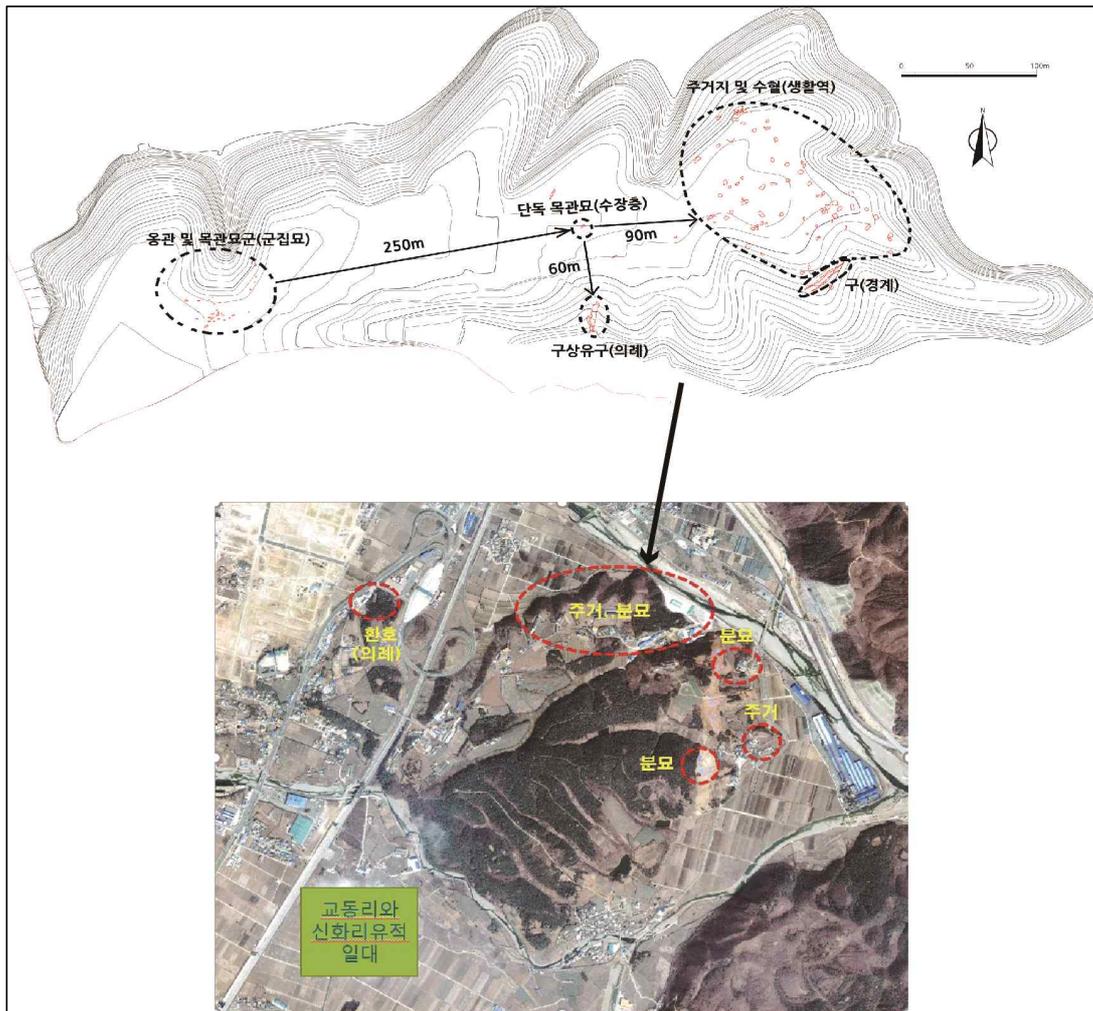
Ⅱ기 후반부터 축조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목관묘가 군집을 이루며 공동묘역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소규모 단위의 특수기능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취락의 변동양상은 울산 교동리유적, 울산 달천유적, 경주 황성동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사로국이 있었던 경주지역은 현재,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분묘유적이 다수를 차지하고 생활유적은 경주 황성동유적과 화천리 산251-1번지 유적에서만 확인되어 주변 지역의 취락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먼저, [도면 5-6]과 같이 울산 교동리유적을 포함한 교동리와 신화리 일대는 남북으로 1.5km, 동서 2.2km에 이르는 지역이 하나의 커다란 구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취락은 구릉의 평평한 능선과 사면부에 형성되었다. 특히 교동리유적에서는 주거지, 분묘, 구 등이 일정한 공간배치를 보이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거지와 수혈은 주로 유적의 북동편에 분산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분묘는 위계가 높은 수장묘로 추정되는 1호 목관묘가 생활역에서 서쪽으로 약 9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단독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목관묘와 옹관묘군은 1호 목관묘에서 서쪽으로 약 250m 떨어져 군집을 이루며 축조되었다. 경계의 용도로 추정되는 1호와 2호 구는 주거 및 생활역 인근의 남동쪽 사면부에 등고선과 나란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의례의 용도로 추정되는 14호 구는 1호 목관묘에서 남쪽으로 60m정도 거리에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되었다. 이처럼 교동리유적은 주거구역과 분묘구역, 그리고 의례구역 등의 공간이 분화되어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교동리유적을 포함한 교동리와 신화리 일대 구릉 안의 현재 5개소에서 동시기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이 확인되었다. 당시 이곳을 모두 한 단위의 취락으로 보기에 규모가 크고, 3곳에서 분묘역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커다란 구릉 안에 大·小 단위의 취락군이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의 자료상으로 북동편의 교동리유적이 상위취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장에서 교동리 192-37유적 환호의 성격을 의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았는데, 당시 이곳은 전체 취락군의 공동 제장(祭場)²⁰⁹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락 공동의 제의 공간을 통해 취락 간 통합의 구심점을 형성한 양상은 I기부터 Ⅱ기 취락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문화적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경주지역은 외동 방향의 조양동, 문산리, 구어리, 소토리 유적 등에서 당시 사로국 형성 시기를 알려주는 기원전 1세기대의 분묘유적들이 대거 확인되었다. 이후의 목관묘군도 경주 분지지구보다는 외곽 지구에서 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Ⅲ기의 경주지역 상위층 분묘로는 경주 조양동 38호묘, 탑동 21-3·4번지 1호묘, 사리리 130호묘가 대표적이다. 진한지역에 이러한 상위 지배층으로 추정되는 분묘들이 대거 조성되는 양상은 I·Ⅱ기 취락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문화 변동 양상으로 진한지역에 개인 유력자와 국(國)의 출현을 시사한다. 이 분묘들 주변으로는 중심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9) 이수홍, 2010,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취락」, 『마한·백제 사람들의 주거와 삶』, 중앙문화재연구원 창립 10주년·국립공주박물관 개관 70주년 기념도록.



[도면 5-6] 울산지역 III기 중심취락(교동리와 신화리 일대) 경관

이 시기 경주지역은 분묘에 비해 생활유구의 확인사례가 많지 않다. 주거지 자료는 경주 화천리, 경주 황성동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에서는 기원전 1세기대의 평면 원형계에 구들식 노시설을 갖춘 주거지가 소수로 확인되었다. 경주 황성동유적은 삼한~삼국시기에 걸쳐 형성된 주거지와 분묘, 그리고 무엇보다 제철생산과 관련된 단야로, 정련로, 용해로, 제강로, 폐기장 등이 확인된 특수기능취락이라 할 수 있다. 주거지는 크게 원형계 주거지와 방형계 주거지로 나뉘는데, 원형계 주거지가 이른 시기인 III-1기에 해당한다. 원형계 주거지는 유적의 남서쪽에 분포하며 주거지 간 중복 없이 중앙에 공지를 두고 분포하고 있다 이 공지에서는 부뚜막식 야외노(野外爐)가 확인되었는데, 취락 구성원들의 공동 취사가 이루어졌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주거 생활의 흔적뿐만 아니라 철기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룻돌, 단야로(鍛冶爐) 등이 확인되었는데, 영남지방의 다른 주거유적에서는 보이지 않는 철기 생산 관련 자료들이다.

경주 황성동 취락내 분묘구역은 주거구역에서 남동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집단은 비록 개별 혹은 가족공동체 차원의 가내수공업 형태로 철기를 생산하였으나

철기생산 전문집단으로 볼 수 있다.²¹⁰⁾ 대구 봉무동유적IV에서는 5호 주거지와 연결하여 소규모 단야로 2기가 확인되었다. 이 단야로는 주거지 주변에서 소규모 철 생산이 이루어진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울산 달천유적은 철광석 채광(採鑛)과 관련하여 형성된 특수기능취락으로 생각된다. 이 취락은 달천광산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거지 및 생산시설을 방어하는 환호와 목책열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인접하여 망루(望樓)로 추정되는 1칸식 고상식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 마을 안쪽에는 철광석 채굴 흔적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가 곳곳에 확인되며, 환호 내부에 철광석이 다량으로 모아져 폐기되어 있는 양상을 통해서 당시 취락 구성원들이 철 자원을 중요하게 인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달천유적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는 울산 창평동 810번지 유적이 위치해 있다. 이 유적의 분묘 자료에서는 전한경(前漢鏡), 청동제 검파두식(劍把頭飾)을 갖춘 철검, 재갈 등의 마구류 등이 출토되어 개인 유력자의 출현을 암시하는데, 이 일대에 중심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울산 달천유적은 창평동 810번지유적의 주변에 분포하는 특수기능취락으로 보인다. 이 울산 달천유적은 울산 창평동 810번지유적 목관묘 집단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울산 창평동 810번지유적에서 남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는 울산 장현동유적이 위치해 있는데, 당시 창평동 집단과 상호 연계망을 가진 주변취락으로 추정된다.

이 울산 장현동유적에서는 기원전 1세기 전엽에서 기원후 3세기 말에 이르는 목관묘 19기, 옹관묘 16기, 토광묘 4기, 목곽묘 36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곳이 오랫동안 당시 취락 구성원들에게 공동묘역의 중요 공간으로서 점유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9호 목관묘는 위치의 차별성, 규모, 부장유물의 질과 양에 있어서 우월성을 보여 당시 장현동 집단의 수장묘로 추정된다. 장현동유적은 분묘에 비해 주거지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분묘역에서 남서쪽의 곡부(谷部)를 사이에 두고 기원전 1세기대로 추정되는 평면 방형계와 원형계 주거지 2동과 수혈 3기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장현동유적 역시 생활영역과 무덤영역의 공간분화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공간 배치양상은 울산 사연리 늪내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이 유적에서는 기원후 1세기대의 부뚜막식 노시설을 갖춘 평면 원형계 주거지 1동과 옹관묘 3기가 확인되었는데, 역시 소계곡을 경계로 주거역과 분묘역이 분리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울산 명산리 314-1번지유적에서는 기원후 1세기대의 주거지 11동, 수혈 2기, 구 1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중심취락 주변에 위치하는 일반취락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평면 방형계와 원형계가 중복된 양상인데, 앞시기 재지의 방형계 주거지와 일정 부분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거유형은 IC1·3식과 IB1식이 확인된다. 원형계 주거지 위쪽에는 반원상(半圓狀)의 주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울산 대안리유적, 경산 임당동유적, 대구 팔달동유적,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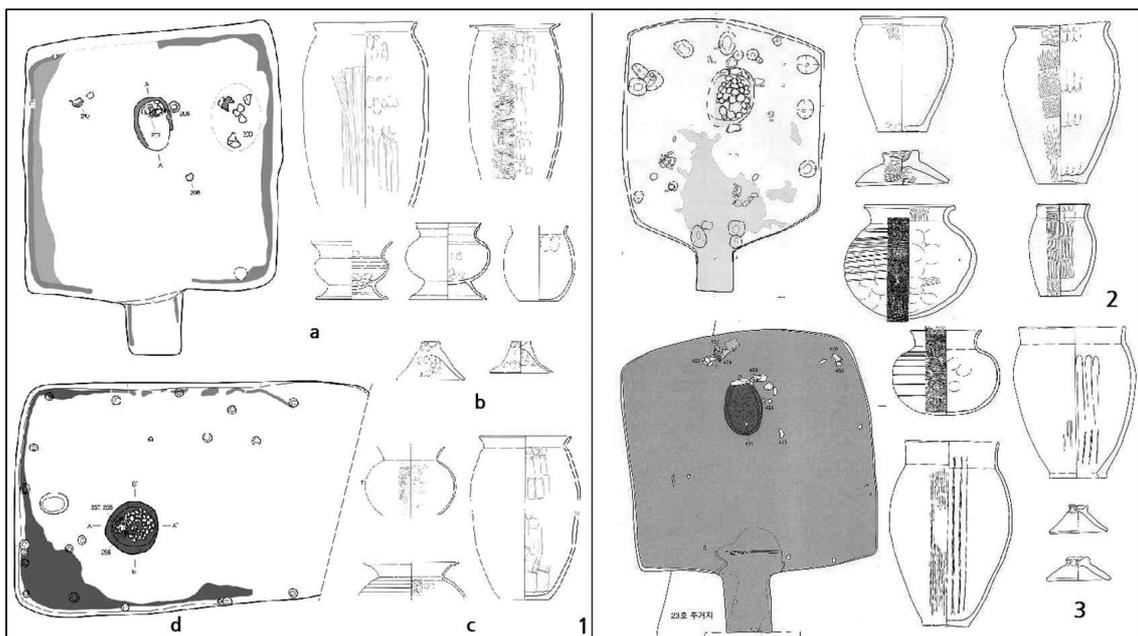
210) 김권일, 2020, 『고대 영남지역 제철기술의 고고학적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등에서도 주거지, 분묘 등에서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변화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많은 문화변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Ⅲ기 취락은 전기와질토기를 표지로하며, 취락의 규모가 앞 시기에 비해 확대·변동되는 양상이 간취된다. 기원전 1세기 초·전엽부터 취락의 정착이 안정되고 앞 시기보다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울산 교동리와 신화리 일대 유적의 취락에서 나타난다. 울산 교동리 192-37유적에서는 의례와 관련된 환호시설이 확인되는데, 이는 마을 공동의 제의 공간을 중심으로 취락간 통합의 구심점을 형성했던 문화적 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는 앞 시기 재지의 평면 방형계 주거지가 지속되면서 새롭게 평면 원형계에 부뚜막식 및 구들식 노시설을 갖춘 IB·C(1~3)식 주거 유형이 출현하며 확산되어 나간다. 분묘는 수장묘의 단독 조성과 그 하위 분묘군의 군집 축조의 양상이 보인다. 이 시기에는 울산 교동리유적과 경주 황성동유적 등에서 앞시기보다 규모가 큰 중심취락과 특수기능취락이 나타난다. 또한 경주 탑동 21-3·4번지유적, 경주 사라리유적, 울산 창평동 810번지유적, 하양 양지리유적 등에서는 수장층과 관련된 분묘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부장품의 질과 양면에서 탁월한 점에서 이 분묘를 중심으로 중심취락지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취락의 분화와 발전(IV기)

IV기 취락은 대규모 중심취락과 특수기능취락이 조성되는 등 Ⅲ기보다 분화되고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대략 기원 2세기 후엽부터는 주거지, 분묘 등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나타난다. 진한지역에서 이러한 변화양상은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처음



[도면 5-7] 울주 입암리유적(1- a: 1호住, b: 5호住, c: 7호住, d: 12호住)과 중부지방의 주거지 및 출토유물(2: 춘천중도동유적 3: 동해망상동유적 II)

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특히 주거지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확인되는데, 평면 형태가 방형계로 바뀌고 수혈 바닥의 지상화 현상과 구들 설치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 양상이 나타나며, 그리고 중형급(25㎡ 이상) 이상의 주거지 비율이 높아진다. 이 시기부터 변한과 진한 지역의 주거지가 분화되기 시작하는데, 영남 중부 및 동부 지역에 평면 방형계에 4주식의 기둥 배치를 보이는 주거지가 출현한다. 특히, 영남 중부와 동부 지역권인 경산 입당유적과 대구 봉무동유적 등에서는 기원 3세기 중·후엽에 해당하는 방형계 주거지에서 새롭게 4주식과 4주+벽주식의 기둥 배치를 보이는 주거 유형이 공존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아산만(곡교천유역), 미호천유역, 금강중류역 등 주로 호서지역에 분포 비율이 높다. 이 가운데 충주 송절동유적은 울산과 경주 지역에서 확인되는 방형계의 4주식과 4주+벽주식 주거지가 공존하여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며, 수혈 벽에서 이격되어 안쪽에 설치된 구들식 노시설은 경주 황성동유적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그리고 토광묘에서는 2~3세기에 영남지역과의 교류의 산물로 추정되는 양이부옹, 주머니호, 대부광구호 등의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진한지역의 방형계 주거문화는 호서지역의 주거문화에서 일정부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이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다양한 사회·경제 등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진한지역에 2세기 후엽쯤 등장하는 방형계 주거문화는 변한과 가야 지역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한과 신라권역의 특징적인 주거문화라 할 수 있으며 이후 5세기까지 지속된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입암리유적에서 예계 문화권에서 구분포권을 보이는 중도식 주거지가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 유적은 강안 충적 대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영남지역의 주거양상과는 상이한 중부지역권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특히 12호 주거지는 일명 중도식 노지와 유사한 부석식 노 1기가 확인되었는데, 얇은 수혈을 파고 내부에 판석 1단을 깔아 설치한 구조이다. 출토유물은 후기와질토기, 고식도질토기, 타날문 연질토기 등 재지계의 생활용 토기가 다수를 이루나 5호와 7호 주거지 등에서는 중도식 무문토기 기종과 유사한 개와 옹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중도식 노지가 설치된 평면 ‘凸’자의 주거형태와 중도식 무문토기는 ‘중도문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영남지방에서는 보이지 않고 주로 경기 남동부·북부·영서·영동 지역에 분포권을 형성하는 주거형태라는 점에서 이 지역 문화와의 관련성이 엿보인다(도면 5-7).

박경신은 원삼국시대 중부지역과 영남지역의 내륙 교역 연구에서, 입암리유적의 주거지와 출토유물 자료를 토대로 이곳이 아궁이형 노지의 중심 분포권을 보이는 영동지역 중도식 주거문화와 관련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울주지역과 영동지역은 당시 동해안(가평리유형)을 따라 원산-양양-강릉-동해-(정선)-(봉화)-울진-울주로 이어지는 교역노선을 활용해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하대유적의 목곽묘 자료(가-43호, 가-73호)에서 보이는 삽날을 통해 동해안 노선을 따라 중도유형권과 울산지역 간의 교역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²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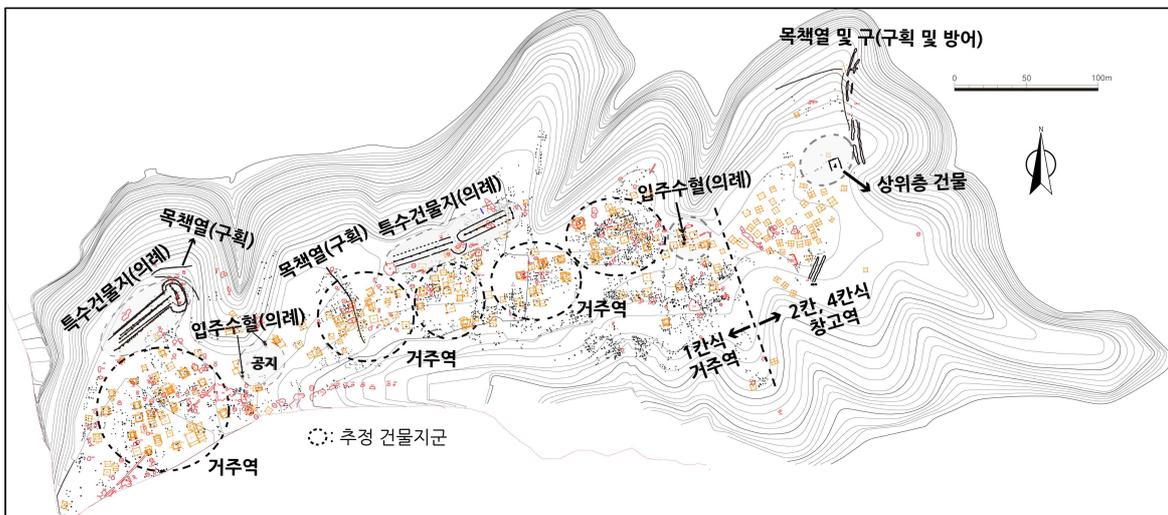
211) 박경신, 2018, 「원삼국시대 중부지역과 영남지역의 내륙 교역」, 『고고광장』 23, 부산고고학연구회.

이 중도유형권은 예계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변·진한과 예(濊) 지역 간의 교역은 『삼국지』위서 동이전 변진조(弁辰條)의 문헌 기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나라에서 철을 생산하는데, 한(韓·마한), 예(濊), 왜(倭)가 모두 와서 얻어갔다. 매매와 교환의 장사를 지낼 때는 모두 철을 사용하였으니, 마치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곳에서 생산된 철이 두 군(낙랑과 대방)에 공급된다.²¹²⁾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입암리유적의 중도식 주거지는 울산지역과 중도유형권 간 경제·문화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남겨진 주거문화로 생각된다. 또한 이 주거지는 중도문화와 기존 재지민의 문화 간 공존 및 융합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태화강 유역에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군이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 추후 주변 일대의 자료 증가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IV기 취락은 앞 시기보다 취락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어 중심취락, 특수기능취락, 일반취락 등의 취락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중심취락은 취락의 기반시설과 규모로 보아 울산 교동리유적과 경산 임당동유적이 이에 해당할 것



[도면 5-8] IV-2기 울산 교동리유적 중심취락의 내부 구조(울산문화재연구원 자료제공)

으로 보이며, 특수기능취락은 제철생산과 관련하여 조성된 경주 황성동 취락, 울산 중산동 일대 제철취락, 대구 봉무동취락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취락은 중심취락 주변에 위치하고 주거지와 수혈 등 단순 유구만 확인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나 조사된 유적의 범위가 협소하여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대규모 중심취락인 울산 교동리유적과 경산 임당동유적, 그리고 특수기능취락인 경주 황성동유적, 울산 중산동유적을 중심으로 이 시기 취락의 구조와 전개양상을 살펴보겠다.

212) 國出鐵，韓·濊·倭皆從取之。諸市買皆用鐵，如中國用錢，又以供給二郡。(『三國志』卷三十 魏書 三十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弁辰)

먼저, IV-2기에 형성된 교동리유적은 높은 구릉 능선 평지에서 지상식 건물지, 수혈, 구, 목책열이 대규모로 확인되었는데, III기의 교동리 취락의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발전된 양상을 보여준다. 현재의 자료상 교동리유적은 취락의 일부만 조사되었고 동시기 분묘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취락의 위계, 성격 등을 유추하기 어렵다. 다만 주변 일대에 넓은 총적지가 형성되어 있고, 울산·경주·밀양·부산·양산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며, 높은 밀도의 지상식 건물지 분포, 목책, 구(溝) 등의 방어·경계시설, 특수 대형 건물지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대단위 중심취락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도면 5-8]은 울산 교동리유적 취락의 공간 배치 및 구조를 살펴본 것이다. 취락의 북동편에는 상위층 거주지로 추정되는 43호 건물지가 단독으로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는 2×1칸과 2×2칸의 고상식 창고군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일반 주거용으로 추정되는 1×1칸 고상식 건물지는 높은 밀도를 보이며 취락 내 전반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북서편 경계 부분 가까이에 특수 대형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유적 내 밀도 높은 1×1칸 구조의 고상식 건물지와 특수 대형 건물지는 교동리 취락의 위계가 하위취락이 아닌 규모가 큰 중심 상위취락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자료라 생각된다.

즉, 취락 전반에 밀도 높게 분포하고 있는 1×1칸 구조의 고상식 건물지는 주거용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 이 취락의 인구밀도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한다. 건물지 간 중복양상이 매우 심하여 시기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1×1칸 구조의 고상식 건물지는 대략 5개의 건물지군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심에는 1칸으로 이루어진 지면식 건물지가 3~5동 정도 배치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 지면식 건물지는 주거용 고상식 건물지를 관리하는 자들의 거처나 주거 단위 별 공동 사용 건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유적 북동편의 2칸식과 4칸식 고상식 건물지와 1칸식 고상 건물지 구역 사이에는 입주목(立柱木)으로 추정되는 수혈 3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 수혈의 주변에서 확인된 지상식 건물지는 일부 중복되는 양상으로 보아 수혈 설치 이전 또는 폐기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입주 수혈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은 유구의 빈도가 낮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취락 구성원들이 모여 입주 의례(立柱 儀禮)가 이루어진 일종의 성역(聖域)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수혈은 1칸식 건물지 구역과 2·4칸식 건물지 구역의 경계지에서 확인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도 취락 내 양 구역의 공간이 갖는 성격과 기능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입주 수혈은 유적 서편에 유구의 빈도가 낮은 공지에서도 2기가 확인되었는데, 이곳에서는 광장 의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광장은 취락 내부 공간 중에 일종의 공터와 같은 지점이다. 이곳에서 취락 구성원들이 모여 집회를 하거나 놀이 축제, 장례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입주 의례와 관련한 유구가 광장에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²¹³⁾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교동리 취락 내 각 건물지군 사

213) 이영철, 2014, 「고대 취락의 제사」,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이의 공지 부분에서 확인되는 주혈들 중에는 입주 의례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통리유적은 취락 주변 일대에 넓은 총적지의 형성, 교통의 요지에 위치, 목책(木柵) 등의 경계 시설, 밀도 높은 지상식 건물지의 분포, 솟대 신앙으로 추정되는 입주 수혈, 의례나 공동 집회 등 특수 목적의 성격을 가진 대형 건물지, 상위층 거주 건물지 등이 확인되는 것을 통해서 당시 이 일대 읍락의 중심취락으로 판단된다. 추후 교통리 및 신화리 일대에 분묘자료가 확보되면, 취락의 성격과 위계가 보다 분명해지리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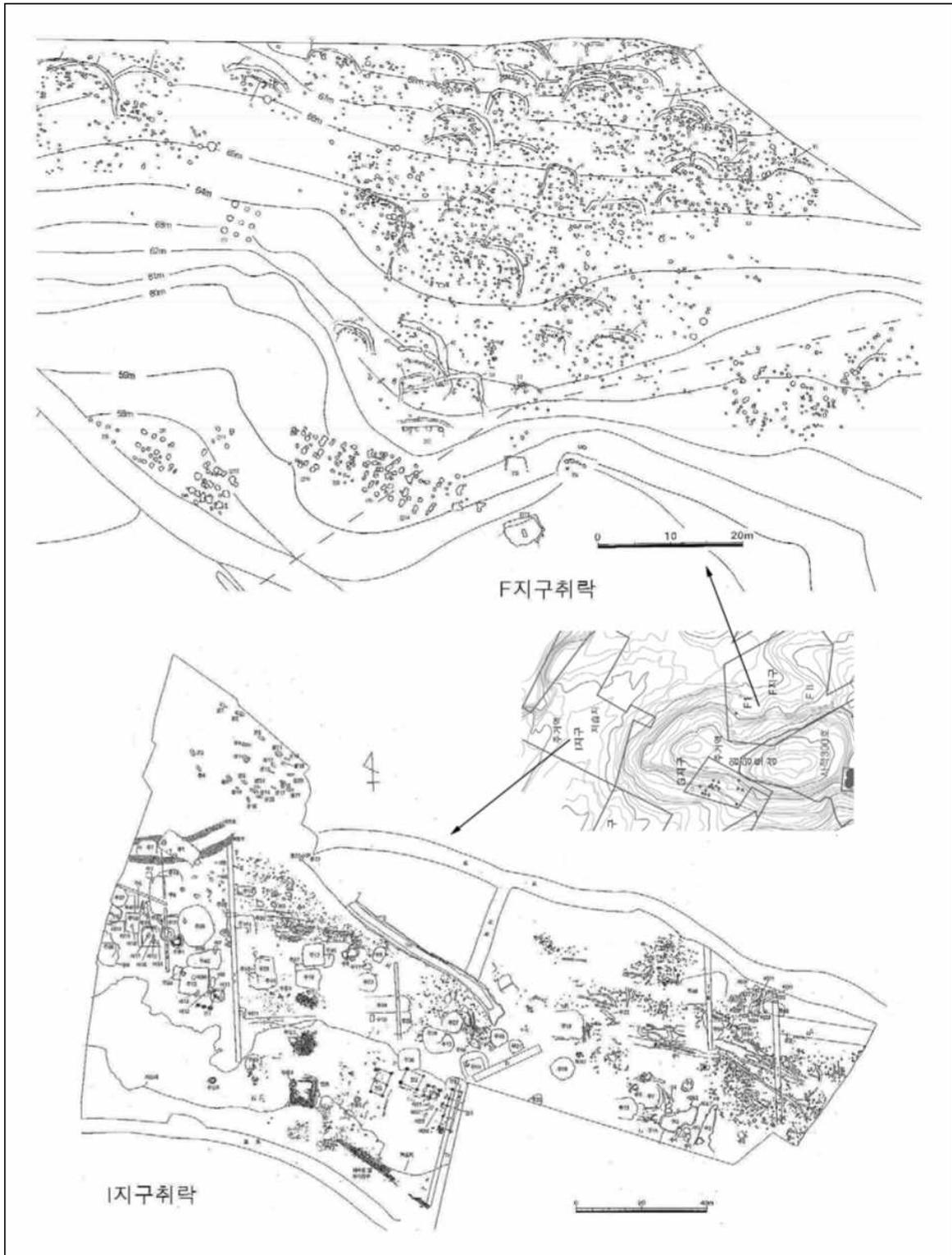
경산 임당유적은 압독국의 중심 읍락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으로 전체 조사구역 중 I 지구와 F 지구에 대규모 취락이 조성되어 있다. 분묘는 유적의 동쪽과 중앙에서 서쪽으로 입지를 달리하여 100여기 이상의 대규모 목곽묘가 조성되었다. I 지구는 수혈주거지가 중심이며, F 지구는 지상식 건물지가 중심이다. 임당유적은 취락 내 주거지, 생산유구, 저습지 등의 생활 구역과 매장 구역이 일정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어, 당시 진한 소국 중심취락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도면 5-9].

임당 I 지구 주거지의 조성 시기는 2시기로 구분되는데, IV-1기는 2세기 후엽~3세기 중엽, IV-2기는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F 지구 취락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모두 지상식 구조로 형태에 따라 지상식과 고상식으로 구분된다. 주거지 밖의 경사면 위쪽에는 주구(週溝)가 둘러져 있으며, 주구의 평면형태는 원형계과 방형계를 보인다. F 지구에서 확인되는 건물지는 모두 지상식 형태의 구조를 보이며 I 지구 주거지 IV-1·2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 지구 수혈주거지 중 7호와 59호는 지상식에 가까운 구조를 보이는데, F 지구의 7호·14호·15호 건물지와 유사하다.

I 지구 35호 주거지는 면적이 112㎡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지로 당시 I 지구 취락을 이끈 지도자층의 주거지로 추정된다. F 지구에서는 대부분 주구와 기둥자리만 잔존하여 명확하지 않지만 15호 주거지가 대형급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노형토기, 녹각형병부(鹿角形柄部), 시루 등 다량의 출토유물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유력개인의 주거로 추정된다. I 지구와 F 지구 취락은 3세기대에 공존하는 양상인데, 하진호는 임당취락에 대한 연구에서 구릉 사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면적 내 주거지 밀집도가 높고 구릉상에 조성된 입지적 우월성에서 F 지구 취락이 상위 위계의 취락으로 보았다.²¹⁴⁾ 필자 역시 이 견해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당시 중심취락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았을 것인데, 현재 진한지역에서 확인되는 수혈주거지는 포항 호동유적을 제외하면 대체로 10동~30동 내외로 소규모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경산 임당 F 지구와 울산 교통리유적에서는 지상식 건물지가 대규모로 확인되어, 당시 상위 중심취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높은 인구밀도를 반영하는 자료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F 지구 취락의 조성이 중단되고 이곳에 4세기 전엽 이후에 토성이 축조되는 것은 이곳이 상위취락지로, 읍락 안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공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임당 I 지구 취락지는 수혈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취락지의 성격을 파악할 수

214) 하진호, 2012, 「임당유적 취락의 형성과 전개」, 『영남문화재연구』 25, 영남문화재연구원, 116쪽



[도면 5-9] 경산 임당 F지구 취락 및 I지구 취락의 양상(하진호 2012)

있는 직접적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I지구 유적 남쪽에 동-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는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중엽 시기의 저습지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각종 유물과, 철기 생산 공방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었고 갑옷을 만들었던 목형과 베틀부속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저습지 자료를 통해 볼 때, I지구의 취락은 수변 제사와 철기 생산, 목기 생산 등 공방을 담당하는 F지구의 하위취락으로 추정된다.²¹⁵⁾ 이처럼 임당 유적은 압독국(押督國)의 중심 읍락 안의 상위와 하위취락 간 관계와 구조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경주 황성동유적은 진한 사로국의 대표적인 특수기능취락지이다. IV기의 황성동유적은 앞 시기의 소규모 단야를 중심으로 한 제철 생산구역이 주거지 군에서 확대되어 단야공정이 전업화되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생산구역이 크게 확대되어 용해작업의 전업체계가 형성된다. 이 철생산 구역을 중심으로 가·나지구에는 당시 철생산 공인들의 주거로 추정되는 주거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분묘구역은 생산구역의 북쪽에 걸친 넓은 부분에 형성된다. 황성동 목곽묘 축조집단은 제철작업에 종사 하던 야장과 그 일족일 가능성이 크에도 위계가 높은 유물이 보이지 않고 부장량도 다소 빈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이 취락을 장악한 중심세력(월성지구)의 통제 아래에서 철생산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3세기 후엽에 경주 황성동유적은 묘광 규모에 있어서 대형분뿐만 아니라 중형분과 목곽묘의 수량도 다른 유적에 비하여 압도적이다.²¹⁶⁾ 따라서 경주 황성동유적은 경주 월성지구 중심 읍락의 하위취락이 아닌 정치·경제적 상호 의존적 관계망(네트워크) 속에 연결된 주변취락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IV기에는 울산 하대고분군, 경산 임당동고분군, 포항 옥성리고분군 등 대규모 분묘군의 조성되는데, 이는 당시 세력이 강한 정치체의 출현을 암시하며, 이들 고분군이 있는 중심 읍락 또는 중심취락을 중심으로 대·소 규모의 취락들이 유기적인 연결망을 가지며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IV기 취락은 신식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진한지역에서는 대규모 중심취락의 조성, 대형 분묘군의 조성, 특수기능취락의 조성 등 취락의 분화와 발전이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주거지는 부뚜막 및 구들시설을 갖춘 평면 원형계 주거지가 지속되면서 새롭게 평면 방형계 주거지가 출현한다. 기원 3세기대부터 진한지역에 평면 방형계 주거지가 채용되면서 변한지역과는 주거 분화와 지역성이 나타난다. 특히 2~3기대에 마한 4주식 주거지가 전국적인 확산을 보이는데, 진한지역은 호서지역과의 밀접한 상호 교류와 연결망 속에 4주식 주거지 문화가 채용되면서 수혈식과 지상식 주거건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울산 입암리유적에서는 예계문화권에서 주 분포권을 보이는 중도식 주거지가 확인되어 이 지역과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특히 IV기 취락은 이전 시기보다 취락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어 중심취락과 특수기능취락의 양상이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중심취락은 취락의 기반시설과 규모로 보아 울산 교동리유적과 경산 임당동유적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특수기능취락은 제철생산과 관련하여 조성된 경주 황성동유적, 울산 중산동 일대 유적, 대구 봉무동유적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215) 하진호, 2012, 「임당유적 취락의 형성과 전개」, 『영남문화재연구』 25, 영남문화재연구원.

216) 안재호, 2020, 「하대 목곽묘집단의 사회적 위상」, 『울주연구: 우시산국 실존을 증명하다』, 18, 울주문화원 부설 울주향토사연구소, 240쪽

연결망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경주 나정유적에서 확인된 의례 시설은 경주 분지지구 읍락의 상징적 공간으로써 읍락 안에 분포하는 취락 구성원들을 종교적 의식 행사에 참여시키고, 취락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연암산유적에서는 석기류와 석기 제작용 석재(石材)가 대량으로 출토되어, 이곳이 여러 취락에 사용될 석기를 생산하던 취락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암산유적은 유물만 채집되어 성격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 유적이 당시 중심취락이었다면 주변에 분포하고 있었던 취락들에 석기를 유통시키는 연계망이 존재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구조는 읍락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이다.²¹⁸⁾

이 시기 분묘는 대체로 석곽묘, 석관묘, 옹관묘 등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묘제 문화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세형동검, 다뉴경 등 다량의 청동제 의기를 부장한 호서와 호남지역의 수장급 묘와 달리 진한지역에서 청동기 부장묘는 동검과 동탁 정도를 부장한 수준의 무덤으로, 경산 임당유적과 대구 팔달동유적에서 수기가 확인될 뿐이다.²¹⁹⁾ 대구 신천동과 경주 입실리 등에서 청동제 의기가 일부 확인되었지만 모두 출토지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양상은 알 수 없다.

이처럼 진한지역은 I · II기에 해당하는 취락 자료가 적어 당시 읍락의 구조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권구는 경주, 경산,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읍락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분묘자료뿐만 아니라 생활자료와 함께 변 · 진한의 읍락과 국에 접근한 연구로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에 경주, 경산,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역 읍락의 범위를 5km 반경으로 파악하였다[도면 5-10].²²⁰⁾ 송만영은 중부지방 점토대토기 단계의 공동체는 촌과 소촌이 결합된 촌락 수준으로 최소 2km 이상의 범위이고, 비교적 큰 규모의 촌락도 그 범위가 6km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 범위는 촌락에 소속되어 있는 취락들이 참여하는 제의권의 범위로 파악하였다.²²¹⁾ 이 선행연구와 취락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진한지역 I · II기 읍락의 범위는 대략 5km 반경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대형 취락이 해체되고 취락의 소형화와 분산화 과정은 점토대토기 단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부지방뿐만 아니라 남한 전역의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러한 배경과 요인에 대해 송만영은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계에 있어 농경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키운 중기 지석묘 사회의 불안전성에 원인이 있음을 제기하였다.²²²⁾ 이성주는 청동기시대와 야요이시대 대규모 취락은 집주(集住)를 통해 거대화되었지만 초기국가의 도시로 발전하지 못하고 당시 시스템의 조직이 더 이상의 규모 확대를 지

218) 김권구, 2016b,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위계형성」,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영남문화재연구원, 155~156쪽

219) 이청규, 2015, 「청동기~원삼국시대 사회적 변천」,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학연문화사, 328쪽

220) 김권구, 2016a, 「영남지역 읍락의 형성과 변화-경주 · 경산 ·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2, 한국고대사학회, 176쪽

221) 송만영, 2013,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239쪽

222) 송만영, 2013,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248쪽

탱해 주기 어려워 붕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²²³⁾ 이처럼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의 해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생계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남지방에서 기원전 1세기경에 국(國)이 형성되었다는 데에 고대사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당대 청동기와 철기 부장 목관묘가 국(國)을 고고학적으로 설명하는 근거라는 데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²²⁴⁾ 그리고 진한지역 소국 성립의 계기는 유민의 유입과 철 생산으로 보고 있다.²²⁵⁾ 특히 철과 철기의 확보는 여러 읍락들을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묶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이 국(國)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²²⁶⁾

진한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 ‘국(國)’의 형성과 관련하여 제 양상들이 나타나는 데, 특히 위계가 높은 청동제 의기와 철기류를 부장한 수장급 분묘가 출현한다. 이는 I·II기 취락 단계에서는 보이는 않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수장급 분묘로는 경주 조양동 5호묘, 대구 팔달동 45호묘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분묘는 부장품에 있어서 우월성을 보인다.

이 시기 경주 분지안에서 확인된 분묘로는 탑동 20-6번지에서 목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이 목관묘 내부에서는 기원전 1세기 후엽으로 추정되는 주조철부 3점과 주머니호 1점이 출토되었는데, 탑동 21-3·4번지(이하 1호묘로 통칭)와 20-6번지(이하 2호묘로 통칭)에서 확인된 목관묘 부장품에 비하면 열세하다. 그리고 황성동, 하구리, 북토리, 화천리 산251-1번지, 덕천리 유적 등 경주 분지와 외곽에서 기원전 1세기경의 분묘가 축조되기 시작한다. 분묘와 비교하면 생활 유구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경주 황성동유적과 경주 화천리 산251-1번지유적에서 원형계 부뚜막 및 구들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기원전 1세기경 경주지역에서는 분묘와 생활유구가 소수로 확인되어 구체적인 취락의 양상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경주지역에서 읍락의 범위가 점차 넓혀져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에 기원전 57년 육촌(六村)의 촌장들이 모여 혁거세(赫居世)를 왕으로 추대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건국신화가 실려 있다. 건국신화에 나오는 육촌은 바로 신라의 모태인 사로국을 구성한 핵심적 6개 읍락이다. 사로국 육촌의 이름은 양산(楊山), 고허(古墟), 대수(大樹), 진지(珍支), 가리(加利), 고야(高耶)이다.²²⁷⁾ 이 육촌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놓고 다소 이견이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사로국 단계에 고고학적 자료의 분포는 황성동·하구리 유적의 경주 분지지구, 사라리·화천리 유적의 대천 서면 지구, 인동리·안계리 유적의 안강 지구, 덕천리유적의 내남 지구, 조양동·구정동 유적의 불국사 지

223) 이성주, 2018, 「한국 선사·고대의 주거와 취락」, 『마한의 마을과 생활』, 학연문화사, 46~49쪽
 224) 이청규, 2019, 「수장의 개념과 변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영남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 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11쪽
 225) 이희준, 2011, 「경주 황성동유적으로 본 서기전 1세기~서기 3세기 사로국」, 『신라문화』 제38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26) 권오영, 1996, 『삼한의 「국」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9쪽
 227) 이현혜, 2016, 「제4장 진한연맹체와 사로국」, 『신라의 건국과 성장』 02, 경상북도.

구, 입실리·문산리·죽동리·북토리 유적의 외동 지구 등 크게 6개 지구로 구분된다. 이 6개 지구에서 확인되는 고고학 자료를 문헌 기록에 나와 있는 사로 육촌과 연결 짓는 부분은 현 자료상 한계가 있어 추후 자료 증대 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중심취락을 중심으로 주변취락과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울산 교동리 및 신화리 일대 취락은 남북으로 1.9km, 동서로 2.2km 크기의 구릉 안에 대·소 단위의 취락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 중심취락 안에는 분묘와 주거지 등으로 이루어진 취락군이 각 구역마다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 구릉 북서편에는 단독으로 취락 공동의 제장(祭場)으로 추정되는 의례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교동리 및 신화리 일대 취락의 상위로 추정되는 교동리유적은 유적 중앙 능선 최상부 평탄면에 1호 목관묘가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위계가 높은 청동제



[도면 5-11] 진한지역 III~IV기 중심 고분군 분포도

의기류, 철기류, 토기류 등의 부장품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수장층의 출현을 잘 보여준

다. 1호 목관에서 서쪽으로 90m 떨어진 곳에는 생활유구가 분포하고 있다. 10-1호 주거지에서는 진한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 구들식 노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서북한 지역의 구들문화가 이곳에 전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삼한시대 울산 교동리와 신화리 일대 취락에서는 새로운 문물과 문화가 활발하게 유입되었고, 이를 관리하는 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짐작케 한다.²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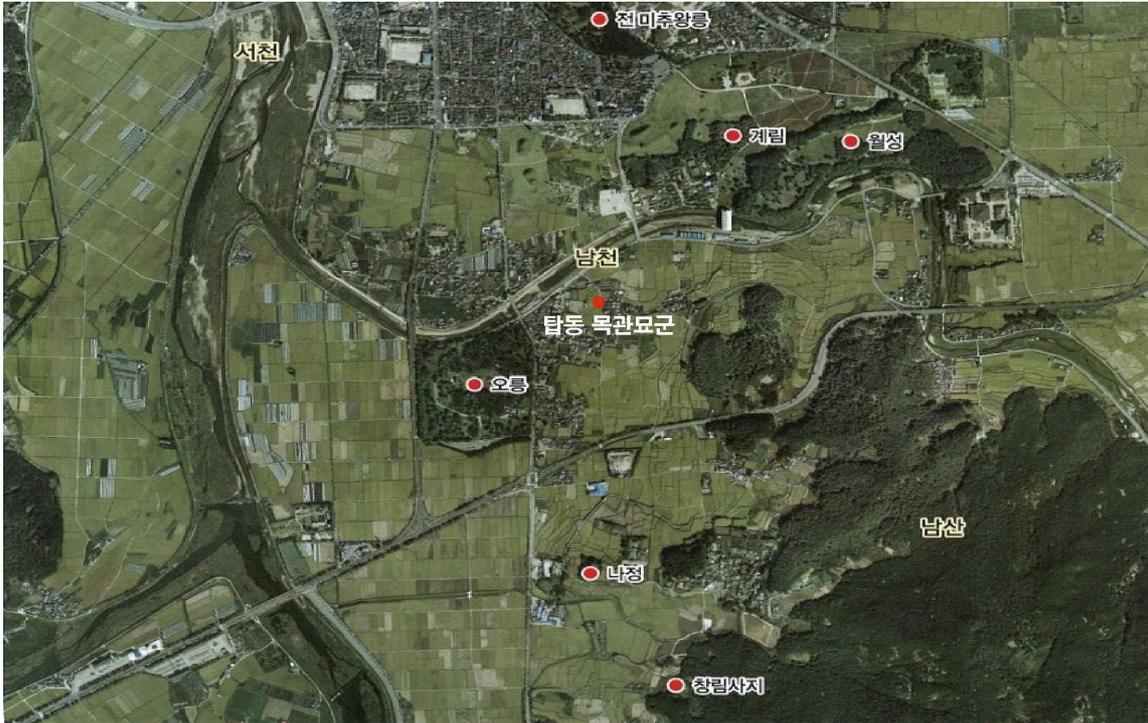
이처럼 울산 교동리 및 신화리 일대 유적은 기원전 1세기경에 가장 큰 중심취락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과 동시기 즉, 대략 기원전 1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상천리유적 I, 울산 반송리 425-1유적은 3.5km 내 인근에 위치하며 상호 집단 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 상천리유적 I(941-4유적 포함)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의 목관묘 자료가 확인되었는데, 철검, 철모 등의 철기류와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울산 교동리와 신화리유적의 목관묘와 비교하면, 부장품의 질과 양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취락은 교동리 중심취락의 주변에 위치하는 일반취락으로 추정된다. 특히 교동리와 신화리 취락 인근에 위치하는 주변취락들은 교동리 192-37유적에 위치하는 의례 환호를 중심으로 취락 구성원들 간의 유대와 결속을 통해 읍락 공동체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 1세기 이후가 되면 개인 유력자들의 출현 양상이 경주지역뿐만 아니라 진한지역 곳곳에서 확인된다. 각 지역별 지배자로 추정되는 목관묘 자료를 살펴보면, 경주지역은 탑동, 조양동, 사라리 유적이 대표적이며, 울산지역은 창평동 810번지, 장현동 유적, 그리고 경산지역은 임당, 조영동, 하양 양지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대구지역은 팔달동유적, 영천지역은 어은동, 용전리 유적, 포항지역은 성곡리유적이 대표적이다[도면 5-11].

경주 분지에서는 경주 탑동 21-3 · 4번지(통칭 1호 목관묘)와 20-6번지(통칭 2호 목관묘)에서 목관묘 2기가 확인되었는데, 1호 목관묘는 사라리 130호묘와 함께 경주지역 최고의 위계를 보인다. 이 탑동 목관묘군 주변으로는 서쪽 인근에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오릉(五陵)이 자리 잡고 있다. 2호 목관묘 출토의 한경(漢鏡)은 신라가 건국되었다고 기록된 기원전 57년에 후행하는 기원전 1세기 후반 경주 시내를 지배했던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된다.²²⁹⁾ 그리고 이 탑동 2호 목관묘 남쪽에서 1.7km 떨어진 탑동 700-1번지 일대에는 신라의 시조 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깃든 나정유적이 위치해 있다. 나정유적은 지형상 남산의 북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분기한 능선 즉, 식혜곡과 정창곡 사이의 완만한 평지성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의례시설은 기원전 2세기대로 추정되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 유물이 확인되어 경주 탑동 21-3 · 4번지 1호 목관묘와는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나정유적 일대 공간의 상징성을 고려해 보면, 기원후 시기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사로국 중심 읍락의 중요한 제의를 담당하는 시설로써 경관을 이루고 있었을 것으

228) 권용대, 2016, 「신화리 유적의 삼한 · 삼국시대 묘제」, 『울산의 시작, 신화리-땅속에서 만난 새로운 역사』, 울산대국박물관 2016년 제2차 특별전 도록, 울산대국박물관, 154쪽

229) 이양수, 2022, 「경주 탑동 목관묘 출토 청동기로 본 대외관계와 피장자의 성격」, 『중앙고고』 39, 중앙문화재연구원.



[도면 5-12] 문헌 기록에 나오는 신라 건국 관련 유적도(경상북도 2016, 수정 전제)

로 추정된다[도면 5-12].

한편, 진한지역 III기 취락의 특징 중 하나가 철기 생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경주 황성동유적, 울산 달천유적에서 확인된 철 생산 관련 자료가 대표적이다. 황성동 다지구 원형주거지의 성격은 소규모 단위의 단조 철기를 생산하는 전문공인집단의 거주지로 추정되며, 울산 달천유적 주거지의 성격은 철광산 일대에 거주하며 철광석을 채굴했던 집단의 거주지로 판단된다. 당시 이들 취락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심취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주 황성동유적은 남쪽으로 4.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는 경주 분지내 탑동 목관묘 세력으로 파악되며, 울산 달천유적은 남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울산 창평동 810번지 목관묘 세력으로 파악된다. 당시 읍락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철 생산은 중심취락과 주변취락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취락간 유통시키는 연결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III기에 진한지역은 경주와 울산지역에서 확인되는 분묘와 생활유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읍락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國)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국(國)의 범위에 대해 김권구는 경주지역이 20km, 경산과 김해 지역이 중심유적에서 10km로 파악하였으며, 이 범위는 기원 2~3세기대까지 유지된다고 보았다.²³⁰⁾ 이성주는 영남 동남부 일대 삼한 국(國)의 영역을 반경 6~7km와 반경 12~14km로 보았으며, 사로국의 경우 반경 20km로 예상하였다. 이성주는 당시 국(國)의 규모가 불균등한 양상은 『삼국지』 동이전의 문헌 기록과 합치하는 대국(大國)과 소국(小國)의 차이로 파악

230) 김권구, 2016a, 「영남지역 읍락의 형성과 변화-경주·경산·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2, 한국고대사학회.

하였다.²³¹⁾ 본고 역시 기원전 1세기경에 출현하는 삼한 국(國)의 범위는 각 지역별 소국과 대국의 차이, 각 시기별 읍락 간 통합 등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고정적이지 않고 각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원전 1세기대와 기원 3세기대의 국(國)은 동일한 규모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백년 사이에 국(國)은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²³²⁾

한편, 이 시기 읍락이 완결성을 가진 단위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생산 활동과 종교적 의식행사 등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보인다.²³³⁾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는 경주 분지 내에 분포하는 탑동 목관묘와 경주 나정유적, 그리고 경주 황성동유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주 분지 지구의 탑동 목관묘 축조 집단이 이끄는 중심 읍락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은 주변취락인 경주 황성동 제철 집단이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탑동 목관묘군 주변으로 생활유구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울산 교동리유적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목관묘 주변으로 상위와 하위 취락이 유기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주 나정유적은 읍락 구성원의 종교적 의식 행사를 담당하는 제의시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경주 분지 지역에서 확인된 분묘와 의례관련 시설 등의 자료는 사로국 중심 읍락의 내부 구조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한, 울산지역의 상위 수장층묘가 확인되는 창평동 810번지유적과 달천, 창평동 유적은 중심취락과 주변취락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정유적과 같은 제의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자료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IV기에 이르면 읍락과 국의 다양한 변동양상이 나타난다. 목관묘 단계에 수장급이라 할 만한 후장묘(厚葬墓)는 상대적으로 극소수이며, 일정 지역 집단에서 한 세대에 하나정도가 존재할 정도이다. 그러나 목관묘 단계는 일정 능선을 누세대적으로 점유해 나간 수장묘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체로 3세기 후반에 이런 중심고분군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²³⁴⁾

이재현은 목관묘의 계층구분을 규모와 철기 부장량 등을 고려하여 3개의 부류로 구분하였다. 진한지역에서 포항 옥성리유적과 울산 하대유적을 1부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 유적을 국읍 집단의 무덤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경주 황성동유적과 울산 중산동유적에서는 1부류 무덤이 없어 상위 국읍세력의 통제를 받는 전문수공업 집단으로 보았다. 이를 통괄하던 중심세력을 경주 월성북고분군 세력으로 추정하였다. 2~3세기 무렵의 사로국은 달천철장과 중산동, 황성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철 생산체계를 중심세력이 장악하였으며, 울산 하대, 포항 옥성리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국은 철을

231) 이성주, 2016, 「복합사회 형성과 발전에 대한 고고학 연구」, 『진·변한 ‘국’의 형성과 발전』,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21쪽

232) 이청규, 2019, 「수장의 개념과 변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영남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9쪽

233) 문창로, 2016, 「동예의 읍락과 사회상-: 불내에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1, 한국고대사학회.

234) 이성주, 2016, 「복합사회 형성과 발전에 대한 고고학 연구」, 『진·변한 ‘국’의 형성과 발전』,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27쪽

통해 사로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²³⁵⁾ 진한지역 무덤의 위계 양상을 검토한 윤온식의 연구에서도 3세기 후반 이전까지는 포항 옥성리와 울산 하대유적이 최상위 위계를 보인다고 하였다.²³⁶⁾ 이처럼 기원 2세기 후엽에서 3세기 후엽 시기에 진한지역 국읍 집단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은 포항 옥성리유적과 울산 하대유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진한의 맹주인 사로국이 있었던 경주지역에서는 이 시기 국읍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빈약하다. 현재 경주지역의 국읍으로 추정되는 곳은 월성지구이다. 이 월성지구에서 확인되는 생활유구는 월성 북편의 방형계 주거지 2동(다지구)과 월성해자 계림 남쪽에서 제철 공방지와 단야로 관련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분묘자료는 동쪽 인왕동부터 서쪽 노서동·황남동까지 월성북고분군이 분포해 있다. 기원 2세기 후엽부터 월성지구에 형성되기 시작한 취락은 사로국의 국읍 중심촌으로 발전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의 풍남토성 하층에서 조사된 백제국 국읍의 3중 환호취락을 참고한다면 원래 자연구릉 상태였을 월성의 하부에도 환호나 목책과 같은 것으로 둘러싸인 방어취락이 자리했을 가능성이 크다.²³⁷⁾

포항지역은 경주 사로국과 가장 인접해 있는 곳으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근기국(勤耆國)으로 비정되고 있다. 포항지역 국읍의 무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인 옥성리유적은 주변에 생활유적 자료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생활유적 자료는 포항 옥성리유적에서 남쪽으로 2.5km 거리에 위치하는 포항 성곡리유적과 서쪽으로 14.5km 거리에 위치하는 포항 호동유적이 있다. 포항 성곡리유적은 거리상으로 보아 포항 옥성리유적의 하위 또는 주변취락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에서는 16동의 수혈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취락의 규모가 크지 않고 수혈주거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일반취락으로 판단된다. 포항 호동유적은 포항 옥성리유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에서 포항 옥성리유적보다는 주변 일대에 형성된 읍락의 중심취락지로 판단된다. 포항 호동유적에서는 3~4세기대 수혈주거지가 273동이 확인되는 점에서 당시 높은 인구 밀도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고지성취락으로 해발고도가 주변보다 70m 정도 높은 지점에 위치하여 주변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장기간 유지된 점 등에서 방어적 성격의 취락으로 보기도 한다.²³⁸⁾

울산은 진한의 맹주인 사로국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소국(小國)이었다. 『삼국사기』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삼한시대 울산지역에서는 우시산국(于尸山國)과 굴아화촌(屈阿火村)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시산국은 웅촌면 대대리, 굴아화촌은 범서읍 굴화리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하대유적은 웅촌면 일대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길게 발달한 야트막한 산등성이에서 동쪽으로 뺀 구릉 경사면에 분포한다. 동쪽으로는

235) 이재현, 2016, 「진·변한 ‘국’의 형성과 발전」, 『진·변한 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95-102쪽

236) 윤온식, 2021, 「지역과 지구별 집단의 위계 변동으로 본 사로국의 진한 통합」, 『야외고고학』 41, 한국문화유산협회.

237) 최병현, 2016, 「경주 월성과 신라 왕성체제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98, 한국고고학회, 62, 78쪽

238) 김창익, 2009, 「영남내륙지역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영남지방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56쪽

회야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그 주변으로 충적지가 넓게 형성되었다. 고분군은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대형의 목곽묘가 조성되었고, 사면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소형 무덤이 조성되었다. 하대유적은 대형의 목곽묘, 중국과의 교역을 알려주는 청동솥, 다량의 유물 부장 등의 양상을 통해 이곳을 삼한 소국(小國) 중 우시산국으로 비정하고 있다. 하대 일대는 우시산국의 국읍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범위 안에는 여러 취락군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자료상 분묘자료만 확인되어 전체 취락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하대고분군과 인접하여 충적 대지에서 3세기 중반대에 형성된 저습지가 확인된 대대리 144-4,5번지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아마도 이 일대에 하위취락지가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근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약 600m정도 거리에 있는 구릉일대에서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유적(곡천리 산81-4번지 일원)이 발굴조사되었다. 이 유적의 I 지구에서는 4~5세기대 삼국시대 주거지 17동, 수혈 및 구 8기 등이 확인되었다.²³⁹⁾ 이 자료들을 참고해 볼 때, 하대고분군의 상위와 하위취락지는 주변 구릉지와 충적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울산 하대유적은 그 주변에서 생활유구가 거의 확인되지 않아 국읍 취락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신 하대유적에서 북서쪽으로 약 1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교동리유적에서는 대규모 중심 읍락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교동리유적은 높은 구릉상에 있어 주변을 조망하기 좋고,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일대에는 충적지가 넓게 분포하며, 높은 인구밀도를 반영하는 지상식 건물지와 잉여 생산물의 저장을 위한 고상 창고, 의례와 집회 등의 용도로 사용된 대형 특수 건물지, 소도 신앙과 관련된 입주수혈, 경계 및 구획 시설인 목책 및 구(溝)시설 등 중심 읍락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교동리유적은 높은 구릉상에 위치하고, 또 대규모 특수 건물지와 솟대 신앙으로 추정되는 입주 의례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당시 이곳은 주변취락들 사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중심 읍락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유적 주변의 하위취락들은 아직 확인 사례가 없지만, 구릉 사면이나 말단부, 그리고 충적 평지 일대에 취락지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하위취락들은 다양한 생업 활동을 통해 교동리 상위취락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산 임당유적은 압독국의 중심 읍락으로 추정되고 있는 취락으로 전체 조사구역 중 I 지구와 F지구에서 대규모 마을이 조성되었다. 분묘는 유적의 동쪽과 중앙에서 서쪽으로 입지를 달리하여 100여기 이상의 대규모 목곽묘가 조성되었다. 취락내 대규모 공동묘역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국읍 취락으로서 높은 인구밀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일대를 조망하기 좋은 구릉지에는 F지구 취락지가 위치하고, 그 아래 평지에는 I 지구 취락지가 분포해 있다. F지구는 지상식 건물지 중심이고, I지구는 수혈 주거지가 중심을 이룬다. F지구에서는 정형된 형태로 조사된 지상식 건물지 외에도 무수히 많은 기둥 자리가 중복되어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239) 울산문화재연구원, 2021, 「울산 웅촌 곡천지구도시개발사업부지내 유적 약보고서」.

양상은 울산 교동리유적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이는 당시 높은 인구 집주(人口 集住) 현상을 반영하는 자료로 여겨진다.

그러나 울산 교동리유적과 경산 임당유적은 대규모 중심취락지 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수혈주거지의 수가 취락의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중심 읍락에서는 건축물이 더욱 밀집되어 있으므로 지상식 건물지를 선호하여 취락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울산 중산동 취락은 총적지에 분묘, 주거지, 철 생산지가 일정한 공간을 구성하며 분포하고 있는 경주 황성동유적과 유사한 면이 많다. 게다가 이곳은 경주 외동방면의 조양동유적부터 시작해서 불과 수 km의 거리마다 구정동, 죽동리, 입실리, 문산리, 중산리 등 목관묘 유적들과 달천광산이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중산리고분군과 달천광산이 분포하고 있는 동천유역의 취락들은 Ⅲ기부터 경주 사로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중요한 단위 읍락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⁴⁰⁾ 동천유역 일대 취락은 대략 기원후 2세기 중엽 즈음 사로국의 범위에 포함²⁴¹⁾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은 사로국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지원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곳 일대의 주거지 자료가 확보되면, 철 생산 특수기능취락의 구조와 성격 등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을 통해, 삼한시대 진한지역의 3세기대 국읍(중심 읍락) 또는 주변 단위 읍락

[표 5-3] 삼한시대 진한지역 3세기대 읍락의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분포 양상

취락의 유형	관련 유적	특징	비고
중심 상위취락	울산 교동리유적	구릉지 입지(조망, 방어 유리), 지상식 주거지(인구 집주), 고상 창고군, 의례 시설(특수건물지, 입주수혈), 목책(경계시설)	
	경산 임당유적(F지구 취락)	구릉지 입지(조망, 방어 유리), 지상식 주거지(인구 집주), 고상 창고군, (추정)목책시설(토성 바닥 23기의 주혈)	임당 고분군 조성
	경주 월성지구 유적	구릉지 입지(조망, 방어 유리), 방어시설(환호 추정), 주거지 등	월성 북고분군 조성
하위취락	(추정) 울산 교동리유적 주변	(추정) 구릉 말단과 총적지 일대 입지(농업, 수공업 관련 생산시설 분포 예상)	
	경산 임당유적(I 지구 취락)	총적지 입지, 수혈주거지(인구 집주), 저습지(의례, 수공업 관련 유물 자료 확인)	
	경주 월성 계림 남편 유적	총적지 입지, 생산시설(제철)	

240) 경상북도, 2016, 『사로국시기 건국과 성장』 01 자료집,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241) 이희준, 2011a, 「경주 황성동유적으로 본 서기전 1세기~서기 3세기 사로국」, 『신라문화』 제38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취락의 유형	관련 유적	특징	비고
주변취락	울산 구수리 277유적	구릉지 입지, 목탄 가마 확인	울산 교동리유적에서 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	총적지 입지, 생산시설(제철, 토기가마), 주거지	경주 월성지구에서 4km 떨어진 거리에 위치, 경주 황성동 고분군 조성
	대구 매호동 1008번지유적	총적지 입지, 방형계 구들 주거지	경산 임당유적에서 약 4km 떨어진 거리에 위치

의 중심취락으로 추정되는 곳은 경주 월성지구, 경산 임당유적, 울산 교동리유적이다. 이들 유적의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분포정형을 살펴보면, [도면 5-1], [표 5-3]와 같다.

울산 교동리유적, 경산 임당유적(F지구)은 상위취락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고지(高地)의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은 주변을 조망하고 방어에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고지에 위치한 취락은 주변 지형을 조망할 수 있어 적의 접근을 미리 파악하고 방어에 용이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고분군 주변에 위치한 상위취락이 방어와 관리에 효과적인 전략을 채택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 상위취락은 목책시설 갖추고 있으며, 높은 인구 집주(集住)를 보이는 수혈주거지 또는 지상식 건물지가 밀집 분포해 있다. 이러한 집주 양상은 정치 권력의 기반이 되는 잉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장층이 의도적으로 노동력을 중심으로 밀집시키는 전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²⁴²⁾

권오영은 토성이나 여타의 방어시설로 감싸여진 국읍 내부에는 지배층의 거주처와 공동창고, 회의장이나 광장, 제의(祭儀) 공간, 특수한 생산 시설 등이 존재했으며, 인근에 거주하며 농경 등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던 일반 국읍(國邑)민들도 비상시 성(城)이나 방어시설 안으로 들어가 안전을 도모했던 것으로 보았다.²⁴³⁾ 울산 교동리유적은 이러한 국읍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주변 일대 고분군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울산 교동리유적에서 하위취락은 아직 확인사례가 없지만, 아마도 구릉 말단부와 총적지 일대에 분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울산 교동리유적에서 동쪽으로 5km 떨어진 거리에 분포하는 울산 구수리 277유적은 주변취락으로 추정되며, 이곳에서는 목탄 가마가 확인되어 제철 등의 특수기능취락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산 임당유적은 상위취락(F지구)-하위취락(I지구)의 경관 구조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임당유적에서 4km 떨어진 곳에 분포하는 대구 매호동 1008번지유적은 주변취락으로 추정되는데, 총적지 상에 주거지만 일부 확인되어 취락의 성격이 일반취락인지 특

242) 강동석, 2019, 「GIS를 이용한 가락국 「국읍」의 경관 분석과 해석」, 『한국고고학보』 13, 한국고고학회, 100쪽

243) 권오영, 1996, 『삼한의 「국」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6쪽

수기능취락인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경주 월성지구는 사로국의 중심 읍락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상위취락지는 주변 지역보다 고지(高地)의 구릉지에 입지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주거지와 철 생산 관련 유구가 소수만 확인되어 구체적인 국읍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주 월성지구와 월성북고분군은 구야국의 국읍으로 추정되고 있는 김해 봉황동유적 및 김해 대성동고분과 입지, 취락 경관 구조 등이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월성지구의 하위취락은 제철 관련 유구가 확인된 계림 남편유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월성지구에서 4km 떨어진 곳에는 특수기능취락인 경주 황성동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중·대형분의 고분군이 조성된 경주 황성동유적은 경주 월성지구의 국읍과 정치·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사회 관계망(네트워크)을 가진 주변취락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주변 지역 간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촉진하고, 중심취락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요컨대, I·II기 진한지역에서는 개인 유력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대규모 중심취락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소규모 읍락 단위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범위는 5km로 추정된다. III기에는 기원전 1세기 전엽을 기점으로 진한지역에 개인 유력자의 존재가 확인되고, 중심취락의 조성, 철 생산과 관련된 특수기능취락의 조성 등이 확인되는 양상을 통해 삼한 소국(小國)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의 범위는 지역, 시기, 통합 정도 등에 따라 유동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대략 10~15km 정도로 추정된다. 울산지역의 교동리 및 신화리 일대 유적과 경주지역의 탑동 목관묘군, 황성동 일대 유적, 나정유적 등의 취락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당시 읍락이 단위 집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생산 활동과 종교적 의식행사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IV기에 이르면 울산 하대유적과 포항 옥성리유적 등에서는 대규모 중심고분군이 조성되고, 울산 교동리와 경산 임당 유적에서 확인되는 대규모 중심취락의 조성, 경주 황성동과 울산 중산동 일대에 대규모 특수기능취락지의 조성 등을 통해, 당시 읍락과 국의 다양한 변동과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기원 3세기 중·후엽에는 이전 시기보다 중심(상위-하위)과 주변취락의 분포 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읍으로 추정되는 경주 월성지구 유적, 경산 임당 유적 등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상위취락은 모두 방어에 유리한 고지의 구릉지에 입지하며 주변에 대규모 고분군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위취락 주변으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위취락들이 분포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취락에서 3~5km 이격된 거리에는 일반취락과 특수기능취락 등이 분포하며 정치·경제 등으로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회 관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VI. 결론

진한지역 취락연구는 대체로 삼한시대 영남지방의 주거지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단위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때문에 진한지역의 취락이 언제 형성되었으며, 주변 지역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라 취락의 중요한 모체가 되는 진한지역 취락에 주목하여, 사로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소국들의 취락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고자료와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취락의 협의적 측면과 광의적 측면에서 진한지역 취락연구를 진행하였다. 협의적 측면에서는 진한지역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 새로운 주거문화의 기원, 그리고 출현 의미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광의적 측면에서는 취락의 다양한 구성 시설들을 검토하여 진한 취락의 성격과 구조 및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진한지역의 읍락과 국(國)의 양상에 접근해 보았다.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진한지역 주거지의 구조와 지역별 양상을 검토하였다. 먼저, 유적 편년의 틀과 기준은 토기를 중심으로 I~IV기로 구분하였다. I기는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4세기 후엽~기원전 3세기이다. II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2세기이다. III기는 전기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전엽~기원 2세기 중엽이다. IV기는 후기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기원 2세기 후엽에서 기원 4세기 초·전엽이다.

이 편년 구분을 기준으로 경주, 울산, 포항, 영천, 경산, 대구 등 지역의 취락 분포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취락의 협의적 측면에 접근하여 주거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거지는 생활면의 위치에 따라 크게 수혈주거지와 지상식 건물지로 구분하였다. 수혈주거지는 시간성, 지역성, 계층성을 반영하는 평면형태, 기둥배치, 노시설, 면적 등의 구조 속성을 검토하고 유형을 설정하여 각 지역별 주거지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진한지역은 I~IV기에 이르기까지 재지와 외래 주거문화 간 다양한 공존과 융합 등을 거쳐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지상식 건물지는 바닥의 위치에 따라 지면식과 고상식으로 구분된다. 고상식 건물지는 I~III기까지는 1×1칸 고상식 구조가 주류를 이루며, 취락내 축조 비율은 높지 않다. 용도는 주거지의 부속시설, 망루, 창고 등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IV기에는 1×1칸, 2×1칸, 2×2칸 등 고상식의 구조가 다양해진다. 지면식 건물지는 주로 IV기에 유행하며, 벽주식, 4주+벽주식 등 수혈주거지의 기둥배치와 유사한 형태, 열쇠모양을 한 대규모의 특수한 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출현한다. 이러한 지상식 건물지는 일반 가옥, 수장층 가옥, 창고, 의례나 집회를 위한 특수 건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 교동리유적과 경산 임당유적 등 주로 중심 취락에서 지상식 건물지의 축조 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Ⅲ장에서는 진한지역 주거지의 전개와 문화를 검토하였다. 먼저, 진한지역은 청동기 시대 이후 다양한 사회 변동 속에서 외래문화가 유입되면서 주거문화 또한 변화가 나

탄한다. 즉 진한 형성기에는 기존 재지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외래의 이주민들의 주거지가 공존 및 혼재하거나 두 주거문화가 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 원형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주거 형태는 평면 원형계 또는 방형계에 무시설식 노시설을 갖춘 단순한 구조를 보이거나 부정형한 수혈의 형태가 많다.

이후 기원전 2세기의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에 들어서면 평면 방형계 주거지에 무시설식 노시설을 갖추 형태가 재지의 주거문화로 정착하게 된다. 기원전 1세기 전엽에는 새로운 문화 파동과 함께 남해안과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여 영남 내륙까지 연결되는 광역의 교역망을 통해 평면 원형계에 돌로 만든 구들식 주거지가 울산 교동리유적과 대구 달성 평촌리유적에 유입된다. 돌로 만든 평면 원형계 주거지는 점차 지역의 환경과 여건 등에 맞게 점토를 이용해 만들면서 재지의 주거문화로 성행하게 된다. 기원 2세기 후엽에는 경주 황성동유적을 중심으로 새롭게 평면 방형계 주거지가 출현하여 영남 중부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성행하게 된다. 기원 3세기 중·후엽에는 진한과 변한의 주거지가 뚜렷하게 분화되고, 영남 중부와 동부, 영남 서부와 남해안지역권으로 구분되는 주거문화의 지역성이 나타난다.

진한지역에 새롭게 확인되는 방형계 4주식 주거지는 벽주혈의 유무에 따라 4주식과 4주+벽주식 주거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두 주거유형의 각 지역권별 주거양상과 분포양상 등을 검토한 결과, 4주식의 방형계 주거유형은 주로 영남 서부와 남해안 지역에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마한·백제계 주거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4주+벽주식 방형계 주거유형은 영남 중부 및 동부지역에서 주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3세기대 자료로 미루어 보아 호남지역보다는 호서지역과의 관련성이 엇보인다. 특히,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4주+벽주식 방형계 주거유형과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는 시기는 3세기대로 이 시기에 신라 사로국이 호서의 마한지역과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한 결과 교역과 교류 등의 양상이 여러 물질자료에서 확인된다. 3세기 중·후엽부터 진한과 변한 지역의 주거 형태가 분화되는데, 그 원인과 배경은 진한이 마한과의 네트워크와 상호 교류 등의 관련 속에서 방형계 4주식 주거 문화를 수용한 부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진한지역의 수혈주거지에서는 입지와 규모 등 상위 계층이 거주했던 계층화 현상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는 마한지역과 삼국시대 주거지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양상이다. 반면, 지상식 건물지 중 지면식의 구조는 형태, 규모, 입지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주거문화의 계층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V장에서는 주거지 외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생산, 의례, 방어·경계, 매장시설을 검토하였다. 생산시설은 경주 황성동유적과 울산 달천유적 등의 자료를 통해 기원전 1세기대부터 철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자료가 많지 않지만 문헌자료와 고고자료 등을 통해 농경, 수공업도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의례시설은 주구형유구 및 제단시설, 환호, 입주수혈 등이 있는데, 이는 당시 취락내 다양한 형태의 의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주 나정유적의 1차 시설에서 확인된 입주수혈은 취락지에서 확인되는 입주수혈의 형태와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정유적의 입주수혈은 마한지역의 무덤 영역에서 확인되는 장타원형(올챙이형) 수혈과 유사

한데, 이는 진한지역의 생활영역에서 치러진 의례 형태와 차이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자료라 생각된다. 그 밖에 환호, 목책시설, 구(溝) 시설은 취락 전체를 방어하거나 경계 및 구획하는 시설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장시설은 취락내 시기별 변화양상이 관찰된다. I · II기에는 적석목관묘라는 새로운 묘제가 확인되지만 주로 석관묘, 옹관묘 등 청동기시대 묘제 문화의 전통이 지속되며 개인 유력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III기에는 순수 목관묘로 전환되면서, 청동제 의기와 철기류를 다량으로 부장한 개인 유력자의 존재가 경주 조양동, 탑동, 사라리, 경산 하양 양지리, 울산 교동리, 창평동 810번지 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IV기에는 목곽묘가 새로운 묘제로 등장하면서 청동제 의기는 점차 사라지고 철기류가 이를 대체한다. 이 시기 울산 하대유적과 포항 옥성리유적 등에 조성된 대규모 중심고분군은 취락내 강한 정치체의 출현을 암시한다.

V장에서는 진한지역 취락의 성격과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진한지역 취락의 입지 유형은 크게 구릉지와 충적지로 구분되는데, 취락의 규모, 위계, 성격, 지역 환경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취락의 유형은 크게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된다. 중심취락은 다시 상위취락과 하위취락으로 세분되며, 주변취락은 기능과 성격 등에 따라 일반취락과 특수기능취락으로 세분된다. III기와 IV기로 갈수록 중심취락과 특수기능취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발전해 간다.

진한취락의 전개는 시기에 따라 형성, 정착, 변동과 성장, 분화와 발전으로 나타난다. I기 취락은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진한 취락의 형성기라 할 수 있다. 진한지역에 유이민들이 유입되면서 주거지, 분묘 등 기존 재지민의 문화와 공존 및 융합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II기 취락은 삼각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며, I기에 이어 계속해서 유이민들이 유입되어 소규모 단위의 취락들이 형성되고 정착이 이루어진다. 대체로 I · II기 취락은 의례 공간을 중심으로 취락 간 통합의 구심점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II기 취락은 전기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취락이 이전 시기보다 성장하고 재편·변동되는 양상이 간취된다. 주거지, 분묘 등의 시설에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등장한다. 주거지는 앞 시기 재지의 평면 방형계 주거지가 지속되면서 새롭게 평면 원형계에 부뚜막식 및 구들식 노시설이 설치된 주거지가 출현하며 확산되어 나간다. 분묘에서는 수장묘의 단독 조성과 그 하위 분묘군의 군집 축조의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울산 교동리유적, 울산 달천유적, 경주 황성동유적 등에서 중심취락과 특수기능취락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IV기 취락은 후기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며, 진한 취락이 분화와 발전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주거지는 부뚜막식 및 구들식 노시설을 갖춘 평면 원형계 주거지가 지속되면서 새롭게 평면 방형계 주거지가 등장한다. 기원 2~3세기대에 마한 4주식 주거지가 전국적인 확산을 보이는데, 진한지역은 호서지역과의 밀접한 상호 교류와 연결망 속에 4주식 방형계 주거지가 채용되면서 수혈식과 지상식 주거건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울산 입암리유적에서는 예계문화권에서 주 분포권을 보이는 중도식 주거지가

확인되어 이 지역과의 관련성이 엇보인다. 특히 IV기 취락은 앞 시기보다 취락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어 중심과 주변 취락 간의 관계가 두드러진다.

이상의 각 시기별 취락을 통해서 볼 때, 읍락(邑落)과 국(國)의 변동 양상이 간취된다. I·II기 진한지역에는 개인 유력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대규모 중심 취락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당시 취락들은 소규모 읍락 단위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범위는 대략 5km로 추정된다. III기에는 기원전 1세기 전엽을 기점으로 진한지역에 수장층의 존재가 확인되는 분묘가 조성되고, 중심취락과 그 주변에 특수기능취락 등이 형성되는 양상으로 미루어 소국(小國)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國)의 규모와 범위는 대국(大國)과 소국(小國)의 차이가 있고, 시기에 따라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위는 대략 10~15km로 추정된다. 이 시기 울산지역의 창평동 810번지유적과 달천유적 등의 취락 자료와 경주 도심지구에서 분포하는 탑동 목관묘군, 황성동 제철유적, 나정유적 등의 취락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당시 읍락이 하나의 단위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생산활동과 종교적 의식행사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IV기에 이르면 국읍과 단위 읍락 안에는 상위와 하위 취락, 그리고 중심과 주변 취락과의 분포 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읍으로 추정되는 경주 월성지구와 경산 임당유적, 그리고 읍락의 중심취락으로 추정되는 울산 교동리유적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상위취락은 넓은 범위의 조망과 방어에 유리한 고지의 구릉지에 입지하고, 환호와 목책 등과 같은 방어·경계시설을 설치하고, 읍락 구성원들 간의 결속과 통합을 도모하는 종교시설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위취락은 상위취락에 종속되어 유기적으로 주거역을 형성하여 인구집주(人口集住)을 이루고, 상위취락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는 다양한 생업활동을 영위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심취락의 주변에 분포하는 취락들은 보통 3~5km의 범위 내에 분포하며, 이들 취락 간에는 정치·경제 등의 중요한 사회 관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은 삼한시대 진한지역 취락을 규명하기 위해 주거지의 전개와 문화, 취락의 성격과 전개양상 등을 검토한 결과이다. 취락자료를 활용하여 삼한시대 진한지역의 주거문화, 취락 구조, 읍락(邑落)과 국(國)의 양상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으나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와 달리 세밀하고 분석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 취락의 변천 양상은 통시적 변화의 흐름만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특히 시간과 공간에 따른 취락의 겉모습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변화에 내포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와 해석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한편, 주거지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도 부족했다. 영남지방은 삼한시대 생활유물에 대한 세부적인 편년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변한, 마한 등의 주변 지역 자료를 추가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사료(史料)>

『三國志』魏書 東夷傳
『三國史記』新羅本紀
『晉書』肅慎氏條
『禮記』券9 禮運
『日本書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https://db.history.go.kr>).

<논문 및 단행본>

- 강동석, 2019, 「GIS를 이용한 가락국 「국읍」의 경관 분석과 해석」, 『한국고고학보』 13, 한국고고학회.
- 강정미, 2011, 『기장 가동 취락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권구, 2012,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 環溝)에 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6, 한국상고사학회.
- 김권구, 2016a, 「영남지역 읍락의 형성과 변화-경주·경산·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2, 한국고대사학회.
- 김권구, 2016b,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위계형성」,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영남문화재연구원.
- 김권일, 2009, 「경주 황성동유적 제철문화에 대한 연구」, 『영남문화재연구』 22, 영남문화재연구원.
- 김권일, 2020, 『고대 영남지역 제철기술의 고고학적 연구』,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환, 2015, 「원삼국~삼국시대 경산 임당 I 지구 주거지 연구」, 『영남문화재연구』 28, 영남문화연구원.
- 김나영, 2007, 『영남지역 삼한시대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7, 「영남지역 삼한시대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 『영남고고학』 43호, 영남고고학회.
- 김나영, 2009, 「영남지방 원삼국시대의 주거와 취락」, 『영남지방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요지문, 영남고고학회.
- 김나영, 2009, 「경주 황성동 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 『영남문화재연구』 22호, 영남문화재연구원.
- 김나영, 2015, 「초기철기·원삼국시대 II. 취락과 주거지」, 『영남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나영, 2020, 「부산지역 고대 주거의 변화양상」, 『부산의 삼국시대 마을』, 정관박물관 학술총서.

- 김나영, 2021, 「가야 건물지 구들의 분포와 성격에 대한 토론문」, 『가야의 주거문화』, 2020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국립김해박물관.
- 김나영 · 이진영, 2021, 「삼한 · 삼국시대 영남지역 4주식 방형계 주거지 연구」, 『중앙고고연구』 제35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나영, 2023, 「울산지역 삼한시대 취락의 전개양상」, 『영남고고학』 95호, 영남고고학회.
- 김두철, 2000, 「제사고고학의 연구성과와 과제」, 『고고학의 새로운 지향』 제4회 부산북천박물관 학술발표회.
- 김동훈, 2004, 『한국 터널식 노시설에 관한 시론-철기시대와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태, 2019, 「집모양 토기를 통한 삼국시대 주거건축복원 기초연구」, 『영혼의 안식처 집모양 토기』, 2019 정관박물관 학술총서, 정관박물관.
- 김성태, 2003,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수혈의 용도에 관한 일고」, 『영남문화재연구원』 16, 영남문화재연구원.
- 김세기, 1994, 「황성동 원삼국 취락지의 성격」, 『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김승옥, 2004, 「전북지역 1~7세기 취락의 분포와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4, 한국상고사학회.
- 김영민, 2006, 「삼한시대 재고」, 『석헌 정징원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부산고고학연구회 논총간행위원회.
- 김용성, 2011, 「신라 형성기 묘제와 경주지역 사회」,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김은정, 2007, 「전북지역 원삼국시대 주거지 연구」, 『호남고고학보』 26, 호남고고학회.
- 김은정, 2017, 「마한 주거 구조의 지역성」, 『중앙고고』 24,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용성, 2011, 「신라 형성기 묘제와 경주지역 사회」,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김왕직, 2007, 『알기쉬운 한국 건축 용어 사전』, 동녘.
- 김진철, 2008, 『삼국시대 타원형 수혈주거지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역, 2000, 「삼국시대 시지취락의 전개과정과 성격」, 『영남고고학』 27, 영남고고학회.
- 김창역, 2009, 「영남내륙지역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영남지방 원삼국 ·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김창역, 2011, 「신라 형성기의 주거와 취락」,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김현, 2006, 「남해안 쪽구들 주거지 등장에 대한 소고-늑도주거지를 중심으로」, 『석헌 정징원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부산고고학연구회 논총간행위원회.
- 김호상, 2011, 「신라 형성기의 생산유적」,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김효정, 2021, 「세형동검문화 청동기기의 의미 복원 연구」, 『고고광장』 28, 부산고고학연구회.
- 공봉석, 2008, 「경남 서부지역 삼국시대 수혈건물지의 구들 연구」, 『한국고고학보』 66호, 한국고고학회.
- 공봉석, 2013, 「영남지방 원삼국 · 삼국시대 주거」,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문, 한국고고학회.
- 공봉석, 2014, 「신라의 주거와 취락」, 『신라고고학개론 상(上)』, 중앙문화재연구원: 진인진.
- 공봉석, 2015a, 「신라 · 가야 취락의 분화와 전개」, 『영남고고학』 73, 영남고고학회.

- 공봉석, 2015b, 「영남지역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부산 가동-부산 청강 · 대라리, 부산 고촌유적을 중심으로」, 『정관박물관(개관 기념도록)』, 정관박물관.
- 곽종철, 1988, 「편년표작성을 위한 방법적 사례의 정리」, 『고대연구』.
- 권귀향, 2012, 「낙동강 이서지역 삼국시대 주거지의 전개양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주현, 2000, 「가야의 생활문화(2)-주거문화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17 · 18,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 권주현, 2002, 「진·변한의 생활과 문화」, 『진 · 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권용대, 2016, 「신화리 유적의 삼한 · 삼국시대 묘제」, 『울산의 시작, 신화리-땅속에서 만난 새로운 역사』, 울산대국박물관 2016년 제2차 특별전 도록, 울산대국박물관.
- 권용대, 2018, 『울산의 고분과 고대사회』, 서경문화사.
- 권오영, 1996, 『삼한의 「국」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태용, 2011, 「경산 임당유적 취락연구-F지구를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56, 영남고고학회.
- 문창로, 2016, 「동예의 음악과 사회상-:불내예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1, 한국고대사학회
- 문창로, 2019, 「'삼한 신앙과 의례' 연구의 동향과 과제-소도 관련 전승을 중심으로」, 『삼한의 신앙과 의례』, 2019년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01, 국립김해박물관.
- 박강민, 2004, 『삼한시대 주거지 내 부뚜막과 구들시설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신, 2018, 「원삼국시대 중부지역과 영남지역의 내륙 교역」, 『고고광장』 23, 부산고고학연구회.
- 박지웅, 2014, 「호서 · 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 연구」,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 박진일, 2022, 『삼한의 고고학적 시 · 공간』, 진인진.
- 배덕환, 2005, 「선사 · 고대의 지상식 건물」, 『동아문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송만영, 2013,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 신경철, 1982, 「부산 · 경남출토 와질계토기」, 『한국고고학보』 12, 한국고고학회.
- 신경철, 1995, 「삼한 · 삼국시대의 동래」, 『동래구지』, 부산광역시동래구.
- 신경철, 2013, 「삼한시대문화와 울산」, 『삼한시대 문화와 울산』, 2013년 울산문화재연구원 학술대회, 울산문화재연구원.
- 신준섭 · 이야진, 2013, 「기장지역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검토」, 『기장 장안인의 옛 흔적-기장 명례 일반산업단지 발굴조사 기념도록』, 울산문화재연구원 외.
- 신영애, 2011, 『영남지방 점토대토기 단계 문화접변』,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연식, 2013, 「호서지역 사주식주거지연구」,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 서현주, 2013, 「마한 · 백제 사주식주거지의 의미와 과제」,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 송기호, 2006, 『한국 고대의 온돌-복옥저, 고구려, 발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안재호, 1994, 「삼한시대 후기와질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 14, 영남고고학회.
- 안재호, 2000, 「창원 다호리유적의 편년」, 『한국고대사와 고고학-학산김정학박사송수기념논총』, 학연문화사.
- 안재호 · 홍보식, 1998, 「삼한시대 영남지방과 북구주지방의 교섭사 연구-병행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1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안재호, 2020, 「하대 목곽묘집단의 사회적 위상」, 『울주연구: 우시산국 실존을 증명하다』, 18, 울주문화원 부설 울주향토사연구소.
- 양지훈, 2014, 『호서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병록, 2009, 「삼국시대 낙동강하류역 및 남해안취락의 특성」, 『영남지방 원삼국 ·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유병록, 2010, 「최근 성과로 본 영남지역 4~5세기 삼국시대 취락」, 『日韓聚落の研究』, 제4회 한일취락연구회 공동연구회.
- 유병록, 2013, 「창녕 계성리마을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창녕 계성리에 찾아온 백제사람들 이방인의 꿈』, 창녕군 · 창녕박물관.
- 윤은식, 2016, 「2~4세기 경주지역 목곽묘의 위계와 시공적 변화」, 『야외고고학』 26, 한국문화유산협회.
- 윤은식, 2021, 「지역과 지구별 집단의 위계 변동으로 본 사로국의 진한 통합」, 『야외고고학』 41, 한국문화유산협회.
- 이민석, 2003, 『한국 상고시대의 노시설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길, 2000,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성주, 1999, 「진 · 변한지역 분묘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 24, 영남고고학회.
- 이성주, 2016, 「복합사회 형성과 발전에 대한 고고학 연구」, 『진 · 변한 ‘국’의 형성과 발전』,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이성주, 2018, 「한국 선사 · 고대의 주거와 취락」, 『마한의 마을과 생활』, 학연문화사.
- 이수정, 2022,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유물로 본 의례」, 『영남문화재연구』 32, 영남문화재연구원.
- 이수홍, 2007, 「동남부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편년 및 지역성」, 『영남고고학보』 40, 영남고고학회.
- 이수홍, 2010,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취락」, 『마한 · 백제 사람들의 주거와 삶』, 중앙문화재연구원 창립 10주년 · 국립공주박물관 개관 70주년 기념도록.
- 이수홍, 2019,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지역상」, 『청동기학보』 24, 한국청동기학회.
- 이양수, 2022, 「경주 탑동 목관묘 출토 청동기로 본 대외관계와 피장자의 성격」, 『중앙고고』 39, 중앙문화재연구원.
- 이영철, 2014, 「고대 취락의 제사」,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이영철, 2018, 「마한의 마을 구조」, 『마한의 마을과 생활』, 학연문화사.
- 이원태, 2013, 「경북지역 전기 와질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한국고고학보』 86, 영남고고학회.
- 이원태, 2022,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토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종철, 2018, 「입주목 · 솟대 제의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시론」, 『한국고고학보』 제106집, 한국고고학회.
- 이재현, 2003, 『진 · 변한사회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현, 2016, 「진 · 변한 ‘국’의 형성과 발전」, 『진 · 변한 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이창희, 2005, 『삼한시대 남해안의 일상토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희, 2016, 「삼한 · 삼국시대 신화리 유적의 취락」, 『울산의 시작, 신화리-땅속에서 만난 새로운 역사』, 울산대국박물관 2016년 제2차 특별전 도록, 울산대국박물관.
- 이청규, 2001, 「원삼국시대 전기의 경주와 주변지역간의 교류-토기와 청동기를 중심으로」, 『국가형성기 경주와 주변지역』 제25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요지, 한국상고사학회.
- 이청규, 2005, 「사로국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신라문화학술제논문집』 26.
- 이청규, 2015, 「청동기~원삼국시대 사회적 변천」,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학연문화사.
- 이청규, 2019, 「수장의 개념과 변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영남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 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이청규, 2022, 「사로국의 고고학적 기원: 무덤을 중심으로」, 『경주 탐동유적을 통해 본 사로국과 신라』, 2022년 소규모국비지원 발굴조사성과 학술대회, 한국문화재단.
- 이희준, 2000, 「삼한 소국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43, 한국고고학회.
- 이희준, 2002, 「초기 진 · 변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진 · 변한사 연구』, 경상북도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이희준, 2011a, 「경주 황성동유적으로 본 서기전 1세기~서기 3세기 사로국」, 『신라문화』 제38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이희준, 2011b, 「고고학의 신라 형성기 사회 연구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논의」,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이현혜, 1984, 『삼한사회 형성과정 연구』, 일조각.
- 이현혜, 2016, 「제 4장 진한연맹체와 사로국」, 『신라의 건국과 성장』 02, 경상북도.
- 이현혜, 2022, 『마한 · 진한의 정치와 사회』, 일조각.
- 이형우, 2002, 「진 · 변한 제국의 위치와 존재양태」, 『진 · 변한사연구』, 경상북도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이형원, 「삼한 소도의 공간 구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백제학보』 24, 백제학회.
- 임영옥, 2000, 『영남지방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동재, 2005, 『삼한시대 경주 황성동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경, 2019, 「역사적 실체와 관념적 인식의 사이에서」, 『호서의 마한』 특별전 도록, 국립청주박물관.
- 우가은, 2013, 『영남지역 후기와질토기의 지역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승환, 2021, 「온돌 기원지 연구」, 『중앙고고』 34, 중앙문화재연구원.
- 윤형준, 2011, 「목관묘 등급을 통해 본 삼한 전기 계층사회」, 『고문화』 7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위양근, 2016, 『경남지역 가야시대 주거지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운식, 2001, 『3세기대 동해 남부 지역 토기 양식의 형성과 변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운식, 2021, 「지역과 지구별 집단의 위계 변동으로 본 사로국의 진한 통합」, 『야외고고학』 41, 한국문화유산협회.

- 장기명, 2019, 「철기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장용석, 2002, 『경산 임당유적의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용석, 2012a, 「고고자료를 이용한 2~4세기 임당 중심읍락의 내부구조 검토」, 『인류학 고고학 논총』, 영남대학교문화인류학과 개설 40주년 기념논총, 학연문화사.
- 장용석, 2012b, 「고고자료로 본 임당 중심읍락의 제 양상」, 『영남문화재연구』 25, 영남문화재연구원.
- 전옥연, 1998, 『영남지역에 있어서 후기와질토기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현, 2013, 「경남지역 삼국시대 방형계 수혈주거지 연구」, 『문물연구』 23,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 정일, 2006, 「전남지역 4주식 주거지의 구조적인 변천 및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54, 한국상고사학회.
- 정일, 2014, 「영남지역 출토 영산강유역 마한계 문물(文物)의 변화양상」, 『전남고고』 7, 전남문화재연구원.
- 정현석, 2016, 「울산지역 삼국시대 주거지의 전개양상」, 『삼국 · 통일신라시대의 울산』, 2016년 울산문화재연구원 학술대회, 울산문화재연구원.
- 조성원, 2016, 「4~5세기 경남지역 취락 출토 연질토기의 지역성 검토」, 『고고광장』 19, 부산고고학회.
- 조성희, 2020, 『3~7세기 전북지역 취락의 고고학적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보돈, 1995, 「삼한시대의 대구」, 『대구시사』, 제1권 통사.
- 주보돈, 2011, 「진한에서 신라로」, 『신라형성기의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전호태, 2021, 「울산 천전리 각석과 신성공간」, 『역사와 세계』 60, 효원사학회.
- 정주희, 2019, 「영남지방 고식도질토기 지역 양식의 형성과 전개」, 『한국고고학보』제112집, 한국고고학회.
- 정주희, 2020, 「부산지역 삼국시대 마을 유적 출토 토기의 검토」, 『부산의 삼국시대 마을』, 정관박물관.
- 정효은, 2016, 「경남서부지역 삼국시대 생활용 토기의 변천과 의미」, 『영남고고학』 75, 영남고고학회.
- 정효은, 2019, 「거창 송정리 취락 유적 생활용 토기에 대한 검토」, 『신라문물연구』 12, 국립경주박물관.
- 추연식, 1994, 「취락고고학의 세계적 연구경향」, 『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취락연구회, 2004, 「Ⅲ. 수혈건물지의 각종 부속시설」,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
- 최경규, 2004, 『1~3세기 경주 황성동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현, 2016, 「경주 월성과 신라 왕성체제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98, 한국고고학회.
- 한옥민, 2019, 「고고자료로 본 마한 의례」, 『삼한의 신앙과 의례』, 2019년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01, 국립김해박물관.
- 한옥민, 2020, 「고분자료에 보이는 마한 입주의례 성격」, 『호남고고학보』 66, 호남고고학회.
- 하주원, 2018, 「원삼국시대 낙동강 하류 지역의 주거지 전개」, 『영남고고학』 80, 영남고고학회.
- 하진호, 2012, 「임당유적 취락의 형성과 전개」, 『영남문화재연구』 25, 영남문화재연구원.

- 함순섭, 2008, 「영남지방 삼한 · 삼국시대 살림집의 복원연구」, 『동원학술논문집』, 국립중앙박물관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허진아, 2018, 「호서-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 등장 과정과 확산배경」, 『한국고고학보』 108, 한국고고학회.
- 홍경희, 1985, 『촌락지리학』, 법문사, 서울.
- 홍보식, 2013, 「삼국시대의 이주와 생활유형」, 『한국고고학보』 87, 한국고고학회.
- 황인호, 2022, 「신라 도성 내 국가제의 공간 연구 - 경주 나정 유적을 중심으로 -」, 『신라사학보』 56, 신라사학회.

<도록 및 자료집>

- 국립김해박물관, 2004, 『한국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자료집』.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2, 『옹관고분사회 주거지』, 조사연구보고서.
- 국립청주박물관, 2019, 『호서의 마한-미지의 역사를 깨우다』 특별전 도록.
- 국립청주박물관, 2020, 『한국의 청동기문화 2020』, 2020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도록.
- 경상북도, 2016, 『사로국시기 건국과 성장』 01 자료집,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 복천박물관, 2009, 『신의 거울 동경』, 2009년 복천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 정관박물관, 2019, 『영혼의 안식처 집모양토기』, 2019 정관박물관 학술총서.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신라 형성기의 유적』.

<유적 보고서>

- 김정문, 「세죽리유적 발굴중간보고(1)」, 『문화유산』 64년 2호.
- 김영우, 「세죽리유적 발굴중간보고(2)」, 『문화유산』 64년 3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월성해자-고찰-』.
- 공봉석 · 부경문물연구원, 2017, 「V. 고찰」, 『거창송정리유적IV』.
- 권태용, 2008, 「IV. 고찰」, 『함안 오곡리 87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합천 영창리유적』
- 경남고고학연구소, 2010, 『김해 구산동유적 IX · X』.
- 경남문화재연구원, 2011, 『산청 하촌리 유적II』.
- 경남문화재연구원, 2014, 『기장 동백리유적』.
- 경상문화재연구원, 2020, 『진주 예상리 · 예하리유적 1~3』.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V. 고찰」, 『포항 호동유적VIII』.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V. 고찰」, 『대구 달성 평촌리 · 예현리』.
- 唐洪源 · 周傳波, 1994, 「東豐縣石大望遺址考古調查」, 『遼海文物學刊』 1.
- 대동문화재연구원, 2023, 「V. 고찰」, 『경주 천군동 큰마을유적II』.
-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18, 『부산두구동취락-상 · 중 · 하』.
- 동서문물연구원, 2009, 『함양 우명리유적-함양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 부경문물연구원, 2014, 「V. 고찰」, 『양산명동유적』.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9, 「V. 고찰」, 『늑도주거지』.
- 부산대학교박물관, 2002, 『김해 대청유적』.
- 이강승 · 박순발 · 성경용, 1996, 『천안 장산리 유적』, 충남대학교박물관.
- 이양수 · 김지현, 2012, 「V. 고찰-울산 창평동 810번지 유적 2호 목관묘 출토 환경에 대하여-」, 『울산 창평동 810번지유적』, 울산광역시 · 우리문화재연구원.
-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IV. 고찰」, 『경산임당동유적 I - F, H지구 및 토성』.
- 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V. 고찰」, 『경산 임당동 환호유적-경산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I 지구) 경산 임당동 208번지』.
- 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V. 고찰」,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I』.
- 우리문화재연구원, 2008, 『창녕 골프장 예정지내 창녕 계성리 유적』.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V. 고찰」,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
- 우병철 · 김민철 외, 2010, 「V. 고찰」, 『경산 임당동 환호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천상리평천유적』.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V. 고찰」, 『울산달천유적-3차 발굴조사』.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VI. 고찰」, 『울산장현동유적IV』.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VI. 고찰」, 『울산교동리유적IV』.
- 울산문화재연구원, 2021, 「울산 옹촌 곡천지구도시개발사업부지내 유적 약보고서」.
- 정찬영, 1974, 「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사회과학출판사.
- 정찬영, 1983, 「압록강 · 독로강류역 고구려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13, 과학 · 백과사전 출판사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VI. 고찰」, 『경주 나정』.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V. 고찰」, 『청원 연제리유적』.
- 충북대학교박물관 · 충청대학교박물관 · 중원문화재연구원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한국 선사문화연구원 ·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 『청주 송절동 유적XIII』.
- 한남대학교박물관, 2006, 「제2부 분석과 고찰」, 『진천 삼릉리 · 산수리토기 요지군』.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 유적IV-수혈, 지상건물지, 토광, 목조물, 정-』.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2, 『연기 대평리유적-고찰 및 분석-』.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6, 「IV. 맺음말」, 『대구 신서동, 대림 · 사복동 유적/ 경산 평사리 유적』.
- 황기덕, 1984, 『조선 원시 고대사회의 기술발전』, 과학 · 백과사전 출판사.

* 이외 유적 보고서 출처는 [표 2-1~7], [표3-2]에 표기

Abstract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Jinhan Region during the Three Hans Period

Kim, Na-Young

This study focused on the settlements of Jinhan region, which is an important mother of Silla settlements, and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ettlement patterns of Saroguk and surrounding small countries. To this end, we approached Jinhan regional villages in terms of consultation and broad meaning of the village by utilizing archaeological and literature materials.

The period of settlement in the Jinhan region is divided into periods I to IV. The cover of the first period is circular clay band earthenware, dated from the latter half of the 4th century B.C. to the 3rd century B.C. The cover of the second period was a triangular clay belt earthenware, dating from the 2nd century B.C. The cover of the III period is early soft Grayish Pottery, and the ages are from the early B.C. 1st century to the mid A.D. 2nd century. The cover of the IV period is tile the late Soft Grayish Pottery, and the ages are A.D. 2nd century later to A.D. 4th century early and early.

The dwelling in Jinhan region are divided into pit dwellings and ground-type building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floor. In the Jinhan region of the Three hans period, foreign cultures have flowed in amid various social changes since the Bronze Age, and the pit dwelling culture has also changed. In other words, during the Jinhan Formation Period, existing Bronze Age residences and foreign immigrant residences coexist or blend the two residential cultures. In the early circular clay earthenware culture stage, there are many forms of pits that show or are not shaped with simple structures with facility-free fireplaces in planar circular or square systems. Later, as we enter the triangular clay belt earthenware stage of the 2nd century B.C., square residential areas from the previous period became established as local residential culture. In the early 1st century B.C., Gudeul residential areas made of stone in a circular form flow into Gyodong-ri ruins in Ulsan and Pyeongchon-ri ruins in Dalseong, Daegu, through a wide trade network connecting the southern coast and Nakdonggang River water system to inland

Yeongnam. Stone-made gudeul facilities in circular dwellings are gradually made using clay to suit the loc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and become prevalent as a residential culture in Jinhan region. In the late 2nd century A.D., new flat square dwellings emerged around the ruins of Hwangseong-dong, Gyeongju, and spread around the central and eastern regions of Yeongnam. In the middle and late 3rd century A.D., the residential areas of Jinan and Byeonhan were clearly differentiated, and the locality of residential culture was divided into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Yeongnam, the western part of Yeongnam, and the southern coast.

Newly found rectangular four-post residential areas in the Jinhan region are divided into four-post and four-post + wall-post dwelling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illar holes. Similar forms to the four-week + wall-column square dwelling type were identified at Hwangseong Historic Site in Gyeongju in the 3rd century. As a result of Saroguk mutual networking with Hoseo Mahan area, there are several aspects such as trade and exchange It's identified in material materials. From the middle and late 3rd century, the residential forms of Jinhan and Byeonhan regions are differentiated. The reason and background should be found in the part where Jinhan accepted square four-column residential culture in relation to network and interaction with Mahan.

The types of settlements in the Jinhan region are largely divided into central settlements and peripheral settlements. The central settlement is divided into upper settlements and lower settlements, and the surrounding settlements are divided into general settlements and special functional settlement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The development of Jinhan regional settlements appears as formation, settlement, fluctuation and growth,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depending on the period. The settlement in the I period is marked by circular clay band earthenware and can be said to be the formation period of the Jinhan settlement. As immigrants flowed into the Jinhan region, it can be seen that they coexisted and fused with the culture of the existing local people, such as their dwelling sites and tombs. The cover of the settlement in the I period is circular clay band earthenware and can be said to be the formation period of the Jinhan settlement. As immigrants flowed into the Jinhan area, it can be seen that they coexisted and fused with the culture of the existing local people, such as their dwelling sites and tombs. Tombs continue the tomb system culture that has been used since the Bronze Age, such as stone coffin tombs and jar coffin tombs. The cover of the settlement in the I period is triangular clay-belt earthenware, followed

by the influx of immigrants to form small-scale settlements and settlement is carried out.

The cover of the settlement in the III period is early soft Grayish Pottery, and it can be seen that the settlement has grown, reorganized, and change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New cultural elements emerge in residential areas, tombs and other facilities. The cover of the settlement in the IV period is late soft Grayish Pottery,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time when the settlements of Jinhan region is differentiated and developed. In the IV period, large-scale central ancient tombs were created in the Hadae site in Ulsan and Okseong-ri site in Pohang, large-scale central settlements were built in Gyodong-ri, Ulsan and Imdang sites in Gyeongsan, and large-scale special function settlements were established around the Hwangseong-dong site in Gyeongju and Jungsan-dong site in Ulsan.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were various changes in euprak(邑落) and states(國).

In the Jinhan region of Phases I and II, it can be concluded that settlements at that time existed in small-scale euprak unit, based on the fact that no influential individuals were identified and no large-scale central settlements were identified. Range is estimated to be about 5 kilometers. In the III period, a tomb believed to be the chief was built in Jinhan region from around the 1st century B.C., and considering the appearance of special functional villages in and around the central village, it is believed that a small state was established. The size and scope of the state differed between large and small countries, so it was considered to have been fluid rather than fixed depending on the time of year. In the mid-to-late 3rd century A.D., the distribution of upper and lower states among states and unit towns, as well as the center and surrounding villages is noticeable. In the mid-to-late 3rd century AD, the pattern of distribution between upper and lower settlements in the Gukeup and unit-euprak, as well as between the central and peripheral settlements, appears remarkably.

[Key words]

Three Hans Period, Jinhan Region, pit dwelling site, ground-type building site, dwelling culture, Settlement, central settlement, surrounding settlement, euprak(邑落), Gukeup(國邑)